

2020 스밈과 번집의 인문학 축제

# 제11회 문예창작 공모전집

한림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여는글 .....	11
-----------	----

<시 부문>

[국어국문학전공 20171024 나지수] 달이 뜨는 이유 (최우수상) .....	13
[사회학과 20191540 황세원] 밥 핀다 (우수상) .....	14
[중국학과 20181504 김민진]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해 (우수상) .....	15
[빅데이터과 20165133 방승원] 너 (우수상) .....	16
[의과학융합전공 20186530 허지원] 꿈들이 옮겨가는 것에 관하여 (장려상) .....	17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3 장창환] 지나간 자리 (장려상) .....	18
[국어국문학전공 20161117 변진희] 봄꽃 (장려상) .....	19
[사회복지학과 20191096 정지원] 꽃 .....	20
[사회복지학과 20191096 정지원] 유리창 .....	21
[사회복지학과 20191096 정지원] 푸르른 봄 .....	22
[사회복지학과 20191096 정지원] 낙엽 .....	23
[사회복지학과 20191096 정지원] 꿈을 꾸었다 .....	24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62506 권홍비] 택배 .....	25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62506 권홍비] 내 안의 금잔화 .....	26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62506 권홍비] 택시 아저씨 .....	27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코로나 .....	28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공복 .....	29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외독(外毒) .....	30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시험 기간 .....	31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급똥과 지사제 .....	32
[중국학과 20181504 김민진] 불면증 .....	33

[중국학과 20181504 김민진] 관계 정리 .....	34
[중국학과 20181504 김민진] 폭염 .....	35
[중국학과 20181504 김민진] 무지개의 저편으로 .....	36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굴레 .....	37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그리움의 거리 .....	38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옥잠화와 나 .....	39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난장이의 기도와 이상 .....	40
[간호학과 20206233 박민경] 과제 .....	41
[간호학과 20206233 박민경] 그리움 .....	42
[간호학과 20206233 박민경] 과거에게 현재가 .....	43
[간호학과 20206233 박민경] 안부 .....	44
[간호학과 20206233 박민경] 살 .....	45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4 최동희] 금붕어 .....	46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4 최동희] 보석 .....	47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4 최동희] 액자 .....	48
[바이오메디컬학과 20203641 전승민] 향수 .....	49
[바이오메디컬학과 20203641 전승민] 동백꽃 .....	50
[바이오메디컬학과 20203641 전승민] 발자취 .....	51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촛불 .....	52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야경 .....	53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承 .....	54
[사회복지학과 20182321 김지수] 이어폰 .....	55
[사회복지학과 20182321 김지수] 길고양이의 죽음 .....	56
[사회복지학과 20182321 김지수] 은행 .....	57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遺傳 .....	58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스무 해의 유년(幼年) .....	59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遐恩 .....	60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바다 .....	61
[사학전공 20161062 윤우진] 원,망(圓望)하다 .....	62
[사학전공 20161062 윤우진] 연 .....	63
[사학전공 20161062 윤우진] 묻는다 .....	64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9 임소운] 낙엽 눈이 내려 소복이 쌓이는 때 .....	65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9 임소운] 빈자리 .....	66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9 임소운] 잔해 .....	67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영원1 .....	68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영원2 .....	69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영원3 .....	70
[국어국문학전공 20161117 변진희] 그럼에도 무료는 여전히 무료다 .....	71
[국어국문학전공 20161117 변진희] 도 차 .....	72
[국어국문학전공 20161117 변진희] 등진 이를 배웅하는 일 .....	73
[국어국문학전공 20161117 변진희] 평행을 달리던 마음 .....	74
[식품영양학과 20173813 김지홍] 포옹의 온도 .....	75
[식품영양학과 20173813 김지홍] 간지럼 .....	76
[식품영양학과 20173813 김지홍] 마음도 시차가 있습니다 .....	77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물감 .....	78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잿빛 추억 .....	79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파도 .....	80
[사회학과 20191540 황세원] 마른 익사 .....	81
[사회학과 20191540 황세원] 마른 익사2 .....	82
[금융재무학과 20173111 남유진] < 비밀게시판 .....	83
[금융재무학과 20173111 남유진] A-Live .....	84
[금융재무학과 20173111 남유진] 무심 .....	85
[금융재무학과 20173111 남유진] 여름 .....	86
[금융재무학과 20173111 남유진] 알아주지 못할거면 안아주지 마세요 .....	87

[인문학부 20201085 이준선] 이별 .....	88
[인문학부 20201085 이준선] 길가에 꽃들도 다 그렇게 피더라 .....	89
[인문학부 20201085 이준선] 어쩌면 너에게 필요했던 말 .....	90
[인문학부 20201085 이준선] '당연'이란 단어 .....	91
[인문학부 20201085 이준선] 겨울 향기 .....	92
[국어국문학전공 20181020 김예은] 산다는 것 .....	93
[국어국문학전공 20181020 김예은] 손목 .....	94
[국어국문학전공 20181020 김예은] 화살 .....	95
[국어국문학전공 20181020 김예은] 한그루 사랑 .....	96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3 장창환] 아가에게 .....	97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3 장창환] 복숭아 .....	98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3 장창환] 힘들었던 시간 낙서를 하며 .....	99
[인문학부 20201081 이재찬] 조소 .....	100
[인문학부 20201081 이재찬] 꿈 .....	101
[인문학부 20201081 이재찬] 감사 .....	102
[국어국문학전공 20171024 나지수] 검은 길 .....	103
[국어국문학전공 20171024 나지수] 소음 .....	104
[국어국문학전공 20171024 나지수] 꽃의 종말 .....	105
[사회학과 20202234 이송하] 춘향이의 그네 .....	106
[사회학과 20202234 이송하] 소나무 .....	107
[사회학과 20202234 이송하] 단풍 .....	108
[사회학과 20202234 이송하] 겨울의 고가옥 .....	109
[빅데이터과 20165133 방승원] 달 .....	110
[빅데이터과 20165133 방승원] 나 .....	111
[빅데이터과 20165133 방승원] 만남 .....	112
[러시아학과 20201710 박예솔] 감사합니다 .....	113
[러시아학과 20201710 박예솔] 방울방울 .....	114

[러시아학과 20201710 박예솔] 마시멜로우 이야기 .....	115
[러시아학과 20201710 박예솔] 간장, 된장, 고추장 .....	116
[국어국문학전공 20171070 이예림] 회합 주기 .....	117
[국어국문학전공 20171070 이예림] 시간여행 .....	118
[국어국문학전공 20171070 이예림] 노스텔지어 .....	119
[국어국문학전공 20171070 이예림] 작별인사 .....	120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전시관 .....	121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인공위성 .....	122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꿈 .....	123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나의 꿈은 .....	124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겨울 .....	125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지하철 .....	126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춘천 .....	127
[법학과 20172726 방혜린] 스며든다는 것은 .....	128
[법학과 20172726 방혜린] 물감 .....	129
[법학과 20172726 방혜린] 낙엽 .....	130
[철학전공 20181063 윤의해] 금요일 1시 .....	131
[철학전공 20181063 윤의해] 흔들리는 몸 .....	132
[철학전공 20181063 윤의해] 신의 모습 .....	133
[법학과 20182713 김송이] 화형식 .....	134
[법학과 20182713 김송이] 고엽 .....	135
[법학과 20182713 김송이] 애정의 형태 .....	136
[중국학과 20201525 이나경] 스무살 봄 .....	137
[중국학과 20201525 이나경] 스무살 여름 .....	138
[중국학과 20201525 이나경] 스무살 가을 .....	139
[중국학과 20201525 이나경] 스무살 겨울 .....	140
[중국학과 20201525 이나경] 나의 스무살 .....	141

[의과학융합전공 20186530 허지원] 슬픈 습관 .....	142
[의과학융합전공 20186530 허지원] 살아있다는 건 슬픈거지 .....	143
[의과학융합전공 20186530 허지원] 벗 .....	144
[의과학융합전공 20186530 허지원] 가을에 생각하는 몇 가지 외로움 .....	145
[국어국문학전공 20171093 정예빈] 나/비 .....	146
[국어국문학전공 20171093 정예빈] 작은 아이 .....	147
[국어국문학전공 20171093 정예빈] 스마트폰 .....	148
[융합인재학부 20206523 정수연] 소화기 .....	149
[융합인재학부 20206523 정수연] 달 .....	150
[융합인재학부 20206523 정수연] 마스크 .....	151
[간호학과 20206266 이수민] 들꽃 .....	152
[간호학과 20206266 이수민] 종점 .....	153
[간호학과 20206266 이수민] 가루비 .....	154
[간호학과 20206266 이수민] 함께 길을 걸으며 .....	155
[인문학부 20201089 임지영] 낡은 시간 안의 그대 .....	156
[인문학부 20201089 임지영] 탄생비화 .....	157
[인문학부 20201089 임지영] 그대를 찾습니다 .....	158
[인문학부 20201089 임지영] 진부한 결말 .....	159
[인문학부 20201089 임지영] 투박한 소원 .....	160
[인문학부 20201018 김성윤] 겨울, 그리고 집 .....	161
[인문학부 20201018 김성윤] 시계 .....	162
[인문학부 20201018 김성윤]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 .....	163
[인문학부 20201018 김성윤] 고립과 사랑 .....	164
[의예과 20206102 곽대한] 먼저 .....	165
[의예과 20206102 곽대한] 세 글자 .....	166
[의예과 20206102 곽대한] 손빨래 .....	167
[의예과 20206102 곽대한] 무제 .....	168

[바이오메디컬학과 20173633 이소현] 성숙 .....	169
[바이오메디컬학과 20173633 이소현] 무제 .....	170
[바이오메디컬학과 20173633 이소현] 겨울, 눈 .....	171
[인문학부 20201087 인서윤] 시선 .....	172
[인문학부 20201087 인서윤] 달무리 아래 .....	173
[인문학부 20201087 인서윤] 종이 비행기 .....	174
[인문학부 20201087 인서윤] 올바른 산책을 하는 방법 .....	175
[글로벌비즈니스전공 20187183 임수현] 고름 .....	176
[글로벌비즈니스전공 20187183 임수현] 망월 (望月) .....	177
[글로벌비즈니스전공 20187183 임수현] 자유 .....	178
[글로벌비즈니스전공 20187183 임수현] 모래 .....	179
[글로벌비즈니스전공 20187183 임수현] 우울증 일기 .....	180
[인문학부 20201105 최영서] 누군가의 비행기 .....	181
[인문학부 20201105 최영서] 모래시계 .....	182
[인문학부 20201105 최영서] 파리 .....	183
[인문학부 20201105 최영서] 연습장 .....	184
[인문학부 20201105 최영서] 골목길 .....	185

<소설 부문>

[중국학과 20171059 오규리] 긴머리양 (최우수상) .....	187
[철학전공 20161002 강병교] 야누스 (우수상) .....	197
[국어국문학전공 20141119 박선옥] 운명과 장난 (우수상) .....	203
[미디어스쿨 20172554 이보민] 세컨드 이방인 (우수상) .....	213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4 최동희] 눈 동 자 (장려상) .....	221
[인문학부 20201037 남수혁] 낭만주의 : 피아노 협주곡 20번 (장려상) .....	231

[간호학과 20206232 박미경] 짝퉁 (장려상) .....	240
[미래융합스쿨 20206639 정충민] 리반: 가면을 쓴 글 (신입생특별상) .....	248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내가 걷는 길 .....	255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해미] 평범한 선화씨 .....	263
[인문학부 20201029 김지민] 크레파스의 정답은? .....	271
[인문학부 20201019 김성준] 7시 57분 .....	279
[국어국문학전공 20161081 임무혁] 선문답 .....	292
[인문학부 20201025 김주영] 발목 유령 .....	297
[미디어스쿨 20202522 문시현] 소녀와 신_ 모든 것의 시작 - 프롤로그 .....	304
[국어국문학전공 2017109 문지원] 고슴도치 아이 .....	330

<비평 부문>

[국어국문학전공 20191093 정원화]	
폭력이라는 글자의 무게 <시계태엽 오렌지> 비평문 (최우수상) .....	337
[광고홍보학과 20162626 유창선]	
<특별한 불편함 속 숨겨진 의미> - 영화 '시티 오브 갓' 비평 (우수상) .....	345
[국어국문학전공 20161078 이해원]	
흔한 지렁이들의 용기 있는 반란 -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장려상) .....	351
[국어국문학전공 20161014 김예지] 꿈을 붙여넣는 BFG .....	358
[국어국문학전공 20161045 박진경] 청년세대의 욕망실현, 영화 <버닝> .....	364
[국어국문학전공 20181115 한지인] 영화 '컨테이션' -과거에서 온 경고- .....	368
공모전 심사평 .....	375

## 여는 글

올해 열한 번째 문예창작 공모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문예창작 공모전은 2010년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시작한 행사였는데 작년부터는 한림대학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많은 작품들이 들어와서 시 173편, 소설 16편, 비평 6편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중한 작품을 출품해준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활동이 제약되어 불편한 점도 많아졌지만 사색하고 글을 쓰는 데에는 오히려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도 되었을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기회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글로 이어졌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사람들을 만나 말을 하는 기회가 적어진 요즘, 글이라는 또 다른 수단이 있다는 것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생각이라도 글로 쓰게 되면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좀더 정리된 상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또한 글을 쓰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분출하지 못했던 욕구를 해소하고 감정을 정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을 종이 위에 쏟아내었을 때 활가분해지는 기분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글은 쓰는 사람에게만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은 읽는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줍니다. 코로나 시대에 도서 판매량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리적인 이동의 제약이 있을 때 문학 작품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른 세계로 떠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또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작품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인물을 보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올해 인문대 학술제는 ‘스밈과 번짐의 인문학 축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문예창작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읽으면서 드는 감정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스며들어 조용히 번져나가기 기대합니다. 요란함이 잠시 멈춘 이 시기에 우리 안에 조용히 스미고 번지는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2020년 가을  
국어국문학 전공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신서인

시 부문

[최우수상]

달이 뜨는 이유

국어국문학전공  
20171024 나지수

밤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달이 없었다

우주선 옆 자리의

긴긴 밤중에 만난 언니는  
나는 달이 좋다  
나는 달이 좋다  
하더니 끝내 달로 갔다

그때는 달이 없었는데  
우주선으로 가는 침대에 눕더니  
웃으며 안녕—했다

나이만큼 몸이 무거워져서  
오색 구슬도 천 개 별종이도  
다 버리고 어린 왕자처럼  
헐헐 날아갔다

우주선은 낮에 도달했고  
무명의 달이 떴다

간밤엔 달에서 편지가 왔다  
수취인 불명에 수신인 불명이라  
별똥별 우는 소리만 요란했다

[우수상]

밥 핀다

사회학과  
20191540 황세원

어디 방언일까  
모르나 엄마는 그리 불렀다  
밥 되고 십 분  
술 안을 쉼아주는 일

해야 고슬고슬 촉촉하니 쌀이 예쁘다고  
취사음 퍼지고는 귀신같이 십 분 뒤를 아셨다  
십 년 넘게 밥 되고 십 분 뒤를 아셨다

참쌀은 물을 많이 먹고  
콩은 그보다 더 먹으니 미리 불리고  
옥수수는 날개로 쌀 위에 올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밥 핀다

참 다단多端하다  
누군가는 시간 맞춰 수고스러워야 하는 일

시를 쓰지 않으려 해도  
누군가의 수고를 끼니마다 먹고 자라버렸다

[우수상]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해

중국학과

20181504 김민진

평소와 다름없던 날  
달라붙는 발걸음을 떼어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데굴데굴 굴러가고 싶다고  
힘껏 발을 굴러 공중으로 날아올라  
비탈진 경사를 굴러 내려가고 싶다고

생채기에 조금 쓰라려도  
주머니 속 물건들이 다 쏟아져도  
개의치 않고 멈추지 않고  
열심히 지하 끝까지 굴러가 꼭 박히고 싶다고

[우수상]

너

빅데이터과  
20165133 방승원

그냥 좋아서  
여행을 한 거고

그냥 궁금해서  
매번 들렸어.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  
조금씩 너에게 알맞은  
세상을 칠해갔고

웃는 모습이 자연스런  
내가 되어  
진한 물감을 만들고 싶었어.

충분한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너의 지도에  
세계가 그려지려면,  
그래서 여행을 하려면

너는  
척박한 땅에  
어린 소나무를  
심어야했고

나는  
깜빡했던  
색들을  
채워가야 했어.

물결이 잔잔해지면  
다시 노를 저어볼게.

[장려상]

꿈들이 옮겨가는 것에 관하여

의과학융합전공  
20186530 허지원

내 꿈이 하나씩 사라져갈 때마다  
내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 꿈이 옮겨간 건 아닐까 의심해본 적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꿈은 셀 수 없이 많은 방과 시간과 집을 가지고 있을 거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유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상상이 되려  
내가 꿈을 꺾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며칠 전 시내버스 안에서 나는 꿈이 옮겨가는 것을 목격했다  
30년 넘은 낡은 중앙시장 앞 버스정거장에  
노인 일곱이 나란히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온통 노랗고 붉은 낙엽들에 감싸진 풍경은 나를 슬프게 했다  
그들의 꿈도 나에게 옮겨온 적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본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시린 것은 꽤 타당하다

만약 죽은 사람의 꿈도 전해질 수 있다면  
이름 없는 산에 묻어진 사람들이 꾸었던 꿈은 무얼까 궁금해진다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 지은 죄를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는  
사람의 마지막 꿈도 나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 꿈을 받아먹고  
내가 삼켜서 사라진 꿈은 또 하나의 다른 꿈이 되고  
그러면 세상을 다 날아본 꿈은 구석도 알고 모서리도 알고  
랭보와 릴케와 버딜론을 지나서  
내 죽음까지 이미 스쳐온 기억의 조각일지도 모른다

그렇구나, 결국 내가 잃어버린 꿈은  
다른 사람의 목숨에서 건져졌을 수도 있다는  
낭만적인 착각이 나를 슬프게 하고 있다

[장려상]

지나간 자리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3 장창환

태풍이 오던 날 밤  
창문이 깨진 거실을 보고  
아버지는 낡은 안테나처럼  
삐걱대며 발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꿈을 삼킨  
사과나무는 도망가고 없었다  
나는 여름의 끝 바람과  
가을의 첫 바람이 들어있는  
사과 하나를 건넸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깨진 유리 조각이  
사라진 사과를 길을 가리킨다  
뭉툰 사과 한 그루가  
태풍을 맞고 자라난 아이들을  
깨우려 성큼 걸어간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그 시큼하고 아삭한 곳에  
아이가 된 아버지  
태풍의 노래 부르며 매달려 있다

[장려상]

봄꽃

국어국문학전공  
20161117 변진희

바람과 함께할 때 빛이 나는  
가볍고 투명한 스펙트럼의  
간지러운 포스라짐이 반짝 스미는  
아쉬움이 만족스런 그런 계절

묘하게 시원하고 차가운 손이  
싫지 않은 그맘때  
보송송한 이파리 저며지며  
짙어지는 산호색이 철썩  
밀려오는 맑은 아기노랑

지금은 발이 너무 시러  
야르르 미끈한 물 맺힌 보라 잎  
스치듯 밟고 싶어  
매끄덩 붕 뜨고 싶어

폭삭폭삭 빠져서 허우적대면  
사부작거리다 깨져 버리겠지

그렇게 잠시 행복에 몸부림치면  
봄꽃은 부스러져 날아가  
여름을 물고 온다

## 꽃

사회복지학과  
20191096 정지원

파아란 풀들을 밟으면 자란  
무성한 나무들 사이로  
꽃 한 송이가 자리를 지킨다

내가 꽃이오  
꽃이 여기 있소

하늘을 뒤덮는 나무들의 그늘 사이로  
꽃 한 송이가 소리를 낸다

소리를 가리려 꽃의 입을 막아보아도  
목이 꺾인 꽃은  
고개를 떨군 채로

나는 아직 꽃이오  
내가 여기 있소  
외치며

팔월의 구름을 바라본다  
십오일의 하늘을 그린다

## 유리창

사회복지학과  
20191096 정지원

나무의자에 앉아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 너머에 소년에게 말을 건다

내 시선이 그에게 닿았을 때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는다

소년의 얼굴에 빗물이 흐른다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커튼을 내렸다  
유리창을 가렸지만  
비는 내 얼굴로 와 더욱 흘러내렸다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다시 바라본 소년은  
빗방울을 단 채 찬란했다

내 걸음이 그에게 향했을 때  
그의 햇살이 나에게 와 포근하게 감싼다

나무의자에 앉아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 너머에 빗방울에게 모든 입을 맞춘다

## 푸르른 봄

사회복지학과  
20191096 정지원

겨울을 보내고 맞이한 봄은  
한없이 다채롭고  
한없이 뜨겁다

하나 둘 눈에 담는다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비들이 내 위로 날아든다

처음 맞이한 푸르름은  
도리어 나를 옥죄어 온다  
내 주위는 푸르고  
나는 온통 흰 바탕에 홀로 서 있다

나비들은 나를 짓누르고  
햇살은 나를 쏘인다  
하나 둘 벗어나려 뒷걸음친다

나는 봄의 한 가운데 있다  
난 지금 누구보다 추워온다

## 낙엽

사회복지학과  
20191096 정지원

마지막 낙엽이

툭

떨어졌다

낙엽이 떨어진 자리에는

양상한 가지가

열매를 지키고 있었다

나무에 기대어 앉아

찬란했던 나무를 떠올린다

아낌없던 나무를

떠올린다

물가 옆 나무아래

물망초가 한 송이 피어났다

물망초 한 송이가 떨어져

잔잔한 물결을 일었다

물결을 타고 낙엽이 흘러간다

## 꿈을 꾸었다

사회복지학과  
20191096 정지원

계단을 올랐다

파란 하늘이 내 곁에 머물고

검은 집들이 모습을 감췄다

계단을 올랐다

그와 함께 걸음을 옮긴다

붉은 하늘이 우리 곁에 머물고

그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계단을 올랐다

가족이 되어 하늘을 바라본다

분홍빛 하늘이 아이 곁에 머물고

더 이상 혼자도 둘도 아니다

계단을 올랐다

의자에 앉아 보랏빛에 물든다

별들이 내 곁에 머물고

그들이 슬퍼하지 않길 기도한다

꿈을 꾸는 것 같다 꿈을 꾸었다

## 택배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62506 권홍비

오늘도 하염없이 너를 기다린다

내게 남긴 너의 발자취를  
하루에도 수백 번 바라본다  
오늘 너를 볼 수 있을까 이번엔 바라본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꿈에도 그리던 너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너를 원하던 내 마음이 기다림에 바래져가는 이 순간에도

난 오늘도 하염없이 너를 기다린다

## 내 안의 금잔화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62506 권홍비

우리 집엔 화분이 늘 가득했다  
그대가 사랑한 것들이었다

난 화초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런 그대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언젠가 그대가 스치듯 말한 금잔화를  
우연히 마주친 날이면 온 맘을 다해 그대를 그린다

그대를 잊었다고 생각한 오늘  
금잔화 한 송이가 내 손에 젖어있다

## 택시 아저씨

언론방송융합미디어전공  
20162506 권홍비

너를 지긋이 바라보았다  
노을의 잔잔함, 그쯤 머물러있던  
너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네가 나에게로 다가온다  
문득 떠오르는 너와의 기억  
아닌 듯 돌아서지만  
이미 내 앞에 있는 너

내 시선이 문제였을까  
나를 보며 방긋 웃는 너  
덩달아 나도 웃는다

## 코로나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코로나,.. 이 녀석  
악독하다,.. 네 녀석

자유가,.. 없어져,..  
다 앓아가,.. 못됐어,..  
코로나,.. 사라져,..  
고로 난,.. 거리 뒤,..

## 공복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꼬르륵, 눈치를 살핀다  
옆 사람의 숨소리도  
앞사람의 다리 떠는 소리도  
크게만 느껴지는 지금  
나는 공복 상태

호로록, 라면을 먹는다  
옆에 있는 삼각김밥도  
앞에 있는 음료수도  
맛있게만 보이는 현재  
나는 포화 상태

## 외독(外毒)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쓴 법  
한잔에 넘기는 정신 영양제

내가 피운 구름 타고  
고민 들숨 한숨 날숨

성인이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이제는 우리를 누를 수 있는 것들

中毒에서 벗어난 나는, 진짜 성인

## 시험 기간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그만하자...  
다시는 보지 말자  
이젠 정말 끝이야  
너와 함께한 그 시간들  
너무 힘들었어...  
이제는 보지 말자...

또 만났네...  
잘...지냈니...?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넌...  
다시 봐도 날 괴롭게 하는구나...

## 급똥과 지사제

국어국문학전공  
20191031 김준원

갑자기 찾아와서는  
왜 소리를 지르니,..  
나에 대한 배려가,..  
나에 대한 존중이,..  
눈 찧고 찾아봐도  
안보이네,..

알겠어 알겠어  
나도 그럼 손 쓰지,..  
나도 다 방법이 있어,..  
너가 계속 그렇게  
못되게 굴면 나도  
다,.. 방법이 있어,..

## 불면증

중국학과

20181504 김민진

떨어지는 별빛 사이 몸을 숨긴 바람이

뺨을 스치듯 베고

깊게 들이마신 축축한 공기로

폐부를 적시는 오묘한 밤

오늘은 잠들고 싶지 않다

## 관계 정리

중국학과

20181504 김민진

날이 따뜻하다고 누가 그랬던가  
손마디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알싸한 시큰함이  
움직일 수도 없게 하는데

이 서러운 날에도 누군가는 웃고 있으리  
나를 알은채하지만 도로의 중앙선까지  
딱 거기까지

모래바람 휘날리는 그곳을 보아도  
내 마음은 여기까지  
손 내미는 시늬하듯  
딱 여기까지만

알고 싶지만 눈 돌리고 싶고  
다가가고 싶지만 안아 주기는 싫은  
투명한 유리 진열장  
딱 그 정도, 거기까지

폭염

중국학과

20181504 김민진

파도가 나를 핏는다  
그 위에 남은 물방울  
피하를 내뚫고 강하게 깜빡이면  
돌아간다  
발자국을 거슬러

걸음 걸음마다 피어나는 불빛  
그 빛을 입안 가득 머금고  
식도 너머 위장 너머  
아래로 더 아래로  
꿀꺽

따가웠던 태양이 포근해지고  
달아오른 저녁이 선선해지고  
달아난 어떤 하루가 다시 오기를

우리를 갈라놓은 이 선을 뛰어넘으면  
물기어린 싱그러웠던 날  
나의 여름

무지개의 저편으로

중국학과

20181504 김민진

해 뜨고 내리니 소란스러운 동네가  
꺾가에서 사근사근 눈이 감길쏘냐  
지나가는 풀꽃 하나 내 빗방울 덜어가렴  
떨구어진 모래 알갱이 세어봐야 부질없지  
나부끼는 노을 구름이 이 영화의 마지막

## 굴레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생명력 넘치는 봄 속 은행나무가 피어난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내가 피어난다.  
따뜻한 봄바람이 날 밀어주며  
넌 할 수 있다고 속삭인다.

무더운 여름 속 푸른 이파리가 풍성하다.  
푸른 이파리가 내게 활력을 불어주며  
앞길도 좋지만 그늘에서 쉬어가라고  
내게 응원을 보낸다.

화창한 가을 속 샹 노란 잎을 띄운다.  
나를 시련 속에서 버티게 지켜주며  
홀로 곳곳하게 버티어준 나무  
내가 성장한 만큼 넌 얼마나 자랐을까?

차가운 겨울 속 가지가 메마른다.  
이별을 맞이하는 나의 마지막 모습  
차가운 바람이 쓸쓸하게 만들며  
너의 수많은 나이테 중 나를 새길 수 있을까?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준  
늘 곁에서 함께 해준  
시련을 이기는 법을 알려준  
우린 다시 피어난 그곳에 서 있겠지

## 그리움의 거리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내 곁을 함께하던 친구가 떠나갔다.  
달팽이처럼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들  
빈 방 같이 공허해진 내 마음  
그리워하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4월의 꽃잎들이 웃음으로 반기며  
내 친구를 감싸 안는다.  
서로의 익숙한 모습과 목소리가  
우리의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간만에 회포를 풀며 기쁨을 나눈다.  
일상에서 꿈이 되어버린 시간들  
너도 나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이 한 없이 소중한다.

내 곁을 함께하던 친구가 떠나간다.  
총알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  
스치면 사라지는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꽃잎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를 안고  
먼 훗날 웃으며 돌아 볼 수 있는  
그는 내 영원한 친구다.

## 옥잠화와 나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나는 지금 홀로 서 있다.  
가진 것도 없이  
새카맣게 잊어버린 채  
홀로 서 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잃어 버렸는지  
영문도 모른 채  
홀로 서 있다.

저 멀리 옥잠화가 피어있다.  
아무 색깔 없이  
하이얀 빛깔을 띤 채  
홀로 피어있다.

너를 마주치면  
힐끗 눈을 흘기며  
팬스런 기억에  
너를 꺾어 간다.

## 난장이의 기도와 이상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내가 사는 세상은 죽은 땅이다.  
사랑이 없는 욕망 속  
죽은 땅을 향해 쏘아올린 작은 공

내가 자식처럼 일구어 놓은 것  
검은 가방이 송두리 채 가져간다.  
갈 길을 잃은 나는 기도한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달나라이다.  
꿈과 이상이 있는 곳  
달나라를 향해 날려 보낸 종이비행기

내가 바라던 모든 것처럼  
이 세상의 끝에서 떨어지고 만다.  
언제쯤 그 세상이 오는지

## 과제

간호학과

20206233 박민경

그만 만나자

이제 끝낼 때도 되었잖아

처음에는 재미있었어

넌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졌고

난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가

알았어 정정할게

네 탓은 하나도 없어

넌 변한 거 없어

변한 건 나야

너와의 만남에서 느꼈던 호기심은

널 떠나보낼 때의 짜릿함으로 변했어

그래 인정할게

아직도 난 너로 인해 내 빈 공간을 채워

그렇지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 그리움

간호학과

20206233 박민경

너는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해  
안 그러면 쌓이니까

처음엔 안 보인다  
점점 모이더니  
너의 존재를 외치더라

쌓일 대로 커져 버린  
너를 향한 나의

## 과거에게 현재가

간호학과

20206233 박민경

네게 묻고 싶다  
네 의도 알아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다 알아  
그렇지만 이눔아  
수습은 내가 해  
왜 그랬니

## 안부

간호학과

20206233 박민경

잘 지내?

보고 싶다

밥 먹게 나와

우리에게 당연했던

그 이야기는 당연

하지 않았음을

왜 몰랐던

것 일까

잘 지내

## 살

간호학과

20206233 박민경

안녕

올해도 또 만났네

저번보다 늘어난 걸 보니

친구들도 데려 왔구나

아 입주민이라고

어찌 되었건

편하게 있다가

너무 편하게 있진 말고

편하게 있다 가

## 금붕어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4 최동희

자침이 갈피를 헤매더니 나침반이 뒤집어졌다

짠 내를 지팡이 삼는다면 제자리에 설 수 있을까  
어쩔 수 없기에 물구나무를 서 바라보는 세상  
모든 게 뒤집힌 이곳에서 마주한 건너편에선  
조소를 금치 못하는 그들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다

나는 연옥의 상공에 떠오른, 새빨간 풍선  
비릿한 채취로 풍기는 건너편으로의 입장신고  
꿈 꿨던 소망이 하나 둘 거품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질 때쯤  
가뻐던 여정에는 마침표가 스며든다

검은 눈동자 속에서 일렁이던 꿈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들은 풍선의 꼭지에 바늘을 꽂으며  
날아가는 헬륨가스를 아쉬워한다

자침이 기능을 상실한 나침반은 가라앉았다.

## 보석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4 최동희

먼지로 뒤덮인 보석 앞에 앉았을 때  
잠깐이나마 마주할 수 있었던 광채는  
깨끗한 숨이 나를 훑는 동시에  
온데간데없이 녹아내렸다

처음 내게로 다가왔던 그 어느 날 후로  
나는 빛이 맴도는 선반과 숨이 얇은 탁자에 기대어 잠을 청했다

보석 한가운데에 잠든 내가 깨어 달아날지도 모를  
나뭇결을 타고 울리는 고동소리에  
몰래 스며들고 있던 곰팡이를 깜빡하였다

눈치 없는 솔질에 다쳐 발을 끊은 너  
내게 온기를 나눠준 숨결을 들이마셔 없앴더라면  
때가 탄 수정체 앞에서라도  
조금 더 미소 지으며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빛바랜 얼굴 위로 내린 서리가 반짝이고 있다.

## 액자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4 최동희

맑은 허공에 액자를 하나 심었다  
그림 한 폭 안에 담지 못해, 빈 틀의 안채에다가 세를 냈다  
민들레 씨앗은 서 있기가 미끄럽단다  
참새는 탁 트인 시야에 안절부절 못해 한시 바빠 떠났다  
가물치는 살짝 내민 고개를 돌려 진흙 속으로 파고들었다

액자 너머 보이는 어두운 숲 한가운데엔  
독일가문비 한 그루가 솟아올랐다  
그 끄트머리에 매달린 열매를 보며  
혀 끝 돌기에 걸쳐진 미소에 취해  
흘러나온 송진을 한 술 떠서 넘겼다

말라비틀어진 액자들에 갇혀  
시들어버린 나  
집세가 떨어지면서  
허공은 서서히 탁해지고 있다.

## 향수

바이오메디컬학과  
20203641 전승민

천고마비 가을하늘  
가을하늘 이끌려  
피어오르는 뭉게구름 연기 사이  
묻어나는 고향 냄새

바람에 몸을 맡긴 은행나무 냄새  
황금의 색으로 물든 벼 이삭 냄새  
생기 넘치는 흙 냄새  
여러 가지 고향 냄새

마주치던 사람의 향수 냄새  
내 고향 묻어나는 냄새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는 엄마 냄새  
퇴근 길 통닭 사오는 아빠 냄새  
내 고향 묻어나는 냄새

더 그리운 일별삼촌 고향 냄새  
더 뼈에 사무치는 고향 냄새  
십리 길도 천리인 고향 냄새

나의 고향, 저 먼 곳 피어오는 연기  
향수 통 담아 느끼는 가을 언저리  
냄새로 달래보는 나의 향수

## 동백꽃

바이오메디컬학과  
20203641 전승민

백두대간 산신의  
산길 따라 흘러다니는 목소리의  
비 바람 고개를 가웃거리고  
떠나간 님 만나기 위해  
생기 넘치는 저 동백꽃 수수하니  
떠나간 님 제 모습 이즐까  
산길 따라 흘러다니는 산신 목소리의  
누군가 제 염원 이뤄줄까 하여  
같이 담아 흘려보낸다 목소리를

백두대간 산신  
들리는 동백꽃 목소리 가여워  
저 동백꽃 자홍으로 여며주니  
붙어진 제 모습에  
눈시울도 붙어지나  
제 빛깔 사라질까  
눈물 흘리길 더디한다

저 동백꽃  
떠나간 님 제 모습 모를까  
걱정으로 하루를 보낸다  
저 빛과 같이 찾아올 님 기다리며

## 발자취

바이오메디컬학과  
20203641 전승민

저 먼 곳 살고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  
먼 걸음 한 귀한 손님

손님이 걸어온 길을  
알기에 눈물로  
그 발을 씻어준다

낮아지기에 높아졌고  
뒤엎기에 앞설 수 있는  
그 삶을 그 길을

나보다 남을  
쉽보다 고난을 택한  
그 걸음 그 발자취

따라가기 위해  
짐을 짊어지고  
그 발자취를 밟아간다  
가시밭길 위

촛불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그러나 뺨을 타고 흐르는 건  
함부로 닦아줄 수 없을  
아주 뜨거운,

## 야경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하늘을 밝히는 별이 사라질수록 지상의 별들은 밝게 빛납니다

스스로를 불사지르는 모든 광경을 목도합니다

항성 한명 한명마다의 불빛으로 하늘 대신 도시가 찬란합니다

오늘도 밤이 밝습니다

우리가 누리기엔 너무 부당한 광명이 아닐런지

承

사회학과  
20202238 정이슬

햇볕처럼 집요한 다정  
눈물처럼 하염없는 영광  
전부 감내할게요

지난 일이 지난(至難)하였고  
주저앉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기어온 날을 기억하는 까닭에,  
곡(哭)소리가 아닌 곡(曲)소리가 이는 목구멍이 낫선 까닭에,  
당신이 주시는 모든 걸 달게 받을 수 없겠지만  
감내할게요

절망하는 법을 잊어가는 게 두려우나  
문득 문득 솟구치는 작열감이 간지러우나  
감내할게요

그 모든 상냥함을, 그리고 당신을  
감내할게요

오롯이 기쁜 사람이 될게요  
오로지 깊은 사랑을 줄게요

## 이어폰

사회복지학과  
20182321 김지수

너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너의 마음에 이어폰을 꽂아  
너의 마음을 들어 보고 싶다

나의 마음을 이야기 하지 못할때  
나의 마음에 이어폰을 꽂아  
나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선으로 연결된 이어폰이 있었으면 좋겠다.

## 길고양이의 죽음

사회복지학과  
20182321 김지수

길거리 고양이에 눈을 돌려

사진 찍고 만지고 길을 가버린다

늦은 밤 시끄럽게 우는 고양이에  
잠이 오지 않아 이불을 귀까지 덮는다

그러다 울음이 사라져  
눈을 감았다

다음날 눈을 떠 길을 나가자  
동상처럼 얼어버린 시체가 누워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찍지도 만지지 않고  
길을 간다

## 은행

사회복지학과  
20182321 김지수

푸른 나뭇잎은 떨어지기 전에  
자신을 불태운다  
노랗게 붉게 자신을 태운다

그리고 떨어진다  
자신이 품은 알들과 함께

열매는 새로운 삶을 위해 곤두박질하고

낙엽은 떨어질 때 조차 미련이 남아  
저항을 덜 받으려 애를 쓴다

遺傳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당신을 닮지 않으려  
수 년을 발버둥쳐왔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본 냇물에  
당신 얼굴이 비춰져서  
기겁하며 풍당,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 스무 해의 유년(幼年)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이젠 정말로 그만둬야지

검게 때 타 버린 생각들이  
어그러진 낙엽이 되어 떨어질 때 즈음  
한 조각이라도 잡으려 버둥이는  
내 발치의 작은 아이

그 초롱하고 순수한 눈빛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잘 가'라는 인사는  
혀 위에서 굴러만 지다  
낙엽과 함께 허무히 스러진다

嘏恩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이제야 내 이름 세 글자를  
똑바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은혜로웠으나 부정했던,  
아름다웠으나 애써 소유하지 않았던.

괜히 다른 표현들을 옥여 넣어가며  
내 이름의 존재를 무시한 데에는  
별다른 까닭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죄책감이 드는 이유이다.

## 바다

국어국문학전공  
20191042 남하은

너랑 같이 갔던 바다는  
은빛으로 부서지던 파도가 참 예뻐지

바다는 소우주,  
그 무엇보다 넓어서  
모든 것을 품어 줄 수 있다고  
네가 그토록 좋아했는데

그 바다가 너를 품은 이후로는  
난 밀려오는 파도와 눈을 맞추기도 겁이 나  
내 눈에 바다가 고여서  
은빛으로 밀려오다 넘쳐 흐르고 말아

늦은 오후의 파도가 노을 빛으로 부서지는 이유는  
그토록 좋아했던 바다 안에  
네가 잠겨 있기 때문일 거야  
바다가 널 사랑했기 때문일 거야

원,망(圓望)하다

사학전공  
20161062 윤우진

당신이 준 건 호기심이었는데  
나에게 그물이 되었다  
당신을 원했고 망해서  
그 세상에 잡혔다

물 아래에서 너는  
내 숨이었고 동화였다

끝끝내  
내게 허락된 세상은  
손 한줌에 쥐어질 물건품이었다

내가 버린 건 삶이었는데  
당신을 잃어버렸다  
돌고 돌아 당신에게 가는 길이기를

연

사학전공  
20161062 윤우진

무수히 지나쳤던 시선들에도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해본다

스처가는 발걸음에도  
나는 없음을

바람을 날리는 하늘도  
바라보는 시선도  
질투해본다

덥석 잡으면 바스라질까봐  
소중히 했던  
미련이었다.

## 묻는다

사학전공  
20161062 윤우진

묻는다

당신을 지났던  
무수히 소리쳤던 질문들을

당신을 외쳤던  
거리의 시선들을 지나간다

세상에 던졌던  
당신들은  
누가 묻었나

심장 뛰는 날들에도  
오지못할 그 사람을  
나는 묻었다

## 낙엽 눈이 내려 소복이 쌓이는 때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9 임소윤

낙엽 눈이 내려 소복이 쌓이는 때

누군가는 아직 여름에 머무르고  
누군가는 일찍 겨울을 마주하며  
나는 지나가는 바람을 마시는 때

기억을 떨어뜨려 거리를 물들이는 행위는  
아이들의 장난처럼 미워도 밉지 않은 것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는지  
자국만이 선명하다

세탁소는 바빠져 수증기로 가득 차고  
똑같은 6시에 어둠이 내려앉고  
마트에는 과일들이 가득 채워지고

아무래도 변한 것은 옷차림뿐인데  
나는 왜 흘려서 시를 쓰고  
나무벤치를 찾게 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빈자리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9 임소윤

그림을 도둑맞은 액자  
벽에 덩그러니 걸려있다

넓은 테두리 안의 좁은 사각형은  
먼지 쌓인 아파트의 굳게 닫힌 현관문

망가진 형광등이 비추는 빈자리는  
아무도 찾지 않는 놀이터 미끄럼틀의 경사진 뒷면

커튼으로 가려진 자리엔 침묵이 놓였고,  
등 뒤의 그림은 기억나지 않는다

스치는 발길과 흘기는 눈길  
각진 공허는 회색의 암실 속으로 사라졌다

## 잔해

국어국문학전공  
20181089 임소윤

팡 팡  
환상이 떨어져 터진다

꽁 쿵  
웃음이 마주쳐 깨진다

와장창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는  
가버렸다

대차게 어질러 놓고  
해일이 닦친 듯 옆질러 놓고서는  
마침표 하나 놓고 사라지다니

그것은 꿈이었나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을 가져다  
바람 잘 드는 창문에 매달아 놓았다

남겨진 잔해들은  
비바람 불 때 짹그랑 소리  
구요히 드는 햇볕에 반짝이며 말한다  
내가 여기 있었다고.

## 영원1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영원은 없다는 말을 믿었다  
꼭 그래야만 했다  
기록하고 싶지 않았으나 기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으므로

누군가 자의든 타의든 죄수의 양상으로 방안에 갇혀 있다  
누군가 온몸을 치장한 채로 네온사인을 휘감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마스크로 가린 인류의 만면은 아는 지인도 구분하기 힘들 만큼 정말 똑같은 모습이다

뉴스는 앵무새처럼 매일 같은 비극을 이성적인 수치로 보도한다  
어느 여성은 몇 달 사이 폭삭 늙은 얼굴로 안전을 당부한다  
오래도록 썩지 않을 플라스틱이 대량으로 폐기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간혹 환상통을 앓고야 마는 사람이 있다  
그것에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이다  
집단의 불안은 세상의 불안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지구를 수렁 속으로 통째로 옥여넣을 듯하다

영원은 없다는 말을 믿었다  
꼭 그래야만 했다  
기록하고 싶지 않았으나 기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으므로

그것은 우리를 좀먹고 있다  
몇몇의 목숨을 앗아 가기도 한다  
그 끝은 어디인지 감히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처절하게 과거를 그리워하는 중이다

그것은 신의 장난인가  
그것은 고난과 가난을 부르고  
우리는 그것더러 코로나라고 부른다

## 영원2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오래 전부터 쓰고자 했던 시는  
부모 대신 부모 노릇을 한 조부모께 바치는 헌정 시이다

세상에 처음 고개를 내밀고 나서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많이 부른 아이를 보며  
노파는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언젠가 아이가 툭 내뱉은 말이  
아빠의 행방에 관한 질문이어서  
노옹은 끝끝내 입술을 열지 못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용기가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입가를 맴도는 말을 죄다 목구멍 밑으로 삼켜 버린다  
포화량의 말을 삼킨 날에는 소화하지 못하고 체할 듯한 기분이 든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이 순간만큼은 영원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오래오래 사랑하고 오래오래 미안해하기 위해서

### 영원3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수년 전에 함께 온 바다를 수년 만에 나 홀로 다시 들렀다  
당시 모래 위에 아로새긴 우리의 영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파도가 하얀 포말을 사정없이 부숴뜨리며 발치를 향해 달려들었다  
어쩌면 파도가 우리의 영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지워 버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신발이 반쯤 수몰할 때마다 과거에 반쯤 수몰하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바다와 같이 영영 파란 색채로 살아가자고 약속한 적이 있다  
그러나 바다는 때때로 하얀색이나 검은색으로 물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고요히 상념에 빠지는 동안 온몸이 푹 빠져 버릴까 봐 겁이 났다

휴대 전화 자판을 누르는 대신 모래 위를 꺾꺾 눌러 메시지를 전했다  
그저 작은 바람이 황사라도 일으켜 내가 있는 곳까지 메시지가 도달하길 바랐다  
애써 소리 내 읽어 봤자 바닷소리에 파묻혀 아무에게도 들릴 턱이 없었다  
그 시간 동안 메시지는 바닷물에 휩쓸려 속절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아침이면 하얀색으로 변하는 바다를 보내고  
저녁이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바다를 보내고  
바다를 따라 물든 메시지를 획 던질 뿐이다  
'우리가 약속한 영원의 가치는 0원이었을까'

그럼에도 무료는 여전히 무료다

국어국문학전공  
20161117 변진희

무료는 오로다  
나와 함께 태어남과 동시에 죽었다  
무료를 우려하며 되레 무료히 보냈다

무료는 무로다  
무료함의 결로는 우로함을 씻고  
야금야금 키를 키웠다

오늘도 무료를 해냈다  
무료의 유류품을 내가 가졌다

그럼에도 무료는  
여전히 무료다

## 도 차

국어국문학전공  
20161117 변진희

유달리 서둘러 찾아온 해님에  
뒤섞인 앓음들 속 바짝 선 갖이  
찌르는 색을 만나는 순간 가라앉았다

눈부심에 빈틈만 바라보다  
얼굴 맞대보겠다고 어스레 뜬 눈 바짝 들었다

결국 감기는 눈에 어른거리는 에메랄드의 구  
녹빛 노란빛 번갈아 일렁일렁 잡을 수가 없다  
눈알을 굴릴 때마다 같은 방향으로 멀어지는 통에  
무거운 바람이 휩쓸어 감싸고 가버렸다

손 잎의 청명한 흔들림과 시원한 옷차림  
자꾸만 왜곡되는 기록 가운데  
오직 짙그린 것은 머리카락 찰싹 붙은 지금의 얼굴  
이 때를 그리워하게 되는 건 성실한 베일 덕분이다

가끔은 뜨거운 더위야 반갑다  
손발톱 보래지며 실온의 드라이아이스가 되었을 때  
한김이 빠져나간 곳에 포근함이 스며드는 느낌야 반갑다

물살이 뱉어내는 찬 기운을 맞고 있다면  
새빨간 수박 한 입 베어 물고 두 팔 벌려 너를 환영한다  
곧 은근히 발 들이는 추위에 긴소매를 당기겠지만

슬쩍 찾아온 추위가 더 이상 은근하지 않을 즈음  
해 진 날의 꿈꿉하고 고소한 냄새를 구름이 가져간다  
뭉게구름일랑 없이 멀리 도망간 하늘을 앞세워  
그렇게 여름은 간다

등진 이를 배웅하는 일

국어국문학전공  
20161117 변진희

이다지도 쓸쓸한 코스모스는 내 곁을 떠나갔다  
가을과 함께, 그는 옛사람이 되었다

따스한 햇살 속에서도 다가오는 겨울 바람만이  
마음 한편을 시리게 메웠다  
참 매서웠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꺾어버린 코스모스는 꼭꼭 밟혀  
달궂어진 대지로 돌아간다고

그곳에서만큼은 따뜻하기를 바란다

## 평행을 달리던 마음

국어국문학전공  
20161117 변진희

흘러내리는 거품을 타고 스며든 생각  
난 장미 향이 싫어

육조에선 구름 탄 달이 넘실거리던데  
눈 밑은 약 다 된 전광판 같더라  
그토록 가엾게 깜빡일 바엔 고요를 맞이하든지

알다가도 모를 아이야  
아니, 우리가 알았던 적이 있던가?  
모르다가도 알 법한 아이야  
아니, 우리가 몰랐던 적이 있던가?

관심을 기울이면  
쓸데없이 웃자라는 게  
너는 선인장이구나

흙먼지가 흩날릴 때 다시 찾아갈게  
그땐 꽃을 피워주려나

## 포옹의 온도

식품영양학과  
20173813 김지홍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는 말

헤어지는 날에 알았다

뭣 모르던 내 첫 연애는

교내 단풍나무가 세 번의 탈피를 하는 동안

타인의 세계를 음미했던 것

그만하자

네 글자의 성분은 단순한데

세계에서 박탈당한 공간은 차게 쓰다

잘 지내 라는 이름의 마지막 포옹을 하고

발을 돌리는 순서가 너 다음 나였던 이유를

언젠가 궁금해한다면

너의 체온이 내 것보다 따뜻했기에

너의 손이 내 것보다 부드러웠기에 내가 먼저 놓지 못해서

내가 너를 더 좋아했기에 내가 지는 사랑이었기에

라고 멀리서 속삭이고 싶은 나의 첫사랑

## 간지럼

식품영양학과

20173813 김지홍

손가락 다섯 개로 너를 웃길 수 있는 방법  
살금살금 부드럽게 피부에 노크를 하면

등그란 모양으로 올라가는 볼두덩이  
입술 옆에 세 개나 생기는 자그마한 보조개

웃는 건 너인데  
내 마음도 간지럼을 타는 귀여운 장난

## 마음도 시차가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20173813 김지홍

머무르지 않아도 느껴지는 교감을 해보셨나요  
어떤 형태의 마음이란 때로는 시차가 존재하는 듯합니다  
아무리 맞추려 해도 내가 가는 속도에는 허용될 수 없어  
결국 한 철이 지나서야 깊어지는 파도의 흔적처럼

그것은 마치 나도 모르는 새 스며든 바깥향기 같은 거라서  
나는 눈치채지 못해도 남이 먼저 말해주는 아주 사소한 변화 같은 거라서  
내버려두기엔 애매하고 익숙해지기엔 낯선 시간 같은 거라서  
자연히 사라지더라도 언젠가 문득 기억날 아득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마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 물감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내 마음이라는  
새하얀 도화지 위에

작은 점에 불과했던  
너라는 물감이

감당할 수 없이  
번져가

어느새 너는  
새하얀 도화지를

너라는 존재로  
물들여 놓았다

## 젯빛 추억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당신과의 추억이  
나의 마음에 깊게 물들어  
아무리 지워내려고 해도

지워버릴 수도  
덮어버릴 수도 없어

그리움으로 내 마음을 태워  
추억을 하나둘씩  
재로 만들어

그것을 나는 다시  
내 마음 한편에  
당신을 새겨놓는다

## 파도

일본학과  
20191621 양석희

너라는 파도가  
내게로 물밀 듯이  
들어온다

공들여 쌓아둔  
내 안의 모래성을  
너는 그렇게  
무너뜨려 놓는다

너라는 파도가  
내게로 물밀 듯이  
들어온다

나는 그 파도에  
잠식되어  
어느새 네게로  
점점 빠져간다

## 마른 익사

사회학과  
20191540 황세원

숨이 가쁘다  
여름이 지나서도 여전히

폐에 찬 것이 낙서인지 울음인지  
그때 삼킨 물기 때문에  
나는 겨울이 다 되도록 버섯하게 익사하고 있다

### <부연설명>

마른 익사(Dry drowning) : 물속에서 삼킨 물로 인해 물 밖에서 질식하는 현상. 마른 익사는 물을 마셨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신체 변화가 드러나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려 치료 받기 어렵다. 주로 아직 후두가 약한 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발생.

## 마른 익사2

사회학과  
20191540 황세원

이러다가 진짜 익사체로 발견되는 거 아니야

우울  
드디어 이 병에도 이름이 붙었다는데

단어마저 녹녹하다  
곰팡내가 날 것 같다  
사시사철 장마 같아서  
부르기 싫다

이러다가 진짜 익사체로 발견되는 거 아니야

방안에 고인  
내가 토해낸 울음들을 도로 주워 삼키다가  
어항 고기들이 제 배에서 나온 것을 저가 다시 먹듯

이러다가 진짜 익사체로 발견되는 거 아니야

방 안에서 혼자 익사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근데 진짜  
사실인데

## < 비밀게시판

금융재무학과  
20173111 남유진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2.30

기분이 이상해. 어쩐지 그 애가 요즘 안보인다 했어.  
그 애는 나를 끔찍히 싫어했어. 이유는 나도 몰라.  
다른 사람에겐 방긋방긋 잘 웃고 친절히 대하면서  
나와 눈만 마주치면 정색하고. 그 애가 나를 쳐다보던  
싸늘한 시선이 아직도 생각나. 그래서 나도 그 애가 덩달아  
싫어졌어. 동기들 말대로라면 정말 평판이 좋은 애야.  
근데 요 며칠 그 애가 잘 안보였다? 나는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져서 후련했어.  
하지만 알고봤더니 그 애가 죽었다나봐. 나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 문제는 이거야.  
내가 그 애와 사이가 안 좋았던 걸 동기들도 알아챘는지  
그 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뒤로 동기들이 슬슬 나를  
피하는 게 느껴져. 교수님도, 선배들도 내 인사를 받아주질  
않더라. 그 애를 미워해서 내가 별 받은 걸까? 나는 한순간에  
외톨이가 되었어.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그 애의 장례식에  
갔다왔어. 영정 사진 속의 그 애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  
나에게 웃음을 보여준 건 아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  
그 앞에서 그 애의 부모님이 목놓아 우시는 모습을 보니  
내가 다 눈물이 나더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나와  
닮은 점도 참 많은 아이였는데. 그래서 기분이 더 이상해.  
이제와 여기에 말해봤자 아무 의미 없겠지만 그 애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말이 길어졌네. 요즘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댓글이 잘 안달리더라고. 글이 많이 올라와서  
내 글이 묻히는 건가? 내 글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나  
위로 한마디 좀 해줘... 너무 외롭다.

댓글 0

error/존재하지\_않는\_글에\_댓글을\_작성할\_수\_없습니다/error!etah#fles%%

## A-Live

금융재무학과  
20173111 남유진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 옆에  
Live를 끼고 살아  
내 옆에 둘 수 있는 것은  
Survive였어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이었나봐  
남들과는 절반이상이 다른 글자였어  
그래서 그렇게 외로웠나봐

내 뼈와 살을 깎아야만  
남들보다 더 앞서 노력해야만  
겨우 남들의 Live를 따라잡을 수 있었어  
겨우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곤 했어

뭣 모르고  
등 떠밀려  
따라가고  
따라 뛰고

내 등 뒤엔 수많은 손자국이  
남겨져 있을 거야  
발밑엔 어쩔 수가 없었던 발자국이  
깊게 패여있을거야

멈추어 돌아보니  
내가 원했던 삶과는  
점점 멀어져버렸어

차라리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절벽 끝이었으면  
미련없이 뛰어들기라도 할텐데  
나는 바짝 마른 평지 위에서 길을 잃었어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고  
울며 부탁했어  
바람아, 나 대신 살아줘  
나 대신 누군가의 호흡이 되어줘.

바람이 말했어  
살아가. 네가 살아야  
춤을 출 수 있어. 그래야  
꿈꿀 수 있어.

그때 내 삶은 Alive가 되었어

## 무심

금융재무학과  
20173111 남유진

아무도 말리지 않는 장난을 치고  
그렇게 누구도 나를 혼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날들에.  
나를 생각하는 삶은 무심하였다.  
나를 둘러싼 계절은 다정치않고  
한숨이 하얗게 번져 물들이거나  
삐질삐질 쥐어뜯 땀으로 발밑을,  
눈가를, 걸어가는 길들을 적셨다.  
거리는 왜 나를 자빠뜨리지 못해  
안달인가. 걸음마다 발코가 걸려  
휘청이기만 하고 쓰러지진 않아,  
왜. 차라리 엎어져서 울고 싶은데.

## 여름

금융재무학과  
20173111 남유진

날은 작열히 달궈졌고 거리는 별이 녹아 흘렀다.  
나는 계절을 잇을 정도로 냉기가 가득한 병원에서 나와 걸음을 옮겼다.  
아지랑이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음을 직감했다.

집이 어딘지는 알고 있지만 집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멀리 가더라도 내가 돌아갈 곳,  
나를 지킬 수 있는 곳,  
편안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곳은 없다.

나는 모두 빌려 살고 있는 것이다.  
피를 빌려 집에 얹혀살고 있는 것이다.  
자식이라는 이름을 빌려 서울 무더운 방 하나를 얻은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눈에 띄는 그늘 밑 벤치에 앉았다.  
어쩐지 가벼워진 채로.  
손 안에는 약봉투가 들려있었지만  
것의 대가로 돌아오는 길에 장기라도 판 것인지,  
나는 텅 빈 채로 덩그러니 앉아있었다.

장마철에 숨 좀 쉬어보겠다고 거리 위로 나왔다가  
말라비틀어진 지렁이들에게 생각 하나를 팔았다.  
7년을 땅 속에서 우두커니 혼자 지내다가  
멋 모르고 성장해서 장렬히 울어재끼더니  
배를 드러내 놓고 길바닥에 떨어져 죽은 매미에게 또 하나를 팔았다.

한 철만 사는 것들은 왜 다 저 모양일까.  
작열할 수록 빨갱게 익어가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나뭇잎들만 서슬 퍼렇게 질러갔다.

알아주지 못할거면 안아주지 마세요

금융재무학과  
20173111 남유진

끊임없이. 연거푸 공허가 찾아오지.  
왠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그림지.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지.  
아무것도 가진 적 없었으면서 몽땅  
잃어버린 것 같아 거리를 서성였지.  
아직 밤거리가 밝아서 함부로 눈물  
흘리지도 못했지. 누가 물어올까 봐.  
그래서 너는 눈물 없이도 울 수 있는  
어른이 되었지. 그게 가엾지. 네가.  
너는 갑자기 태어나 동시에 죽음을  
얻어 그게 너무 억울하지. 그렇지?

## 이별

인문학부  
20201085 이준선

밤이 되면 아름답게 빛나는 별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싫다.

유난히 더 밝게 빛나는 저 높게 떠 있는 별이  
오늘따라 보고 있으니 아프다

항상 아름답던 별이  
'이별'이란 이름으로 다가와서  
그런가보다

## 길가에 꽃들도 다 그렇게 피더라

인문학부  
20201085 이준선

차가운 시멘트 도로 길가에 작게 핀 민들레 꽃 하나

그 차갑고 어두운 시멘트 바닥에서  
매서운 바람과 날카롭고 무거운 비를 맞으며  
언제 밟힐지 모르는 나날들을 견디고 있더라

그 무서운 환경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고  
서서히 자라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날을 기다리며  
수많은 고통과 모진 날들을 견디더라

어느 날 찬란한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는 꽃이  
바람에 살랑이며 미소를 띠게 만드는 꽃이 되더라

길가의 꽃들도 다 너처럼 그렇게 힘들고 모진 날들을 견디  
햇빛에 반짝이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더라

## 어쩌면 너에게 필요했던 말

인문학부  
20201085 이준선

항상 밝고 웃음이 많고  
누군가를 잘 위로해주던 네가  
어느 날 고민에 잠겨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다

항상 위로의 말을 건네주던 너에게  
항상 위로를 받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쩌면, 진짜 어쩌면  
내가 나에게 건넸던 그 위로의 말들이  
내가 너에게 해줄 위로의 말들이었을까

정말로 너의 말들은 너를 위한 위로가 아니었을까  
어쩌면 내가 건넨 위로의 말들은  
사실 너에게 필요했던 말들이 아니었을까

## ‘당연’이란 단어

인문학부  
20201085 이준선

누군가는  
부모님의 사랑을,  
친구들의 우정을,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걸을 수 있는 땅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지금  
아니,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날들이  
그립다.

## 겨울 향기

인문학부  
20201085 이준선

너는 겨울 냄새가 나면 외롭다고 했다  
그런데 널 만난 지금의 나에게...

겨울 향기가 난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할 시기라는 거다

거리마다 울리는 종소리  
그건 아마도 이웃의 사랑  
가는 곳마다 보이는 사랑하는 연인들  
그건 아마도 분홍빛 사랑  
집집마다 보이는 선물들  
그건 아마도 부모님의 사랑  
끊이지 않는 개롤과 웃음소리  
그건 아마도 겨울이라는 계절이 가져다주는 사랑

겨울 향기가 난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겨울 향기가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는 지금  
그건 아마도 널 향한 내 사랑

## 산다는 것

국어국문학전공  
20181020 김예은

살아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려  
새벽 어스름한 해가 떠오를 때 운동장을 뛰기로 하였다  
회전목마처럼 돌아가는 굴레 위였다

한 명은 한 쪽 다리를 절며  
나머지 한 다리와 두 팔로 중심을 잡으며  
끝나지 않을 허공을 돌고 있었다

나는 그 굴레에 가만히 서서  
그 굴레 위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얼굴에 핏기하나없고  
힘빠진 주름만 가득잡은 바지를 걸친  
노인들이 혼신의 힘으로 걸어내고있었다  
그들의 다리는 고장난 로봇같았고  
그들의 허우적거림은 소금쟁이 같아서  
온전히 걸을 수 없어 보였지만  
누구보다 온전한 눈동자로  
그 또렷한 눈동자로 온 힘을 다해  
지평선을 걸어내고 있었다  
그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어떻게든 움직이고 있었다.  
눈동자에 온세상의 햇살과 별빛과 바다의 부서지는 파도를 남김없이 담은 그들이었다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행했던 발걸음이 초라해지는 순간이었다.

## 손목

국어국문학전공  
20181020 김예은

아버지 저는 오늘  
제 오른쪽 팔목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손자국이 남아있더군요  
어찌나 저를 강하게 잡으셨는지  
손의 마디마디가 훤히 보이는 자국입니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자국입니다  
가끔 손이 아리기 전 마음이 아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를 놓치고 싶은 때가 파도처럼 울컥울컥 치밀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후엔 손목이 자연스럽게 아려옵니다  
몸을 기울여 내려다보면 손목 언덕엔 여전히 아버지의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나조차 나를 버리고 싶을 때 나를 붙잡고 잠잠히 안심시키는 당신.

아버지의 주름진 손 위에 톱니바퀴처럼 저를 포개고만 싶습니다

## 화살

국어국문학전공  
20181020 김예은

거미가 완전히 내리기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라져가는 주위를 나른하게 경계하는 일  
산속에 영킨 새들이 다 어디로 사라지는지  
마냥 하얀 눈이 한순간 잿빛으로 변해가는 순간  
그 많던 조잘거림과 나를 앞서가던 발자국들은  
모두 어디로 급히 사라지는지

강 너머 가로등 반짝이는 곳에  
내 고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죽어가는 것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  
만져보기도 하고 그것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기도 해야겠다

## 한그루 사랑

국어국문학전공  
20181020 김예은

아주 작은 새싹이었을 때  
뿌리를 뽑는 것은 쉽다

내가 그 새싹에게 주었던 물과 사랑이 너무 커  
손에 닿을 수 없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을 때  
난 이제 그 나무를 뽑지 못한다

나의 발을 망가뜨리고 나의 공간을 차지해버린  
그 나무가 밟지만 으레 그래왔듯 물을 준다

사랑은 그런 것이다  
주고 싶지 않아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아가에게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3 장창환

넌 나지막이 내 음계로 들어왔다  
높낮이 맞게 내 귀로 들려왔다

잠깐이지만 우리는 듀엣으로

건반을 두들기는 네 움직임에  
또 가끔 페달을 밟는 네 움직임에

나는 LP판을 돌려  
그 시절 손길로 네게 들려주었다

00년 00월 00일

내 마지막 리스트

나는 왕벌의 비행을  
클로징 곡으로 네게 들려주었다

솔로에서  
듀엣  
듀엣에서  
솔로로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대해

다행히도 나는 생애 마지막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복숭아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3 장창환

여린 살갓을  
연분홍 실타래로 곱게 묶어놓으니  
여물어 가는 소리조차 향이 베고

성숙의 농은 짙어지고  
질곡의 세월도  
회상으로 물들어가니

이제 빈 가지 묶인 밧줄 풀고  
풀 아래 몸을 던진다

열은 분홍빛을 감싼  
장막의 실타래가 터지더니  
골수의 농도를 알각 토해내고

언뜻 본 누군가는  
붉은 활엽이 벌써 온줄 알았다지

풀밭을 텅굴며  
은은히 불어오는 바람맞고  
치마폭에 숨어 빛줄기 피하고

복사나무 언저리  
떨어진 잎을 닦아 향을 더하니  
어미의 품과 무엇 다를까

어느덧  
산중턱에 자리 잡은 노을 하나

벌어진 공간  
다홍빛 노을을 머금어  
빈 공간 채워간다

## 힘들었던 시간 낙서를 하며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3 장창환

생각은 상상을 더한다  
그 상상은 필요이상의 감정과 시간을 빼앗는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만약은 없다  
그저 기억만을 남겨두면 될 뿐이다

앞으로의 일도 지나간 이야기도  
그 뜻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아직도 움츠린 채 자신을 감싸고만 있는  
나 자신이다

일정한 낙서가 어디 있으며  
끝나는 낙서가 어디 있으랴

언제든 이룰 수 있는  
그게 낙서인데...

조소

인문학부  
20201081 이재찬

저녁노을  
퇴근길  
지하철 자리에 내려온 한줄기 빛  
그곳에는 임신부 좌석에 앉아있는 남자가  
그 앞에 임신부를 두고 있었다  
그는 실로 초연한 표정이었으니  
오호라,  
그가 부처이니라

## 꿈

인문학부  
20201081 이재찬

현대 자동차에 앉아 8차선 고속도로를 달리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기마처럼 달리다  
그 기마 속에 나도 하나가 되어 달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옛날 삼국시대에 이 도로는 정말 넓은 흙길이였겠지  
8차선 도로 위에 아스팔트와 차들도 없는 평온한 길이였겠지  
내 상상 속의 길에서, 나는 거대한 흙길 한복판에 누워 광활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 길은 정말 고요하여  
내가 움직이면 그 소리조차 완전히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뽕뽕거리는 클락션 소리에 파들짝 놀라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엑셀을 밟아야 했다

## 감사

인문학부  
20201081 이재찬

저기,

부자 동네에 부자 아파트  
누구나 보고 감탄하는 고층 아파트  
겉면은 화려하고 내부도 고급 지다  
그런데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건물을 받쳐주는 투박한 콘크리트와 거친 철근들  
페인트와 마감재에 덮여져 볼 수 조 차 없는 것들  
건물을 이루는 콘크리트와 철근들을  
본 적 있는가?

더 나아가서  
가끔씩 콘크리트와 철근들은 무시당하기도 한다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토대들, 없어지면 모든 게 부서져 버리는데  
중요하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때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다

보이지 않는 것들 덕분에  
우리는 저 고층 아파트를 볼 수 있다

시간이 흘러도 굳건한 콘크리트는  
점점 갈라지는 페인트 틈 속에서  
언제나 고층 아파트를 받치고 있겠지  
철근과 같이

## 검은 길

국어국문학전공  
20171024 나지수

검은 실 굵이굵이 흘러가는 냇물에 사다리를 빗어내려  
땅에 닿을 수 있게 되거든 두 발 딛고 오롯이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가위를 들어 길을 낸다 엮을 수 없는 매듭이라  
조각조각 흩어지는 가닥가닥이 매가리 없이 연약한  
몸짓이라 품에 안긴 붉은 뺨 숨소리만 췌액 췌

시큰한 콧등에 사료잡힌 까끌한 우주를 가만히 쓰다듬는다  
그 둥근 머리통에 펼쳐질 은하수는 참 예뻐으리라

## 소음

국어국문학전공  
20171024 나지수

404호는 오늘도 시끄럽다

주방인지 전쟁터인지  
칼과 도마가 맞부딪히며 서툰 단말마를 내뿜는 동안  
뚝배기가 끓어오르며 가스레인을 적시고  
도각도각도각부글부글부글

네다섯 살 어린아이들의 뛰지 마라, 뛰지 마라  
펼떡이는 심장보다도 크게 울리는 걸음걸음  
쿵쿵쿵쿵

쏟살같이 돌진하는 가슴 벽찬 기다림과  
전자음 한 음 한음 쌓이는 열렬한 환대  
현관을 감싸는 높고 짜랑짜랑한 웃음  
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들려오는  
404호 오늘의 저녁 식사  
미역국, 잡채, 소불고기, 세 가지 나물과 곁들이는 식혜

빈 밥상 앞에 자리를 잡은  
텔레비는 웃는다 혼자 떠들다가 운다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소파는 자리 하나만큼의 체온을 끌어안고  
거실등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찬 마루만큼이나 시린 공기에 몸을 누인다

## 꽃의 종말

국어국문학전공  
20171024 나지수

영원히 피어 있을 줄 알았는데.

상징과 추상, 저 높이 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가치의 메타포  
온갖 철을 덧입혀 찬미 노래 부르던  
액자에 걸린 영광을 우리는 본다

그림 속 노란 잎이 시들 때  
생기 잃고 늙음에 시간이 입 맞출 때  
쫄그라든 갈색 꽃 되어 사그라들면

우리는 예기하고 싶지 않았던 변화에  
다급히 떨어진 꽃잎을 움켜쥐지만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다만 흰 눈으로  
우상의 배신에 치를 떨 것이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약속된 싱그러움이 가시는 그 날  
시들어가는 숨 앞에 둘러앉아  
특 내뱉을 그 말에  
해바라기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다

## 춘향이의 그네

사회학과  
20202234 이송하

어서오소 아씨  
오늘은 자연이 칠해놓은  
단색의 하늘에 데려가 주리이다

어서오소 아씨  
오늘은 흰 거품 물며 내려가는  
녹음의 냇가에 데려가 주리이다

아씨야  
노오란 개나리가 나비를 부르고  
빠알간 홍화꽃이 흩날리듯 손짓을 하니  
내 오늘 저 아래  
동네 마실 나온 도련님께 보여드려야겠소

바람아 나를 밀어라  
더 높이 더 멀리  
화려하게 피어오르는 능소화의 향기가  
도련님 눈에 스며들도록

아씨야  
오늘 밤 그대 집 문을 두드리는 이가  
당신 마음에 색을 입히거든

내가 기꺼이 기뻐하며  
그네바람으로 맞이해드릴테니  
저 먼 훗날  
세상의 만남을 준 아이가 있었더라  
떠올려나 주시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바스라져가는 지푸라기가  
즐거이 세상을  
휘젓고 다닐테니

## 소나무

사회학과  
20202234 이송하

굽이치는 등의 세월은  
고개 들어 보이는 하늘의 아우지

땅에 닿을 듯 휘어진 등은  
대지에게 문안 인사 여쭙지

쪽 뺨은 이파리의  
불안히 매달린 이슬 안에  
우리가 모르는 세월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포르르 날아온 참새에게 빙긋이 웃어줄 수 있는,

외로운 한 줄기 산들바람에게 손 흔들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세월에서 묻어나온 여유이랴

휘어진 등 딛고 늘어나는 세월이  
조그만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푸른 하늘 아래  
굽어져 있는 나무야  
네 세월 한번 지켜봐도 되겠니

## 단풍

사회학과  
20202234 이송하

초록빛이 태양을 담아 붉게 타오른다.

## 겨울의 고가옥

사회학과  
20202234 이송하

세상의 부름으로  
지붕 위에 내려앉은  
하얀 이불은

홀로 바람을 맞이할  
기왓장을 껴안는다

깨지고 갈라지는  
흙과 나무의 시간이

그 시절,  
온기의 기쁨과  
순간의 사랑을 간직하고

색채가 사라진 흑백의 시간을  
방안에서 퍼져가는  
주황빛 물감으로 물들인다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겨울, 그 집에서  
나는  
월동의 노래를 부르리라

## 달

빅데이터과  
20165133 방승원

천천히 걸어서  
너에게 도착하는 게  
어려웠던 나는

달을 빛이라 여기며  
너를 비쳤다.

그 빛은 너의 미소에 닿아  
황홀을 벗 삼은 아침을  
내게 선사해 줬다.

정오의 태양에  
구름이 드리우며  
너는 달을  
빛이라 착각한다.

밤마다 밝은 빛을 내던  
때론 짙은 어둠을 좋아하던  
그때의 달은  
나의 유일한 별이었다.

이젠 잘 찾아가려고 한다.  
달 없이도

## 나

빅데이터과  
20165133 방승원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겨  
조급함이 엄습하니

아직도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걸.

내가 정한 방향은 올곧은데  
왜 나의 칼날은 항상 무뎠는지

내가 전념한 시간은 충분한데  
왜 나의 길은 항상 희미해지는지

푸르던 잎새는  
어느새 계절의 변화에

용감했던 도화선은  
외로이 그림자만 홀로

아득해진 빛을 향해  
은은하게 퍼질 내음.

## 만남

빅데이터과  
20165133 방승원

너를 만난다는 것은  
너의 세계에 들르는 것이다.  
나의 발걸음은  
쉬어 갈 수도  
재촉할 수도 있다.  
너는 그 걸음을  
따라올 수도  
외면할 수도 있다.  
언젠간  
함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을 생각에  
너의 은하계에  
나의 별을 그려본다.  
보랏빛이 가득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너를 만난다는 것은  
너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러시아학과  
20201710 박예솔

처음 본 당신이 너무 멋져서  
내가 쫓는 것이 오늘이 아니라  
당신의 어제라도 그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어제를 볼수록  
내 안에 마음이 자라나  
나는 당신의 오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세상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당신이 세상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의 눈에서  
당신을 향한 굳은 믿음을  
당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당신의 뒤에 서있을테니  
부디 아무 걱정마시고 나와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당신이 멋진 사람이라  
감사합니다  
나는 어제아닌 당신의 오늘을 볼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 방울방울

러시아학과  
20201710 박예솔

너의 진심이 나에게 닿아  
방울방울 내 마음에 내렸다

방울방울 진심이 모여  
'우리'라는 작은 샘이 되었다

샘 주위에 예쁜 꽃들이 피고  
작은 새들이 날아와 노래했다

나는 아름다운 '우리' 샘이  
이대로 변치 않길 바랐다

내 잘못일까 내리던 방울은  
점차 작아졌고 이내 그쳤다

짧은 가뭄이라며 기다렸는데  
방울은 다시 내리지 않았다

방울이 없는 샘은 너무나 약해서  
새도, 꽃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다

결국 혼자가 된 샘은 밖으로 나와  
눈물이 되어 방울방울 떨어졌다

모든 샘이 방울이 되어  
방울방울 떨어지고  
우리는 우리에서 너와 내가 되었다

## 마시멜로우 이야기

러시아학과  
20201710 박예솔

차곡 차곡  
마시멜로우 탑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마시멜로우 탑

십대의 내가  
스무살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둔  
마시멜로우 탑

이제 겨우  
먹으려 하는데  
갑자기 내리친  
스무살의 비바람  
녹아버린 마시멜로우 탑

## 간장, 된장, 고추장

러시아학과  
20201710 박예솔

간장, 된장, 고추장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숙성할수록 가치 있는 것

항아리 안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은  
봄에는 먼지에 뒤덮이고  
여름에는 더운날에 잠 목이루고  
가을에는 떨어지는 단풍에 슬퍼하고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에 콧물흘리며  
긴긴 시간을 보낸다

간장, 된장, 고추장은  
여러 고난을 만났지만  
고난을 계단으로 만들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존재

나는 썩는 것이 아니라 숙성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어른이고 싶다  
나는 지금 숙성중

## 회합 주기

국어국문학전공  
20171070 이예림

너의 궤도는 내 것보다 넓고  
나는 스치고 멀어지기만 반복한다  
사랑도 너에겐 장난치지 못하고  
주위만 머뭇거리며 공전한다

584일마다 얼굴이 보이는 이 정도 거리  
나는 내 동선을 벗어나지 않을 테지만

너와 스치는 시간  
너도 모를 그 찰나를 위해  
아닌 척 또 걸음을 재촉한다

## 시간여행

국어국문학전공  
20171070 이예림

광활한 심연 속  
기억은 저마다 둥글게 자리를 지키네  
어떤 기억은 겹겹이 띠를 두르고  
어떤 기억은 무겁게 얼어붙었다  
표면에 난 디귤자의 미세한 균열  
그리고 문고리 하나  
오늘은 방치된 행성에 발을 들인다

그대가 내게 불시착하던 어느날이다  
“견딜 수 없었어.”  
내 우주에는 없는 낮설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기울여오는 듯한 착각에  
나는 별떡 일어나 숨을 멈췄다  
시간도 놀라 멈춰버린 순간

그리고 네가 내 마음에서 나갈 때를 기억한다  
고개를 돌려 눈길을 한번 톡 놓고  
이윽고 발소리를 가져간 너  
신호를 연결하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장면  
나는 문을 닫고 나온다

그러나 나는  
오랜 여행 끝에  
이제야 지구를 똑바로 마주하네  
비스듬히  
너의 축을 따라서

## 노스탤지어

국어국문학전공  
20171070 이예림

우리는 단체로 향수병을 앓고  
죄악감 따위의 마취약을  
꾸역꾸역 씹으며 긴 밤을 버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저기 어딘가에 있어  
멀어서 보이지 않는 별이  
한번 만나려고 눈을 감고 무던히도 꿈을 꺾었지  
이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달고 달은 동화같은 이야기

어쩌면 어린  
배꼽으로 이어진 줄이 끊어지고 나서부터  
미아가 되어 평생 우주를 표류한거야  
나는 아직도 매일마다  
어깎죽지에 돋은 날개뼈를 씹쓸히 더듬어본다

수없이 떠돌며 달고 스치는 우리는  
무얼 잊은지도 잊은 시체들이다

## 작별인사

국어국문학전공  
20171070 이예림

호수는 거울처럼 나를 기다려왔네  
밤마다 반짝이는 눈물들이  
앞으로 앞으로 흐르고 춤추면  
나는 파도를 빌 낫이 없겠다

이제는 꿈 같구나  
천둥같이 울고 짓으며  
새하얗게 집어삼키던  
다시 없을 풍경아

눈 감으면 뺨을 가르는 소금기 어린 바람  
심연 속 날짐승의 굶주린 눈동자도  
나를 놓아주는 법이 없었건만

그러나 이젠 거울을 닦아보고  
외로움으로 수제비 뜨며  
발을 다 적시고 앉아 고개젓히면

바다는 나를 기다리겠네  
나는 별을 세다가 단잠 들겠네

## 전시관

-SNS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저마다 휴대 전화 속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다  
다수의 손가락으로 운영하는  
24시간 폐장하지 않는 그런 전시관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안심 스테이크와 비냐 엘 피손을 먹고서  
서른도 채 되지 않은 나이로 부모님께 외제차를 선물하고서  
고교 시절을 보상받는 듯이 번듯한 대학교에 톡 합격하고서

찰칵

전시관부터 전시품까지  
모두 사각형에 갇혀 있으면서도 펍 근사해 보였다

다음날부터 삼각 김밥을 주식으로 삼아야 했지만  
차 사고 매달 빚 갚느라 허덕여야 했지만  
대학 등록금을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충당해야 했지만

그다지 근사하지 않은 모습이므로  
전시되지 않을 예정이다

개중에는 타인의 근사함을 모방하는 상습범도 있다  
사각형 바깥의 모습은 가늠할 길이 없지만  
어째서 슬픔을 유발하는 것인지

현대인은 매일같이 자신을 전시한다  
루브르에서 탈출한 조각상처럼 근사한 모습으로  
몇 자릿수의 하트는 포상일까 형벌일까

저마다 휴대 전화 속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다  
다수의 손가락으로 운영하는  
24시간 폐장하지 않는 그런 전시관이

## 인공위성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소마를 1그램쯤 복용한 그날 밤에는  
날개도 없이 몸을 붕 띄울 줄 알았다  
창 너머로 자유로이 유명하길 몇십 분  
정수리 위로 명멸하는 불빛들을 봤다

꽤 멀리 왔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윗니와 아랫니가 딱딱 부딪히곤 했다  
한기가 체온을 죄다 앗아 가 버리자  
모닥불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수밖에

동공이 익지 않을까 뜨겁게 타오르는  
그 모닥불 앞에서 한 아이를 마주했다  
별 같은 인공위성들과 모닥불은 닮았다  
나의 유년과 꼭 닮은 안면은 무구했다

‘저 별들이 나를 지켜 주고 있나 봐요’  
딱 그 나이가 될 무렵 같은 생각을 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리게 따라오는  
저 별들은 무언의 힘이 있다고 말이다

소마를 1그램쯤 복용한 그날 밤에는  
무구한 아이의 동심을 깨뜨리기 싫어  
인공위성이라고 정정해 주지 않았다  
어쩌면 그날 내가 나를 보고 왔는지도

\*소마: ‘멋진 신세계 (A.L. 헉슬리, 1932)’에 등장하는 보급형 마약

## 꿈

인문학부  
20201040 박선아

통상적으로 꿈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  
이루고 싶은 꿈과 잘 때 꾸는 꿈

나는 두 개념의 경계가 열리는 밤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른테면 오늘밤처럼 말이다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뤘는데 잘 때 꾸는 꿈속이라면  
잘 때 꾸는 꿈이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현실과 초현실의 사이를 두 발로 휘청이며  
나 홀로 꿈에 대해 골몰한다

눈을 감지 않으면 꿈을 꿀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다시금 눈꺼풀을 질끈 감는다

한낮에는 거울 속의 여자에게 묻고 싶었다  
꿈이 현실보다 행복하다면 꿈속에서 살고 싶냐고

## 나의 꿈은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나의 꿈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잠이 들면  
꿈 속 깊은 곳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나의 꿈은  
청년의 뜨거운 심장 속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나의 꿈은  
학습 속에 피어난 꽃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나의 꿈은  
나의 작고 따뜻한 행복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나의 꿈은  
아직 내 안에 숨어서 나오지 않으려 하는가

나의 꿈은  
저 해안선 위의 뜨거운 태양 속에 떠오르고 있다

나의 꿈은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이로구나

## 겨울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투명하고 푸르른 하늘아  
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하얀 눈은  
더럽혀진 마음을 닦아내는구나

차가운 손발은  
겨울이 주신 별이구나

눈으로 덮힌 설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어기 아이의 웃음소리는  
겨울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겨울은  
따뜻하고도 차갑구나

## 지하철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지하철은  
전쟁터이다

돈을 벌기위해  
학교에 가기위해  
우리는 총대를 매고 지하철에 탄다

서로 밀치는 순간  
싸늘한 눈빛이 심장을 내리꽂는다

저 앓은사람들은  
도대체 어떤일을 하였기에 상을 받은것인가

공기가 사라지고 있다  
나의 숨은 지하철을 거부하고 있다

마스크와 지옥철  
이는 나를 매일 별하는구나

지하철  
너는 왜 하필 다른 교통보다 빠른 것인가

지하철  
나는 미워도 너와 함께 가련다

## 춘천

법학과  
20202720 문정희

여름에는 그토록 따뜻하게 감싸더니  
겨울에는 손발이 차도록 나를 춥게 하는구나

아름다운 강은  
누구를 위해 이토록 흘러가는가

아름다운 시와 글은  
아마 이 아름다운 도시를 위한 것인가

춘천은  
아름다운 청춘 같구나

春川은  
순결하고도 바른 개나리와 같구나

靑春이여  
이곳에 머물러 산바람을 타고 강에 흘러가자

## 스며든다는 것은

법학과  
20172726 방혜린

종이 위로 붓이 흐느낀다  
거침없다가도 갈팡질팡  
등이 한껏 굽혀진 채 울고 있다

쏟아져 내리는 눈물이 참 곱다  
녹진 하다가도 투명해지고  
어두스름 하다가도 맑아지며  
알알이 부서져 내린다

내가 부서져 내린다  
종이 작은 틈새 사이 스며들려고  
몸을 조각내는 색의 방울들이  
웃으며 스며들고 있다

나를 너에게 너무 쏟아냈을까  
종이가 울고 있다  
나도 울고 있다

## 물감

법학과  
20172726 방혜린

종이에 스며드는 물감의 기분이 이런 걸까  
울퉁불퉁한 종이 곁 틈새 사이사이 스며들려고  
물감도 알알이 부서져가며 종이에 물들었을까

나도 너에게 스며들려고 아픈 걸까  
너에 대한 내 사랑이 너무 많아서  
물감을 쏟아 울어버린 종이처럼 네가 힘들까

내가 너에게 너무 빨리 스며들려고 해서  
너는 머금지 못하고 나를 토해낼까

내가 알알이 부서져가며 뛰어들어도  
내가 결국 울어버린 종이처럼 상처 날 바엔  
내가 멈추는 것이 현명한 걸까

너에게 뛰어들지 않아도 나는 부서 질 텐데  
차라리 나 혼자 부서지는 게 나은 선택일까

홀로 쏟아 붓는 사랑이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내가 부어버린 사랑이 결국은 넘쳐버릴 때,  
흘러가는 사랑을 바라보는 것만큼 힘들 줄 몰랐다

나는 너한테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일까  
내가 속절없이 부서져 가는 걸 받아 줄 만큼  
너한테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내가 결국엔 증발해버려도 너는 나를 기억 해줄까

나는 너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일까

## 낙엽

법학과  
20172726 방혜린

작은 담벼락 아래  
모여 있는 나뭇잎

저마다 사연이 한 아름  
얼룩덜룩 풀어 놓는다

식익, 가르르르...  
지나가던 바람이 끼어들어  
까르르르 웃겨 주고

찌잉, 풍요로운 햇빛에  
눈물 콧물 쏘옥 빼고  
버석버석 가벼워지니

사연이 깊어진 건지  
찢-한 얼룩덜룩 모양새가  
딱 낙엽이구나

금요일 1시

철학전공  
20181063 윤의해

전기장판 위 솜이불,  
무드등이 된 책상등,  
손 뻗으면 닿는 젤리,  
색색거리며 자는 강아지  
노트북 옆으로 규칙 없는 생활들

달각달각 창문 부딪히는 소리에  
밖으로 넘어가는 고개  
손 시릴 듯 푸른 하늘  
너울이 이는 창문  
밀려오는 바람  
쓸려나가는 숨  
화면이 창문이었다면

이불 속으로 녹아드는 살들 사이에  
갈고리 같은 목소리의 계몽  
웃음을 찾아 맥주 한 캔을  
찾아 떠나보기

## 흔들리는 몸

철학전공  
20181063 윤의해

나는 내 몸 안에서 흔들린다. 차를 타고 멀리 나가듯이, 문 앞에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된 듯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위액의 맛에 침이 고인다. 역겨운 단맛. 초콜렛도 민트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붙잡은 채 목 너머로 손가락 두 개를 넣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찰랑거리는 것들이 세상을 흔들기 전에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입술이 바싹 마르다가 물어 감춰진다. 눈을 들어 입꼬리를 올려둔다. 할 수 있는 방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잡을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 신의 모습

철학전공  
20181063 윤의해

신은 바닥의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은 당신이 찾아올 자리에 서 있다

신은 당신을 마주 보고 있다

신은 돌아온 탕아를 반긴다

신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사랑을 준다

신은 슬픔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사랑을 준다

신은 모든 것을 품은 채 잠이 들었다

개의 모습으로

신에게 매일 반겨 달라고 기도했다

## 화형식

법학과  
20182713 김송이

너는 눈물 흘려보지 않았기에 모른다  
항성처럼 타오르는 심장에  
그 손을 단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달고자 했다면  
이  
끓어오르는  
혈액의 온도  
너는 짓궂은 화상에 눈물 흘렸을지도 모른다.

고엽

법학과  
20182713 김송이

바스라지고 싶다  
뼈처럼 단단한 대지에  
한껏 몸을 부딪쳐  
한 줌 낙엽처럼  
처연하게  
또 절망스럽도록  
바스라지고 싶다

부디  
내 앞에 우는 것이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 애정의 형태

법학과  
20182713 김송이

차가운 잔디에 설움이 가득하다  
싸한 알코올 냄새가 꼭 무덤 안에서 나는 것도 같다

한가을 정오  
별이 뜨겁게 또 따스하게 들지만은  
산 위의 사람들은 그림자처럼 식어있다  
그 낮모를 풍경에  
슬프기 짝이 없으면서도  
그네들 눈물에 기쁘기도 하다

이미 문장을 전할 수 없게 되었지만  
소주 한 잔과 함께 스민 슬픔이  
곧 사랑이었겠노라 헤아리기로  
잔잔한 온기를 가진 언어가  
그리움이겠노라 짐작하기로 하였다

무덤 앞에  
설움은 내 육신처럼 타들어가고  
이제는 알겠다  
그 냄새도,  
형태도

## 스무살 봄

중국학과  
20201525 이나경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는  
분홍빛의 벚꽃처럼 예쁘게 피고 있다

겨우내 언 마음으로 어여쁜 봄이 오길 기다렸던  
지나간 나의 겨울

두꺼운 옷을 벗고 얼어붙은 마음도 녹으면  
날아갈 듯 가벼운 나의 몸과  
흐드러진 꽃잎처럼  
내 마음도 또한 가벼이 날아갈 것만 같다

새로이 시작되는 봄처럼  
나는 예쁘게 피고 있다.

## 스무살 여름

중국학과  
20201525 이나경

초록빛 여름은 찬란한 햇빛을 받으며  
더욱 성숙해져 가는 계절  
찬란한 나의 여름

분홍빛의 꽃들이 진 자리에  
다시금 푸르게 피어난  
찬란한 나의 여름

조그만 구름이 진 자리로  
그늘을 찾아가는 계절  
찬란한 나의 여름

뜨겁게 걸어가다 마주친 그늘에 조금 쉬어가며  
다시금 뜨겁게 걸어갈 준비를 하는  
찬란한 나의 여름

## 스무살 가을

중국학과  
20201525 이나경

다시금 시작된 일상과  
어제와 또 다른  
코끝을 스치는 찬 기운에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챈다

빨갭게 노랗게 깊어가는 거리를 보며  
시간마저 깊어져 왔음을 알아가는 계절

바람 타고 배송된 낙엽 편지는  
꽉 찼지만 텅 비어있는 나의 일상에  
쓸쓸함과 공허함을 전해준다

영글어가는 가을 따라  
나도 같이 익어가는 중이다

## 스무살 겨울

중국학과  
20201525 이나경

썩썩 불어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점점 무거워져 가는 옷의 무게  
아 겨울이다

따스한 봄이 어제 같은데  
더워 지치던 여름이 어제 같은데  
지독한 은행을 피하던 가을이 어제 같은데  
예고없이 찾아온 겨울이다

아쉬워해봤자 후회해봤자  
돌아갈 수 없는 계절의 끝에 와있듯

춥다고 한들 따뜻해질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따뜻함은 간직 할 수 있기에  
따스히 올해 겨울을 견뎌낸다

## 나의 스무살

중국학과  
20201525 이나경

일 년 같은 하루  
하루 같은 일 년  
가장 애뜻하고 그리울 나의 스무 살

하루하루 달리고 달려  
숨 가쁘게 달리고 달려  
숨 쉬려고 돌아보니 다다른 계절의 끝자락  
가장 서운하고 그리울 나의 스무 살

눈을 감고 지난 추억 떠올리니  
항상 웃음꽃이 피었던 내 얼굴  
시간의 빠름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가장 빛나고 푸르던 나의 스무 살

내일은 어떤 별이 뜰까?

## 슬픈 습관

의과학융합전공  
20186530 허지원

육십 먹은 등급이 아버지가  
십 년째 일요일 오후만 되면  
묵직한 밤색 커튼을 모조리 젖히고  
햇살이 가장 잘 들어오는 거실 가장자리에 앉아  
빛이 가라앉을 때까지 내내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

본인의 얼굴을 처음 본 사람처럼  
가만가만 늘어난 주름의 개수를 느릿하게 세고  
눈썹 사이에 굳어져 버린 과거의 성질에 후회하고  
몽툭한 손가락보다 노화가 덜 된 눈으로  
건조한 피부를 더듬어 보는 일

그것은 이룰테면  
슬픈 표면을 어루만지는 일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해 두 눈 부릅뜨는 일  
남은 자식들에게 육십 년을 살아도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평생 나쁜 결핍에 나를 방치했어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는 시간까지는  
더 이상 미워할 수 없는 일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많아진 사람도  
자신의 얼굴을 몰라 찾아 헤매이는 것을 볼 때면  
아버지에게 빼앗겼던 다정의 부재를 용서하고 싶어지는 일요일

문득 아버지의 그 자리를 유일한 유산으로 상속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오후

## 살아있다는 건 슬픈거지

의과학융합전공  
20186530 허지원

외로워지기 위해 이별을 한다  
사랑하지 않아도 이별하는 아침이 온다는 걸 너는 알까  
어쩌면 영원히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살아있다는 건 슬픈거지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나를 보낸다  
죽으라고 한 적 없는 것들은 계속 사라져간다  
누워서 듣는 저녁은 고요하기만 했다

한 여자는 갑자기 미래를 팔면 과거를 주겠다고 제안해왔다  
아마 그 여자는 현재를 가진 나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매력적인 강요에 무릎 꿇었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포로를 빌미로 과거를 들여다 봤다

그 속엔 내가 태어나기 전 재워둔 바람과 호흡이 있었다  
원래 계절과 슬픔은 공존할 수 없는 걸까

지나간 세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이가  
언젠가 발견해줬으면 했던 눈물이 묻어져 있었다  
지문에 새길 수가 없어 과거에 두고 온 문장들이 있었다  
그건 전생애 내가 쓴 묘비명이었다

## 벗

의과학융합전공  
20186530 허지원

메마른 땅에서 만나  
수많은 눈물로 강을 이루고  
그 속에 뜨거운 씨앗을 뿌려  
속속들이 모아 이뤄낸  
한 떨기 청춘의 꽃

꽃의 아름다운 이별을  
끝맺는 건  
차게 식었던 황무지에  
푸른 하늘이 사랑한 꽃을 피워준  
너에게 바친다

## 가을에 생각하는 몇 가지 외로움

의과학융합전공  
20186530 허지원

깊게 저문 강이  
외로운 밤을 쓰다듬는 가을에는  
인연과 연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

옷깃만 스친 사람일지라도 잊기 힘든 쉽고 연약한 습성은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불필요한 섭취와 고질적인 낭만.

멀미가 습관인 선장은  
자신의 인생이 담긴 배를 한 번도 맏정신으로 타본 적 없다

작년에 부치지 못한 편지에 떨리는 입술을 담아  
나를 잊었을지도 모를 너의 집 앞 우체통에 가만히 넣어두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이 뜨면  
도로 훔쳐 가슴에 묻고 싶은 날이 있었다

제멋대로 방치한 몇 번의 계절과 인연과 사랑  
다시 오지 않을 또 한 번의 가을에 우린 만날 수 없는 운명이다

## 나/비

국어국문학전공  
20171093 정예빈

나비는 쪼그마하고 나약한 생명체였다  
차 아래에서 시동을 켜는 소리에 놀란 나머지 뛰쳐나와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예의 주시하곤 했다

두 눈을 번쩍거리며 달려오는 바퀴달린 연두색 상자에  
나비는 놀란 표정 그대로  
심장의 고동이 잠잠해졌다

한 쪽 다리는 뼈와 근육이 갈라져서 나와서  
마치 한 다리에 두 다리가 생긴 듯한 착각을 일으켰고  
나비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떨림의 순간을 잠시로  
축 쳐진 나비만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정처없이 돌아다  
어느 순간 어디론가 날아가버리는  
나비와 같이  
나비는 나비를 따라  
저 멀리 날아가 버린다  
떨뚱거리는 한쪽 다리를 잊고서  
머나먼 여행을 떠난다

## 작은 아이

국어국문학전공  
20171093 정예빈

살인자도 용서하는 그 마음

심장의 한 중앙에 압력이 쏠리고  
붕어 공기주머니가 터지는 듯한  
미세한 폭음이 귓가에 들렸다

왜일까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데  
착하게 살면서 가해자를 용서해야하는 것인가

사랑은 지독하지만 오물로 지물려터진 가슴에서  
털털털거리는 오래된 선풍기 표면 냄새가 진동하였고  
머릿 속에는 온갖 살인과 비웃음이 가득했다

하루는 시체의 가족을 가늘게 잘라  
개에게 던져준 후  
시체를 향해 달려들어 육식을 하는 개들을  
무심하게 멍하니 쳐다보는 날도 있었고

또 다른 하루는 구더기가 들끓는 남은 시체 조각들을  
장작불에 집어 던진 후  
구더기가 발버둥을 치며  
꿈드럭거리는 모습을 바라보는 날도 있었다

잔인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죄책감이 들는 날이 매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제로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그쳤기 때문이라고  
제 몸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무릎 꿇은 다리 위에 깎지 낀 손을 내려쳤다

## 스마트폰

국어국문학전공  
20171093 정예빈

길게 집집마다 연결된 전선이 보이지 않고  
밤에 흰히 빛나는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가게 앞에서 번쩍거리는 화려한 빛깔을 냈던 광고판이 보이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어댔던 지하철 판매자의 소리는 죽어있고  
사람들의 걸이를 신경쓰지 않고 걸어가고  
혼자 들어왔다 혼자 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점차 익숙해져 간다

나도, 주변 사람들도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물아일체가 되어  
주변의 신경은 죽인 채로  
홀로 걸어가고 있다  
아래로 아래로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다

## 소화기

융합인재학부  
20206523 정수연

나는 항상 이곳에 있었다  
너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나를 봐달라고, 그렇게 외쳤다

내 위로 쌓여가는 뽀얀 먼지가  
보이지 않는 걸까  
구석구석 추억을 청소하면서도  
단 한 번, 날 보지 않는다

바로 앞에서 친구들과  
왁자지껄 수다를 떨면서도  
네게 난 투명인간인지  
내게 인사 한 번 건네지 않는다

차라리 불이라도 나면  
내 이름을 애타게 불러줄까  
손을 뻗으며 애타게 찾아줄까

눈길 한 번, 손길 한 번  
간절히 바라지만  
날 잊어도 좋으니  
네가 무탈하길

## 달

융합인재학부  
20206523 정수연

달은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어두운 밤하늘을 비춘다

길을 잃은 여행객에게는 등불이  
간절한 이에게는 소망이  
지친 이에게는 평안이 된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경배하며 그를 에워싼다

달은 오늘도 컴컴한 어둠을 밝혀  
누군가의 마음을 빛으로 감싼다

비록, 스스로 빛나지 못해  
태양의 빛을 훔쳐왔지만  
별은, 기꺼이 달에게 고개를 숙인다

## 마스크

융합인재학부  
20206523 정수연

고작 하루짜리 인생을  
이리도 치열하게 살아가야할까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촉촉한 비가 내려도  
굳건하게 버티라 배웠다

바깥의 침입을 막아  
너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

허나 사활을 건 방어태세도  
답답하단 너의 손길엔 별 수 없다  
운칠기삼, 건강을 빌어주며  
너의 각오를 기다릴 뿐

무사히 귀환한 너와  
온힘을 다 써 쓰러진 나  
고맙다는 인사치레도 필요 없다

오늘도 무사한 너의 삶은  
하루짜리 인생의 가치로 충분하니

들꽃

간호학과  
20206266 이수민

들에서 자란다 하여  
들꽃이라 부르지 마라

야생에서 자란다 하여  
야생화라 부르지 마라

알지 못한다고 하여  
그렇게  
부르지 마라

지나간 그 이름  
가만히  
적어보았다.

종점

간호학과  
20206266 이수민

새벽의 별과 달  
빛을 흩뿌리고  
시작이었던  
종점

마지막  
어둠이 내려앉고  
달이 떠오르고  
찾아온  
종점

## 가루비

간호학과  
20206266 이수민

흙냄새가 아침 공기를 물들이고  
빗방울 하나하나 떨어지고  
웅덩이 떨어진 물이 튀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식물들은 잎 숙이고  
하늘아래 구름에  
해 가려지고  
함께 했던  
그날의  
가루  
비

## 함께 길을 걸으며

간호학과  
20206266 이수민

이 길의 끝에서 기적처럼  
나타나 웃으며  
함께

그때 걸었던 이 길을  
약속했던 것처럼  
함께 길을

그저 일상처럼  
서로에게 끌리는  
함께 길을 걸으며

함께  
다시 만나 웃으며  
길의 처음에서 운명처럼

## 남은 시간 안의 그대

인문학부  
20201089 임지영

한쪽이 헤져 덜렁거리는 걸 보았다  
수많은 지문이 지나온 시간에  
그대로 멎힌 이유이겠지

다분히 흘날릴 뿐  
시린 세월의 흔적을 담아서인지  
제목이 없다

몸에 두른 겹겹이 쌓인 먼지들은  
남은 웃음을 보냈고  
미성숙한 나는 치밀어 오르는  
울림에 발걸음을 따라 들어갔다

하얀 이정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선망의 대상이 지나온 시간을 품에 안았다  
뻣뻣하던 게 으스러질 만큼

가면을 쓴 채 열병을 앓는 나를 위해 모두 떠안았고  
녹슨 빛 속의 나를 위해 가로등을 세워준,  
자꾸만 폭풍을 휘젓는 나를 대신해 앓던,

그대처럼 나는  
남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 탄생비화

인문학부  
20201089 임지영

무작정 발아래를 바라보며 떠다녔다  
밑에선 무언의 비명이 속을 울렸다  
붉은 고래가 피어올랐던 까닭일까

붉은 고래들은 덩어리를 감아 삼키며 유명하였다  
그 움직임에 실타래들이 얽혀 완성한 듯 했지만  
위태로운 곡예로 파동이 일어났다

폐에 들어찬 이질감에  
가쁜 숨을 수없이 얼마나 구역질 했을까  
모질게 떨어지는 이빨 사이의 덩어리가 피어올라  
메마른 소리를 만들어낸다

순간  
달지 않는 무언의 자유로움으로  
헤어 나올 수 없는 광활함으로  
빠져들어 갔다

‘안 돼’

고래들의 노랫소리가 닫혀있는 귀를 압박하고  
뱃속에선 지느러미의 파장이 크게 일었다

그제야 붉은 고래는  
덩어리들을 허공으로 흩뿌렸고

난, 이제야 잔잔히 퍼져나갔다

## 그대를 찾습니다

인문학부  
20201089 임지영

자꾸만 고꾸라지려는 그대의  
그 휘청거림을 가득히 눈에 담았지만  
술한 날 서러움을 마시는 그대는  
그 낡은 아련을 가득히 눈에 담지 못했습니다

아득한 내음이 담긴 꽃송이 하나가  
바닥을 향해 도주합니다

꽃이 가득한 무더기 속에서  
한 송이가 허공에서 짓이겨도  
한 송이가 나락에서 헤집고 있어도  
검디검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만 탐망할 뿐  
거무튀튀하게 변한 낙화에 눈길을 돌려버립니다

한번 달았다 떨어지는 시선에  
일말의 희망을 담고 칠흑 같은 어둠을 우러러보았지만  
무엇에 짓이겨서인지 평범한 아무개로 살아가기 위해  
내음이 아득한 그곳을 에돌아갑니다

공허한 햇살이 잇따르는 그 날  
버거운 어둠을 지나  
변색이 된 신발코가 하늘을 향합니다

## 진부한 결말

인문학부  
20201089 임지영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과 함께  
공주와 왕자는 명량한 기쁨을 마셨대‘  
영화 속 한 장면이 피어올라 결말을 속삭였다  
흘러넘치는 시선들에 막연하게 담아버렸다

땀인 길로 나를, 자비로운 굶주린 그들은 몰아넣었다  
인공적인 향이 흘러나왔으며  
그림자조차도 눈에 띄지 않았다

가득 머금은 구름이 휘어잡는 곳은  
막을 내리기 위해 한껏 부풀어 있다  
놓지 않으려 서서히 다가오는 게 두려워  
꼬리를 자르고 내달렸다

잘린 꼬리를 바라보곤  
한 발자국을 남긴 채 문턱에서 돌아갔다

고운 빛이 내리는 날  
그들의 낙원에서 한참을 오들오들 떨었다  
최후의 승자를 바꾸지 못한 채,  
결말은 또다시 이리하다

## 투박한 소원

인문학부  
20201089 임지영

차가운 한숨이 생채기를  
만들었음을 알고 있는가  
번다스러운 시선들에 손끝에서  
애달픈 붉은 빛이 피어오름을 알고 있는가

희망을 짓누르는 황혼에  
바스러지는 감각이 온몸이 흔들렸다

투박한 소원을 여러 번 되새기며  
이유 모를 대가를 치렀음이 느껴지자  
아름다운 순간의 매듭을 지었다

마냥 뻗어지는 이산화탄소에  
허우적거리는 것도 잠시  
희미하게 보이는 빛을 향해  
꺼이지 않을 만한 존재를 좇았다

아슬하게 걸쳐져 있던 이유일까  
특 하는 울림과 함께  
빛이 존재를 지우자  
아무런 흔적 없이 쫓겨났다

## 겨울, 그리고 집

인문학부  
20201018 김성윤

창밖엔 바람이 불어 무서운 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것들에게 공격받는 계절  
아무리 숨어도 끈질기게 쫓아와 목덜미를 물어 뜯어버리는

나는 서둘러 커튼을 치고 고개를 돌렸다.

곧 눈보라가 칠 테지  
고양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작은 상자 속에 바들바들 떠는 털 뭉치들  
옹기종기 모여 온기를 나누는 걸 상상한다  
뱃속이 뭉툭하게 조여 오는,  
어쩌면 오싹하기도 한  
너를 볼 때와 같은 부류의 감각

보드라운 침대 속  
잠든 얼굴은  
네 생존은 매번 나를 깜짝 놀라게 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를 거야  
네 발바닥에 난 상처들을  
네가 얼마나 안간힘을 쓰며 숨을 쉬고 있는지  
넌 상어처럼 헤엄치잖아

바닥은 뜨끈하게 열이 올랐다  
온기가 가득한 집  
바싹 구워지고 싶다  
네 머리카락이 손에 얽혀오고  
나는 입을 맞추며 생각한다  
창밖에 눈보라가 아무리 휘몰아친다고 해도  
네 눈동자는 여전히...  
그래, 여전히

## 시계

인문학부  
20201018 김성윤

두께가 이 센티나 되는 검은색 커튼  
불도 다 꺼져서는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언제인지  
계속해서 팽창하는 방 안의 시간  
세상은 나를 버리고서 제멋대로 흘러가고

기준을 잃어버렸어  
혼자 남겨졌어  
더듬거리며 방을 기던 것도 지쳐서는  
창밖의 풍경이 좀처럼 예상이 안 돼

쓸모없는 곰 인형과 짹짹한 복숭아 같은...  
봄 냄새가 그립지 않거나 아침이 두려워지는 거 말이야  
라나의 목소리가 어색하다  
모르는 단어로 가득 찬 영어책을 더듬거리며 읽어 내린다

온 몸이 바닥에 붙어 버리기 직전 쯤  
조금씩 일렁이는 경계  
어린 아이였다가 노인이었다가 하며  
기억과 상상이 뒤섞이는

그렇게 가만히 숨죽이고 누워 있는데  
어둡고 두꺼운 적막 속에서  
째깍째깍째깍째깍  
하고서 균열이 이는 거야

머리 한참 위에서 태양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여전히 밖을 볼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믿음이 조금씩 깨어나는 거지

칸칸이 흐르는 세상을 가늠하다가  
곰 인형을 힘껏 끌어안았다

##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

인문학부  
20201018 김성윤

중년의 남성이 내 존재를 부정하며 웃는다  
말은 재치 있는 농담 정도로 분류되고  
나는 그를 따라 하하 소리를 낸다  
그래도 고개는 끄덕이지 않는다

입술에 선명하게 난 잇자국,  
쉽게 바래는 얼굴,  
창문 밖의 파란 하늘

집으로 돌아가는 발은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있다  
발에 자꾸만 자갈이 채여 얼굴이 붉어진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청춘은 노래를 고래고래 부르고

거울을 보니 한 여자가 깔깔 웃고 있네

한참을 중얼거리다 쓰러지듯 잠든다  
내일은 무얼 해야 할까요  
꿈속에서 세우는 계획은 무지갯빛 다이어리에 적혀 있다  
내일은 꿈을 꾸지 않으려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  
내뱉는 말이 곧장 가로막힌다  
그래도 열은 오르지 않는다

색은 점점 탁해져 잿빛이 되었다

## 고립과 사랑

인문학부  
20201018 김성윤

머릿속에 있는 정교한 언어체계를 부숴 들여다보면  
고립과 사랑은 아마 비슷한 색을 띠고 있을 거다  
둘은 아기와 고양이의 울음소리만큼이나 비슷해서  
혼란은 끊임없이 무질서를 만들어낸다

고립되어 있기에 사랑하는 걸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립되는 걸까  
지영아, 우리 심장에는 먼지가 너무 두껍고 뿌옇게 쌓여 버렸어

경험해 본 사람은 알고 있다  
옷장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참아내는 신음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섬찝한 느낌을  
바늘을 삼킨 것처럼 따끔거리거나  
가끔씩은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

불안감에 도망치는  
정말로 어쩔 수 없었던 날에,  
고개를 드니 낮선 검정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  
중력도, 시간도 없는 우주  
그건 정말 무섭지  
하지만 우린 계속해서 사랑하고 고립된다. 고립되고 사랑한다.  
그건 마치 폭발하는 별 같아서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끼고

짧은 손가락으로 생을 한 뼘씩 계산해 보라  
끝까지 우주 속을 달리다 까맣게 재가 되고 싶다  
행복한 소멸,  
시의 마지막 문장을 향해서

## 먼저

의예과  
20206102 곽대한

네가 날 슬쩍 봤을 때  
나는 너를 계속 झा러봤어

네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그냥 껍 안아버렸어

네가 뽀뽀를 원했을 때  
내 혀는 가만히 있지 못했어

처음부터 빨리 가던 나였기에  
이별을 먼저 보고 있어

## 세 글자

의예과  
20206102 곽대한

세 문단으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세 문장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도 어렵다

세 글자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쉽다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이런 말들은 참 좋다

## 손빨래

의예과  
20206102 곽대한

얼룩을 지우고  
문은 때를 빼고  
손에 문은 비누도 지웠어요

지웠는데  
분명히 지웠는데

네 번째 손가락에 빨간 반지는  
빠지지도 지워지지도 않아요

아아  
내 머리가 지워졌나  
나는 몰라요

## 무제

의예과  
20206102 곽대한

텅 빈 내 가슴을 비워도  
비우고 비우고 아무 것도 남지 않아도  
그대는 비울 수가 없어요

텅 빈 내 가슴을 비워도  
비우고 비우고 아무 것도 남지 않아도  
그대는 비워지지 않아요

그대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비워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그런데 있지는 않아서

남아있는데 텅 비어있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아 이미 없구나  
가을 타는 건가  
모르겠단 하나도

사방이 만산홍엽이라  
이 가을의 아쉬움을  
어찌 다 표현할까

## 성숙

바이오메디컬학과  
20173633 이소현

누군가 물었다.  
그를 용서하냐고.

다시 물었다.  
그를 사랑하냐고.

나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생각했다.

언젠가는 올지도 모른다고  
용서도  
사랑도 아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인정하게 될  
혹은, 애써 이해하게 될.

## 무제

바이오메디컬학과  
20173633 이소현

살아가게 만들었다가  
살지 못하게 가뒤편이기도 한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행복을 안겨줬다가  
견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트리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찬란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암담하기도 하고

쓰디 쓰고, 다디단.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 부른다.

## 겨울, 눈

바이오메디컬학과  
20173633 이소현

소란했던 시간  
복잡했던 마음  
뒤척이던 밤들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하루로 모이고

정리되지 않는  
길고도 짧은 날들을  
역지로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들을  
마치 다 안다는 듯이  
하얗게 감싸준다.  
다독여준다.

괜찮아,  
괜찮아.  
또, 괜찮아.

## 시선

인문학부  
20201087 인서윤

우리는 봐야만 한다  
그래야 마주 설 수 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사이에서  
우리는 마주 봐야만 한다  
그래야 살 수 있기에

살기 위해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보여지고, 또 보여지고

내 안의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우리는 보여져야만 한다  
그래야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 달무리 아래

인문학부  
20201087 인서윤

민들레 꽃씨처럼 퍼지는 마음  
후후 불면 날아가버릴 가벼운 마음

둘이 맞는 비가 좋을 때가 있었다  
툑 툑툑 툑 툑두두  
떨어지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빗소리도 그쳐버릴 때면  
툑 툑툑 툑 툑두두  
그 소리가 하염없이 귀에 남아  
민들레 꽃씨와 함께 날아간다

둘이 자리한 달무리 아래가 좋을 때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 곧  
툑 툑툑 툑 툑두두  
떨어져버릴 그 징조마저

다시 창문을 열어  
그 자리를 바라보면  
하얀 것들이 아른거린다  
달무리인지 꽃씨인지 모를 하얀 마음들이

흔들리는 달무리에 빗방울이 어린다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창문에도 빗방울이 어린다  
툑 툑툑 툑 툑두두  
떨어지는  
그것에  
혼자 남은 민들레가 운다

## 종이 비행기

인문학부  
20201087 인서윤

난 지는 연습을 했을 뿐이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그대로인 내가 미워  
아주 멀리 사라진 진짜 비행기를 상상해본다  
진짜 비행기가 된 나를 상상해본다  
한날 종이 조각이 아닌 나를 상상해본다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내가 된 나를 매일같이 꿈꾼다

난 이기는 상상을 했을 뿐이다  
나를 제치는 구름이 이기는 그림을 지워도 지워도  
아직까지 선명하고 아득한 하늘이 나를 덮쳐온다  
선명한 푸름이 기껏해야 두꺼운 종이인 나를 죽인다  
내 눈을 가리는 밝은 어둠이 쏘아지는 나를 막는다  
공중에 던져진 내 머리는 또 다시 구덩이 같은 땅으로 향한다

결국 누구도 진짜가 될 수 없는  
나와 너의 시합은 날개 대신 숨겨진 두 다리가 붙들려 끝없이 반복된다

## 올바른 산책을 하는 방법

인문학부  
20201087 인서윤

숨을 쉬다 어색해지는 순간이 오면  
그대로 밖을 나가 아파트 산책로를 한 바퀴 돌고 온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오늘따라 많이 쉬었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춰 바라보는 광경은 어둡기만 하다

어느새 캄캄해진 검은 하늘은  
가로등 아래 벤치마저 보이지 않게 만든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보는 이유를  
달은 알고 있을까  
달의 친구인 별들은 알고 있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숨 쉬는 것은 어색하지 않다

때로는 잊고 사는 것이  
정해진 일을 부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산책이다

## 고름

글로벌 비즈니스전공  
20187183 임수현

문장은 짧을 수록 좋은 법이지만 저의 배설하듯 구토하듯 나오는 문장들은 도무지 제맘대로 멈출수가 없습니다.

재채기를 하듯이 제 안의 응어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정신없이 문장들을 줄줄 흘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문장이 아닙니다. 저의 상처에서 터져나오는 고름입니다. 그렇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나 우아한 자태로 있지 않습니다. 처절하고 지저분하고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며 보기만 해도 불쾌해지는 모습입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끈적끈적한 문장들이 쏟아집니다. 더이상 한 글자라도 나오지 못할때까지 고통스럽게 쏟아내어도 도무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의사가 쓴 책중에 한쪽 다리에 병이생겨 엄청난 고름이 나오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 다리를 살려보려 애를 썼지만 결국 다리를 잘라내야했고 허벅지 위쪽까지 잘라냈지만 그녀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라내야 할까요. 고름이 흘러 나오는 곳은 심장입니다. 심장을 잘라내면 인간을 살 수 없습니다. 환부를 잘라낼 수 없다면, 저는 그 여자보다 더 많은 고름을 흘리며 죽어갈까요? 그렇다면 제가 죽은 자리에는 문장들이 흘러넘쳐 문틈 사이로까지 빠져나갈 것입니다.

## 망월 (望月)

글로벌 비즈니스전공  
20187183 임수현

공주는 달로 떠나갔습니다.  
아니,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그녀가 생각날때마다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 방의 창은 서쪽을 향해 있어서 달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침반과 시계로 위치를 확인해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달에 데려다 달라거나 나를 위해 지구에 남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훔날리는 달빛을 주전자에 담아 작은 잔에 따라마시며  
아름다움에 취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 자유

글로벌 비즈니스전공  
20187183 임수현

채우고 싶어  
단단히 붙잡고  
힘을 가득주어 안고있던 항아리를  
떨어뜨려 깨어버리고  
비어져 버린 품속에  
가득히  
날아가는 바람을 담아  
함께 떠나자

## 모래

글로벌 비즈니스전공

20187183 이수현

사신은 말했다 그곳의 과일은 마치 모래를 씹는 맛이라고. 그가 가고 난 이후로 나는 모래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 건물과 음식, 모든 풍경들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바람이 불면 퍼석퍼석하게 날아가 버리고 다시 새로운 모래가 흘러내리며 자리를 채운다.

모래는 의미를 담지 못한다.

형태가 없는것들은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담길 뿐이다.

## 우울증 일기

글로벌 비즈니스전공  
20187183 임수현

내가 자격지심이 있는걸까  
없다고는 하지 않겠다.

매일 했던 대화들을 돌려보며

생각한다

억지로 좋은 생각을 짜낸다.  
“그가 나를 좋아하는거야.  
많이 바쁘거나 보다,  
나랑 이야기를 못할정도로 피곤하구나..”

망상인지 현실인지 나는 알 수 없다.  
이것마저 없으면 나라는 인간을 지킬 수 없어서.

나는 공허에 사는 허상인 것이다.

## 누군가의 비행기

인문학부  
20201105 최영서

커다란 야자수 잎을 뒤로한 채  
창문 너머 멀어지는 섬들을 바라본다  
착륙하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간판들  
도착지는 한글로 수놓아져있다

산속이 아닌 도시에 자리잡은 공장  
기다란 굴뚝에서 연기가 새어나온다  
읽을 수 없는 아저씨들의 입모양  
서로의 손짓으로 기계를 만들어나간다  
부품들은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여행한다

시커매진 장갑에 갇혀있는 그의 손  
아침일찍 현관문이 아닌 창고를 연다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보며  
자신도 세계로 뺄어나가고 싶지만  
큰 시계만 바라보며 공장에 머무른다

적은 액수만큼 얼마 안 되는 짧은 휴가  
굳어버린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 오른다  
창밖 구름 대신 눈에 담는 가족들의 사진  
고향의 햇살에도 땀이 흘러내리지 않는다

날개가 있기에 비행할 수 있었던 날  
어머니 주머니에 꾸깃 접은 편지를 넣는다  
고향 하늘을 떠돌던 종이비행기는  
어느새 날아가 사라지고  
그는 오늘도 다시 신발끈을 고쳐맨다

## 모래시계

인문학부  
20201105 최영서

학생증 대신 주민등록증이 생긴 그는  
몸이 부서지도록 아르바이트를 해  
배낭을 메고 드넓은 사막을 걷고있다  
사막위를 날아다니는 고운 모래  
눈앞을 가려도 것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바람에 이끌려 맞이한 푸르른 초원  
광고의 뒷모습에 가려진  
굽슬머리의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해맑은 웃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흘러가는 시간을 눈에 담는다

흘러내리는 줄 모른 채 쌓여간 그의 인생  
가시밭길인 선인장에게 받은 상처들  
하나뿐인 오아시스를 만나 치유받는다  
사막의 꽃을 피우듯 자식들을 키워나간다

흰머리가 하나둘씩 생겨나  
안경을 고쳐쓰고 바라본 그자신  
자유롭지 못하고 유리병에 갇힌 채  
흘러내린 얼굴과 시간을 마주한다  
그를 둘러싼 기둥이 있어 쓰러지지 않는다

모래시계를 뒤집는 주름진 손등  
부서질듯이 약해진 그는 과거로 갈 수 없다  
곡선을 따라 모래가 한 곳으로 모여  
그의 시간이 파묻힌다  
어느새 고운 모래알이 떨어지지 않는다

## 파리

인문학부  
20201105 최영서

까만 정장을 입은 채 매일 사원증 싸매고  
부서를 이리저리 헤매며 출근도장 찍던 사원  
어느덧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흰머리가 자라나  
과거 웅웅거리던 상사의 말을 뒤로한채  
꾸깃 접어놓은 사직서를 내던졌다

커다란 두 눈에 불을 켜고  
주식 시장 곳곳을 뛰어다니다  
안락한 접시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떨어진 부스러기 한 점 주워 먹으려  
그에게 치근덕대며 몰려드는 사람들

모래시계 속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린 종잇장  
빛이 쓰레기더미처럼 수북히 쌓여가고  
그에게 날개짓하며 다가오던 그들의  
약수하던 손은 어느새 코를 막고 있다

굽어진 등으로 마주한 지하철역 바닥  
겹겹이 쌓아올린 신문지 위에 내려앉아  
손 비비는 그를 떨쳐내는 사람들  
그들은 바빠 제 갈 길 가며  
숨을 꼭 참은 채 뒤돌아선다

축 처진 날개의 그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귀에서 맴돌아  
자신의 몸에 달라붙은 먼지를 털어내  
이제 날지는 못해도 집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어 걸어가본다

## 연습장

인문학부  
20201105 최영서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이 까맣게 채색되는 동안  
엄마를 기다리다 오래된 책장에서 발견한  
빠죽 튀어나온 한 장의 사진  
긴 생머리에 반쯤 가려져도 환한 미소로  
사진 속 그녀는 고운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다른 풍경을 찍고있다

물에 달은 종잇장처럼 쭈글해진 손등과  
짧은 머릿결 사이로 보이는 얼룩진 얼굴  
사진 속 그녀와 똑 닮은 엄마는  
별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오늘밤에도  
앞치마를 두른 채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사진찍기를 좋아하던 그녀는 전세계를 누비며  
자신의 연습장을 넓게 펼치고 싶었지만  
온몸이 찢겨나가면서 나를 만나고  
가끔 나의 칼같은 말에 베이면서  
그녀의 꿈은 한 장 한 장 뜯겨져나갔다

나를 품느라 쓰고 지우길 반복했을 연습장  
너덜너덜해지고 이제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어렸을 적 나를 카메라에 담을 때마다  
엄마가 감추곤 했던 일렁이던 눈빛

그녀에게서 떨어져나간 종잇조각을 주워담아  
굳게 닫힌 표지를 펼쳐 덧붙여본다  
서서히 페이지를 넘겨  
그녀가 다시 꿈을 쓰기 시작한다  
카메라를 다시 들어올린다

## 골목길

인문학부  
20201105 최영서

가로수길을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곳곳에 떨어진 쓰레기들이 스쳐지나간다  
신발에 치이고 바람이 치이는 멍치들  
그가 녹이 손 집게를 들고 따라 들어가면  
비좁은 골목이 나온다

넓은 가로수길뿐만 아니라 주택 사이사이의  
좁은 골목까지 흘러들어가  
긴 빗자루를 든 그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가 허리를 숙일수록 그림자가 짧아진다

어느덧 헤진 모자와 장대 빗자루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초등학교로 올라가게 된 딸을 위해,  
그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을  
주머니에 품은 채 계속 걸어왔다

쓰레기가 널브러지고 냄새가 풍겨  
어두워지던 사람들의 표정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는 시간,  
빗자루를 잡는 그의 주름진 손에 의해  
일그러지던 얼굴이 다시 펴진다

기나긴 새벽이 끝나가고  
따스한 햇살이 점점 다가오니  
길고양이들도 잠에서 깨기 시작한다  
깨끗한 세상을 위해 장비를 챙겨들고  
그는 또다시 거리를 나선다

소설 부문

[최우수상]

## 긴머리양

중국학과  
20171059 오규리

긴머리양은 슬프지만 울지 않는다. 빠져나갈 구멍을 잃은 슬픔은 작은 물방울만큼의 존재감조차 잃어버려 긴머리양은 어느새 슬프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깊은 곳으로 흩어진 슬픔은 가끔 발을 구르며 눈물도 없이 울음을 흉내 낸다. 그것은 여러 갈래의 진동으로 온몸에 퍼지다가 어딘가에서 서로를 맞닥트려 작은 폭발을 일으킨다. 긴머리양은 그저 또 쥐가 났네 하며 몸을 주물거린다. 진동은 오래가지 않는 편이다. 더 큰 진동은 외부에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밤에 오는 파도처럼 긴머리양을 덮친다. 너 때문에 집안이 개판이야! 엄마는 머리카락 한 움큼을 손에 쥐고 날뛴다. 그러면 긴머리양은 자신의 머리카락에 손을 대본다. 한번 땅고, 끝을 묶고, 다시 뱅글뱅글 돌려 묶고, 위로 고정한다. 머리 한가운데 솟아오른 둥근 바위산 같은 것이 만져진다. 그것은 전혀 흐트러짐 없다. 긴머리양은 언제나 머리를 묶고 있다. 파도가 지난 자리엔 또다시 날카로운 침들이 날아와 신경이나 혈관 같은 미세한 공간을 파고든다. 네 머리카락이 내 발바닥에 박혀있었다고! 아빠가 들어 올린 핀셋이 눈앞을 무늬 없이 긁어놓는다. 야 이거 네가 다 치워! 언니는 방까지 침범한 머리카락을 발바닥으로 밀어내며 따끔한 눈빛을 연 발로 장전한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아니 식구가 몇인데, 그 머리카락이 전부 긴머리양 탓인가? 더구나 긴머리양은 절대 머리를 풀지 않는다잖아. 하지만 긴머리양은 모두에게 이렇게 말한다. ‘죄송해요’. 모두가 대머리라서 그렇다. 이 집의 막내 긴머리양만 제외하고.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언니는 서로의 거울 속에 사는 것처럼 닮았다. 그들 입꼬리가 호선을 그리며 올라간 각도가 유독 오차를 찾아보기 힘들다. 긴머리양은 갑자기 슬퍼했지만 울진 않는다. 머리카락은 핑계다. 모두 나를 싫어한다. 그런 생각만 한다.

고 선생은 눈을 몇 번 깜박였다.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하며, 이 이상한 글을 무자비하게 받아든 눈이 토해내려는 움직임이었다. 초등학생들의 글 사이에서 누가 봐도 반듯한 어른 글씨를 발견하고 읽기 시작한 것이 3분 전 일이었다. 그 종이를 앞뒤로 이리저리 펴려다다가 ‘신재리’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고 선생은 작게 아- 소리를 냈다. 재리는 3월부터 B대학에서 고 선생이 있는 청소년 센터로 봉사활동을 나오는 학생이다. 반듯하게 묶인 재리의 머리카락이 생각났다. 마치 이 글 속 긴머리양처럼 둥근 바위산 같은 머리카락. 언젠가 고 선생은 재리의 단정한 머리에 대해 입이 간질거리는 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머 머리가 발레리나 같네요. 호호. 나쁜 뜻이 아니라는 듯 웃음소리로 마무리했건만 재리의 냉담한 표정이 그 이상의 어떠한 반응도 해주지 않아 민망했던 기억이 슬그머니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따라서 고 선생의 얼굴이 잠시 붉어졌다. 아이들의 글씨가 종이 위에서 맘껏 꿈틀거렸지만 고 선생은 좀처럼 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휴대폰을 켜 시간을 확인했다. 8시. 벌써 저녁때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고 선생은 남은 글에 다시 시선을 옮기면서도 머리로는 오늘 낮의 일을 떠올렸다.

센터 청소를 끝낸 대학생들이 글짓기 활동을 하는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남은 봉사시

간을 어떻게 날로 먹을까 하는 표정들이었다. 사실 이걸 고 선생의 해석이었고 학생들은 그저 똑같은 시간을 받아가면서 건너편 재보다 더 고생하고 싶지 않다 정도의 평등함을 추구할 뿐이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 옆에 한 분씩 앉아서 글쓰기 도와주시면 돼요.”

선생님 호칭을 얻은 학생들은 잠깐이지만 눈을 반짝이며 고 선생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아직 헤아릴 수 없는 어른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그중 현실감이 뛰어난 몇은 아이들의 소꿉놀이에 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학생 할 테니까 내가 선생님 해. 이를테면 그런 것.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들의 눈동자는 하나둘 갈 길을 잃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자신의 글에 다른 시선이 묻는 걸 꺼렸다. 누군가는 반대 방향으로 의자를 틀어 앉고, 누군가는 종이를 구겨가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학생들은 그런 아이들의 눈치를 보다가 이내 각자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자기들끼리 자판을 툭툭 두드렸다. 분리된 분위기 속에서 한참 전부터 혼자 글을 쓰던 사람이 바로 재리였다. 학생 몇 명이 아이들이 쓰는 글짓기 양식을 받아가긴 했지만 대부분 낙서용이었다. 오직 재리의 펜 끝만이 신중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고 선생은 아이들의 양식을 모으는 과정에서 섞여들어 왔을 이 정체불명의 글을 보며 생각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재리에게 글을 돌려줘야 할까. 글 속 긴머리양을 보면 재리가 떠오르고, 재리를 보면 눈물을 참는 긴머리양이 떠올라서 마음이 불편해졌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묻는 건 역시 실례일까. 이미 결론까지 내놓고도 고 선생은 그 후로 한 시간 동안이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게 선생 된 도리였다.

“저기, 선생님. 저번에 쓴 글...”

이렇게 고 선생이 먼저 말문을 튼 건 마침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활동 중이었고 청소를 마친 대학생들은 어딘가로 흩어졌기 때문인데, 사실 무엇보다도 교실 안에 혼자 앉아 있는 재리를 본 순간 이것이 보기 드문 기회란 생각이 퍼뜩 들어서였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재리가 고 선생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너... 집에 무슨 일 있니?”

고 선생은 자기보다 대략 20년 치의 아침과 밤을 넘어오지 못했을, 그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난 생채기를 발견하고 거리를 두던 호칭과 존댓말을 집어치웠다. 잠깐이지만 내가 고등학생 때 딸을 낳았으면 이만했겠다 따위의 생각도 했다. 항상 반듯하던 재리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흘러내려 땀과 함께 볼에 눌러 붙어있었다. 그 몇 가닥을 향해 손을 뻗는데 재리가 먼저 말을 꺼냈다. 고 선생의 손은 어정쩡하게 허공을 더듬다가 밑으로 추락했다.

“제가 쓴 소설 말씀하시는 거죠?”

“소설?”

“네. 긴머리양과 대머리 가족. 버리려다가 그냥 두고 간 건데.”

“아 그게 애들 글 사이에 섞여서.....”

“다 보셨어요?”

“그렇지.....”

고 선생은 이 상황이 낯설었다. 왜? 갑자기? 정돈되지 않은 의문이 머릿속을 떠다녔다. 재리는 고 선생의 밝은 갈색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고 선생은 재리가 그 집요한 시선만으로 자신의 눈동자에 해코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얼른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침 아

이들의 목소리가 창을 타고 넘어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 선생의 귀에 자리 잡은 목소리는 재리의 것뿐이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할머니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탔어요.”

“어?”

“할머니는 무료 탑승이 가능하니까. 할머니 교통카드를 개찰구 단말기에 찍고, 저는 할머니 등에 꼭 매달려서 같이 통과했어요. 그래야 둘이 같이 무료가 되거든요.”

고 선생은 일단 잠자코 재리의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의자에 앉았다.

“매일 그렇게 하루 종일 지하철만 타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거나 할 일은 없었어요. 저는 항상 자리에 앉을 수 있었거든요.”

재리는 느릿하게 눈을 한번 깜박였다.

“할머니는 종종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앉을 수 있었던 거죠. 할머니가 서 있으니까. 마치 시소처럼. 저는 자리에서 올려다보는 할머니 턱살이 좋았어요. 그냥. 그냥 좋았어요.”

고 선생은 최대한 고요한 지하철을 상상해봤다. 그럴 리 없지만 두 사람의 웃음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한.

“저는 원래 엄마 아빠를 잘 몰랐어요. 있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별로 갖고 싶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생겼어요. 그리고.”

재리가 숨을 고르는 사이 고 선생은 잠시 숨을 죽였다.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감쪽같이. 아무도 할머니가 계신 곳을 알려주지 않는 게 답답해서 제가 직접 할머니를 찾기로 했어요. 우선 돈을 들고 지하철로 갔죠. 할머니가 지하철 어딘가에 서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를 보면 바로 앞자리에 앉아야지. 짧은 상상이나 하면서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탔는데,”

1층에서 말소리가 섞여 올라왔다. 아이들이 계단을 밟는 발소리는 덤이었다. 고 선생은 슬슬 이야기의 끝을 바랐다.

“어디를 가도, 몇 호선을 타도 할머니가 없는 거예요. 저는 뒤늦게 할머니가 지하철에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목적지가 사라지는 순간, 저는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잃어버린 게 결과적으로 총 4개예요.”

재리가 네 손가락을 짝 펼쳤다가 하나씩 접어 내리기 시작했다.

“길. 할머니. 엄마. 아빠. 이번엔 모두 저한테 있다가 사라진 것들이라 눈물이 막 났어요. 그 후로 보호소에서 1년을 보내다가, 지금의 엄마 아빠를 만난 거예요.”

몸이 얼어붙었다. 손가락 하나만 살짝 담갔다 여차하면 곧장 손을 털어낼 생각이었던 고 선생은 예상보다 훨씬 깊게 흥진 기억에서 허우적대는 중이었다. 기억의 늪은 진득하게 고 선생을 물고 놔주질 않았다. 고 선생은 머릿속에 전원 차단기가 있다면 당장 손을 뺐고 싶었다. 그러나 차단기 같은 게 있을 리 만무한 머릿속은 언제나 그랬듯 과부하를 견디며 더 빠른 속도로 회전 중이었다.

제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네요 하고 말을 내뱉는 의사는 모두 이런 경험을 할까 생각하고, 선생으로서 이런 상황에 할 말 하나 고르지 못하고 있다니 자책하고, 실은 애초에 준비된 말들이 하나도 없음에 거의 절망 직전의 심정으로 손을 들어 재리의 등을 토닥이려는 찰나, 재리가 몇 마디를 덧붙였다.

“요즘 새로 쓰는 소설 도입부예요.”

와아아아. 아이들 열댓 명이 교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다들 손에 나뭇잎을 쥐고 있어 교실 안이 푸른 숲 내음으로 가득 찼다. 고 선생은 순간 그 향이 아찔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펼쳤던 손바닥을 짝 쥐며 몸을 일으켰다. 재리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위로 이동했다. 고 선생이 몇 번 입을 병긋대다가 문득 재리의 시선이 자신의 턱 끝에 고정된 것을 알아차렸다. 고 선생은 턱을 감싸며 아무렇게나 말했다.

“그래. 재밌네.”

재리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고 선생은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뭇잎을 책상 가운데로 쓸어모았다. 복도에 있던 대학생들도 어느새 모두 교실에 들어와 있었다. 교실 안 모든 이가 가만히 고 선생의 말을 기다렸다. 재리도 마찬가지였다. 고 선생은 웬지 속이 울렁거렸다. 곧 신물이 넘어올 것 같아 서둘러 말을 시작했다. 선생이 수업하다가 토를 할 순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오늘은 나뭇잎으로 스케치북을 꾸며 볼 거예요. 풀이나 테이프를 사용하면 되고, 사인펜으로 나뭇잎 위에 그림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나뭇잎을 고르기 시작하자 학생들도 하나둘씩 아이들 사이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고 선생은 학생이 없는 쪽 아이들에게 붙어 나뭇잎을 골라주다가 결눈질로 재리가 앉은 곳을 확인했다.

“아씨.....”

거친 발음이 새어 나오자 양옆의 아이들이 몸을 흠칫 떨었지만 고 선생은 그 반응을 신경 쓸 틈도 없었다. 재리가 봐주고 있는 아이가 하필 나열이었다.

12살 나열은 언제나 혼자였다. 고 선생은 처음엔 그것이 센터에서만 흥흥하게 도는 실체 없는 전설같이 느껴졌는데, 올해 나열과 같은 반이 됐다는 자신의 딸에게서 이런 말을 전해 들었다. 엄마. 개 울 학교 왕따야. 고 선생은 재리와 나열을 보며 언젠가 수학 학습지를 풀던 딸이 중얼거리던 제곱 공식이 떠올랐다.

불행 곱하기 불행은, 결국 불행의 제곱이다.

고 선생은 마음 쓰는 쪽을 재리가 아닌 나열로 바꾸기로 했다. 나열은 잘 듣고 잘 웃는 착한 아이였다. 아이는 유난스러운 애정에도 어리둥절하지 않고 곧장 안겨드는 게 꼭 언젠가 보호소에서 만났던 새끼강아지 같았다. 나열은 그만큼 작고 따듯했다. 재리의 서늘한 눈동자는 점차 잊혀갔다. 나열은 고 선생에게 고민도 잘 털어놓았다. 매일 같은 고민을 달고 사는 아이였다. 그 아이의 질문은 대부분 이런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애들이 날 좋아해요? 처음엔 그 문장 자체로도 마음이 아파 고 선생은 자신의 가슴 대신 아이의 작은 등을 한참 동안 쓸어줬다.

나열은 정말 꾸준하게 똑같은 질문을 웅얼거렸다. 아이의 작은 심장을 괴롭히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고 선생은 자신도 모르게 종종 한숨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면서도 아이 에겐 선생님이 원래 하품을 많이 한다며 웃어 보였다. 며칠이 지나고 이젠 한숨을 하품으로 돌려대기엔 만성피로를 달고 사는 중증환자 같은 지긋지긋함이 느껴져서, 고 선생은 적극적으로 나열에게 해결방안 몇 개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열이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내일 미술 시간에 멋진 그림을 보여주는 게 어때? 곧 화이트데이네! 열이가 반 친구들한테 줄 사탕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음, 앞머리를 조금 잘라볼까? 요새는 그게 유행이라던데.

“그럼 재는 앞머리가 저래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네요.”

누구는 그냥 무표정이라 하겠지만 몇 주간 재리를 봐 온 고 선생은 알 수 있었다. 재리의 입꼬리가 살짝 말려 올라간 게 딱 비웃음을 참는 꼴이었다. 고 선생은 입만 벌려 호호 소리를 내고 작성 중이던 계획안으로 고개를 돌렸다. B대학 학생들이 봉사 오는 월요일이 또다시 돌

아왔다. 간만에 간식으로 새우튀김이 나온 마당에 하필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두 사람이 재리와 나열이었다. 고 선생은 좀처럼 노트북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계속 재리와 나열이 앉은 쪽을 힐끔댔다. 재리가 나열의 문제집을 채점하는 중이었다. 나열은 적막을 참지 못하고 계속 재리에게 말을 붙였다.

“선생님, 저는 반에 친구가 없어요.”

“그럴 수 있지.”

“왜요?”

“나도 없어.”

“대학생은 친구 없어도 돼요?”

“응”

“와 그럼 나도 대학 갈래.”

“이 문제 풀어봐.”

“몰라요.”

“너 못 와. 아직.”

재리는 나열의 문제집에 가차없이 사선을 그었다. 고 선생은 두 사람 간 의외의 합이 흥미로워 노트북 화면에서 아예 시선을 뺐다. 재리는 몰라도 나열은 재리가 꽤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물론 나열이 사람을 싫어하는 걸 본 적 없었지만 어쨌든 고 선생은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느꼈다. 잠시나마 재리가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일지도 모른다고도 생각했다. 의도치 않게 양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가볍다는 건 어디로든 날아갈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도 했다. 고 선생은 멀리 떨어져 앉아 그들의 거리를 가늠해봤다. 재리와 나열은 꼭 붙어 앉아 있었다. 재리와 나열, 그리고 고 선생까지 아무도 그 거리를 불편해하지 않았다.

때마침 그들이 앉은 창가 책상에 햇빛이 드리웠다. 3월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야 봄이라 부를 수 있는 날씨였다. 봄바람. 어감마저 괜히 심장을 뒤흔드는 것이 살살 머리칼을 헝클였다. 고 선생은 흠날리는 머리카락을 하나로 모아 집게로 틀어 올리다가 오늘도 둥근 바위처럼 정수리 조금 아래쪽에 자리한 재리의 머리카락을 바라봤다. 재리가 그 시선을 느꼈는지 금방 고개를 들었다. 봄바람이 뒤흔든 마음이 엉뚱한 데로 튀어 올랐다. 고 선생이 입을 열었다.

“그, 있잖아, 긴머리양도 차라리 머리카락을 싹 다 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뽀뽀.”

재리는 잠시 이야기의 정체를 찾으려는 듯 허공을 응시하다가 작게 탄성을 냈었다. 나열은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다. 고 선생은 뒤늦게 본래의 기분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내가 왜 그랬지. 내던진 질문이 후회의 코앞에 다다를 무렵, 재리가 입을 열었다.

“머리를 밀었는데도 싫어하면 어떡해요?”

“어?”

고 선생은 순간 질문을 내뱉은 사람이 재리인지 나열인지 헷갈렸다. 자신을 바라보는 네 개의 눈동자가 한 길을 달려온 바퀴 네 개처럼 적당히 동그랗고 대체로 까슬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금세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다시 바라본 재리의 눈동자는 건조하고 시커멓고 비워진 듯 하나 채울 공간 하나 없는 그런 눈일 뿐이었다. 나열과는 정반대 축에 가까웠다. 고 선생이 답을 못하자 재리가 말을 이었다.

“머리카락 말고는 가족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대머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 때문이구나 하고 살아요.”

고 선생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생겼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하려 애쓰는 중이었는데, 다음 이어진 재리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고 선생은 아무것도 이해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냥 가끔 머리카락만 아니면 가족들이 날 좋아했겠지? 상상이나 하면서...”

대머리 가족과 함께 사는 긴머리양과 지하철에서 할머니를 찾지 못한 아이가 재리인지, 고 선생은 종종 고민해봤다. 그러나 진실의 범위를 가늠하는 건 언제나 실패로 이어졌다. 재리는 고 선생이 자신에게서 어떠한 답을 찾고 있던 걸 알아차렸다. 고 선생의 안에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재리는 그 후로 고 선생의 물음에 제대로 답하는 법이 없었다. 고 선생은 쓸데없는 말들로 꾸민 말을 건네다가 나중에 가선 그 거 다 네 실화니? 하고 몇 겹의 껍질을 벗긴 초라한 알맹이를 폭탄마냥 던졌다. 팽팽하게 붙잡고 있던 줄을 먼저 놓아 버린 고 선생은 이제 폭탄의 잔해에도 뒷걸음질 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 폭탄은 불발이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른침을 삼키던 고 선생은 재리의 평온한 눈빛이 다 무안했다. 재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의 뭇은 다시 고 선생에게 돌아왔다.

고 선생은 더 이상 재리와 대화하지 않았다. 그 대신 가끔, 아주 가끔 한산한 지하철 좌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을 때, 재리가 썼던 글을 꺼내 보았다. 글씨가 번져 군데군데 흐릿한 상상력을 채워야 하는 부분이 생기고, 종이 끝자락은 점점 무더지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종이는 센터 아이들이 남기고 간 지우개 가루를 털어내는 데 쓰이고 버려졌다. 물론 고 선생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후에 고 선생이 그 종이 속 긴머리양을 다시 떠올린 건, 사고 때문이었다. 4월 마지막 주 센터는 나열의 사고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지? 불쌍해서 어떡해. 고 선생은 문득 가벼운 양손이 부끄러워 틈만 나면 자신의 두 손을 맞잡았다. 그러자 온전히 느껴지는 또 다른 무게는 고 선생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이 중력에 끌려 떨어지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유독 많은 생각이 끝도 없이 쏟아져나왔다.

고 선생은 빈소가 마련되자마자 딸을 데리고 나열의 장례식에 갔다. 나열의 사진이 엉뚱하게도 제자리에 있어서 고 선생은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다. 딸은 엄마의 눈물을 못 본 체했다. 그러다 고 선생이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손끝으로 닦아냈을 때, 딸이 여전히 축축한 고 선생의 손을 망설임 없이 잡고 말했다. 이제 집 가? 딸은 그곳의 가라앉은 공기나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누군가의 흐느낌이 영 불편한 듯했다. 그 후로도 10분 단위로 고 선생의 손을 잡아 흔들었다. 고 선생은 진땀을 빼며 딸을 진정시키고 재리를 찾아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요즘 부쩍 나열과 붙어 다니던 재리였다. 나열이 사거리 7중 추돌사고의 중심이 될 버스를 타러 가던 어제도, 재리는 나열과 함께 센터를 나섰다.

고 선생은 처음 둘이 함께 센터를 나서던 날도 기억한다. 집까지 걸어간다는 재리의 옆에 붙은 나열은 자신도 정류장까진 걸어간다고 말했다. 재리는 누가 듣기에도 한참 엇나간 억양으로 그럼 같이 가던가 라고 내뱉고 먼저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다. 나열은 고 선생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재리의 그림자 끄트머리를 따라 달려갔다. 그날부로 고 선생의 양손엔 원인 모를 다한증이 찾아왔다. 고 선생은 그것이 훗날 흘리게 될 눈물의 예고라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재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리의 소식은 장례식 마지막 날이 돼서야 들을 수 있었다. 오랜만에 퇴근 시간에 맞춰 센터

를 나서려던 고 선생을 붙잡은 건 중학생 교실을 담당하는 이 선생이었다. 무슨 일이나 묻는 고 선생에게 그는 센터 1층 사무실에 자리한 전화기를 건네줬다.

“고 선생님 교실에서 봉사했던 대학생이라는데...”

이 선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 선생은 전화기를 받아들고 재리니? 외쳤다. 몇 초 안 되는 정적이 귓가를 진득하게 훑고 간 뒤에야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재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고 선생은 자신의 반대편 귀를 손바닥으로 막고 통화를 이어갔다.

“너 무슨 일 있어?”

“선생님, 나열이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겹쳤다. 그들은 서로의 대답을 기다리기만 했다. 결국 재리가 먼저 입을 뗐다.

“저 병원이예요.”

고 선생은 바로 택시를 잡아탔다. B대학병원이요. 그렇게 말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택시는 부드럽게 달리다가 사거리 신호등 앞에 멈춰 섰다. 기사가 빨간 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월요일에 여기서 사고 난 거 아시죠?”

고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으나 기사는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시내버스가 켈 문제야..... 저기 옆에 대왕 갈비집 보여요? 그 집 딸도 그날 그 버스에 있었는데. 지금 혼수상태라나 뭐라나.”

타이밍 맞게 신호가 바뀌고 택시는 사거리를 부드럽게 통과했다. 고 선생은 그 길을 지나는 동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로에서 팔 뻗는 영혼들의 손아귀에 코트 자락이 붙잡힌 것만 같았다. 병원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고 선생은 재리에게 나열의 소식을 어떤 식으로 전해야 할지 혹은 전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했다. 한쪽 귀로 흘러들어왔던 재리의 목소리가 여전히 웅웅 거리며 귓속을 맴돌았다.

‘저 그날 나열이랑 같은 버스 탔어요’

재리는 고 선생을 보고도 눈알만 굴리며 가만히 누워있었다. 고 선생은 재리가 지금 할 말을 찾는 중이라 생각했다. 고 선생이 여전히 할 말을 고르고 또 고르는 것처럼. 그러다 재리가 입을 열었다. 고 선생은 순간 그 입에서 나열의 이름이 나올까 긴장했지만 재리가 꺼낸 건 전혀 다른 류의 이야기였다.

“저, 이틀 동안 잤대요.”

“.....”

“근데 꿈을 딱 하나 꿰는데.”

“.....”

“내가 머리카락을 모두 밀어버리고 집에 갔어요.”

고 선생은 언젠가 자신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재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 선생도 마찬가지로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를 채운 정적마저 빠듯해서 다른 말이 오고 갈 필요가 없었다. 고 선생은 그저 베개 위로 길게 흠어진 재리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다 이렇게 묻고 싶어졌다. 너, 진짜로 누구 얘길 하는 거니. 누구의 꿈을 꾸는 거니.

“나열이는 죽었나요.”

재리의 질문이 날아와 박혔다. 고 선생은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그건 고 선생의 어떠한 행동 리듬에도 해당하지 않는 박자였다. 이러나저러나 대답은 오직 두 갈래이고 사실에 근거한 한 글자면 충분했다. 그래서 고 선생은 그냥 응 이라고 답했다.

“저, 장례식은 못 갈 것 같아요.”

고 선생은 그냥 또 응 이라고 답했다. 재리는 역시 긴머리양처럼 눈물을 참는 덴 도가 튼 사람이었다. 재리의 두 눈은 계속 건조했다. 대신 어디선가 불편을 감지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재리는 깃스한 손을 잠시 들었다 내린 뒤, 다시 링거 꽂힌 손을 들어 자신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 모습을 보던 고 선생이 재리의 손을 치우고 자신의 손으로 어깨를 살며시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재리의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고 선생이 닿은 어깨는 따뜻하다 못해 축축했다. 곧 재리가 입을 열었다.

“저는 선생님이 계속 열이한테 이유를 찾아주는 게 싫었어요.”

고 선생은 단번에 그 이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냈다. 그래서 조금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다. 재리가 그런 고 선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날 싫어할까 하고 이유를 찾잖아요. 근데 그거 안 찾는 게 좋아요. 대부분 이유가 없거든요. 애초부터 없거나 아니면 있다가도 사라지거나. 결국엔 없어요.”

“.....어떻게 이유도 없이 사람을 미워하니.”

“왜요?”

“.....”

“이유 없는 사랑은 그럴듯한데 이유 없는 미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고 선생은 이번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데에 이유가 어디 있어. 고 선생이 많이 듣고, 또 많이 뱉었던 말이다. 고 선생은 사랑이 과학을 멀리할수록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왔다. 이유와 근거는 부차적이다. 마음이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을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제야 내키는 대로 가져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이유다. 고 선생은 사람들이 종종 그 순서를 망각한다고도 생각했는데, 어느 틈에 그 망각의 화살이 자신을 가리킨 지 오래였다.

그래서 고 선생은 조금 더 재리가 말하는 미움에 대해 생각해봤다. 이유가 사라지고도 걸러지지 않은 찌꺼기처럼 남는 감정이 미움일 것이다. 그렇게 그 자체로도 강력한 것에 사람들은 개연성과 인과관계를 부여하고자 한다.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도. 고 선생 또한 그래왔다. 재리는 고 선생의 얼굴 위로 스쳐 간 수많은 굴곡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이런 건 다 핑계예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리키는 재리의 표정은 여태 봐온 모습 중 가장 밝았다.

고 선생은 그 후 2주간 센터 퇴근 후 곧장 병원을 찾았다. 딸이 매일 왜 이렇게 늦냐며 짜증을 부렸지만 고 선생은 퇴원 날까지도 재리를 데리러 갔다. 이제 못 와. 이 말은 진작 계획되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재리의 가족이 입안에서만 맴돌기만 하다 그냥 찌그러진 말들에 한뭇했다.

집에 갈 준비를 마친 재리의 머리는 높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다. 고 선생은 양손 가득 재리의 짐을 들고 함께 택시에 탔다. 그리곤 목적지를 부르려 몸을 앞으로 뻗다가 재리를 돌아봤다. 재리는 기사에게 집 주소를 불렀다. 택시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거대하던 병원의 테두리

가 점차 희미해졌다. 재리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해요 라고 말했지만 고 선생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휴대폰 시계를 바라봤다. 어젠 딸이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뭘 사가야 딸의 기분이 풀릴지, 이제야 고 선생다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재리는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다행히 그때 그 사거리를 지날 일은 없었다.

택시가 계속 튀어 올랐다. 기사가 짧게 욕을 중얼거렸지만 고 선생은 애써 못들은 체 했다. 재리는 울통불통한 이 길이 익숙한 듯 흔들림마저 자연스러웠다.

“저기 위쪽 파란 대문 앞에 세워주세요.”

재리의 말에 기사가 바로 택시를 세웠다. 신경질적이나 꼬투리 잡을 수 없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저기까지 올라가면 내려가기 힘든데, 여기서 내리면 안 돼요?”

재리는 고 선생과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고 선생이 먼저 기사에게 카드를 내밀었다. 재리가 차 문을 닫자마자 택시는 곧장 차를 돌려 좁은 골목을 벗어났다. 재리는 고 선생이 든 자신의 짐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여기부터 제가 들고 갈 수 있어요.”

고 선생이 바라본 재리의 왼쪽 팔은 그다지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깁스한 오른팔까지 당장 쓸 수 있다면 모를까. 고 선생은 양손에 든 짐을 살짝 뒤로 빼며 고개를 저었다.

“앞장서. 대문 앞까지야.”

재리는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파란 대문 앞에 도착한 고 선생은 하마터면 양손의 짐을 모두 놓칠 뻔했다. 문 앞에 선 재리가 예고 없이 머리를 풀어헤쳤기 때문이었다. 긴 머리가 구불구불 재리의 등을 타고 내려왔다. 말을 잊지 못하는 고 선생을 두고 재리는 왼쪽 손으로 모 든 짐을 뺏어 들었다.

“진짜 감사했어요.”

꾸벅 고개를 숙이는 재리를 향해 고 선생이 손을 뻗었다. 재리의 긴 머리카락이 봄바람에 흩날렸다.

“왜...”

재리는 그대로 미소만 남기고 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고 선생은 그 집 앞을 쉽게 떠날 수 없어 한참을 서성거렸다. 그러다 울리는 벨소리에 휴대폰을 드니 ‘우리 딸’ 글자가 빛을 내고 있었다. 고 선생은 이리저리 엉망으로 몇 개의 발자국을 남기다가 결국 전화를 받으며 골목을 벗어났다.

골목을 한참 걸어 나와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집 주소를 부른 뒤 의자에 완전히 몸을 기댔다. 어느새 온몸이 땀으로 젖어있었다. 창문을 내렸지만 봄바람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문득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고 선생은 귀에 희미하게 남은 딸의 울음소리를 다시 상기시키려 애썼다. 딸은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했다. 맥도날드 말고 버거킹으로. 고 선생은 머릿속으로 가장 가까운 버거킹 매장을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뒤를 돌아보는 고갯짓이 버릇처럼 이어졌다.

딸은 눈물을 매달고도 열심히 햄버거를 씹어 넘겼다. 고 선생은 아이의 입 쪽으로 콜라 빨대를 대주며 물었다.

“맛있어?”

짙이긴 빵조각 사이로 딸이 우응- 하는 소리를 냈다. 몇 번 더 씹고 삼키더니 감자튀김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저번 주에 반장 엄마가 이거 사줬거든.”

“어머 그랬어?”

“응. 근데 햄버거 하나가 남아서 내가 더 먹고 싶었는데 가위바위보에 져서 다른 친구들이...”

딸의 목소리가 점차 아득해졌다. 고 선생은 남은 햄버거의 주인이었을 아이를 떠올렸다. 기억 속 나열은 내일도 모레도 센터에 올 것처럼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넨다. 오는 인사인지 가는 인사인지 모른 채 계속. 딸은 종알종알 말을 이어갔다. 햄버거를 씹어 넘기는 건 아이의 치아가 아닌 말이었다. 어쩐지 고 선생은 딸의 머릿속이 자신과 조금도 닮아있지 않을까 겁이 났다. 그래서 아이 입에 콜라를 대주는 대신 질문을 던졌다.

“딸. 그런데 말이야. 너도 나열이가 많이 싫었어?”

딸은 입안의 내용물을 다 넘기지도 못하고 행동을 딱 멈추어 버렸다. 그러다 그저 평온한, 화가 난 것 같지 않은 고 선생의 얼굴을 확인한 뒤에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왜?”

“수업시간에 계속 코를 풀어. 시끄러워서 짜증나. 책상에 휴지도 쌓아둬. 더러워.”

아이답게 수정이나 정리를 거치지 않은 말들이 거칠게 쏟아져나왔다. 그 말들에 둔친 가시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루를 살기보다 하루를 버틴 지 오래인 고 선생에게나 있는 것이었다. 고 선생은 다시 물었다.

“그럼, 나열이가 코도 안 풀고 휴지도 안 쌓아뒀으면 안 싫어했겠네?”

당연하지. 고 선생은 아이의 말간 얼굴이 그렇게 대답해주길 바라며 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딸은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고 아까보다 더 답을 망설였다. 고 선생이 속으로 ‘그러지 마’를 세 번쯤 외쳤으나 결국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고 선생은 목소리의 떨림을 숨기기 힘들었다.

“네가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싫어?”

딸은 그제야 무언가 확신한 듯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냥 싫어.”

고 선생의 입이 작게 벌어졌다.

고 선생은 재리와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익숙해진 번호 너머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고 센터에 오는 대학생들은 재리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 가끔 그 구불구불한 동네에 가봤지만 마주치는 몇 명의 대머리를 보고 저 사람일까 생각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 동네 슈퍼에서 딸에게 줄 과자를 사며 슬쩍 주인에게 대머리 가족에 관해 물은 적도 있었다. 머리의 절반이 하얗게 센 주인은 고 선생을 뵈히 바라보다가 피식 웃고 뭘 개소리야 중얼거리다가 안녕히가세요 하는 말로 그녀를 밀어냈다.

계절이 바뀌며 고 선생은 재리와 나열을 순서대로 잊어갔다. 고 선생은 그저 때때로 자신이 싫어했던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유를 찾다가 그 이유를 모조리 없애고도 여전히 그 누군가가 싫어서 종종 헛웃음을 내뿜었다.

[우수상]

## 야누스

철학전공  
20161002 강병교

신춘문에 최종심에 오른 것이 이번이 세 번째다. 같은 이유로 입상하지 못한 것도 역시 세 번째다. 평단에선 내 소설이 '지나치게 마초적이며 여성 인물들을 비 입체적으로 소비한다'고 평했다. 마초적과 비 입체적과 소비. 그 단정 짓는 단어들을 스스로는 제대로 단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마초적이지 않게 써야 한단 말인가. 마초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여성스러움'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형언할 수 있나.

쓰게 웃으며 담배를 물었다. 맨 처음 최종심에 오를 때만 해도 평론가들의 단어는 나에게 용해되지 못했다. 그저 나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 하나로 오직 긍정의 표현들만 주워섬겼다. 그러나 반복된 평은 내 기대를 가로막았다. 문체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끈을 놓기에는 최종심이란 과실이 내겐 너무 달콤해 보였다. 신춘문예로 등단한 젊은 작가라는 정원이 화려해 보였다.

마초적이다,라는 말을 조용히 곱씹어 본다. 비릿한 담배 연기와 함께 내게 웃을 수밖에 없는 일화들을 피워올렸다.

\*

내 어린 시절의 좌절을 관장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평론가들이 지루하게 내뱉는 여성스러움이었다. 남아로 태어난 나는 신의 웃긴 농담이나 장난처럼 예쁜 아이였다. 어머니가 나를 안고 다닐 때면 사람들은 '공주님'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었다. 남자아이에게 '예쁘다'라는 말의 폭력성은 초등학교 입학 때 본격적으로 테를 드러냈다.

여자애처럼 곱상하게 생겼고 소극적인 나는 말을 잘 하지 않았다. 어쩌다 소리를 밖으로 힘겹게 태동하면, 아이들과 선생님은 미성의 여자아이 음성에 뻘히 쳐다보곤 했다. 그 시선, 남자아이의 웃을 입은 남자아이 같지 않은 음성에 그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시선이었다.

어머니는 목소리의 변성기가 지나면 걸걸해지고 남자다워질 것이라 했다. 그저 아들을 예쁘게 바라보는 어미의 시선에 아이의 고민은 그저 귀여운 투정이었을 것이다. 그 몽상 같은 말은 사춘기를 맞는 나에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먹잇감을 알아본다. 심지어 다른 먹잇감들조차 서로를 알아본다. 난 혈기왕성한 남자아이들의 세계에서 그들의 남성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었다. 내 걸모습과 목소리는 약하다는 것을 사방에 내뽐고 다니는 향수 같은 것이었다.

반복된 지리한 폭력은 내게 공포감과 동시에 그들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품게 했다. 피폭력은 학습이 됐고 학습은 반복하면 얻어진다는 교훈을 주었다. 그들의 세계를 동경한 나는, 그들이 되기로 결심했다.

변성기가 지나도 변하지 않고 바꿀 수도 없었던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폭력의 먹잇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다. 학교가 끝나면 종일 주먹을 내지르고 가상의 적들과

싸움을 했다. 어떤 날은 학교를 빼먹고 체육관에 갔다. 부모는 그저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상의 적들은 점차 나와 같은 먹잇감으로 상상됐다.

공포로써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그들의 모습을 모방했다. 그들은 먹잇감을 골라 허무맹랑한 이유들을 만들어 두들겨 팼다. 생각과 체득으로 깨달은 이후 난 더 이상 맞지 않았다. 가상의 적들과 혈투를 벌였을 때처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들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들의 방식처럼, 그들의 학습처럼. 공포를 인지시켜 주는 것은 내 고민보다 훨씬 쉬운 일이었다. 난 그저 먹살을 잡고 얼굴을 몽갓다. 무지는 공포로, 다음으론 경외로 변모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절차로 학습했다. 그 우월감에 취한 나는 예전의 나와 같았던 먹잇감들을 그들과 함께 경멸하는 시선으로 내려다볼 수 있었다. 난 포식자들과는 달리 말을 내지 않았고, 먹잇감들은 나와 다르게 학습 능력이 없었다.

그 이후로 학교를 여러 번 옮겨 다녔고 늘 내가 포식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었다. 그렇게 피식자는 완전히 포식자가 되었고, 대입을 앞두고 나는 그 행위를 그만두었다.

\*

그토록 얻고자 했던 마초성은 대학에 합격한 후 1년 뒤 향한 군대에서 내게 확신을 주었다. 공수특전여단에서의 생활은 태초부터 내가 완전한 남성으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을 자주 확인시켜 주었다. 어릴 적 고민했던 ‘계집애 같은’ 면모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여전히 여리여리했다. 그러나 타인들은 남자다운 모습의 여리한 목소리를 오히려 매력적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그렇게 난 여성스러움을 거세한 채 살아간다고 믿었다.

\*

진 교수를 만나러 카페로 나왔다. 한산한 시간대라 손님은 아무도 없었다. 진 교수는 대학 때 나의 지도교수였으며, 신춘문에 최종심에 오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에게 자주 원고의 평가를 부탁하곤 했다. 최종심에 오른 후, 그는 내 작품에 대해 얘기해 주겠다고 약속을 잡았다.

진 교수가 밝게 웃으며 등장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근황에 대해 별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오직 내 작품에 대한 견해가 궁금했을 뿐이었다. 이슈들이 입안에서 서서히 말라갈 때 즈음,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이번에도 최종심에서 떨어졌네요”

진 교수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자네 신춘문에 작품 말인가?”

난 짐짓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웬지 그래야만 작품에 충분히 열정을 쏟은 것처럼 보일 것 같았다.

진 교수는 아랑곳 않고 냉정히 말했다.

“늘 말하지만, 자네 작품은 남성성이 과해.”

마초적, 이란 단어와 형제지간인 남성성이라는 단어가 진 교수의 입에서 뱉어진 순간, 문학한다는 늑은이들 머릿속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덧붙인 진 교수의 말은 분명 새겨들어야 할 것이었다.

“문학계가 한없이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네, 문학계만큼 수구적인 단체

는 또 없지”

진 교수는 단언하며 또 덧붙였다.

“젠더 의식이 과하게 민감해진 시대야. 자네처럼 지극히 남성적인 문체로는 현 문단에선 외면당하지. 차라리 여성적인 문체면 몰라도.”

나는 재빨리 물었다.

“그럼 도대체 그 여성스러운 문체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진 교수는 살짝 웃어보이며 답했다.

“허허, 난 여성 작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네.”

진 교수의 화법은 늘 이랬다. 장황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단 하나도 던져주지 않았다. 맥이 빠졌다. 그러나 그 순간의 나는, 실마리를 얻지 않고는 물러날 생각이 없었다. 어떤 말로 교수의 굳게 닫힌 입을 열 수 있을까. 문장을 헤아리던 중, 뜻밖에도 그 철창 같은 입을 먼저 연 것은 진 교수였다.

“자네, 작가 J를 아는가?”

J, 소설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 혹은 그녀는 2년 전 혜성같이 문단에 등장해 고답적인 문학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소설이 어떤 정치의 표방으로 변해버린 문학계에서, 지극히 심미적인 작품으로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J는 등단했다. J의 등단작 <피는, 카네이션>은 오로지 아름다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듯, 순수한 예술의 극치였다. 이후 J는 세 편의 단편과 한 편의 장편을 냈는데, 모든 작품들이 이기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는 J라는 필명으로 철저한 신비주의를 고수했다. 막연히 그의 문체를 보고 여성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지만, J의 담당 편집자와 그, 혹은 그녀 자신을 제외하곤 누구도 모를 일이었다.

“모를 수가 있나요, 질투 날 정도로 재능있는 작가인데.”

진 교수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던지듯 가볍게 말을 이었다.

“그렇네, 근데 그녀의 작품은 묘한 구석이 있어.”

그녀라, 진 교수는 J를 아는가. 고리타분한 그가 왠지 내게 구원을 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일었다. 난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의 발끝도 핥을 수 있었다.

그런 내 생각을 짐짓 파악했다는 듯 진 교수는 기분 나쁜 미소로 구원의 실마리를 열었다.

“그녀의 편집자와 내밀한 이야기를 나눈 평론가가 있는데, 그 평론가의 말로는 그녀가 성전환을 했다는군.”

교수란 직함도 찌라시에 현혹되는 중생이었던가. 맥이 빠졌다. 불쾌해진 나는 직선적으로 물었다.

“그럼 저보고 성전환 수술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전해 들으신 이야기 하나 가지고.”

진 교수는 표정을 엄숙하게 바꾼 뒤 말했다.

“자네 분명 재능이 있어. 내 생각엔 J보다 훌륭한 문장을 갖고 있네. 다만, 여성의 그 섬세함, 그 한 스푼이 부족해.”

이어서 그는 대단한 힌트를 주듯 말했다.

“그렇다면 여성이란 존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 굳이 성전환같은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도.”

다시 그 화법.

“그럼 대체 그 ‘극적인 방식’이 아닌 방식이 뭘니까?”

진 교수는 잔잔한 호수에 물고기를 낚았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난 여성이 아니라서 모르겠네.”

\*

진 교수와의 모호한 퍼즐 풀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진 교수는 헤어질 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 그 상투적인 말을 조각난 퍼즐처럼 던지고 떠났다. 내 손안엔 풀지 못한 퍼즐 조각들이 더 들어찬 느낌이였다. 남들이 규정하고 내가 부셨던 그 여성스러움, 그것이 내 앞길마저 막고 있었다. 몽롱한 기분으로 흘린 듯 집으로 향했다.

깔끔한 자취방에 깔끔하지 않은, 보통 여자친구나 애인으로 부르는 그녀가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누워있었다. 이미 흰 침대 시트 곳곳엔 노란 과자 조각들이 부자연스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시선을 현관문에 슬쩍 던진 뒤, 시선을 만화책으로 돌리고 내게 말을 붙였다.

“왔어? 늦을 것 같았는데.”

애써 짜증을 숨기며 차분한 톤으로 그녀에게 대답했다.

“오면 온다고 미리 말 좀 해주지.”

“전화 안 받던데? 왜? 그럼 나 지금 나가?”

도화의 화법 역시 진 교수처럼 일정한 낚시줄을 던졌다.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나쁜 화법.

“진 교수님 만난다고 오전에 얘기했잖아.”

아~ 도화는 전혀 흥미 없다는 듯 점차 바닥을 보이는 과자 봉지를 내밀며 먹을래? 권했다. 과자 봉지를 그렇게 들면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한숨을 내쉬며 우선 침대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노란 쓰레기들부터 치워야 그녀가 좀 예뻐 보일 것 같았다. 도화는 나무늘보처럼 영금 기어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곤, 화장실로 툭툭거리며 향했다. 샤워기 호스가 물을 세차게 내뿜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간단하게 방 정리를 했다. 널브러진 책들을 책꽂이에 꽂고, 침대 시트를 털고 바닥을 쓸었다. 도화의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붙어 잘 쓸리지 않았다. 열추 방 정리를 마치니 그녀의 화장대가 눈에 들어왔다. 도화는 자신의 화장대에 손대는 것만큼은 허용하지 않았다. 저 무질서한 공간에도 나름의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다. 화장대의 거울엔 상이 제대로 비치지 못할 정도로 먼지가 끼여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앉았을 때 얼굴을 비추는 부분만 동그랗게 먼지가 없었다. 철저한 실용주의군. 속으로 생각했다.

“와, 넌 정말 청소 하나는 끝내주게 잘해.”

도화가 샤워를 마친 듯 머리를 샤워 호스의 물줄기보다 세차게 털어대며 걸어 나왔다. 청소한 걸 알면 머리는 화장실 안에서 좀 털지. 서서히 바닥에 안착하는 그녀의 윤기 있는 머리카락들을 애써 모른 체했다.

“그 교수님이랑 얘기는 잘 뻘어?”

침대에 걸터앉은 내 옆으로 그녀가 여전히 머리카락을 날리며 물었다. 난 한숨으로 말을 대신했다. 도화는 다시 입을 비죽 내밀며 덧붙였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신경질이구나, 흠.”

맞는 말이기도 했다. 내 생활은 오직 등단에 겨냥되어 있었다. 오직 등단만 하면 잘 풀리고 팔리는 건 시간문제라 여겼고 그렇게 되면 도화의 기이한 행동들도 전부 사랑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웬지 도화에게 마음이 쓰여 괜히 푸념을 늘어놓았다.

“저번이랑 똑같이 내 문체가 심하게 마초적이라는거야. 그러더니 나보고 여자가 되어보래.”

화장대에 앉은 도화가 웃음을 터뜨렸다.

“킁킁, 그럼 언니네 언니. 앞으로 언니라고 불러줄까? 은호언니.”

“나 진지해. 근데 너도 알잖아. 나 티프하고 쿨한거에 집착하는 거.”

내가 이렇게 내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도화도 표정을 바꾸었다. 그래도 진지할 때 진지한 것.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웃음기를 거둔 도화가 내게 말했다.

“그럼 여성스러움이 뭔지 알고 그렇게 잡고 쓰면 되겠네.”

“그래, 그거. 그 여성스러움이란 게 대체 뭐냐?”

도화는 얼굴에 무언가를 바르며 툭, 내뺐었다.

“글쎄, 난 여자도 그냥 사니까 잘 모르겠는데?”

실소가 나왔다. 남자도, 여자도 모르는 여성스러움이라. 도화는 서서히 가장 자신 있을 얼굴로 분장을 마치고 있었다. 나는 뚫어지게 그 과정을 천천히, 그러나 각인하듯 응시했다. 그런 내 시선을 느낀 듯 도화가 아직은 덜 우아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왜? 너무 예뻐서?”

그 말을 들은 나는 얼굴이 금세 달아올랐다. 이렇게 쥐었다, 펴는 것이 그녀의 주특기였다. 애써 야릇한 생각에 빠져드는 나를 다잡으려 괜히 물었다.

“흠, 아니, 그냥 여자들은 화장을 매일 아침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 해서.”

도화는 만족할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표정으로 입꼬리를 비쭉 올리며 대답했다.

“너 나보고 맨날 게으르다고 하잖아. 근데 화장 이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야.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남자는 꾸며봤자, 머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말리고 왁스를 바르는 것이 다였다. 그리고 자신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도 되는 것처럼 거울 앞에 서보고 끝.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성가신 일이라 생각했다. 문득 도화가 대단한 생각이라도 한 듯 별똥 떨어지며 말했다.

“너, 화장 한 번 해봐! 여성스러움이 뭔지 알아야겠다며!”

그때 내 표정이 정확히 어땠을까. 콤플렉스를 간질이는 찌릿함이었을까, 우연히 원석을 발견한 듯한 짜릿함이었을까.

“야, 내가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거냐?”

뜨거운 것에 손댄 듯 도화는 슬슬 눈치를 보며 말했다.

“아니, 난 그냥 네가 여성스러움 때문에 고민하니까……”

더 큰 화를 막으려는 듯 말도 안 하고 도화는 후다닥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 의도가 아닌 건 아는데.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아직 화장품 냄새가 가시지 않은 화장대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화장을 하라고? 여자처럼? 거부감이 강하게 일었다. 이건 내 자존심에 허락이 안돼. 애써 화장대를 외면하고 침대에 돌아누웠다.

\*

도화는 서울의 본가로 내려가 며칠 동안 있겠다 했다. 보낸 마지막 모습이 찢찢하게 잔상처럼 남았다. 그래도 도화는 쿨한 애니까. 별문제 없겠지. 자정이 넘은 시각, 불을 다 끄고 잠을 청해보려 했으나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다. 이번에 등단만 하면, 내 인생이 극도로 달라지리란 이상한 확신이 일었다. 그놈인지 그년인지 모를 J처럼. 내 문장은 후지지 않았어. 그렇다면 J와 나의 차이는 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문득, J의 얼굴이 떠올랐다. 핏기없는 여성의 몽타주. 그리고 열은 화장. 다시 도화의 화장대가 눈에 밟혔다. 그래, 난 등단을 하기 위해서면 뭐든 할 수 있어.

홀린 듯 불을 켜지 않아 어두운 화장대 앞에 앉았다. 도화가 화장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봐왔

다. 똑같이만 하면 된다. 스킨을 솜에 묻혀 얼굴에 두드렸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로션과 아이크림, 수분크림을 발랐다. 도화는 밤에는 달팽이 크림을 대신 바르곤 했다. 선 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을 섞어 피부에 천천히 퍼발랐다. 어느새 내 손은 부드럽게 여성의 손으로, 도화의 손으로, 혹은 J의 손으로 변하고 있었다. 컨실러로 잡티를 가리고, 브러쉬를 집어들었다. 아이섀도로 눈밑을 정리하고, 뷰러로 속눈썹을 올리고, 마스크라로 속눈썹을 고정했다. 붓 펜으로 아이라인을 그렸다. 화장은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브러쉬를 이용하여 코에 새딩을 하고, 볼터치를 했다. 마지막으로 붉은 립스틱을 편 입술에 천천히 발랐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았다. 열은 조명의 거울 속엔, 내가 학창시절 혐오했던 얼굴의 여성이 나와 시선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는 핏기없는 얼굴로 날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화장을 할 때와는 다른 느낌의 떨림이었다. 예쁘다,라는 말이 붉은 입술에서 새어 나오듯 흘러나왔다. 나는 그 입술에 다시 혐오감을 느끼며, 마치 본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듯, 책상에 앉았다. 투고할 소설을 첫 문장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감각으로.

동이 터울 무렵 소설을 마쳤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각의 글이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거울에서 마주쳤던, 혐오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여인이 쓴 듯한 글.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화장을 지워야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화장실에 가려다 다시 화장대의 거울을 응시했다. 이상하게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분명 좋은 글을 썼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다. 운명을 만났을 때처럼, 거부할 수 없는 관성이었다.

\*

신춘문에 최종심에서 또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이유가 달랐다. 이은호의 작품이 그간 보여줬던 굵직한 남성성의 장점이 사라지고 여성주의 문학이란 대세에 순응한 듯한 문체가 아쉽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떨어졌을 때와 이유는 달랐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은 동일했다. 신문 뒷장에는 J의 신작 단편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한 평론가는 J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여성 중심의 서사가 부각된 현 문단에서 남성성을 강하게 박동한 야수.' 그, 혹은 그녀는 이번엔 남자가 되었던 것일까.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지우는 J의 모습이 어렴풋이 상상됐다. J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고 나는 문단의 혜성같은 신인 작가라는 타이틀을 또 미뤄야 했다.

\*

그리고 지금, 난 다시 화장대 앞에 앉아 있다. 더이상 화장을 해야 할 목적이 없는데도. 대체 왜? 의문이 꼬리를 말기 전에 어느새 내 손은 낫설지만은 않은 도구들을 향해 손을 뻗는다. 혐오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얼굴을 그린다. 점차 눈빛은 초점을 잃어가는 듯하다. 거울 속의 여인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본다. 그녀는 글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J일까. 도화일까. 아니면…… 이은호와 가장 닮은 그녀일까.

[우수상]

## 운명과 장난

국어국문학회  
20141119 박선옥

도둑은 그녀의 아이를 훔쳤다. 세상 공기를 마시지도, 빛을 보지도 못한 채 배 속에 고이 모셔둔 아이였다. 아들이라면 ‘웅’, 딸이라면 ‘유’가 좋았다. 그녀는 살면서 자신의 이름이 너무나도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이름도 그랬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외자 이름이었다. 순우리말 이름이 유행이라는 글을 보고 혹하기도 했지만 하나의 글자로 만들어진 이름엔 아무래도 한자가 나온 것 같았다. 아들의 삶이 빛나기를 바랐고, 딸이 여유롭게 놀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랐다.

구석에는 나름 사치를 부린 아기침대가 있다. 사실 방의 분위기와는 유일하게 어울리지 않는 가구였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아기침대에 관한 온갖 지식을 동원하였다. 재질과 매트리스의 두께는 물론 난간의 간격까지 따지고 따졌다. 색은 아무래도 흰색과 베이지가 좋았다. 디자인은 그다음이었으나 그녀의 눈에는 애니메이션 속 공주의 침대를 미니어처로 만든 듯 귀여웠다. 중고가 익숙한 그녀에게 새 생명을 위한 새 물건은 냄새만으로 미소를 짓게 만드는 흡족한 것이었다.

함께 미소를 짓는 그녀의 남편은 평범한 이름만큼 평범했다. 사람들이 대충 생각하는 평범함이 누군가에게 특별함이 될 수 있다. 남편의 평범함이 그녀에게 특별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코, 소박하게 살면 절대 굽지 않을 직장도 있었다. 그녀는 그 코가 멋있기도 귀엽기도 했고,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남편을 보았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을 처음 본 기억이 떠올랐다. 더운 여름이라 자신의 손수건을 땀으로 적시던 남편이었다.

“와, 오늘 밖에 엄청 덥네요. 여기가 천국이네.”

손수건이 지나간 얼굴의 미소가 눈에 박혀 버렸다. 메일로 주고받으면 될 일을 억지로 남편의 회사에 방문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 남편은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사귀고 알게 된 남편 최고의 장점은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 ‘미안해’와 ‘고마워’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의외로 굉장히 어렵고, 듣기도 힘든 말이었다. 남편은 이 두 말과 더불어 ‘사랑해’까지 남발할 줄 아는 남자였다. 이는 그녀가 남자친구를 넘어선 남편으로 함께 하는 미래를 꿈꾸게 된 이유였다.

연애와 결혼은 한순간이었다. 상견례와 결혼식 모두 평범하게 진행됐다. 평범함 속엔 그녀가 반한 미소, 이제는 자신의 미소도 함께였다. 그녀가 지향한 평범함 속에서 다가온 최고로 특별한 것은 배 속의 생명이었다. 생각보다 빠른 임신에 어리둥절했으나 남편의 고집으로 장기휴직을 신청했다. 남편은 자신에게 가장 특별한 두 생명을 안전하게 모시고 싶었다.

아침은 주로 시리얼만 먹는 남편이 출근을 준비했다. 그녀는 굳이 남편을 따라 현관문을 나왔다.

“다녀온다, 여보. 제발 좀 쉬고 있어. 사랑해.”

“알았어, 알았어. 오늘은 어차피 할 일도 없어. 빨리 갔다 와.”

남편이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다음은 끼잉하며 열리고 똑같이 끼잉하며 닫히는 대문의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침에는 항상 2층 현관문 앞에서 공용주차장으로 향하는 남편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배웅해야 진정으로 하루가 시작된 느낌이었다. 퇴근한 남편이 돌아올 때는 끼익하는 대문의 소리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로 알 수 있었다.

둘의 집은 면목동 구석에 있는 단독주택 2층으로 두 회사의 중간지점이다. 대문을 들어오면 마당과 계단이 있었다. 2층짜리 집을 온전히 가진 것이라면 행운이겠지만 1층 집주인에게 세를 들어 살고 있다. 집주인 아줌마는 아이가 두 명인 주부이자 꽤 좋은 성격을 가졌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었지만 둘 다 늦둥이 같았다. 여유로워 보이는 미소에 비해 주름이 너무 많았다. 음식을 많이 한 날은 반찬통에 담아 그녀 부부에게 가져다주었다.

“아기 옷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우리 애들 입었던 게 그대-로 있어.”

집주인이 정을 담아 임신을 축하하던 말이었다. 반찬통을 돌려주기 위해 1층에 들리면 꼭 집주인이 주는 과일이나 음료를 손에 쥐고 나오게 됐다. 유일한 단점은 집의 내부만큼 외부는 꾸미지 않는 것이었다. 1층 현관을 들어가면 펼쳐지는 고급 가구들과 거의 벽 전체를 채우는 TV가 있었지만, 마당은 그렇지 않았다. 붉은 대야나 아이들의 자전거, 키보드가 널브러져 있었다. 여름 물놀이용품도 구석에 대충 쌓여있으며 곳곳에 콘크리트가 깨지고 갈라져 있었다.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기에는 방해되지 않았고, 계다가 집주인이니 뭐라 말한 적은 없었다. 어차피 내년에 마당 콘크리트를 짝 갈아엎으며 꾸밀 생각이라고 한 것을 들은 기억도 있다. 낡은 대문도 전자식으로 바꿀 생각이라고 하니 그녀에게도 좋은 소식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남편의 당부와 달리 바빠질 예정이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중국어 교실이 먼저였다. 그녀는 회사 동료에게 중국과 관련한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그 전부터 영어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었다. 휴식이 끝나면 회사로 돌아갈 의지가 강한 그녀였기에, 취미 겸 자기계발로 알맞았다. 머리는 하나로 딱 묶고 발바닥 전체가 땅에 닿는 샌들을 신었다. 구두들은 특별한 존재를 위해 당분간 신발장 신세였다. 더 예쁘게도 꾸밀 수도 있는 그녀였다. 피부는 하얗고 아직 젊다. 하지만 최대한 편하게 다니는 것이 아이를 위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멋이었다. 주부들이 대부분인 교실로 들어갔다.

“찐-티앤, 즈-은더, 흐-은, 싱-원.”

선생님의 중국어와 달리 입에서는 멋대로인 성조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음치 같기도 하고, 옛날의 중국영화 속 과장된 더빙 같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나 자신의 소리가 괴상하게 느껴지는지, 웃음이 터지는 순간도 많았다. 수업이 끝나고 저절로 친해진 주민들과 인사했다. 그중에 부쩍 친해진 두 명의 또래와 카페를 갔다. 둘 역시도 나온 정도는 달랐지만, 배가 불러 있었다. 그녀는 셋 중에 중간의 나이였다. 카페에 들어서자 고소한 커피 향과 에스프레소 머신의 소리가 느껴졌다. 그녀는 커피를 향으로만 만족하며 페퍼민트 차를 주문했다.

“오히려 이런 게 제일 힘들다니까?”

함께 간 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세 명 중 유일하게 완전한 주부였다. 제대로 된 회사생활이 없었고, 출산 후에도 육아에 집중할 모양이었다. 팔찌와 목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꽤나 잘사는 집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맞아, 커피는 버릇처럼 마시는 거잖아.”

그녀가 대답했다. 회사 점심시간에는 필수로 챙겨 먹던 커피가 그립기도 했다. 특별한 존재를 가진 만큼, 자잘하고도 습관적인 희생도 필요했다.

“나는 커피보단 맥주. 하루 마무리하는 의식 같은 거였는데.”

그중에서 제일 어린 동생이 말했다. 이제 막 계약직을 벗어났지만, 남자친구와의 사랑과 결

실이 강제휴직을 일으킨 친구였다. 다행히도 티가 나지 않는 결혼사진에서부터 새 생명이 함께였다. 셋의 대화 대부분은 역시 서로가 새로 알게 된 임신과 육아 관련 지식이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의 수다가 원래 그렇듯이 시간은 빨리 흘러갔다.

그녀는 장을 보기 위해 먼저 일어났다. 요리엔 자신이 없었지만, 남편이 뭘 차려도 잘 먹는다는 게 부담을 덜어줬다. 오늘의 메뉴이자 도전과제는 제육볶음이었다. 양파와 파, 당근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에 들러 제육에는 무슨 부위를 쓰는지 물어보고 목심과 앞다릿살도 조금씩 샀다. 배 속에 있는 웅이나 유, 그녀와 남편이 먹을 양이기에 집까지 들고 가기도 충분했다. 우편함에서 봉투들을 꺼냈다. 핸드폰 요금 고지서와 카드 명세서였다. 닫으면 저절로 잠기는 대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 1층 집주인도 어딘가 나간 듯했다. 높은 구두를 신었을 때는 발끝으로만 딛던 계단을 올랐다.

현관문을 열려고 열쇠를 돌렸지만,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다. 불안감이 스치기도 전에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아기침대가 아니었다. 너무나 생뚱맞게 거실 한가운데 꽂혀있는 부엌칼이었다. 칼에 박힌 시선을 돌리자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그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순간 느껴진 공포로 인해 바로 현관문을 닫았다. 맨 처음 하이힐을 신었을 때처럼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손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웬일로 근무시간에 전화가 온 것이 반가웠다.

“어쩐 일이야? 이런 시간에 전화를 다 해주고?”

“여보, 빨리 와줘. 여보, 빨리. 경찰에도 신고해야 되는데, 여보, 어떡해? 집에 도둑이 든 것, 들었어. 나 너무 무서워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녁은 외식하자는 말이나, 언제 도착하냐는 질문을 예상한 남편은 당황했다.

“내 말 똑바로 들어. 지금 바로 골목 나오자마자 있는 파출소로 가. 알겠지? 내가 신고할게. 바로 갈게, 지금.”

남편은 누군가에게 말할 새도 없이 회사를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다. 골목 입구에 경찰차가 있었다. 그녀는 경찰과 함께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남편을 보고 일어서자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허벅지 사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피를 본 그녀는 그대로 남편을 향해 쓰러졌다.

경찰에 의하면 부엌칼은 역시나 도둑의 짓이었다. 신고하지 말라는 협박인지, 겁을 주기 위한 것인지, 단순한 장난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시간이 급박해 물건은 제대로 훔치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런 짓을 저질렀다. 집안의 상태를 보자면 초보였으나, 대문이 취약한 것과 집이 비어있는 시간도 알고 있었다. CCTV도 없고 뒷골목으로 도망치기에도 좋은 집이었다. 도둑이 오랜 시간 주변을 탐색한 것으로 보였다. 경찰들에 의하면 그랬다.

그녀는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었다. 눈을 뜨자 보인 것은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남편과 주위를 둘러싼 엄마, 아빠, 시부모님이었다.

“여기 어디야? 어떻게 된 거야?”

“여보 괜찮아?”

괜찮냐고 묻고 있는 남편의 눈은 괜찮지 않았다. 엄마의 눈은 퉁퉁 부어있었고 아빠는 뒤를 돌아 있었다. 시부모님은 함께 의사를 부르러 갔다. 그녀는 눈물 자국 위에 똑같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아기는? 우리 아기는?”

“일단 쉬어…。 선생님이 안정해야 한대, 여보. 일단 쉬고…”

느낄 수 있었다. 빨개진 남편의 눈과 흐려지는 말끝으로 알 수 있었다. 도둑이 훔쳐 간 것은 집 안에 있던 물건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 모셔둔 가장 큰 보물을 훔쳐 간 것이다. 이미 의사에게 절망의 소식을 들은 남편은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링거가 꽂힌 손을 잡고 함께 울었다. 이날부터 부부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단어는 유산이었다.

검사와 치료보다 많은 눈물로 지낸 입원 기간이 끝나는 날이었다. 남편은 그녀를 부축해 보조석에 태웠다. 백미러로 비치는 눈에 띄게 들어간 불살보다 하나의 존재가 사라진 배를 보는 것이 더 슬펐다. 남편은 다음날부터 밀린 일을 수습하기 위해 출근해야 했다. 다행히 당분간은 그녀의 엄마가 같이 살기로 했다. 몸 상태보다는 정신상태가 걱정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부엌같이 박혀있던 장판은 새것으로 바뀌어있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유산 소식들 들은 집 주인이 부부를 위해 가장 먼저 했던 배려였다. 이 어설픈 도둑은 2층을 다 털지 못하고, 주인 집은 들어가지도 못했다. 인기척을 들은 집주인이 방문했다.

“새댁 괜찮아…。 그런 미친놈이 한 짓 다 잊고, 다시 힘내면 돼. 그리고 자기는 젊잖아. 젊으면 뭐든지 다시 할 수 있어.”

길지 않은 위로를 끝내고 그녀의 엄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주인이 내려가고 엄마는 짐을 챙기러 떠났다. 중국어 프로그램의 언니와 동생에게 연락이 왔다. 역시나 위로의 말을 듣고는 다음에 보자는 말을 했다. 하지만 둘의 나온 배를 보고 덤덤할 수 있을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남편은 병원에서 필요했던 짐을 풀고 나서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해매던 초점이 한군데에 멈췄다. 흰색과 베이지의, 공주가 쓸법한 아기침대였다. 침대 난간에 기대어 흘린 그녀의 눈물이 매트리스에 떨어졌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라는 표현은 지금 쓸모없었다. 세상 어느 심리학자나 언어학자가 봐도 할 말은 정해져 있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말했다. 이 괜찮다는 말은 현재를 말하고 있지 않았다. ‘괜찮아질 거야’라는 미래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과 울음에 취한 상태 같았다. 그러던 그녀는 아주 작게 말했다.

“도둑이 훔쳐 간 거야…。 침대는 남겨놓고 우리 애기만 훔쳐 간 거야…”

그는 인물이 괜찮았다. 흔히 말하는 기생오라비처럼 곱상한 쪽은 아니지만, 남자답다는 말은 몇 번 들은 적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악마는 매일같이 깡 소주를 마셨다. 안주는 그를 향한 폭력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집안의 모든 물건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사실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배워왔다고 할 수 있다. 언제나 대박을 노려왔던 아버지는 함께 대박을 노리던 친구에게 속아 모든 것을 날렸다. 젊은 적부터 말이 통하던 친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날라버렸다. 결과적으로 친구는 대박을 터트린 셈이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마시던 술은 하루하루가 됐고 부인을 향한 말싸움은 폭력이 됐다. 폭력으로 낳은 자식은 폭력으로 길러졌다.

악마가 술에 곱아떨어진 반복 속 어느 날, 그의 어머니는 결심한 듯 그를 깨웠다. 혼자라면 그저 버텨줄 어머니는 더이상 자식이 맞는 꼴을 볼 수 없었다. 둘은 악마를 두고 떠났다. 홀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는 온갖 일을 하며 그를 키웠다. 둘이 사는 원룸이 그에게는 행복했다. 천국은 천사가 사는 곳이 아닌, 악마가 없는 곳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모자의 가난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며 선택한 것은 빼앗는 일이었다.

악마의 친구가 그랬듯 자신보다 멍청해 보이는 친구들의 돈을 뺏었다. 악마가 매일 저지른 폭력은 물려받은 것처럼 자신의 친구들을 향했다. 어머니의 눈물과 다그침은 이미 어긋나버린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병을 가져온다. 거기에 더해지는 똑같은 원인은 죽음을 일으킨다. 그의 눈물은 어머니의 죽음을 말릴 수 없었다. 아들 치과는 보내도 머리의 통증은 참아내던 어머니는 갑자기 떠나버렸다. 아무도 없는 장례를 치르고 온 고등학생인 그는 집에 들어와도 혼자였다. 이 모든 막막함 속에 필요한 것은 오직 돈이었다. 그때부터 학교는 나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스무 살이 된 후에도 그런 삶은 마찬가지였다. 성인이 되는 해 1월 1일에 당당히 술을 마시러 들어오는 동갑들에게 서빙을 했다. 담배는 무지하게 피워댔지만, 술은 입술만 대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은 악마가 마시던 소주가 떠올라서였을 것이다. 평생을 축하주와 퇴근 뒤의 마시는 상쾌한 맛의 맥주 한잔도 상상할 수 없었다.

평소같이 진상 손님을 상대하던 술집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고등학교 시절 어울렸던 무리에서 유독 친했던 녀석이었다.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고개는 숙이고 목소리는 내린 채로 메뉴판을 갖다 줬다.

“야 너 맞지? 이 새끼는 아는 척도 안 하나 서운하게. 나 몰라?”

“아 너였냐? 겁나 바빠. 정신없어서 몰랐어.”

그에게만 어색한 인사를 끝낸 뒤, 일부러 더 바쁘게 서빙을 했다. 더는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서 변명이라도 대고 퇴근하려 했지만 가게는 실제로도 바쁜 상황이었다. 당연히 시끄러운 손님들과 경쟁하는 듯한 음악 소리가 나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끄러운 테이블이 일어났다. 재수 없게 마침 계산하는 곳 근처에 있던 것이 그였고, 계산하는 사람은 녀석이었다.

“계산해드릴게요.”

카드를 내밀며 핸드폰도 내밀기에 얼굴을 쳐다봤다.

“야 번호 바꿨냐? 섭섭하게 진짜. 연락할 테니까 번호 줘봐.”

뒤에 4자리는 아무 숫자나 칠까도 생각했지만 일하는 곳도 알고 피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번호를 줬다.

모르는 번호로 특이 온 것은 며칠 뒤였다.

“야 잘 지냈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데 술이나 한번 마시자.”

그는 핑계를 대며 거부했지만, 특과 전화로 끈질기게 연락을 했다. 결국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술집에서 만나면 술은 입에도 못 대고 안주만 주워 먹는 자신을 보이기 싫었다. 약속 날짜와 시간, 장소에 도착하자 구석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나 왔다. 잘 지냈냐?”

“야 여기서 아는 척을 해주네? 뭐 하고 살았냐. 학교는 갑자기 안 나오고. 연락 바로 끊기고.”

“그냥 이렇게 산다. 맨날 돈에 쫓돌리지. 죽지 못해 산다 진짜로.”

동정받기 싫어 그나마 생각한 대답이었다. 장난 섞인 말투로 우울함을 감추고 싶었다. 항상 돈에 쫓기는 채로 살고 있기에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때 기억나냐?”

추억을 부르는 문장으로 시작한 수다는 길게 이어졌다. 더군다나 함께 많은 것을 겪은 둘이었다. 이상한 것은 말이 잘 이어지다가도 질문에만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친구였다. 요즘 뭐하냐는 간단한 질문도 다시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받아치고 있었다. 대화 중에 다시 특을 열심히 보던 친구가 말을 꺼냈다.

“야 너 진짜로 돈 후달리냐? 그럼 내가 하는 말 들어봐봐. 목소리 낮추고.”

그는 팬스레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친구 때문에 저절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가 친해진 형이 있어. 이 형이 하려는 게 있는데,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고 하거든?”

그 뒤의 말을 듣고는 절대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 혹시 깜빡 간 적 없지?”

어이가 없어진 그의 실소를 본 친구는 덧붙여 말했다.

“이유를 말해줄게. 그 형은 한 번 갔다 왔어. 근데 포기를 못 해. 능력도 있고 목표도 딱 있어. 근데 또 걸리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쓸만한 애 하나 뽑아서 자기는 정보 주고, 개는 털어 오고 해서 나누자 이거지. 처음 걸린 놈은 방법 쓰면 잡혀도 바로 나오니까.”

듣다 보니 꽤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아니, 그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 정보만 확실하면 한 번에 크게 벌 기회였다. 인생역전은 못 하지만 몇 달 치의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절박했다. 그의 마음이 기우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잘나가던 자신을 버리고 착실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살아온 속에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당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막 나가는 모습, 스틸을 원하고 있었다. 그의 대답은 결국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일단, 그 형 좀 만나보자.”

순식간에 약속이 잡힌 삼자대면은 ‘형’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다. 그의 원룸처럼 담배 냄새가 찌들었고, 구석에는 갈색과 초록색 병이 가득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한쪽 벽에 붙어있는 지도들과 메모였다. 쳐진 눈 때문에 의외로 순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얼굴만 본다면 이런 경험과 계획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친구가 서로를 소개한 뒤,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됐다.

“형이 조사랑 준비는 다 했거든? 너는 그냥 몸만 쓰면 돼. 가지고 나올 거 다 가져 나와서 뒷골목에 산 쪽으로 온 다음에 형한테 주면, 물건 파는 것도 내가 해결할 거야. 그다음에 셋이 돈 나누면 끝. 매일 잠자는 시간 빼면 일만 하는 거 힘들지 않아? 이번에 괜찮게 좀 하는 거 같으면 나랑 계속 갈 수도 있는 거고. 봐둔 집은 널렸으니까.”

“한번 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어요?”

“그건 미안하지만 너 하는 거에 달렸지. 나는 무조건 쉽고 안전한 곳 위주로 조사했으니까 잡힐 일은 절대 없어.”

불확실한 돈의 규모는 그를 더욱 끌리게 했다. 형의 안 어울리게도 자상한 말투는 경찰에 잡히고 말 거라는 불안한 마음보다 잘하면 한 번에 대박이라는 생각으로 다가갔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날짜는요?”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기본적인 문 따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하니까. 그거는 금방 배우면 되고. 거짓말이 아니라 너만 한다고 하면 며칠 뒤에 바로 작업 들어가는 거야.”

“...문 따는 거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형?”

그는 평일에 하던 아르바이트 두 개를 그만뒀다. 무슨 일이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생이 태권도장을 가듯 형의 집으로 향했다. 방에는 온갖 모양의 문고리들과 연장이 쌓여갔다. 과외는 며칠 만에 그의 손을 도둑의 것으로 완성했다. 형과 그는 만족하듯 작업 날짜와 장소를 골랐다.

“여기는 단독주택인데, 대문이랑 1층 2층 현관문 셋 다 옛날 거라서 쉬울 거야. 낮에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면 되고, CCTV도 없어. 요즘은 웬만한 골목마다 CCTV가 있으

니까 우리한테는 최고의 조건이야. 내일은 내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모레 바로 시작하자.”

형은 온종일 집을 관찰하며 평소처럼 비는 집에 안심했다. 문도 바뀐 게 없었고, CCTV도 여전히 없었다. 골목 입구에 있는 치안센터가 걸리기는 했으나, 혹시나 걸리더라도 도망치기엔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그와 친구, 형은 형의 집에 모여있었다.

“형은 뒷산에서 기다릴 거니까, 물건들 가지고 오면 같이 집으로 올 거야. 너는 골목 입구 쪽에서 망을 봐. 거기 사는 여자랑 아줌마 나가는 거 보고, 돌아올 때 알려주면 되는 거야. 너는 형이랑 같이 있다가 나갔다는 전화 받으면 작업 시작하자.”

친구는 차를 갖고, 형과 그는 도보로 집을 나섰다. 골목 입구 쪽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는 친구가 전화해주면 정말로 시작이었다. 뒷골목에 도착한 그는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고등학생일 때의 비행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었다. 평소 도둑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어두컴컴한 밤이었다. 대낮에 환한 햇빛을 받으며 작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더욱 무서웠다. 당연히 낮에는 더욱 이상하게 보일 복면조차 없었다. 그는 속으로 단어만 반복했다.

“대문, 2층, 털고, 1층, 털고, 나오고. 대문, 2층, 털고, 1층, 털고, 나오고…”

드디어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아줌마까지 해서 다 나왔다. 들어가.”

“형, 다 나왔대요. 저 갈게요.”

“떨지 말고, 다음도 있으니까, 무조건 안전하게만 하고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줄게. 나오기 전에 현관문 열자마자 보일만 한 곳에 부엌칼을 꽂아놓고 나와. 겁먹어서 그 순간엔 아무것도 못 하고, 시간을 벌게 되니까. 갔다 와.”

뒷골목에 있던 형은 뒷산으로, 그는 집으로 향했다. 장갑 외에는 이상할 게 없는 청바지와 면티를 입은 복장이었다. 집까지 이어진 골목을 걸으며 아까와 같은 단어를 반복했다.

“대문, 2층, 털고, 1층, 털고, 나오고. 대문, 2층, 털고, 1층, 털고, 나오고…”

드디어 대문 앞에 섰다. 다른 집들의 담으로 둘러싸인 골목은, 그를 제외한 아무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훔친 물건들도 담고 나올 스포츠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일반인이 본다면 귀이개로 생각할만한 길쭉하고 얇은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첫 번째 관문인 대문을 열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다. 왼손엔 양쪽으로 꺾인 모양의 쇠를 들고 오른손으로 얇은 꼬챙이를 들었다.

“떨지 말자, 떨지 말자, 떨지 말자, 배운 대로만, 배운 대로만, 배운 대로만…”

청심환을 먹지 않은 것이 후회할 정도로 떨었지만, 전문가의 족집게 강의가 그의 손을 본능적으로 문을 열게끔 만들어줬다. ‘출격’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잠깐의 희열을 느낄 새도 없이 ‘끼잉’하는 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아무도 없는 것을 알지만 괜히 마당을 둘러본 후, 대문을 닫았다. 다시 ‘끼잉’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또 놀랐다. 크게 요동치는 심장 소리만 들리던 그에게는 대문 소리가 공포영화 속 귀신이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2층으로 향했다. 전에 열어본 문고리와 똑같은 모델이라는 것을 보고 반가움이 들었다. 대문보다는 떨림도 덜했던 그는 쉽게 문을 연 뒤, 집안에 들어섰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진짜로 남의 집에 들어왔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떨림이 시작됐다. 제일 먼저 보인 아기침대는 무시한 채 보이는 서랍마다 열어대기 시작했다. 혹시나 몰라 책이란 책은 다 펼쳐보았지만, 건질 것이 없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의 부부와 눈만 마주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이번에 다가온 귀신은 소리가 아닌 감촉이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핸드폰 진동을 느낀 그는 바로 전화를 받았다. 골목에서 대기 중인 친구였다.

“야, 야! 지금 바로 튀어나와! 아줌마 떴다, 아줌마!”

사실 친구가 본 여자는 그녀는 물론 집주인도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이 처음이고 떨렸던 친구의 착각이자 과대망상이었다. 친구는 바로 시동을 켜고 형의 집으로 향해 골목을 나왔다.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은 그가 2초 동안 행동을 멈췄다. 마음은 떨렸어도 넉넉할 시간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다. 스포츠가방은 더 담긴 것도 없이 흐물흐물한 그대로였다. 바로 부엌에서 칼을 빼 들고 들어오자마자 보일 거실 한가운데에 박아넣었다. 땀을 소매로 닦아가며 집을 빠져나와 뒷산을 향해 뛰었다.

“이렇게 빨리 끝났다고? 뭐 어떻게 된거야.”

“전화 왔어요. 집주인이 돌아왔다고. 아무것도 못 건졌어요.”

“지금 돌아올 리가 없는데? 일단은 철수하자 그럼.”

형의 집에 돌아오자 먼저 차를 타고 도착한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분명 그 아줌마가 분명하다고 말했고 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작업에서부터 잡히느니, 다른 동네에서 봐둔 집을 노리는 게 나왔다. 집주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빠져나온 그를 본 사람도 없으니, 잡힐 일도 없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가장 후회되는 행동을 다시 할 수는 없었다.

“저… 진짜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형. 너도 이제 연락하지마.”

형과 친구는 예상보다 순순히 그를 포기했다. 자신도 가담한 범죄를 신고할 리가 없었고, 새가슴인 그보다 철없고 돈 없는 놈 하나 새로 끼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나왔을 때와 그대로인 스포츠가방을 놓고 집을 나왔다. 자신의 방에 도착해 신발만 벗은 채로 누워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마다 며칠간 있었던 기억을 지우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겪은 모든 긴장감과 후회를 잊으려는 것처럼 잠이 들었다.

다행히 원래 다니던 아르바이트는 아직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술집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의 신세를 알던 사장님이 있는 가장 오래된 곳이었다. 그날의 후회를 스스로 만회하려는 듯 다시 일을 시작한 그는 빈자리를 완벽히 채웠다. 전보다 더 늦게까지, 지칠 줄을 몰랐다. 아무래도 정도 많이 들은 곳이기엔 사장님의 권유에 따라 다른 일은 그만둔 채 술집에서만 일하게 됐다.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 새로 연 2호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 사장님은 그를 1호점의 매니저라는 큰 직책으로 승진시켰다. 그가 사랑에 눈뜨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가게와 집을 반복하던 그가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된 곳 역시 술집이었다.

근처에 있던 아주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단체 예약이 잡힌 어느 날이었다. 제일 구석에 있던 아내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아직 회사에 적응하지 못한 신입이었다. 사장과 선배들의 술 권유에 원샷을 반복했다. 다행히도 아내를 데리고 나간 것은 여자 선배였고, 손님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자 구석 자리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들어온 것은 어제의 신입이었다. 아내는 아직 숙취가 덜 풀린 것 같은 얼굴이었고, 그는 지갑과 함께 숙취해소제 한 병을 내밀었다.

“그렇게 다 받아마시지 말아요. 지갑도 놓고 가고, 이거 마시고 힘내세요.”

나중에 듣기를, 남자다운 얼굴에 수줍게 내미는 숙취해소제가 귀여웠다고 한다. 그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아내가 귀여웠다. 다음 날 저녁, 이제 막 바빠지기 시작한 시간이었다. 아내는 작은 쇼핑백에 피로 회복제와 쪽지를 담아왔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번화가 적혀있었다. 그녀에겐 작은 보답과 관심이었지만, 그는 평생 처음 받는 선물과 사랑이었다.

급속도로 가까워진 둘이지만 주말 낮을 제외하고는 만날 수 없었다. 주말에는 아내를 따라 교회도 나갔다. 평일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는 아내와 저녁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그였기에 시간이 나질 않았다. 매니저가 되고 전보다는 훨씬 괜찮은 집을 얻은 그는 회사와 집이 꽤 멀었

던 그녀에게 같이 살자고 했다. 아내는 결국 장모님과 같이 살던 집을 나왔다. 아내가 출근하고 그가 퇴근하는 때에는 서로가 배웅하고 맞이해줬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비해 과분한 행복이 불안했다. 서로가 조심하자고 했으나, 불붙은 사랑은 그녀의 임신테스트기를 두 줄로 만들었다. 아내는 처음엔 몹시 불안해하고 당황했다. 이제야 적응해가는 직장생활에 제동을 거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를 사랑했다. 둘은 서로의 행복을 더해줄 아기를 위해 결혼을 결심했다. 장모님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알기에, 홀로 자란 그가 더욱 대견해 보였다. 결혼식은 뒤로 미룬 채 둘은 혼인신고를 했다. 장모님은 휴직을 신청한 아내와 출산 준비를 서둘렀다. 아이가 당장 나오더라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했다. 특히 아내는 작은 인형들로 이루어진 모빌이 가장 좋았다. 아기침대는 점원의 추천을 받아 샀지만, 모빌만큼은 자신이 보고 또 봐서 고른 것이었다.

아내의 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날, 그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핸드폰 진동을 느꼈다. 다행히 장모님과 함께 있던 아내가 병원을 향했고, 그는 서둘러 뒤를 따랐다. 이미 분만실에 들어간 아내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그러지 않는 게 더 좋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다. 잠시 후 간호사의 말을 듣고 들어간 그는 아이의 탯줄을 잘랐다. 이 손의 떨림은 후회로 가득하였던 그 날 이후 처음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아기는 크게 울어댔고, 아내는 물었다.

“손가락, 발가락 다 달려있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예쁜 공주님이네요.”

그는 아내와 입원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을 나왔을 때와는 달리 팔에는 그들의 딸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낮에는 회사로 복직한 아내를 대신해 아이를 돌봤다. 그가 출근하고 아내가 퇴근할 때는 잠깐의 수다와 함께 교대했다. 주말 낮은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때부터 매일 기도를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지른 일들과 잘못된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행복을 평생토록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는 혼자만 다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자랐고, 유치원에도 들어갔다. 아이들에겐 지켜올 수 있는 교회에서 너무나 안전한 딸을 보고 칭찬을 듣기 일쑤였다.

“어머, 어쩜 이렇게 안전하게 자랐어요? 코부터 생긴 게 너무 예쁘게 생겼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그와 아내는 흐뭇해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는 장난식으로 나를 닮아 코도 예쁜 거라며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당신보다 훨씬 예쁘게 태어나서 다행이라며 혹시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머니도 괜찮은 인물이셨지만, 딸과 닮은 것은 아니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잘못과 용서였다. 예배가 끝날 때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 기도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중 자신에게 제일 알맞은 주제라 생각했다. 매일 하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기도를 하며 그날을 생각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합니다. 부디 철없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부부에게도 행복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랜만의 떠올린 그 날의 기억이 교회에서 있는 자신을 마치 그 집으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만큼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보였던 아기침대, 벽에 걸린 결혼사진... 결혼사진의 부부는 참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떠오르지 말아야 할 것이 겹쳐 보였다. 바로 딸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몇 년을 힘들게 지냈다. 다른 것도 아닌, 자신과 함께 존재했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큰 충격이었다. 회사에 복직해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해 그만두었다. 남편과 주위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처럼 자식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도 있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보다 크고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 회사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집안일에도 열정을 보였다. 특으로만 안부를 주고받던 중국어 교실 친구들과 다시 만나기도 했다. 센스있는 친구들은 항상 아이를 다른 곳에 맡긴 채 혼자서만 나왔고,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도록 조심했다. 종교를 가지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괜찮으면 엄마랑 교회 같이 다닐래? 예배드리면 마음도 편해지고, 사람들도 착하고.”

평소처럼 통화하던 엄마의 권유였다. 아직 친구들 외에 새로운 만남은 피하던 그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계책이었다. 교회라면 학교와 회사에 다닐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던 그녀였다. 단념했던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어렵게 꺼낸 애기임을 알자, 엄마가 불쌍하고 고맙게 느껴졌다.

“엄마는 정말 꾸준히도 나가시네. 알았어요. 이번 주에 한 번 나가보지 뭐.”

주말에 그녀는 자신의 집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엄마가 평생을 다니던 교회를 향했다. 동네 있는 건물 중 한 층만 빌려 운영하는 교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수많은 사람이 우글거렸고, 많은 돈이 들었을 것 같은 교회 건물의 높은 곳엔 십자가와 시계가 있었다. 엄마는 멀리서 그녀가 온 것을 보고 반가운 미소로 맞이했다.

“교회가 이렇게 커? 사람들도 엄청 많네.”

“엄마는 여기가 완전 작을 때부터 다 본 사람이야. 얼른 들어가자. 엄마가 인사하면 같이 인사도 하고.”

엄마가 자신을 봤을 때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반갑게 그녀를 맞아주었다. 이렇게 큰딸이 있는지는 몰랐다면 모녀가 똑 닮아서 예쁘다는 말도 들었다. 적응되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과 과할 정도의 미소가 어색했다. 엄마가 자리를 잡고 챙겨주는 성경책을 손에 들자, 예배가 시작됐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며,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것으로 자라게 된다는 약간은 뻘한 설교였다. 기도시간에는 분위기에 따라 고개를 숙였다.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뭐든지 용서해주나?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만 빌면 천국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어떻게 부르든지 몰라 입만 뻥긋거린 찬송도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들도 있었고, 청년반이라는 곳에 간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큰 교회인만큼 가족들의 모습도 많았다. 예배시간에 울면 어쩔까 걱정되는 아기도 많았다. 시선이 아기에 머무는 순간, 그녀의 뇌는 우울한 그 날의 기억을 떠오르게 한다. 이것은 그녀가 맘대로 할 수 없는, 추우면 몸을 떨게 되고 더우면 땀이 나는 것과 비슷한 작용이었다. 잠시 머물렀던 생명이 남기고 간 흔적일지도 모르겠다.

그중에는 아직 젊은 부부와 딸로 이뤄진 가족도 있었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한 남자와 무슨 일인지 눈치를 보는 아내, 그런 남자와 아내의 손을 잡은 아이가 있었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이었다. 그는 시선을 돌리지도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영문을 알지 못하는 그녀는 아이를 쳐다보았다. 그녀 역시 시선을 돌릴 수 없었다. 초면인 아이를 보고 그녀의 속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다.

‘내 딸이야. 저 애가 도둑이 훔쳐 간 내 딸이야.’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현실을 벗어난 현실에서 이것이 그들의 운명인지, 절대자의 장난인지 알 수 없었다.

[우수상]

## 세컨드 이방인

미디어스쿨  
20172554 이보민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20170312 ...라고 합니다.

A가 자신을 나타낼 때 하는 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A는 대학생이고 교수에게 메일을 보낼 때 이렇게 보냈다. 인사, 교수님, 학번, 이름. 무언가 빠져있는 게 보이는가? 그렇다. A의 학과가 빠져있다. A는 어느 순간부터 학과를 쓰지 않았다. 이는 학과 이름이 여러 개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A는 자신이 이방인이 되는 게 싫었다.

A의 대학교는 21세기에 발맞춰 다방면으로 잘하는 인재를 원했고 그 인재를 탄생시키기 위해 무지막지한 돈을 썼다. 우선 명문대를 졸업하고 국외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들을 교수로 스카우트했다. 그리고는 학생들의 전공을 심화시켰고 세분화했다. 특히 A의 학과는 이름이 해 년마다 달라졌다. 새로운 시대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바뀌야 한단다? 또 학생들의 전공을 두 개로 늘리기도 했다. 학생들이 처음 선택한 전공 한 개와 대학에 들어와서 선택해야 하는 전공 한 개(복수전공)가 있다는 것이다. 예상한대로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졌지만, A의 학교는 돈이 많았다.

A는 2학년 때 복수전공을 선택했다. 역지로 해야 하는 복수전공이었기에 큰 고민은 하지 않았다. 그나마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던 전공을 선택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학과에서 A는 전공생이 아닌 복수전공생이었다. 퍼스트가 아닌 세컨드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A에게 큰 타격을 주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A는 세컨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A는 자신의 퍼스트를 듣기 바빴다. 퍼스트 수업은 죄다 실습수업이기에 이론 수업을 하는 세컨드는 자연스럽게 소홀해졌다.

A는 퍼스트 학과를 졸업 후 퍼스트에서 밀고 있는 직업을 선택할 거였다. 그것이 퍼스트 학과를 졸업한 자들이 자연스럽게 밟는 코스였다. A는 그 코스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기에 세컨드를 나중에 미뤄두고 퍼스트를 빨리 숙달하고자 했다. 정확히 2학년 때 A는 자신의 목표를 완벽히 이루었다. 더는 퍼스트에서 크게 배울 게 없다는 것이다. 그때 A의 학점은 4.0에 가까웠으며 퍼스트 학점은 4.5였다. A는 자기를 가르치던 선배들을 다 제치고 퍼스트에서 1등을 했다. 퍼스트 중의 퍼스트였던 A이다. 그러니 완벽히 숙달한 게 맞다.

마스터 A는 세컨드로 자리를 옮겨 이제 세컨드에 집중했다. 세컨드는 퍼스트와 달리 말이 많았다. 늘 생각해야 했고 글을 써야 했고 평가 같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세컨드 학과는 개 소리를 써도 사람 소리로 이해했다. 세컨드의 건물은 잔디밭 바로 뒤에 있었는데 건물에 들어가려면 잔디밭을 밟거나 잔디밭을 돌아서 가야 했다. 물론 A는 후자를 선택했다. 자라나는 잔디를 밟자니 영 찜찜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세컨드에서 들은 수업의 여파이다. A는 지난주 윤회에 대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30초면 될 것을 1분 30초를 걸어야 했다. 그것이 A를 짜증나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A는 퍼스트 수업에서 시간을 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가 많았기에 더더욱 시간에 예민했다.

세컨드의 수업 시간이 70분이라 하면 교수의 강의 20분 + 학생의 개소리 50분이었다. A가 염세주의자여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사실 정말로 개소리인 적도 있다. 그게 50분은 아닐지라도. 외판점에 혼자 떨어져 있다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 사람의 온기로 가득한 섬에 홀로 입김이 나오는 것만 같았다.

A는 한숨을 쉬며 수업을 들었고, 똑똑한 척하는 세컨드들의 틈에 박혀 퍼스트를 그리워했다. 하지만 퍼스트의 학문을 그리워한 것은 아니다. 그저 퍼스트에서 자기가 날아다니던 때를 그리워한 것이다. 사실 A에게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A가 퍼스트에서 밀고 있는 직업을 하기 싫어졌다는 것이다. 그 직업은 더할 나위 없이 A와 어울렸지만, A는 재미가 없었다. 어떻게 해도 사람들은 손뼉을 쳤지만, A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다. 명성과 더불어 재미까지 있어야 했다. 특히 재미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제 제칠 사람도 없어진 A는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세컨드까지 A를 괴롭혔으니 A가 세컨드를 싫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A는 세컨드 수업에서 B학점을 받았다. 열심히 하지 않은 댓가지만 그래도 B는 A를 화나게 했다. 물론 A는 슬퍼하지는 않았다. 그런 걸로 슬퍼할 A가 아니었다. 그냥 분한 거다. 세컨드 주제에 세컨드 값을 주었다는 게 화가 났다.

A가 휴학한 시점은 그때다. 의욕이 사라져버린 A는 자퇴까지 생각했다. 자신의 퍼스트 학점을 보면서 그리고 세컨드 학점을 보면서 자퇴와 직업 선택을 고민했다. 다시 학교에 가면 세컨드를 들어야 하는데 그건 싫고 퍼스트 직업을 갖기엔 재미가 없다. A가 친구들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았다. 현실주의 친구와 이상주의 친구들의 답은 모두 같았다. 이상하게도 같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A가 다닌 시간이 아깝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친구는 졸업 후 A가 잘하는 것을 선택해 부족함 없이 살으라고 했다. 그게 싫다면 일단은 일을 하면서 찾으라고 했다. 이상적인 친구는 졸업장을 따두고 생각하라고 했다. 그러면 A의 생각이 실패할지라도 다른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고.

A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더더욱 자퇴하고 싶어졌다. 원래 인간이라면 그런 거다. 물어는 보되 결론은 정해져 있는. A도 그런 인간이고 20대이다. 이건 20대의 특권이기도 하다. 휴학했으니 A도 여행을 가야 했다. 휴학은 곧 여행이어야만 한다. A는 그 이상의 것은 하고 싶지 않았다. 한국을 떠나던 날 A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다시 돌아올 게 분명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이상하리만큼 똑같은 것 같은 느낌. A는 그런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생각이 많은 채로 여행지에 도착했더니 즐겁지 않았다. A의 목표는 단지 생각을 정리해서 결괏값을 내는 거다. 그 결괏값이 0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A가 도착지에 발을 디뎠을 때 그곳은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다. 인종. 언어. 냄새 모든 게 A와 달랐다. A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의 좋은 점이 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다는 거다. 무신경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신경 쓸 것이 배로 늘어난다. 교통, 숙소, 먹거리, 안전, 소매치기, 사람, 동전. 그렇지만 한국에서 만큼 신경이 곤두서지는 않았다. 이상하리만큼.

A의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이 지역은 비가 쏟아졌다. 틈만 나면 비가 왔고 해를 보기 힘들었다. A는 빨래를 뽕뽕하게 말리고 싶었다. 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빨래를 하고 말리는지 궁금할 지경이었다. 어떤 날은 낮에 잠깐 비가 개었는데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나와 옆구리에 낀 돗자리를 펼쳤다. 그 돗자리 위에 누워 선크림도 바르지 않은 얼굴로 일광욕을 즐겼다. 물론 선글라스는 필수이다. 신기한 광경이다. 한국에서는 해를 피하려고 난리들인데 여기는 버선발로 해를 맞이한다. 여기까지 와서 버선발이라니. A는 자기 생각을 비웃고 잔디

발에 누웠다.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고 해는 째째했다. 늘 보던 풍경인데 그날 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이튿날 A는 여행지를 구경하다 길을 잘못 들었다. A가 길치였기도 하고 모든 게 처음 본 길투성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숙소를 못 찾으면 택시 타지 뭐’ A는 이런 생각을 하고 발걸음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걸었다. 그러다 한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건물이 굉장히 낡아있었다. 모든 상점이 최소 30년은 되어 보였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새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배가 고파진 A는 앞에 보이는 빵집에 들어갔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현지 사람들이었다.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들 모두가 같이 있었고 그들은 A가 느끼기에 분위기가 같았다. A는 빵과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테이블은 원목이었고 닳고 닳아서 원래의 나무로 되돌아가는 중이었다. 포근한 느낌이 들어 A는 외투를 벗고 편안하게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면서 구글맵을 켜자 도시 이름이 떴다. 도시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더니 누군가 Anarchy를 주제로 포스팅한 게시물이 나왔다. A가 있던 곳은 무정부 도시였다. 정부가 없었기에 다른 담당 지역으로 떴고 기차와 버스 또한 따로 표를 사야만 했다. A는 무정부주의는 들어봤지만, 무정부 도시에 온 건 처음이었다. A의 상상과 달리 무정부 도시는 일반 도시와 비슷했다. 다만 건물이 오래 됐을 뿐이다. A는 이전에 어디선가 무정부 도시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들었던 적이 있다. 유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늘 같은 곳에서 같은 물건과 음식을 판다. 이 카페도 알고 보니 40년은 족히 된 카페였다. 주인장은 바뀌었겠지만, 커피는 같다. A가 커피를 마시고 T.I.P이라 쓰여 있는 컵에 동전을 넣었다. 그냥 숙소에 갈 예정이었던 A는 이 도시에 흥미가 생겼다. 모두 제각기 갈 길을 가느라 바빴고, A만이 고개를 돌리며 구경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 주위에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 관광객이 아무리 현지인인 척 해봐도 티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A는 카메라도 없고 옷차림도 무채색이었지만 누가 봐도 관광객이었다. 한참을 둘러보던 A는 벽에 그려진 수많은 그래피티를 보았다. 이곳에서는 그래피티를 위해 따로 벽을 내주는 듯했다. 벽이 꽤 관리가 잘 되어있었고 그래피티는 그곳에 잘 스며들어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래피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글귀가 있었다. 누군가 빨간색 물감으로 글씨를 쓴 것 같았다. A는 그것 또한 그래피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 글씨를 자세히 보니 fuck tourist라고 쓰여 있었다. 하필 이걸 발견한 게 A였다. 생각해보니 A가 발견한 건 당연한 일이다. 현지인들이 그래피티를 자세히 볼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피티를 구경하는 건 관광객이다. 그러니깐 그 글귀는 제주인을 만난거다. A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저 웃음만 낳을 뿐이다. 누군가 자기를 보고 비웃을 거를 생각하니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다.

발걸음을 재촉해 그 거리를 지나왔을 때 A는 일본식 라멘집을 발견했다. 간판을 보니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A는 육수 냄새가 나는 라멘집으로 들어갔다. 라멘집에는 손님이 없었다. A와 같은 인종처럼 보이는 직원은 A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서툰 어투로 라멘을 시키고 10분이 지나자 음식이 나왔다. 맛은 꽤 괜찮았다. A가 한참 먹고 있을 때 주방장으로 보이는 이와 직원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당연히 일본말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두 사람은 중국어로 대화했다.

라멘은 이제 국물만 남았는데도 여전히 김이 났다. A는 이 상황이 어처구니없고 웃겼다. 심지어 그들의 대화에 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면서 말이다.

‘그러니깐 내가 여행 와서 일본 집 라멘을 먹으러 온 것도 어이없는데, 이 라멘이 중국인인 한 거라는 거지?’ A는 실소했다. 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슬며시 나오다 A는 직원과 마주쳤다. 직원은 A에게 미소를 보내며 잘 가라고 인사했다. 사실 알고 보면 일본 라멘을 중국인

이 한다는 건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이 초밥을 만들고 중식을 만드니깐. 그냥 A는 자신이 이곳에서 중국인의 라멘을 먹었다는 게 재밌었을 뿐이다. A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건 없었다. 여기는 A의 나라가 아니다. 라멘집을 나오고 무정부 도시를 지나 들고 돌아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A는 오늘 일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다.

무정부 도시, 그래피티, 여행자, 라멘, 일본인, 중국인.

나가기 전에 넣어놓은 빨래는 여전히 축축했다. 마를 일은 없을 거다. 그냥 그렇게 옷을 입어야만 한다. 한동안 해가 뜨지 않는다고 했으니깐. 아마도 A가 이 나라를 떠날 때까지 뽕송뽕송한 빨래는 만날 수 없을 거다. A는 씻자마자 깊은 잠이 들었다. 온종일 걸어 다녔으니 피곤할 만도 했다. A는 잠이 들자마자 꿈을 꿴다. 원 모양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A가 직접 운전해 곡선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도로 아래는 절벽이었다. 끝없는 추락만 있는 절벽. A는 땀을 흘리며 운전대를 잡았다. 자신의 차가 가장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1차선 도로였기에 A는 앞만 보고 액셀을 밟으면 됐다. 한참을 달리던 A의 차 앞으로 어떤 차가 달려왔다. 역주행 차다. 차는 멈추지 않고 A를 향해 달려왔고 A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숨죽여 추락을 기다렸다. A가 그 차와 부딪히려 할 때 차는 핸들을 꺾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A는 그 순간 거기 타고 있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A의 차는 다시 원을 따라 돌기 시작했고 추락한 차는 소리 없이 추락 중이다. 그때 A의 눈이 떠졌다. 꿈은 정확히 기억했지만, 운전자의 얼굴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분명 그 차는 일부러 핸들을 꺾었다. 추락을 위해 달려왔다. 그렇다면 뭐 때문에 A를 향해 액셀을 밟았을까. A는 땀을 닦으며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올 리 없다. 그건 그저 꿈이니깐. A가 궁금한 건 자신과 눈이 마주친 자의 표정이다. 분명 편안한 표정이었다.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그런 표정. 대체 그는 왜 낭떠러지로 추락하면서 그렇게 안락한 표정을 지었을까. 얼굴은 기억이 나질 않았지만, 표정이 주는 느낌은 생생했다.

A가 침대에 앉아 물을 들이켰다. 한숨을 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잠이 들면서도 생각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나의 죽음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었을까. 그 사람이 만일 핸들을 틀지 않고 나에게로 왔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겠지? 거기서 1차선 도로니깐. 내가 피할 곳은 없잖아. 어쩔 수 없어. 대체 낭떠러지 밑에는 뭐가 있었을까. 역주행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 그곳은 낭떠러지가 맞았을까’

여행 마지막 날 A는 기차를 타고 공항으로 갔다. 기차는 예약석과 자유석의 구분이 없었으며 미리 예약하면 좌석 위에 자동으로 예약 표시가 떴다. 딱히 예약을 하지 않았어도 됐지만, A는 혹시 모를 불상사를 위해 미리 예매를 했다. 끝에서 세 번째 줄 창가 자리. 옆자리에 아무도 없길 바라며 기차에 올랐다.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자 세 번째 줄 창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젊어 보이는 여자가 A의 자리에 앉아있다. A는 프린트한 표를 다시 확인했다. 저 자리는 A의 자리가 맞다. A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자유석에 앉거나 저 여자를 쫓아내는 것. 잠시 고민하던 A는 역시 끝에서 세 번째 줄 창가 자리에 앉기로 했다. A가 그 여자에게 자신의 표를 보여주고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여자는 뒤를 확인하더니 여기에 꼭 앉고 싶냐고 물어봤다. A는 당연한 걸 묻는다고 생각했다. 여자가 짐을 챙겨 자유석으로 돌아갔다. A는 이상하게 뿌듯했다. 여자가 비켜간 자리에 캐리어를 밀어 넣고 가방을 올려두고 나서야 알았다. 어떤 오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A의 자리에는 예약 표시가 없다. 그러니깐 저 여자는 잘못된 게 없다. 오히려 당황했을 법한데 아무렇지 않게 비켜준 거다. A는 바로 직전에 자신이 당당한 표정으로 표를 내민 걸 떠올리며 부끄러워했다.

‘그냥 자유석에 앉을걸.’ 어찌 됐든 A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고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큰

캐리어에 손에는 표, 당당한척하는 표정. 완벽한 투어리스트다. A의 뇌리에 전에 보았던 Fuck tourist가 생각났다. 물론 A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다. 단지 붉은 물감이 떠올랐을 뿐이다. A가 공항에 도착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A의 곱갚은 무엇이었을까? 0이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A도 모르기 때문이다.

A는 기내식으로 닭고기 덮밥을 선택했다. 밥이 놓이고 뚜껑을 열자 주황색 소스가 A를 반겼다. 곱갚은 주홍빛 소스이다. A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수저로 소스를 퍼 향을 맡았다. 땅콩 냄새다. 분명히 땅콩잼 냄새가 난다. 대체 이건 무슨 음식일까. A의 뺨속에서 소리가 났다. 하늘 위에서 배가 고프다는 건 슬픈 일이다. 하는 수 없이 A는 땅콩 소스에 절여진 닭고기를 밥과 버무려 입에 넣었다. 맛은 나쁘지 않았다. 낯설지만 삼킬 수는 있었다. A는 이 요리의 이름이 대체 왜 닭고기 덮밥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닭고기 땅콩 덮밥이 정확한 표현이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기내식은 퓨전 음식이었다. 그러니깐 아시아 음식을 유럽식으로 바꾼 그런거다. A는 시간이 꽤 흐른 후까지 닭고기 덮밥을 생각했다. 색다른 경험이라고 하기엔 모호한 그 덮밥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결국 A는 1년 만에 학교에 갔다. 다시 간 학교는 바뀐 구석이라곤 없었다.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보도블록만이 새것으로 교체되었고 여전히 수업을 들으려면 잔디를 밟고 가거나 돌아서 가야 했다. A는 자연스럽게 모퉁이를 돌아 강의실에 갔다. 마치 몸에 오랫동안 베인 습관처럼 A는 정사각형 잔디밭을 밟지 않았다. 사실 A는 자기가 잔디밭을 밟지 않았다는 것조차 몰랐다.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갔을 뿐이다. 세컨드 학과 강의실에 도착해 문을 열자 학생들이 있었다. A는 그 안에 들어가 최대한 몸을 숙이고 구석에 앉았다. 다행히 아무도 A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사회에서의 1년과 대학에서의 1년은 많은 차이가 있다. 1년 휴학했을 뿐인데도 학생들은 대단히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착각하곤 한다. A는 이 사실에 안심하면서도 기분이 나빴다.

A가 이 건물에 온 건 단순히 세컨드 학과의 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은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과 질문을 요구하는 교수 혹은 수강생과 교수로 이루어져 있다. 여전히 개소리가 양쪽으로 오간다. A는 1년 전과 똑같이 흘러가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맞다. 달라진 건 없다. 강의실, 학생들, 교수, 잔디밭 모든 게 똑같다. 아, 하나를 빼고는. A의 퍼스트 학과는 또 이름을 바꿨다.

수업을 듣던 A는 우연히 세컨드 교수와 눈이 마주쳤다. 놀란 A가 눈을 피하자 세컨드 교수는 A를 꼭 집어 질문을 했다.

“자네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복수 전공생인가? 이름은 뭐지?”

“...네.. 복수 전공생입니다. A라고 합니다”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A가 세컨드로 자신들의 퍼스트를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학과는 어디 학과이지?” 교수가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A를 쳐다보았다. 희고 얇은 머리에 안경을 쓴 교수는 누가 봐도 교수 소리를 들을 사람처럼 생겼다. 학생들은 교수와 A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루하던 찰나에 흥밋거리가 생긴 거다. A가 흥밋거리라는 건 아니다. 진도가 멈추었다는 게 좋았을 뿐이다.

“학과는...학과는...” A는 망설였다. 질문을 받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하기 싫었다. A는 퍼스트 학과를 말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퍼스트 학과의 이름은 달라졌고 아직 A는 그 명칭을 정확히 외우지 못했다. 그렇다고 A가 바뀌기 전 이름으로 말하면 다들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A가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거나 휴학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이다.

“제 학과는 그러니깐.” A가 학과 이름을 말했다. A의 머릿속에는 입학하기 전의 이름, 입학하고 나서 생긴 이름, 바뀐 이름, 또 바뀐 이름이 떠돌았다. 그 중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A에게 중요했던 건 자신이 세컨드 학생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는 거다. 교수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진도를 나갔다. A를 보던 몇몇 학생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 교수를 바라보았다. A도 교수를 보았다. 세컨드 교수의 강의가 끝날 때까지 A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다. 강의를 끝나자 학생들은 서로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친구들과 떼 지어 나갔다. A는 생각했다. ‘나는 뭐 때문에 망설일 걸까’

다음날에도 세컨드 교수는 A에게 질문했고 A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아주 장황한 대답을. 다시 말해 차분한 개소리가 오갔다. 교수는 그 개소리를 정리해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지나치게 정돈된 설명이다. A는 부끄러웠다. 자신의 개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다는 것보다 자신이 개소리했다는 게 치욕스러웠다. 앞으로 다시는 입을 열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며 A는 모자를 푹 눌러썼다. 그렇지만 A의 다짐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 뒤로도 세컨드 교수는 A에게 종종 질문을 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니다. A가 선택한 세컨드 학과는 복수 전공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학과였기에 교수들은 자신들의 학과를 택한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한 번은 세컨드 교수가 퍼스트들에게 질문했다.

“...에 대해 설명해 보겠는가?”

“어..음...그거는...” 한 퍼스트가 말을 더듬으며 답했다.

“전공생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세컨드 교수는 실망한 기색으로 칠판에 글씨를 적어나갔다. 전공생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A의 귓가에 그 말이 맴돌았다.

“그렇다면 A는 이게 뭔지 알겠나?” 세컨드인 A는 모른다. 모르기에 모른다고 답해야만 한다.

“모릅니다.”

“틀려도 좋으니 모른다고 답하지 말게. 모른다는 건 일종의 회피야. 충분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를 나는 묻거든.”

‘회피...’ A는 세컨드 교수의 질문을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질문은 퍼스트라면 알아야 하는 것이었고, A는 그저 세컨드였다.

“나는 모두가 내 수업에서 질문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 매주 한 명씩 의무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이 들려왔지만, A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A가 출석부 맨 밑에 있었기 때문이다. 출석부는 퍼스트들의 이름순이었고 A는 맨 마지막이다. 퍼스트들을 부르고 나면 세컨드인 A를 부른다. 이 말은 가장 늦게 질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A의 예상대로 A는 마지막 질문자가 되었다. 첫 번째 학생이 질문하고 교수는 답을 한다. 두 번째 학생이 질문하고 교수는 답을 한다. A는 질문을 듣고 때로는 생각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되묻기도 했다. 질문과 답변.

수업이 끝나고 A가 잔디밭을 돌아서 가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잔디밭에는 참새 두 마리가 앉아있었다. A의 퍼스트 학과 교수이다. 퍼스트 교수가 A에게 전화했다. 퍼스트 교수는 A를 굉장히 아꼈다. 자신의 결과물로 A를 점찍어 났는데 도중에 사라졌으니 당혹스러울 만도 했다. 전화 내용은 예상했다시피 퍼스트 학과 직업을 가지라는 거였다. 퍼스트 교수는 A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A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A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 그게 뭐였든 간에 A는 흔들렸다.

“자네는 그쪽에서 일하는 게 좋을 거야. 아무리 봐도 자네가 딱 맞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성적도 좋고 재능도 있는데 아깝구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명확히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데,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여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

“행복하지 않을 거 같아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A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A의 단호한 말에 퍼스트 교수는 당황했다. 그 순간 퍼스트 교수는 A가 낯설게 느껴졌다.

“뭐 하고 살고 싶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이 좋습니다.”

집에 가는 전철을 탄 A는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았다. 네모난 창문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파노라마처럼 보였다. 창 밖은 정지되어 있고 A의 몸은 고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A는 계속해서 움직인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마지막으로 A가 세컨드 교수에게 질문할 차례가 되었다. A는 느리고 장황한 질문을 늘어놓았다. 퍼스트 학생들은 A의 질문을 듣고 생각했고 교수는 정돈된 답변을 내놓았다. A를 마지막으로 질문은 끝이 났다. 70분의 수업 시간도 끝났다. A는 짐을 챙겨 나가다가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쳤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A씨죠?”

“...네...” 낯선 이가 A를 알고 있다. 자신은 상대의 이름조차 모르는데 저 사람은 A를 알고 있다.

“저도 이 학과 복수 전공하거든요. A씨도 맞으시죠?” 세컨드 학과를 선택한 자가 또 있었다. 이 사람은 세컨드 이방인이다. A도 세컨드 이방인이다. 낯선 이와 A는 세컨드 이방인이다.

“네. 맞아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오래전부터 알았는걸요. 이 학과에서 복수 전공생을 보는 건 흔치 않으니깐요. 예전에 그 수업 듣지 않았어요?” A가 세컨드 학과에서 처음으로 학점 B를 받았던 그 수업이다. 그때 A는 왜 이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

“맞아요. 저는 계속 모르고 있었네요. 같이 듣고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면 됐죠. 앞으로 인사해요.”

“네. 그럴게요.” 왠지 A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다음부터 A는 세컨드 이방인과 인사를 한다. 이방인 둘은 서로 인사를 나눌 것이고 언젠가는 연대감도 느낄 것이다.

“과제 올라온 거 보셨어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던데 하시고 있나요?”

“아, 과제가 있었나요?”

“이번 주 공지사항에 올라왔던데 한 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이만 가야 해서 나중에 뵈요!”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과제가 올라와 있다. 세컨드 학과 교수가 낸 과제의 주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였다. A는 과제를 보고 익숙함을 느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씩은 해봤을 그런 주제였다. 그래도 해야만 했다. 청소년 필독서가 어른들의 베스트셀러와 같은 것처럼. 사실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모른다. 어른들의 베스트셀러 책이 청소년의 필독서가 된 건지, 아니면 청소년 필독서가 어른들의 베스트셀러가 된 건지 우리는 모른다.

A가 과제를 끝냈다. 이제 세컨드 교수에게 이메일로 제출만 하면 된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했다. 그리고선 간단한 인사말을 써넣으려 했다.

하지만 A는 안녕하세요 저는..까지만 쓰고 손을 멈췄다. 늘 여기서 멈췄다가 퍼스트 학과를 적어냈었는데 오늘따라 퍼스트 학과를 적고 싶지 않았다. 세컨드 교수가 퍼스트 학생들만 챙길까 겁이 나서가 아녜다. A는 그저 A가 되고 싶었다. 자연스레 세컨드에 스며들고 싶었다. 고향을 물어볼 때 자신이 태어난 곳보다 자라온 곳을 말하는 것처럼 A도 자신이 머물고 싶은 곳을 말하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20170312 A입니다.

[장려상]

## 눈 동 자

국어국문학전공  
20177004 최동희

명품 브랜드의 양복을 멋들어지게 차려 입은 신사 한 명이 당구장에 들어섰다. 새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형광등의 광채가 가슴팍에 달린 브로치를 더욱 빛나게 했다. 그 뒤를 따라 최 씨 노인이 들어왔다. 그가 입은 낡은 양복은 구김이 가고 색이 바랜지 오래였다.

당구장 사장 현태는 카운터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포켓볼 테이블로 안내했다. “이쪽입니다.” 냉커피 두 잔을 타고 테이블로 가져오기까지 그의 손은 파르르 떨렸다. 넘친 커피가 종이컵을 타고 흘러 흰 쟁반 끄트머리에 고였다.

“진작 이렇게 빌 걸 그랬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영감님. 좋은 요정에서 품 나는 양주를 한 잔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나요, 하하. 그러나 저러나, 당구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보자, 음……. 4구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군. 짧게 포켓볼, 괜찮으시죠?”

최 씨 노인은 말없이 신사를 바라봤다. 신사는 피식 웃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신 다음에 이야길 나누시죠.”

신사는 최 씨의 대답은 듣지도 않고 큐 하나를 꺼내들더니 끝에 분칠을 했다. 최 씨 노인도 곁에 놓인 큐 하나를 들었다.

“제가 먼저 시작하죠.”

신사는 시가에 불을 붙이고는 연기를 훑 들이마셨다. 큐에 맞닿은 흰 공은 빠르게 굴러가 형형색색으로 이뤄진 삼각형을 깨뜨렸다. 신사의 코가 뿜어내는 연기와 뿔뿔이 흩어지는 공들 사이에서 최 씨 노인은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수정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로 가려지기 시작한 수정동의 푸른 하늘 위에서는 아직 까치가 날아다녔다.

산등성이에 걸쳐진 해가 산 아래를 붉게 물들였다. 산자락 아래에 펼쳐진 동네는 변화가에서 차를 타고 조금은 벗어나야 그 윤곽이 드러났다. 저층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이 한데 모여 있어 제각각인 높이의 굴곡진 차트 그래프를 보는 것 같았다. 높은 건물이라고 해봐야 7층 건물에 옥탑방 하나 있는 정도라, 산 정상에서 볼 때면 도토리들이 키 재기를 하는 일과 다름이 없었다. 그 사이 사이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수정동에 존재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작고 낡은 건물들과 컨테이너들도 있었다. 무허가 주택이라 불리는 그것들은 수정동에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자리표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마냥 웅크려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 굴곡진 차트 그래프의 틈 사이에서 수정동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루하루의 생계를 위해 씨앗을 짊어지고 풀숲을 쏘다니는 일개미 떼 같았다.

수정 2동의 마을회관 앞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중심과 같은 곳이었다. 지리적으로도 수정

동 전체의 중간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나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물론 수정 1동의 대형 마트로 장을 보러 왔다 갔다 하는 주부들도 마을회관을 지나쳤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들도 마을회관 앞으로 몰려들었다.

“오 사장. 그 소식 들었어? 동네에 아파트가 들어선대. 어이쿠, 들었지 그럼. 집값 올라가는 상상을 하니 벌써부터 두근거리지네.”

“췌! 말조심 혀. 이 동네 자기 집 없어서 단칸방 들어 살거나 하는 사람들도 태반인 거 몰라?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지는 말아, 큰일 나.”

“건너편 1동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대?”

“거긴 원래 부잣집 동네잖아. 어쨌건 간에 그쪽도 집값이 올라서 좋겠지 뭐. 우리가 올라서 좋은 거나 생각하자고!”

수정 2동의 마을회관 앞은 시끌시끌했다. 얼마 전 수정 2동 구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아파트 단지의 건설은 주변 지역에 상권이 생기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동네의 집값과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했다. 주택이나 아파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돈방석에 드러누워 금덩이를 벤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 오래 전부터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 단지가 들어 있던 수정 1동을 부러워했던 그들이었다. 이제는 본인들도 동등한 대우를 만끽할 수 있음에 즐거워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래요, 윤희 엄마. 당장 마련해 둔 재산도 없는데.”

“그러, 갈 곳이 없어서 큰일이여, 있는 사람들만 기분 좋은 일이지 않아?”

“맞아요. 우리 같이 주머니 털어도 나올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지 뭐. 입에 풀칠할 것만 걱정했는데, 거리에 나가 앓을 걱정까지 해야 할 것 같네 그려…….”

꽃이 활짝 피어오르는 정원 한 구석엔 뿔뿔한 잡초가 시들고 썩어가는 것처럼, 수정 2동의 다른 한쪽에서는 한숨 소리와 높아진 언성이 터져 나왔다.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게 살아가면서 월세나 전세를 내고 나면 지갑이 더더욱 가벼워지는 그런 이들이었다. 산자락 아래 무허가 주택들, 옥탑, 전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전혀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다른 동네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내가 사는 곳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목 밑까지 차올라 있는 상태로 살아왔다. 재개발 확정이라는 현실은 해일처럼 밀려왔고, 불안감은 허탈함으로 변해 사람들의 숨통을 톱 막아버렸다.

수정동 마을회관 앞에 최 씨 노인이 나타났다. 회관 앞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그도 목례를 해 인사에 답했다. 회관 뒤뜰 공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지렁이를 문 어미닭을 본 병아리마냥 노인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따 놀러 가면 재미있는 이야기 해 주실 거죠?”

“유리병에 있는 사탕 하나만 주세요!” 노인은 아이들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저녁 맛있게 먹고 오너라.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부 전해드리는 것 잊지 말구.” 그는 회관 앞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낡은 점퍼는 구겨지고 색이 바랜지 오래였다. 얼굴에 패인 수많은 주름은 고목에 새겨진 나이테처럼 보였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산전수전 겪으면서도 수정동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왔음을 증명하는 세월의 도장이기도 했다.

“어르신, 소식 들으셨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김 씨가 꾸벅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넸다. 최 씨 노인은 가슴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냈다.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는ライター로 불을 붙이려 할 때였다. 윤희 엄마에게 하소연을 하던 박 여사가 성큼성큼 다가와서 성을 냈다.

“이봐요 김 씨 아저씨,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해요? 최 씨 어르신께서 동네가 갈아엎어질 것을 지켜만 보실 분인가? 그쪽은 주머니 좀 두둑하고 자기 집 있어서 입 꼬리가 귀에 걸린 모양인데, 분위기 파악을 좀 해요!”

“뭐라고? 아니 이 아줌마가 다짜고짜 시비아? 내가 잘못된 일로 돈 벌어 내 집 지었어?”

“사람이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그러니까 마을 행사 때도 일손 돕는 데 코빼기도 안 보이지.”

“이 여자가 진짜! 그러는 당신은 하루가 마다않고 편의점에서 복권 쪼가리나 만지작거리나? 그러니까 사는 데가 아직도 전세……”

“그만들 하게. 회관 앞에서 뭐 하는 행동들인가.”

최 씨 노인은 담배를 입에서 떼어 손에 쥐고 있었다. 불꽃이 일렁이던 라이터는 그의 허벅지 위에서 위태롭게 시소놀이를 하고 있었다. 일흔이 넘은 그의 허벅지는 날이 갈수록 앙상해졌다. 나지막하게 내뿜은 말에 김 씨와 박 여사 모두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의 언쟁을 듣고 각각의 편을 기울이려던 사람들도 멍칫하고는, 먼 산을 쳐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수정 2동엔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사람들의 절반이라네. 요즘 같은 세상이 어느 때인데 사람들 의견이 그리 목살되겠나. 관공서에도 귀에 소식이 들어갔을 거야. 잠자코 기다려 보세.”

최 씨 노인의 만류 이후 사람들은 아파트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회관 앞에서 꺼내지 않았다. 술집이나 반상회, 계모임에서 두어 마디 등장하다가 사라지는 그 정도뿐이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다. 시청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별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마을회관 근처에서 검은 차량이 한 대 섰다. 까만 양복 차림의 신사 한 명이 내렸다.

“이사님, 이곳입니다.”

신사는 수행원의 어깨를 두어 번 다독이고는 자신의 옷깃을 어루만졌다. 대기업 마크가 새겨진 브로치는 ‘태양’이라는 그룹의 이름답게 금빛으로 빛났다. 브로치와 고급 메탈 시계를 제외하면 장년 초입에 든 평범한 사내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꼳꼳한 허리와 구김살 하나 보이지 않는 양복의 걸이 빈틈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듯 했다. 그의 자태는 물가에 선 한 마리 새처럼 보였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그러면서도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먹잇감을 향시 주시하고 있는 백로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수행원과 함께 일 주일에 두세 번씩은 수정 2동을 방문했다. 다방이나 고급 음식점에서 양복 신사가 누군가와 독대하며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가 만나는 인물들은 식당을 운영하는 윤 사장, 원룸텔 건물주 김 씨, 인쇄소 사장 태수 아빠, 청춘 미용실의 파마머리 아줌마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주로 자기 명의의 집이나 땅이 있는 이들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다.

“저 곳 사장만 만나시면 일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조합원들을 구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사님.” 수행원이 양복 신사의 한 발짝 뒤에 서서 말을 건넸다. 신사는 헛기침을 하고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당구장 안은 소란했다. 이른 퇴근을 한 것 같은 직장인들과 스무 살 초반 앳되어 보이는 젊은이들이 여럿 모여 있었다.

“어서 오세요~ 저쪽 테이블로 가 주시겠어요?” 당구장 사장은 반갑게 웃으며 양복 신사와 수행원을 맞았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냉장고에서 매실차를 꺼내 컵에 따르기 시작했다. 항상 생기 넘치는 얼굴을 가진 당구장 사장 현태는 불혹을 살짝 넘긴 나이임에도 언제나 활기찼다. 그래서 수정동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다. 동네 아이들을 대할 땐 호탕한 웃

음소리와 함께 사탕을 쥐어주곤 했기에, 아이들도 그를 잘 따랐다. 탄탄한 근육으로 둘러져 다부진 체격은 그의 인생살이가 고단했음을 나타내는 징표였다. 시커먼 손과 종아리는 크고 작은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그러나 현태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들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다. 당구장이 있는 2층짜리 건물이 자신의 것이 되기까지 노력했다는, 일종의 보증을 서였기 때문이다.

“뭘 드릴까요? 4구? 3구?”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당구를 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장님을 뵙기 위해 온 겁니다.”

수행원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을 꺼냈다.

“아니 어떤 분이시기에 저를……?”

양복 신사가 일어났다. 수행원이 조심스럽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신사는 이현태를 향해 목례를 건네며 명함을 내밀었다. 현태도 답례를 하며 명함을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신사가 말을 꺼냈다.

“태양건설의 이사직에 있는 유현승이라고 합니다.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수정 2동에 들어설 태양 뉴타운의 아파트 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건물 소유주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태양 뉴타운의 조합원이 되시면 입주 시 가전제품과 넓은 평수의 주택은 우선제공은 물론, 현재 조합원에 등록하시는 분들께는 일반 분양가의 75%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이 들어서면 순간 이곳 토지세나 건물 가격은 당연한 얘기고 상권도 수정 1동 못지않게 오를 겁니다.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현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람들이 당구를 치러 오고 가면서 수다를 떨고 곳인 만큼 재개발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다. 작은 건물이지만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소유의 재산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어린 나이에 상경하여 산전수전 겪어 가면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돈이 된다 싶은 일들을 했다. 스무 살 가까이 되었을 때 이곳 수정동에 정착했다. 최 씨는 그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했다. 조부 때부터 운영해 온 작은 국밥집 앞에서 최 씨는 쭈뼛거리는 현태를 발견하고는 밥을 먹이고 거둬들였다. 그렇게 이삼 년 동안 현태는 최 씨의 국밥집에서 일을 거들었고,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다. 둘째 주, 넷째 주 주말마다 소년 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들에게 국밥을 무료로 나눠주는 일이 끝나고 나면 최 씨는 현태를 수정 1동의 당구장으로 데려갔다.

“이 포켓볼이라는 게 참 재미있더라. 하나하나를 구멍에 넣을 때마다 속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야.”

현태는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해 주는 최 씨와 당구장에 오는 게 행복했다. 항상 혼자였던 최 씨는 마음으로 낳은 아들과 무엇인가를 함께한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다.

현태는 성인이 되어서 어항을 만드는 회사 내 유리 공장에 취직했다. 십여 년간 일을 하면서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나이든 공장장의 퇴임 후, 젊은 나이에 공장 책임자로 올라섰다. 대형 그룹에서 운영하는 수족관의 수조 납품이 체결되어 회사의 수익이 올라가고 규모가 커지자 그의 주머니도 함께 두둑해졌다. 이맘 때 늦은 결혼을 했고 아이도 생겼다. 공장에서 일한 지 이십 년이 살짝 넘었을 때였다. 아내가 제안을 했다.

“동네에 2층짜리 건물이 매물로 나왔어요. 크지는 않지만 위치가 좋아요. 수정 1동이랑 가깝기도 하고.”

“우리 수중에 무리하는 게 아닐까?”

“당신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다면서요. 그 동안 모아둔 것도 있고, 나도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투자도 해 봐요.”

현태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와 함께 건물을 매입했다. 1층에는 세를 내 작은 카페가 들어섰고 2층은 내버려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어항을 옮기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일이 생겼다. 급하게 한 수술은 성공했으나 의사는 더 이상 무리한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을 내렸다. 아내도 만류했다.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두 번째 사장은 현태에게 적지 않은 퇴직금을 마련해 주었다.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키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태는 그 돈에다 좀 더 무리를 했다. 그렇게 자신의 건물 2층에 당구장을 차렸다. 포켓볼 테이블 하나에 4구 테이블 4개가 들어가는 작은 규모였다. ‘행복 당구장’이라는 이름의 당구장은 당구를 칠 곳이 없던 수정 2동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과 중년 사내들에게 인기 만점의 공간이 되었다.

“사장님?” 옛 생각을 하고 있던 현태는 양복 신사의 부름에 정신을 되돌렸다. 뉴타운이 들어선다는 것은 건물 값도 오르고 세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드러내 놓고 좋아할 만한 일이었다. 어렵게 일해서 얻어낸 재산이었으니까. 하지만 최 씨 노인을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었다. 그분은 오래도록 수정 2동에 살면서 동네의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했다. 둘째 주 넷째 주 주말마다 불우이웃들에게 국밥을 무료로 제공한 것도 그런 부분에서였을 것이다.

‘자네가 이곳에 온 건 내게도 자네에게도 축복인 것 같네.’

포켓볼을 치고 갈 때마다 최 씨 노인이 남기는 말이었다. 자신을 받아 준 수정 2동이 망가지는 것은 기쁠 수가 없었다. 조합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뉴타운이 들어서는 걸 반기는 것과 다를 게 없었다.

“죄송합니다. 입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살고 있는 동네가 좋네요.”

“태양 뉴타운의 건설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재고해 보심이…….”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 되어서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두 분, 어떤 것 하시겠습니까? 4구? 포켓?”

주변의 시선이 이쪽에게로 쏠렸다. 양복 신사는 두어 번 헛기침을 하고는 나중에 다시 뵈겠다고 목례를 한 뒤 당구장에서 나왔다. 수행원도 허겁지겁 따라 나왔다.

“저 사장이 조합원이 되면 영향력이 클 텐데요. 여기서 산 지 오래 되었고, 성격과 인품도 훌륭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거절하다니, 아쉽습니다.”

양복 신사는 차에 타려다가 차문을 열고 이야기하는 수행원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그렇게 바로 단정지어버리면 안 돼. 사업하는 사람들은 결단력 있을 필요도 있지만,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모르는 일이야 암. 모르는 일이고말고.”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소. 그래서 결정했어요. 시위를 해야 합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사람들을 모은 건 최 씨 노인이었다. 그는 홀로 찾아가 재개발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어필했지만, 시청과 동사무소에서는 그 누구도 주의 깊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쪽저쪽 부서로 책임을 회피할 뿐이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했다. 최 씨 노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웁소, 맞습니다.” 를 외쳤다. 대부분이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었다. 뒤쪽에서는 무리에서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현태도 최 씨 노인의 부름에 합류했다. 얼마 안 되는 자신의 것을 빼앗길 수 없다는 결의에

찬 사람들로 가득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정이 있어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저 앞쪽에서는 최 씨 노인이 짜는 시위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현태는 중간에서 조금 뒤편에 서 있었다. 최 씨 노인은 뒤쪽을 의식하지 않았다. 현태와 눈이 마주치자 주름진 눈꺼풀로 살짝 곡선을 그렸을 뿐이다. 현태는 멧쩍은 웃음을 지었다.

시위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최 씨 노인이 현수막을 여러 장 만들었다. 몇몇 사내들이 수정 2동 이곳저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재개발 결사반대!’ ‘내 터전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몇몇 사람들은 ‘살 곳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현수막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소년 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 앞에서 현태도 오랫동안 서 있었다.

시위 첫 날, 최 씨 노인과 스무 명 남짓 되는 사람들은 시청 앞으로 몰려갔다.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박 여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개발이 무슨 재개발이냐! 없는 사람 배려도 없는 재개발, 즉각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돈만 좇는 태양그룹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설립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행복 당구장 사장인 현태가 최 씨 노인을 도와 팻말을 들고 있다는 데 큰 호의를 느꼈다. 역시 된 사람이다, 베풀 줄 안다며 덕담을 건넸다. 그럴 때마다 현태는 어색한 미소로 답례를 했다. 최 씨 노인과 함께 시위대 맨 앞줄에 서 있거나, 박 여사처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확성기를 잡지 않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와 줘서 고맙네.”

최 씨 노인은 현태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는 고개를 꾸벅 숙일 뿐, 별 말을 하지 않았다.

시위 소식은 양복 신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수행원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와 반대로 양복 신사의 표정은 천하태평이었다.

“이사님,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참 볼수록 순진한 친구야. 저런 걸 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하는 거지. 그냥 모르쇠 하고 쳐다보면 돼. 윤 비서, 네가 어려서 그런 거라 생각하겠어.”

수행원은 양복 신사의 말에 죄송하다고 하고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시위가 커지고 격해지면 용역을 써야 하는 책임이나 영화에서 보던 끔찍한 광경이 떠올랐다. 수행원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네가 대충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다, 어휴 순진하기는! 그런 방식은 쌍팔년도 철거 때나 쓰는 일이야.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또 영상 몰래 찍어서 동영상 사이트에다가 퍼뜨리는 놈들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 아주 골치 아파. 게다가 당장 아파트를 똑딱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니잖나? 다~계획이 있는 거란다. 일단은 그 사람이나 만나 봐야겠어. 최 씨가 뭐가 하는 영감님.”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 재개발을 보류하겠다는 말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아. 돌아가게. 직접 찾아와도 모자랄 판에, 아니 그래도 달라질 건 없을 걸세.”

최 씨 노인은 시위 현장에 자신을 찾아 온 수행원을 돌려보냈다. 수행원은 두세 번 더 찾아갔다. 하지만 최 씨 노인을 마주치지도 못했거니와 시위대에서 날아오는 계란에 애써 다린 양복이 상할 뻔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양복 신사는 코웃음을 쳤다.

“영감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매우 피곤하실 텐데, 허 참!”

그는 다리를 꼬아 번쩍 치켜 올려 책상 위에 걸치고는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수행원에게 했던 말처럼 용역을 쓸 필요가 없었다. 적어도 지금은 그랬다. 그런 몸 쓰는 사람들이 고용하는 일은 철거가 원활하게 하지 않을 때에나 고려해야 할 단계였다. 일을 크게 만들 이유가 없었다. 쉽고, 간단하게. 저들의 힘을 빼 놓는 것……. 양복 신사는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는 키폰을 눌러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수행원을 호출했다.

“이봐 윤 비서, 수정 2동 조합원들 수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전세 아파트나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좀 조사해 봐.”

시위가 시작된 지 일 주일이 좀 넘어갔을 때였다. 수정 2동에서는 태양 뉴타운과 관련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전세 주민들에게만 주는 혜택이 있대요.”

“그러게, 휴대폰 사는 것처럼 할부분양을 한다면서. 월이 부담스러우면 3개월, 반 년 이런 식으로. 단 기한 내에 이사를 가 버리면 그건 배상해야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여길 떠날 일은 없지 않잖아요? 풀칠을 해도 하던 자리에서 해야지. 다른 데 가면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은 없을 테니까요.”

조합원들에게는 또 다른 내용이 태양건설 측으로부터 전달되었다.

‘저희 태양 뉴타운의 입주를 계획하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지인이나 가족 등 연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조합원에 가입하신다면, 소개시켜 주신 분과 새로 조합원이 되는 분들께서는 최대 60%의 가격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제한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기존의 조합원들은 너도 나도 사람들에게 조합원 권유를 했다. 잔잔하면서도 빠르게 차오르는 밀물의 갯가처럼 조합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기 시작했다. 반면 시위대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썰물이 시작된 갯가 같았다. 칠십 명 가까이 되던 인원이 서너 명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며칠도 안 돼서 절반으로 줄었다. 스무 명도 안 되는 날도 있었다. 일이 바빠져서,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온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예 말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었다. 확정기담당도 박 여사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태양 뉴타운의 할부 분양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사장, 자네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왜 어려운 길을 자처하는가.”

“그려, 나나 김 씨 아저씨 지인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조합원에 들어와. 누구도 거절할 사람이 없지. 암! 그쪽도 나도 좋은 일 아닌가?”

“최 씨 어르신께서는 고집이 너무 강해. 이 사장, 자네는 할 도리를 다 했어. 우리가 볼 땐 친부모 모시는 것보다 더 했으면 했다고 생각하네. 이제는 자네 생각대로 할 차례야.”

조합원 자격을 가진 몇몇 손님들은 당구장에 찾아 와 현태를 설득했다. 그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며 손님들을 돌려보냈다. 현관 이 열렸다 달히는 종소리가 들린 후 그의 표정에는 그늘이 내렸다.

“아저씨, 이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저씨는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식당 때문에 그러세요? 제 돈으로 사람을 써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그것도 제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시위를 한다고 달라지는 건 바위에 머리를 들이 받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현태는 최 씨 노인에게 시위를 그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대답은 한결같았다.

“나 혼자 남더라도 계속 해야 하네. 여유가 없다면 그만 나와도 괜찮아.” 표정 하나 바뀌는 일이 없었다. 그것이 현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한 최 씨 노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에 그랬다.

시위대가 걸어 놓았던 현수막이 하나 둘씩 사라졌다. X자로 페인트칠이 되어 있거나 갈기갈기 찢겨 있는 경우도 보였다. 무허가 주택에는 흥한 낙서들이 새겨졌다. 용역의 짓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으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마을 회관 앞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예전의 풍경은 사라졌다. 허심탄회하게 여럿이서 모여 웃음을 나누던 사람들은 온데 간데도 없었다. 서로 흘겨보는 사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골목을 빙 돌아가는 사이, 서로 멱살을 잡느라 지나가던 이들이 뜰어 말리는 사이가 수두룩했다.

행복 당구장에서조차 다툼이 자주 벌어졌다. 조합원끼리 온 테이블과 시위에 참여한 사람끼리 온 테이블끼리 말싸움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일이 생겼다. 현태는 하루에 한두 번, 많게는 서너 번 싸움을 말린 일도 있었다. 그는 카운터에 있는 동안 컵가에 맴도는 어젯밤 아내가 건넨 말을 또다시 떠올렸다.

“여보, 나 둘째를 가졌어요. 한 달째래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신혼 이후부터 쪽 지내 온 좁은 평수의 빌라였다. 자신의 명의로 된 정이 든 집이었기에 이사를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식구라면 모를까 네 식구가 살기엔 좁았다. 아이가 6학년이 되면서 그런 느낌이 더 강해졌다. 수정 1동에 사는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 온 후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조르는 일이 잦아졌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좁은 집에 산다고 친구들을 데려오지도 못할 것 같다고 투정도 부렸다. 타이르고, 혼내 보기도 했지만 그 순간 잦아질 뿐 없어지지는 않았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이 좁게 느껴졌을 거라고 짐작은 했었다. 게다가 넓은 집에 사는 친구들을 보니 부러움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이의 조름과 성장으로 인한 비좁음이 한겨울의 문풍지 틈으로 살살 불어드는 찬 기운이었다면, 아내의 둘째 임신 소식은 북서풍처럼 문풍지를 뚫고 훑 밀려들어와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다.

현태는 몇 날 며칠째 불면증에 시달렸다. 어렵게 끊었던 담배에 손을 대었고, 잠든 아내를 두고 침대에 일어나서 소주 한 병을 들이켰다. 그래야 잠이 들 수 있었다. 아이가 뒤척이다가 차 버린 이불을 덮어 주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 뛰어노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했다. 아직은 성별도 모르는 둘째 아이가 뛰어다닐 모습을 그려도 보았다. 최 씨 노인과 시위를 하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흐릿해졌다. 둘째 아이를 껴안고 있는 아내와 손등을 덮는 중학교 교복을 입은 큰아이의 모습, 그리고 지어질 태양 뉴타운의 윤곽은 더욱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밤이었다. 현태는 소주 한 병을 들이키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접니다. 그 때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소주병 옆에 놓인 지갑은 열려 있었다. 명함 하나가 비죽 나와 있었다.

당구장 안은 최 씨 노인의 뿌연 담배연기와 깊은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찬바람이 뒤섞여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현태는 고개를 푹바로 들지 못했다. 숨이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한 마디도 꺼낼 용기가 없었다. 최 씨 노인은 물티슈 담긴 재떨이에 콩초를 비벼 꺾다. 현태는 최 씨 노인의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이어지는 긴 침묵을 깬 건 노인의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난 이해하네. 자네도 먹고 살아야겠지. 둘째가 생겼다면, 다 이야기 들었네.”

현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손 빈 이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었으면 어땠나. 내가 자넬 키우는 동안 죽 말해오지 않았던가. 있는 사람들이 베풀 줄도 알아야……. 아닐세, 괜한 소리를 했어.”

최 씨 노인의 바깥 마른 입술 사이에서 깊고 긴 한숨과 함께 연기가 길고 가늘게 뿜어져 나왔다.

“마음이 바뀌었네. 그 사내와 만나 봐야겠어. 연락을 해 주게.”

열 개의 공이 들판에서 자리를 잡았다. 양복 신사와 최 씨 노인은 긴 큐를 들고, 흰 공을 부리며 나머지 공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다. 신사가 부드럽게 큐를 움직이면 흰 공은 색공을 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다. 어렵다 싶으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녀석들을 이리 저리 휘저어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흰 공은 신사의 충실한 사냥개였다.

최 씨 노인은 흰 공을 쳐다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 아무 죄 없는 동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냥개 같아 무서웠다. 언젠가 물어뜯을 사냥감이 사라진다면, 최 씨 노인의 목을 향해 달려 들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는 큐를 움직이고 나면 눈을 질끈 감았다. 구질구질한 양복을 다리던 세탁소가, 막걸리 한 잔 걸치던 도량가의 선술집이 저 너머로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조부 때부터 이어 오던 기름 냄새가 뱀 국밥집도, 그걸 맛있게 먹던 사람들의 발자취도 없어질 것이다. 새로이 연 깔끔한 공간이라 한들 오랫동안 차곡차곡 쌓여 묵혔던 사람들의 정, 수십 년 가까이 모아 온 그것들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공이 파이프 속으로 굴러 가며 나는 소리는 굴삭기가 벽을 헐어 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사냥개는 주인에게 고개를 돌렸다. 물어뜯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만 먹을 것이 있었다. 못난 주인을 만나 허탕을 칠 때마다, 사냥개는 자연스레 신사의 손으로 다가갔다. 평생을 즐겨 온 포켓볼이라는 놀이가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항상 배부르고 파스하게 살아가는 당신네들이, 왜 없는 이들의 것을 탐하는지 궁금하오. 수정 2동을 내버려 둘 수는 없소?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어찌하라는 거요. 왜 내가 이곳에 정을 둔 지 아시오? 전쟁 통에도 떠나지 않고 피땀 흘리며 지낸 이곳은 내 자식이고 사람들의 터전이오.”

담배 연기 자욱한 당구장을 울리는 최 씨 노인의 말에, 신사는 싱긋 웃음을 지었다.

“큰 그릇을 가진 사람들은 영감님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배부르게 채워 넣는 게 우선이죠.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깊은 걸요.”

최 씨 노인은 쓰라린 속을 부여잡으면서도 본인의 공을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마지막 남은 8번 공을 바라보았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늙은 폐를 아프게 들쭉였다.

“있는 자가 이기는 거라는 말, 거스를 방법이 없는 것이오?”

축 늘어진 목소리가 최 씨 노인의 가슴을 대변하고 있었다. 신사는 최 씨 노인의 눈을 쳐다보았다. 지나간 세월이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는 아직 놓지 못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당신은 젊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선 관심이 없을 나이겠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저 높은 아파트가 아니오. 저 아래에 담긴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소. 당신이 그걸 잊지 않았으면 하오.”

최 씨 노인은 하나 남은 8번 공을 구멍 속으로 밀어 넣었다.

“영감님께서 이기셨군요. 실력이 녹슬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신사가 비꼬듯이 웃었다. 그는 큐대를 제자리에 놓으며 손을 털었다. 최 씨 노인은 모든 공이 사라진 당구대를 바라보며 얼마 남지 않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올렸다.

“녹스는 것은 사람 마음이 아니겠소.”

최 씨 노인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람들의 성명서가 담긴 봉투를 꺼내 신사 앞 당구대에 올려놓았다. 신사는 봉투를 힐끗 쳐다보더니 손에 든 담배를 그 위에 비벼 꺾다. 수행원이 든 겹옷을 가져가 어깨에 걸치고는 당구장에서 나갔다. 최 씨 노인은 그저 허탈하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흐느끼며 우는 현태를 바라보았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눈동자의 동공은 마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신사의 차 소리가 들리고 나서 건물 바깥으로 나섰었다.

최 씨 노인은 구부정한 허릴 쪽 펴고 막힌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 중턱에서 까치 한 마리가 바람에 몸을 실어 날아왔다. 까치는 물고 온 나뭇가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은행나무 사이에 엮어놓았다.

“녀석들아, 그렇게도 이곳이 좋으냐.”

최 씨 노인은 가슴이 뻐근해짐을 느꼈다. 최 씨의 붉어진 눈동자 안으로 언덕배기에 다닥다닥 붙은 작은 집들이 수정 2동의 열기를 품었다.

[장려상]

낭만주의 : 피아노 협주곡 20번

인문학부  
20201037 남수혁

1악장 : Allegro con brio

달착지근한 커피와 탑승권을 왼손에 거머쥔 뒤 대합실에 앉아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오래된 통화연결음이 귀를 지겹게 할 시점이었다. “여보시오?!” 할머니였다. “예 할머니, 저예요. 진혁이.” “아이고 우리 진혁이가 웬일로 전화를 다하노.” “저도 철 좀 들었는데 가끔씩 전화도 드리고 해야죠, 하하.” 다행히 할머니께서 반가워하셨다. 난 또다시 무의식적으로 하나하나 한 말, 그러니까 또 식상한 질문을 꺼내버렸다. “잘 지내셨어요?” “오야, 잘 지내지 마커... 아이고이 내 똥간지 목소리 들으게 역수로 반갑네.” “아프신 데는 없으시지요?” “니 고모가 마커 내랑 사이, 머 심심치도 않고 아픈데도 읊네.” 나는 또 나의 음성이 진심어린 음성은 아니라는 걸 확인해버렸는지, 그냥 본론이나 바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할머니, 지금 울진 내려가요.” “어이?”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었다. 난 휴대폰의 밑 부분을 입에 더 가까이 대고 손을 가린 채 더 크게 말했다. “저 지금 내려가요. 울진.”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난 몸을 틀어 조금 더 으스스한 곳으로 움직였다. “내려온다꼬? 와 내려오노?” “하하, 그냥 여행가는 셈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쉬려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달력을 찾아보시는 것 같았다. “글세 노는 날이 아인데... 애미애비랑 같이 오나?!” 생각해보니 할머니로선 꽤 당황스러울 것이었다. 명절 이외엔 한 번도 혼자서 내려간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노, 혼자가요. 가서 만날 사람도 있고, 바닷가도 그냥 구경하고 싶고 해서요.” “참말로... 머할라꼬 내려오노, 허허. 알윳네, 조심해서 온내이~” 할머니는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으셨다. 괜스레 기분이 좋았다.

H에게는 전화하지 않았다. 버스에 타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였고, 고작 한 일이란 아직 고속버스까지 탄 것밖에 없는데 그 적은 발차취라도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목적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느라 정신이 어딘가로 납치되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신은 돌아왔지만 나는 주변의 인간들이 또 어딜 돌아다니고 무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괜한 궁금증에 사로잡혀 SNS를 뒤지고 있었다. 친한 친구가 다른 이들과 어딘가로 놀러 가버린 것에 대한 쓸데없는 질투심, 그리고 왜 나를 찾지 않는지에 대한 의미 없는 분노와 패배감이 꽤 아팠다. 회한이 밀려왔다. 정신이 돌아오긴, 애초부터 난 여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이었다.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와 번민이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종국엔 몰가치한 것이 되었다. 다 필요 없다. 인간은 철저히 혼자다. 이런 생각들을 또 한 점 씹어 먹으며 나는 나에게 대한 투자를 해야겠다는 진부한 레퍼토리를 되뇌었다. 지금 떠나는 여행도 나에게 대한 투자이리라. 책이나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여 책을 폈다. 내 의지가 무색해 질만큼, 버스의 진동과 소음은 나를 순순히 독서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책을 덮었다. 우습게도 난 내심 즐거워하며 무선 이어폰을 야무지게 꼰다고 음악을 골랐다. 베토벤, 아니다. 이런 날에 고전은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또 싫었다. 바깥에는 아름다운 정경이 가득하였는데

나는 무슨 심보였는지 그냥 풍경과 조금 대비되는 음악을 듣고 싶었다. 율거니, 쇼팽. 쇼팽이다. 매일 밤 집으로 가던 길에 심연에 잠든 아스팔트를 바라보고 걸으며 들었던 음악이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또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Chopin : Piano Concerto No.2 in F minor] 읽기도 어려운 제목이 화면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버스의 속도는 어느새 아기걸음 수준이 되었고 방향을 이리저리 트는 것이 느껴지자 나는 울진에 도착했음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터미널을 빠져나와 주변에 택시를 탈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택시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높은 건물 하나 없는 이 거리에 쪽 늘어선 단층 건물들은 저마다 독특하게 보이기 위해 애를 쓴 듯 보이는 남루한 간판들을 달고 있었다. 편의점이 하나 있었다. 도시에서나 시골에서나 편의점의 모양과 간판은 다를 바가 없었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편의점은 다소 신기하게 보였다. 사막에 놓인 오아시스처럼, 유난히 눈에 띈 것이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들어가 한 바퀴를 횡 돌고는, 고작 담배 한 갑을 사들고 나왔다. 편의점 옆 그늘진 곳에서 허공을 보고 담배연기를 뿜뿜 되새김질 하고 있을 때, 난 다급해졌다. 편의점 앞에 택시 한 대가 딱 하니 자리 잡고 있던 것이 아닌가. 하지만 담배는 반도 타들어가지 않았기에 나는 한쪽 다리를 떨며 망설이고 있었다. 혹여나 뒤도 안돌아보고 질주해버릴까 불안했지만, 그 택시는 시동도 걸리지 않은 차였고 무엇보다 택시기사 옷차림을 하고 있는 한 분이 건너편에서 나처럼 담배 한 대를 태우고 계셨기에 나는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마지막 담뱃재를 털어내고, 난 택시 주변을 괜히 어슬렁거렸다. [경북20거7638], 역시나 낡은 번호판에는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택시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너무 빨리 쳐다보면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허공을 연신 바라보고 있었고 잠시 그런 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어 혼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땀 한 방울이 구레나룻을 타고 흘렀다. 여름이었다.

## 2악장 : Romance

“택시 타시렵니까?” 그 사람은 서너걸음이 채 안 되는 도로를 건너오며 꽤 밝은 어투로 말했다. 역시, 기사가 맞았다. “아, 예. 읍내 밖으로 나가려구요.” “그러시군요. 타시죠. 근데,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나는 현지 기사가 서울말을 다루는 것을 다소 이상하게 여겼다. 하지만 일종의 반가움과 동질감이 있었다. 그래서 묻고 싶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기사님도 서울 사람이나고 물어보는 것도 내겐 감당하기 어려운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었다. “하하, 네. 서울서 버스타고 왔어요.” “멀리서도 오셨네요.” 차량은 낡은 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나 내부는 꽤 시원했고 새 차 못지않은 상쾌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읍내의 거리엔 햇빛이 뻑뻑이 찼다. 녹음이 진 인도 한 편에는 할머니 두 분께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고 초록불이 번쩍이는 횡단보도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긴 대로에는 남루한 승용차와 용달차량 한 두 대만이 골골대며 오가고 있을 뿐, 별다른 볼거리는 없었다. “근데, 울진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한동안의 정적이 어색했는지, 기사가 먼저 말을 꺼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그냥 사람도 만날 겸, 여행도 할 겸 내려왔어요. 좀 쉬려고요.” “그럼 꼭 놀러 오신 거군요.” “네, 여행이죠. 여행.” “여행은 혼자서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혼자 있으면 좋잖아요. 편하고.” 난 마디마디 작위적인 웃음을 꼭 넣어 말했다. “그럼 지금은 누굴 뵈러 가시는 거겠네요.” 난 살짝 과장을 섞어 놀란 듯 말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가는 곳에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복 2차선에 집들만 늘어선 곳인데요, 허허.”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금은 할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었고, 난 할머니께 다분히 죄스러웠기

때문이다.

작년 추석 즈음, 난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다. [수험생 신분이라 올해 추석에는 찾아뵙지 못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수능이 끝나는 대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지내주세요] 라는 골조의 편지였다. 해가 지나고도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간 스스로와 타자 사이의 지겨운 상호작용, 그리고 발전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 끝없이 분노하면서도 게으름과 유희를 견지하느라 한바탕 고요의 난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편지를 쓸 때의 마음가짐이 생각나버린 바람에, 나는 시골길을 달리던 그 택사에서 힘차게 굴러 떨어지고 싶었다. 바로 몇 분 후면 펼쳐질 광경들, 그리고 내가 느낄 모든 감정들을 계산해보았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아마 그렇지 않으시리라 생각했다. 아마 나를 보면 마냥 반가워하실 것 같았다. 차라리 크게 화를 내시고 나를 문책하시는 게 내 마음으로써 더 편할 것 같았다. 차창 바깥으로 정겹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친숙한 정경이 필름 감기듯 좌르르륵 지나가고 있을 때, 난 눈을 질끈 감았다. 할머니, 곧 도착합니다.

정말이지, 그렇게 금새 도착할 줄은 몰랐다. 아니다. 내가 시간을 느리게 셈하고 있었겠다. 나는 기사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기사님, 제가 잠시 저어 집에 들렀다가 다시 어디에 바로 가야하는데요... 어떻게 가죠?” “아, 그러십니까. 흠, 여기 버스는 배차 간격이 많이 긴데... 방금 지나갔을 테니 한두 시간은 족히 기다려셔야 버스가 올 겁니다.” 택시 기사는 내가 잠시 당황해하며 머리를 굴리는 모습을 보더니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얼마나 계시렵니까, 좀 기다려 드리죠.” 사실 바라고는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몰랐다. 서울에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 “아... 기다려주실 수 있으세요? 최대한 금방 나오겠습니다. 돈은 두 배로 드릴게요.” “하하, 두 배까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사람 태우는 맛에 택시 모는데요. 얼른 다녀오시죠.” 길은 주욱 뻗어 있었고 할머니 댁은 저편에 놓여 있었고 뒤에는 푸르른 산과 드넓은 하늘이 배치되어 있었다. 구름이 햇빛을 적당히 가려서 펑, 꽤... 낭만적. 낭만적이었다. 난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추었다가 발을 들었다. 들어가며 인기척을 내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진혁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할머니께서 느릿느릿 안방에서 나오셨다. 머리는 정말이지 흑발 한 올 없는 백발이셨고, 하늘하늘한 잠옷 차림에 나를 초점 맞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셨다. 서글펐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건강하게 보이셨는데, 세월이 그토록 길었던 것인가. 할머니께서도 더 이상 예전의 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힘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왔나.”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나도 웃었다. 사들고 온 과일과 음료들을 내려놓고 마룻바닥에 앉아 할머니와 한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제 사이 좋게 잘 지내신다고, 나도 물론 대학에 붙고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잠시 여행을 온 것이라고. 할머니는 몇몇 마디엔 웃으시며 이야기하다가 몇몇 마디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난 우리... 진혁이가 일케 커가... 혼자서도 찾아 오이고... 할 줄은 몰세...” 할머니는 갑자기 나의 양 손을 번쩍 잡으시더니 울먹이며 말씀하셨다. “배고프제...!” 배고프냐는 한 마디를 하시고, 옆드려서 그토록 서럽게 우셨다. 난 그 광경을 앞에 두고 고개를 돌려 울었다. 정작 음식도 많이 안 드실 텐데, 뭐가 아쉬우셔서 점심까지 든든히 먹고 온 나한테 배고프냐고 물으시고는 이토록 서럽게 우실까. 아니다. 아마 그냥, 내가 정말 보고 싶으셨던 것일 테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불쑥 튀어나온지라 눈이 충혈 되진 않았다. 난 얼른 눈물을 닦아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었다. 할머니도 눈물을 그치시고 다시 호탕하게 웃으셨다. “고모는 어디 가셨어요?” “뒷산에... 침 캐러 간 겠세.” 고모가 계셨기 때문에 난 할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었다.

“할머니, 저 이제 가야해요.” “으이씨, 온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노!” “하하, 죄송해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서요.” “으휴... 그람 가야제... 잠은 여기서 자나?” “아니요, 오늘 저녁에 올라갈 거예요.” 할머니는 다분히 서운해 하셨고,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큰 절을 올렸다. “할머니 저 갈게요. 그간 건강히 계세요. 추석 때 다시 올라올 거니깐 별로 안 기다리셔도 돼.” “오야, 또 오게잉~!” 나는 억지로 나오시려는 할머니를 만류하고 대문 밖을 나섰다.

택시기사가 트렁크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도 한 대를 피우려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까먹었던 참에 작은 갈등이 있었다. 기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괜히 해야 할 것만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돌아섰을 때 오래 남을 찝찝함에 대해서 생각했다. 기사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난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뒷걸음질 쳤다. 할머니 택시 뒤편 공터에 있는 할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무성히 자라 있던 고사리들을 거칠게 헤치며 걸었는지라, 바지엔 풀떼기들이 적잖이 묻어 있었다. 난 내가 피우려다 만 그 담배를, 딱 골라 집어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묘 앞의 연석에 돌맹이를 하나 받쳐 고정시키고 한두 걸음 떨어져 절을 올렸다.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로, 난 그 담배연기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추석 때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나는 기꺼이 되돌아왔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살금살금 마당 쪽으로 돌아와 창문을 통해 안방을 들여다봤다.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고 TV에는 어떤 교양프로그램의 재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고모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죠.” “아닙니다. 좀 오랜만에 읍내를 벗어난 것이라, 꽤 괜찮네요. 저도 꼭 여행하는 기분입니다. 하하, 가지죠.” 기사는 자꾸 나를 송구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다음은 어디로 가십니까?” “죽변항으로 가주세요.” “음, 이번엔 진짜 여행을 하러 가시는 것이겠군요.” 나는 흐뭇해하며 말했다. “네. 바다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도 올진까지 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 시골에는 작은 도랑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고 그 너머 누군가의 땅에는 언젠가 수확될 상품작물이 푸르싱싱하게 줄을 지어 있었고 굽이굽이 뻗어 나간 시골길 때문에 따스한 여름의 햇살이 차 내부를 비췄다 비췄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올 때 제대로 느끼지 못한 그 시골의 흥취를, 내가 선호하는 음악들과 함께 잠시나마 감상하고 싶은 욕구를 느꼈다. 이어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기사님, 잠시 음악을 들어도 될까요?” “같이 들으면 참 좋을 텐데요. 어떤 음악을 들으시렵니까?” “아 죄송합니다만, 저는 클래식을 들어요.” “오, 클래식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죠. 많아요. 하하.” “저도 클래식이라면 미치는 작자입니다. 마침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으니, 저도 좀 들려주시죠.” 기쁘고 팔짝 떨 노릇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당황스러웠다. 나는 일상에서라면 찾아보기 힘든, 클래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잖은 감동을 선사하고 싶었기에 선곡을 신중히 했다. 시골 한 가운데를 조용히 질주하던 그 차 안에는, 베토벤 교향곡 3번의 1악장이 흐르고 있었다. 기사도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는 이게 진짜 낭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택시는 해안선을 따라가는 도로에서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거진 도착한 모양이다. “죽변항입니다. 바다가 참 예쁘죠.” 죽변항은 울곧게 선 새빨간 등대 하나를 벗 삼아 푸른 바다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었고, 수평선 저편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걸쳐 있었다. 기사는 잠시 차를 세워 주었다. 모래사장이 내다보이는 도로 한 편 연석 위에는 긴 장대 사이 새끼줄에 걸려 나풀거리는 오징어들이 있었는데, 햇별을 잘 맞는 쪽은 거의 익은 색깔을 띠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아직 물기가 묻어 연한 것이 꽤 흥미로운 볼거리였다. 바다냄새는 나를

더욱 해안선 가까스로 끌어당겼다. 저 멀리에는 두 아이를 둔 한 가족이 낡은 파라솔에 의지하여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해맑게 물장구치는 그 아이들을 그윽히 바라보고 있는 부모. 정말 영화가 아니고서야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바다가 참 좋지요.” “네, 바다는 언제 봐도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가 예뻐 보여도, 밤이 되면 또 다릅니다.” “네? 그럼... 밤이 되면 바다는 볼 품 없어지나요?” 바다에 대해 맹목적인 찬양, 그니까 나는 바다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일은 연중무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요, 볼 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무서워집니다. 밤이 되면, 바다는 하늘과 함께 암흑에 잠겨버립니다. 두 경계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죠. 새까만 공백이 코앞에 펼쳐져 있어서, 파도 소리도 정말 섬뜩해집니다. 그 앞에 서 있자니 바다가 저를 확 잡아삼킬 것 같더군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걸 견뎌보겠다고 억지로 한참을 서 있었다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아이마냥 울어버린 적도 있었답니다. 하하” “아... 그 정도인가요?” 난 해가 지면 다시 이 해변으로 돌아와 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새 죽변시장을 지나 읍내 거리에 도착했다. “여기서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아, 도착이군요.” 기사는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기사는 대뜸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만난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벌써 정이 든 모양입니다.” 나는 머쓱해하며 화답했다. “하하, 네. 저도 막상 발걸음을 떼자니 참... 기분이 묘하네요.” 기사는 두 손으로 내 손을 더 힘차게 흔드는 듯 했다. “서울서... 청년으로 사는 게 참 힘들지요? 건강하게만 살아요.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하하, 기사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기사는 차에 시동을 걸고 조수석 창문을 통해 웃으며 이야기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늘 행복하시고!” 그 택시는 시골에서라면 찾아보기 힘들 법한 직선주로를 쭉욱 달리더니 어느새 굽어진 도로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난 팬스레 숙연해졌다.

비록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곳은 대기를 타고 잔잔하게 넘어오는 파도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구역이었다. 그리고 죽변은 읍내라기보단 차라리 조출한 시가지였다. 브랜드 대형 마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갖추고 있을 법한 중형 마트도 있었고, 노래방이나 PC방처럼 최소한 불행을 잠시 잊게 해줄 수 있는 생명유지시설들도 있었다. 그 사이에 H가 살고 있는 건물이 있었고 나는 그 앞에 서서 팬스레 설레고 있었다. 7층으로 올랐다. 701호. 그래. 분명 H는 701호라고 하였고 내 눈 앞에는 [701]이 새겨진 꽤 모던한 문양의 현관문이 있었다. 안에서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고 나는 오직 그 감미로운 음악에 매혹되었다. H가 원래 피아노를 쳤었나하는 생각은 들지도 않았다. H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비창]은 확실히 또 다른 느낌이었고 나는 그 혼신의 연주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앞의 계단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여 감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음이 들리자,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H의 목소리다. 아닌가, H에게 자매가 있었나? 그것도 아니었다. 그럼 그냥 전자음으로 들리기에 어색한 걸까,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여서 느끼는 어색함인가를 떠올리며 어떤 말을 꺼낼지 당황해하고 있을 때 안에서 현관문 쪽으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레 문이 활짝 열리자 나는 지레 놀란 채로 꼼짝없이 서 있었다. “뭐야 미친, 정진혁이잖아?!” H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를 꼭 안아버렸다. 나도 어쩔 수 없이 안아주었지만 기꺼웠다. “금방 온다고 얘기는 해야지!” “다른 곳도 좀 돌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 미안. 하하” 나는 그 순간부터, 이번 여행은 다분히 성공적이었던 여행으로 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 3악장 : Con dolore

달착지근한 음료 한 모금을 머금고 다소 높은 곳에서 죽변의 전경도 바라보고 피아노의 건반을 맥없이 한두번 눌러보기도 하고 집안을 정처 없이 살금살금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H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잘 지냈냐구.” “나야 잘 지냈지. 알다시피, 서울에선 뭐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 단지 불행할 뿐이지 뭐... 학교를 못가니 참, 사람도 못 만나고. 새사람을 못 사귀었으니 어디 놀러가더라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 하하.” 난 자조적인 어투로 말했다. “글치... 서울이 뭐 못 살 곳인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여긴 사람이 많지 않으니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이긴 한 거 같아. 마스크도 자주 쓸 일이 없고. 근데 너처럼, 좀 외롭고 심심하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 하하” H와 이런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깨나 겸연쩍었다. 해는 많이 기울었고 하늘은 점점 황혼을 품고 있었다. 나는 하루가 참 짧다는 것에 충분히 원망하고 있었고, H와 죽변 바닷가에서의 낭만은 진하게 만끽하고 싶었기에 H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종용했다. 모래사장은 어느새 밝은 아이보리빛깔을 감추어버렸고 바다는 적당히 어둑어둑했으며 보랏빛 공백을 통해 다소 구수한 내음을 불어내고 있었다. 발걸음은 푸석푸석한 모래사장 덕분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모래사장 뒤편에는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것이 때에 맞춰 아주 감사하게도 도로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해주고 있었다. H가 먼저 벤치에 앉았고 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잠시 모래사장을 걸으며 바다를 한참 바라보다가 착석했다. “늦게 와서 미안해. 역시 울진을 당일치기하기엔 좀 무리인가 봐.” “아니야, 그래도 오랜만에 봐서 좋은데 뭐.” 이렇게 낭만적인 흥취 앞에서 마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만을 할 수는 없을 터. 나는 드디어, H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자 H에게 가장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이자 H와 나눌 수 있는 가장 가치 있을 법한 말을 꺼낼 수 있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 나는 이 한마디에 대해 사실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H는 내가 아니었다면 죽어버렸을 것이다.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H는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로 했고 지금 이 터전에서 고졸이라는 간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기에 당장이라도 돈벌이가 되는 일터들을 탐닉하고 있었다. 그 때의 H는 일터를 분명 ‘탐닉’하고 있었다. 남들은 부모의 손을 빌려, 혹은 거대한 빚을 담대하게 맞으면서까지 학습의 길을 걸으려 했고 나 또한 그 파도에 합류하게 되었으나 H는 그 족쇄를 당당히 풀어헤치려 했다. 성인이 되면 오직 나의 손으로 나를 먹여 살리겠다는 그 의지는, 내가 감히 넘어볼 수도 없는 숭고한 것이었다. 난 진심을 다해 H를 응원하고 있었고, 그 삶을 경외감에 받쳐 사모하고 있었다. H는 실습생으로 몇 번 활동하던 어느 콜센터에서 인턴으로 취직하게 되었고, 노동을 통해 계속 자신을 부축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함께 밥도 먹고 때론 술도 마시며 청춘의 아픔을 공유했던 바로 옆자리의 친구가 자살해버리고 H는 그 충격을 견뎌내지 못해 결국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과도로 손목을 그어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 간 적들은 차라리 양호하다. 회사의 옥상에서 투신하겠다고 시위하며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날도 있었고, 어느 날 밤 회사에 잠입하여 전산기기들을 모조리 부숴버리려 했기에 배상금을 갚느라 그간의 노동을 허사로 만들어버렸던 날도 있었다. 그리고는 자기가 하루아침에 알려지가 되어버렸다며 나에게 전화해 세상이 떠나가라 통곡한 날에, 아파트의 옥상에서 자신의 슬픔을 끊어버리려는 그 현장에서 내가 간신히 팔목을 붙잡아버렸던 것이다. 나는 그런 H에게 든든한 버팀목 혹은 잠시 기댈 곳이라도 되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H의 사연과 그 때 H의 음성일 떠올리자면 버팀목은커녕 나의 가슴이 먼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러한 나의 무력함과 슬픔 때문에 나는 오히려 H로부터 회피하려고 했고, H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내 자신을 억지로 부정하려 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H는 H답게 자기 자신의 초심을 잘 붙잡았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꽤 짧은 기간에 마친 그 날, 바로 이곳의 모래사장에서 서로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난 그 순간에 대한 향수로써 바로 이곳 해변가에 앉아 있기도 한 것이었다.

“피아노를 치려고.” “피아노? 음악하려고?” “응. 피아니스트가 하고 싶어.” H는 결의에 찬 눈빛과 꺾꺾 눌러 말한 어투로,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정말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됐어.” 난 그 말이 너무 반가웠고 오히려 감사했다. “어떤... 계기가 있었구나. 멋지다.” “아니, 뭐 특별한 계기가 있거나 한 건 아니야. 어느 날 안 친지 오래된 피아노를 붙잡고 한 번 연주해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그 이후로도 피아노를 계속 했지. 연습도 하면서 물론 짜증나는 순간들도 많았고 다 집어 치우고 싶을 때도 종종 있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난 건반을 누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 “아... 좋아하는 일이구나.” “사랑하지. 그리고 난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할 생각이야. 하하.” 나는 더 이상 H에게 비판이 아니라 낙관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바람이 섞인 예상을 했다. H에게 더 이상의 걱정과 고난과 슬픔과 불행과 우울과 통증 따위가 없을 거라는 건 정말 찬란하고도 어떤 의미론 참 가슴 시린 일이었다. 나도 고개를 돌려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다행이네...” 정말 툭 건들면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거 같았기에, 난 H의 두 눈을 쳐다볼 수 없었다. “오랜만에 보니 진짜 좋다.....” H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내 생각을 투영하고 있었던 것인가, 나에게 기대어 코를 훌쩍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H를 안아주었다. 눈물이 흘렀다. 안도감에 섞인 눈물이란 정말이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쓰디쓴 것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나는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바다는 이제 저편 노을의 빛깔을 점점 놓치고 있었다. 푸르던 산은 암흑에 거의 잠식되어 거뭇거뭇했고 하늘도 이젠 검붉은 빛깔을 내어놓고 있었다. 버스표의 출발시간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H와 헤어져야 한다.

“나 이제 가야 해.” “나쁜 새끼.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벌써 가냐?” H는 울긋불긋한 자국이 남은 눈으로 나를 웃으며 노려보았다. 나는 떨었다. 불현 듯 생각이 들었다. 나는 H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서울서 연락할게. 방학이라 시간도 널널한데 뭐. 이제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구.” “진짜 갈거냐고!” H는 크게 소리쳤다. “하루만 자고 가. 내일 일정 없잖아. 버스비 내줄게. 방도 깨끗했잖아. 너가 좋아하는 곡도 들려줄게. 자고 가는 게 싫으면 집에서 맥주라도 한 잔 하자. 할 얘기가 많아. 제발...” H는 애원하듯 말하고 있었다. 마음이 슬슬 얼어붙고 있었고, 나는 불길한 예감 따위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분명 무언가 사연이 있어보였고 나는 그것이 또 온통 비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H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또 다시 H와 내가 옛날처럼 되어버릴까 그것이 무서웠다. 그것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은 아니었지만, 난 차라리 H가 이제는 낙관에 담겨져 있다고 성급히 정의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았다. 나는 이기적이었다. “미안해. 정말... 이만 가볼게. 미안해.” 나는 H의 손을 힘들게 뿌리쳤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파도소리는 H가 흐느끼는 음성을 가려주지 않았다. 호흡은 어려웠고 코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느라 이미 팔목의 소매는 젖어 있었고 그래서 코는 잔뜩 헐어 있었고 그럼에도 나는 해변가를 계속 걷고 있었다. H가 훌쩍이며 뛰어와 나를 붙잡고 돌려 세웠다. H는 나에게 한동안 키스하더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그윽히 바라보다가 다시 저편으로 뛰어갔다. 난 그 자리에서 망부석이 되어, H가 원자만큼 작아지고도 사라진 지 한참이 되어도 그 방향을 바라보며 허수아비가 되었다.

하늘은 온통 암흑에 잠겼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해변가를 걸었다. 고개를 틀어 수평선을 보았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다는 온데간데없었고 드넓은 암흑만이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존재하고 있었다. 겁에 질려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죽변 시가지의 불빛은 너무 멀리 있었고, 나는 그 먼 거리에서 홀로 나왔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정말이지 금방 바다에 잡혀 먹힐 것 같았고 나는 어린아이마냥 헐레벌떡 바다를 등진 채 도로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차는 한 두 대씩 가끔 지나갔고 도로를 건너봤자 그 끝에는 산과 절벽이 있었다. 난 혹시나 지나갈지 모르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죽느니 그냥 바다를 걷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치 수영하기 전 물안경을 고쳐 쓰고 준비운동을 하는 것처럼,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이 잘 들리는지 점검한 다음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눈을 감고 걸자니 부딪힐 것도 없건만 당장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고꾸라질 것 같았고, 눈을 뜨고 걸자니 섬뜩한 바다는 여전히 내 옆에 있었던 것이다. 바흐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었다. 섬뜩함이 사그라들도록 도와주는 음악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섬뜩함과 공포감을 즐기게 해주었다. 나는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당당하게, 담배연기를 뿜어내고 춤을 추며 걸었다. 도리어 저 멀리서 누군가 이 미치광이를 본다면 더욱 섬뜩해 하리라. 나는 또 이것이 낭만일 것이라고, 부끄럼 없이 생각했다.

나는 버스를 찢어버렸다. 물론 버스를 타기에 늦은 감도 있었지만, 어차피 못타는 버스라는 이유로 찢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나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냥 오늘 울진을 떠나는 것에 대해 거부한 것이었다. 더 이상 바다도, 내일의 일정도 무섭지 않았다. 나는 다만 H가 두려운 것이었고 할머니가 보고 싶었고 그 택시를 한 번 더 타고 싶었던 것이고 낭만에 대해 진중히 생각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다소 영성했지만, 그래도 바다를 향해 풀린 큰 창문들이 달려 있는 여인숙에 들어갔다. 보통이라면 나름 예약들을 하고 오는 손님들만 있었는데, 난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가장 뷰가 좋은 방으로 달려며 현금을 내밀었고 때문에 주인은 다소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보였다. 카드키 하나를 달랑 받아서는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내팽개치고 침대에 드러누웠다. 고개를 돌렸더니 바다가 있었다. 죽변항의 등대는 깨나 먼 곳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누워서 훌쩍이며 생각했다. 가끔은 이런 낭만을 즐기고 싶었지만, 나는 삶 전체가 늘 낭만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다. 내가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닌 어엿한 성인이라는 점에서, 나는 그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도덕률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낭만이란 너무나 달콤한 것이었고,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일과 사랑, 사랑과 일 사이의 혼돈. 그리고 행복과 유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이 터전이 정말 미웠다. 이 땅에 드러눕게 된 청춘들이, 곧 죽음을 맞을 늙은이마냥 낭만을 펼치지도 못하고 차라리 거대한 품의 부속이 되는 것에 더 만족을 느끼는 것.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친구들의 설움과 TV 너머로 서글프게 들려오는 청춘들의 비극은 모두 생존을 위한 일종의 구조 신호였던 것이다. 시키는 대로 권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다 맞춰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죽어가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당장 청춘이 되어 맞는 가장 큰 책무는 또다시 미래에 대한 준비였고 그것이 옛날 못지않은 비인간적 투쟁과 경쟁이라는 것은 인생으로써 깨나 큰 비극이었던 것이다. 낭만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 그럼에도 비판해버릴 수 없는 삶. 모두가 좌절의 토대 위에서 다시 기립하여 질주하는 그 대열에 참가해야 하는 삶. 그리고 내가 그 광경 속에서 힘없이 되뇌고 있는 것은, 정말 그것이 양지(陽地)에 대한 도약이라면,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라면, 차라리 햇볕도 들지 않는 곳에서 가끔은 굶고 가끔은 슬퍼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세상 물질 모르니 배부른 소리를 한다는 세상의 질책은 이미 들리고 있었고, 그럼에도 나는 그 질책 아래에서 곳곳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끝까지 좋아하겠다고, 눈물겹게 항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H가 생각나는 바람에 눈물은 끊이지가 않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하겠다는 그 말은, 정말이지 툭 내놓듯 쉽게 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또 그걸 자신의 이정표로 삼아 온 것이 참으로 어려웠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지금 저 편에서, H가 무엇을 하고 있을 지에 대해 생각했다.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피아노를 치고 있겠지, 싶으면서도 나처럼 울고 있거나 없을까에 대해 생각했다. 만약 울면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면, 나도 지금 나의 연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의 전주를 흥얼거렸다. H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 지휘에 맞추어 피아노의 첫 음을 떼어주기만 한다면 좋겠다. 전주가 끝나고, 나는 “Con dolore”를 강조했다. 그래, “슬픔을 가지고”. H는 내 사인에 맞게 연주를 시작했을 것이다. 파도가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나와 H의 협주는 아마 잘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나는 H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적당히 간이 되어 있는 안주에 맥주를 곁들이고 싶었다. 건물 바깥의 한 구석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해 자그마한 레토르트 곱창과 병맥주 하나를 샀다. 다시 여인숙으로 향하는 도중 건물 앞에서 택시를 타고 있는 두 젊은 연인을 보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여인숙에 걸어 들어가며 그 택시에 눈을 떼지 못했다. [경북20거7638], 번호판을 다시금 훑어보려 눈살을 찌푸릴 때, 택시는 출발하였고 해안가를 따라 계속 달렸다. 한참을 서 있었지만 도로에 더 이상 차는 지나다니지 않았다. 다만 수평선에서 동이 트고 있었을 뿐이었다.

[장려상]

작통

20206232 간호학과 박미경

맑은 날이다. 쪽 뺨은 햇살이 눈꺼풀 위로 산산이 부서진다.  
나는 햇살에 눈을 찌푸렸다.  
“너, 개랑 아직 연락해?”  
뽀족한 구두에 발이 아프다. 슬며시 발을 빼 보고 싶은 충동에 강하게 휩싸였다. 나는 입  
안쪽을 깨물었다. 너털거리는 여린 안쪽 입에서 비린 맛이 감돌았다.  
“응? 누구?”  
A가 되묻는 말이 들렸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친구를 바라보았다. 건물주와 결혼했다는 B는 꽤 운택한 얼굴로  
미소지었다.  
“왜, 학교 다닐 때 너랑 잠시 같이 살던 애 있잖아.”  
테이블 위로 놓인 작은 잔에 든 새까만 아메리카노. 김이 폴폴 솟아오르는 커피잔에 손을  
가져다 댔다.  
따뜻하다.  
“아, 미래.”  
내 대답에 열린 웃음이 울려 퍼진다. 한껏 차려입은 옷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입을 열  
었다.  
“맞아. 나미래.”  
“민지가 이번에 청첩장 돌리면서 연락하려 했는데 아무도 개 연락처를 모르더라.”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를 돌리며 B가 말했다. B의 목에 걸린 흑진주가 부드럽게 햇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나미래.  
내 친구다. 아니, 내 친구였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되니, 친구였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 시절 함께 산 적이 있다. 거창하게 방을 구해 나누기로 했다던가, 처음부터 약  
속을 하고 함께 살게 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어쩌다 보니 함께 살게 된 거였다.  
“나랑도 연락이 안 돼.”  
어색한 미소가 내 입가에 걸렸다.  
“너랑 제일 친한 것 같았는데.”  
C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C의 귀에서 귀걸이가 짙강거렸다.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한정판이다. 미래 이야기가 나오  
기 전까지 우리가 모두 입을 모아 극찬했던 제품.  
“그랬던가.”  
심드렁하게 대답하자 A가 나를 슬쩍 바라보더니 활기차게 입을 열었다.  
“그건 그렇고 말야.”  
커피잔의 온기가 식어가고 있다.

친구들은 저마다 알맹이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한다. 이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목걸이, 저 브랜드에서 프리미엄이 붙은 백.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은 자동차.

나는 턱을 괴고 밖을 바라보았다.

겨울로 접어드는 초입. 유달리 오늘은 햇살이 좋다.

나는 부드럽게 눈을 감았다. 햇살이 눈 위를 타고 올라와 붉게 물들었다. 내가 미래를 만났던 그 날도 붉은 노을이 예쁘게 물들었었다.

“후.”

나는 반지하 방에서 기지개를 켜다. 기숙사 신청 기간을 지난 신입생에게, 학교는 더이상 방을 열어주지 않았다. 부랴부랴 집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좋은 집들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휴가를 내고 급하게 수소문을 한 끝에 겨우 잡은 집. 신입생의 단꿈에 부풀기는 너무 낡은 집이었다.

골목에 골목을 휘돌아 들어가야 위치한 까만 지붕의 뿌리에서 나는 몸을 이리저리 움직였다. 처음 맞이하는 반지하의 음습한 곰팡내가 코를 간지럽혔다. 나는 작게 기침을 했다.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가 들이마시자 가슴 안쪽이 팍 막힌 것처럼 아팠다.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투덜거렸다. 부모님들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1년 계약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꼭 옮겨주겠노라고, 몇 번이고 약속하셨다. 나는 짧은 통화를 끝냈다. 무거운 돌이 가슴팍에 눌러지는 기분이 들어 펍 불편했다.

똑똑

불투명한 유리 너머로 등이 굽은 실루엣이 비쳤다. 주인 할아버지다. 나는 계약할 때 슬며시 보았던 할아버지의 꼬장꼬장한 얼굴을 떠올렸다. 까다로운 얼굴에 괴기스럽게 빛나는 눈. 그 눈 사이로 스쳐 지나가던 이름 모를 뿌듯함이 내 뇌리에 깊게 박혀있었다.

“학생, 일어났어?”

나는 옷매무새를 점검하고 문 앞으로 다가섰다. 괜히 잠에 덜 깬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문을 앞에 두고 입을 열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무도 없이 고립된 이곳에서 문을 여는 것은 꽤 무서운 일이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주인 할아버지에 대한 불신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흠흠. 다름이 아니라, 학생 그 때 월세가 비싸다고 했었잖아.”

“네.”

“학생이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여학생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아도 좋으니 방을 꼭 빌려줄 수 있느냐고 해서 말이야.”

500에 45. 전기세와 물세는 별도. 대학가에서 이 정도 되는 집은 찾기 힘들 거라고 거듭 말하는 주인 할아버지의 말이 귓가를 웅웅거리며 돌아다녔다. 할아버지의 말은 맞다. 서울, 그리고 변화가에 500에 45, 그리고 15평짜리 방은 없다. 학교와 조금 멀고,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45만원이라는 월세는 큰 부담이었다.

나는 내 보금자리를 힐끔 바라보았다. 부엌이 딸린 거실 하나와 화장실 하나. 그리고 작은 방 하나. 턱없이 작은 이곳 여기저기 풀다 만 짐이 널브러져 있었다.

‘여기서 한 명이 더 살 수 있을까.’

좁다. 본가의 내 방에 비해 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집에 사람이 더 들어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저, 그건.”

“학생이 방을 쓰고, 새로 온 친구가 거실에서 자면 될 거야. 월세는 25만원, 22만원.”

가격이 거의 반으로 떨어졌다. 나는 주인집 할아버지의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2만원의 월세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뻔히 보이는 그의 생각에 나는 도리질 쳤다. 월세가 반으로 깎인다고 해도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쪽에서 침묵이 흐르더니, 타이르는 듯한 말이 돌아왔다.

“그럼 한 달만이라도.”

“한 달이요?”

“지금 당장 집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말야.”

얼굴도 본 적 없는 여학생에게 갑자기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나처럼 실수로 인해 집을 구하지 못한 신입생일지도 모른다. 한 달 만이라면, 그 애가 그사이 다른 집을 구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나는 잠시 고민을 했다.

“한 달만 있는 걸로 하죠.”

“휴.”

안도의 한숨이 문 너머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차분한, 그러나 옛된 목소리다. 나는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불투명한 유리 사이로 이지러져 보이고, 작고 아담한 실루엣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있었다.

“그럼 나는 가볼게. 둘이서 이야기 잘 해 봐.”

주인집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나는 문에 대충 걸려 있던 걸쇠를 짓혔다. 걸쇠가 덜거덕거리는 요란한 소리가 반지하에 흘러 들어갔다. 잡아당긴 문 너머로 새빨간 해를 등진 여자애가 눈에 들어왔다. 역광 때문에 그 애의 얼굴은 시꺼멓게 보였다.

“허락해 줘서 고마워요.”

끌고 온 캐리어를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그 애는 내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저는 나미래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그게 나와 미래의 첫 만남이었다.

미래는 유별난 데가 있었다.

특히 미래는 스무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했다. 가끔은 강박적일 정도로. 아침 일찍 일어나 계획표를 썼고, 밖에 나가 있다가 일찍 돌아와 일기를 쓴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항상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그만큼 미래는 마음에 드는 룸메이트였다.

그래서, 나는 한 달 후 연장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세 달째 우리는 같이 살고 있었다.

“계란 먹을래?”

나는 아침을 만들면서 미래에게 물었다. 미래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무심코 바라본 미래의 계획표는 12시에 멈춰 있었다.

“응, 고마워.”

인스턴트 커피를 훌쩍이며 미래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싸구려 커피의 탄내가 버터의 녹진한 냄새와 뒤섞여 우리의 아침을 만들었다. 중고마켓에서 산 책상을 펴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사과와 씨리얼, 계란이 조출한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미래가 포크로 계란을 가르며 말했다. 계란의 노른자가 튀어나와 접시의 바닥을 지저분하게 물들였다.

“혹시 너 나랑 아르바이트 하지 않을래?”

나는 미래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었다. 명문대를 다닐 때 으레 한다던 과외도, 나는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이유 없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어떤 건데?”

“선배가 소개해 준 아르바이트인데, 세미나 접수하는 데 인원이 필요하대.”

컨벤션 센터에 앉아서 행사 진행을 도와주면 된다고 하더라고, 미래가 처음 보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상기된 미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흥분과 희망으로 뒤섞인 미래의 모습에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됐다. 오늘 얘기해 놓을게.”

혼자 하는 아르바이트보다는 나을 것이다. 마침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기도 하고. 나도 미래에게 슬뻐 웃어 보였다. 미래도 나를 보고 마주 웃었다.

땡땡.

미래의 휴대폰에서 밝은 소리가 울렸다. 미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나는 내 쪽에 있는 미래의 휴대폰에 손을 뻗었다.

“안돼!”

번개같이 달려든 미래가 휴대폰을 거머쥐었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미래와 휴대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귀한 물건이라도 쥔 것처럼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미래는 휴대폰을 내려보고 있었다.

“미안, 나는 그냥 건네주려고.”

“아니야. 중요한 연락이 올 게 있어서 내가 예민했나봐.”

내 사과에 미래는 내 쪽을 흘긋 쳐다보고 다시 휴대폰의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미래는 가끔 이랬다.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것. 휴대폰과 계획표가 들어있는 일기장. 그 금기의 장소에 내 손이라도 닿을 성 싶으면 기를 쓰고 달려들었다. 설령 그것이 내가 그냥 그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일지라도.

특히 휴대폰의 경우에, 미래는 더 강한 반응을 보였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아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미래 답지 않은 이상한 미소만이 휴대폰을 보고 있을 뿐. 나는 휴대폰에 이런 소리가 들린 날 미래의 행동을 알고 있다. 집에 일찍 들어왔다가, 잠시 나가서 무언가가 담긴 봉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 봉투 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담겨져 있었다. 하루는 명품 브랜드의 옷이었고, 하루는 다른 브랜드의 신발, 손수건, 하루는 작은 악세서리이기도 했다.

“나 가 볼게.”

나는 미래의 말에 상념에서 벗어났다. 미래는 어느새 일어서 내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다녀와.”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말을 남기고 미래는 문을 닫았다. 나도 몸을 돌려 가방을 챙겼다. 나도 2교시, 수업이 있었다.

[이번주 토요일 10시. 같이 나가면 될 거 같아. 나는 오늘 늦어.]

휴대폰에 떠오른 메시지가 밝게 빛났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놓았다.

오늘도 바쁠 것이다. 다른 날들도 그랬듯이.

토요일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다.

나는 접수 데스크에서 멀뚱히 앉아 애꿎은 엑셀파일만 건드렸다. 학계의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한다는 행사였다. 미래와 나는 오자마자 따로 떨어졌다. 나는 접수 데스크에서, 미래는 VIP룸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다.

내 일은 간단했다. 오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명찰을 지급하며, 일정이 쓰인 팸플릿을 주는 것.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혼이 속 빠질만큼 바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산해져 행사가 중반에 치달은 지금 이 시점에는 이렇게 여유로웠다.

미래는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자마자 내 눈앞에 작은 음료가 불쑥 튀어나왔다. 고개를 들자 미래가 화사하게 미소지었다.

예쁘다. 평소보다 훨씬 차려입은 옷에, 공들인 화장이 미래를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미래가 내민 음료를 받아들어 빨대를 꽂았다. 풍, 소리와 함께 빨대가 꽂혔다. 미래는 같은 음료를 흘쩍이며 말했다.

“어때, 할 만하니?”

“많이 배웠어.”

내 말에 미래가 대꾸했다. 단순노동에서 뭘 배웠다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뭘 배웠어?”

“이것저것. 걸음걸이, 말투, 차를 마시는 것, 뭐 그런 것.”

미래의 목소리가 꿈을 꾸는 듯 했다. VIP룸에서는 별 걸 다 가르친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미래의 표정이 너무 희망차보였기에 나는 차마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이거 지워야 하지 않아?”

대신에 옷에 묻은 커피 얼룩을 손으로 가리켰다. 미래는 흰 원피스 앞에 묻은 갈색 얼룩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나중에 드라이 맡기자.”

내가 말하자, 미래는 천천히 머리를 주억거렸다. 파르레해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얼마 정도 나올까?”

“글쎄, 이거 그 옷이지?”

연예인 K가 입고 나왔던 옷, 나는 미래에게 물었다. 미래가 작게 긍정했다.

“그럼 특수세탁해야 해서 좀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미래의 입가에 억지웃음이 걸렸다.

“걱정하지 마. 금방 지워질 거야.”

나는 미래를 위로했다.

찰박

나는 찰박거리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비가 오는 걸지도 몰라, 여긴 반지하니까. 나는 생각하며 한뼘 남짓한 창문으로 다가섰다. 창문을 열어젖히자 새벽의 어슴푸레한 하늘 사이로 특유의 축축한 냄새가 창문으로 밀려 들어왔다.

비가 오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나는 미래가 깰세라 문고리를 조심히 돌렸다. 오래된 집이어서 그런지, 비명 소리 같은 소음이 새어 나왔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미래가 깨면 어떻게

하지. 발끝으로 바닥을 디디며 문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미래는 거실에 없었다.

찰박

욕실에서 찰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목을 타고 침이 넘어갔다. 욕실에 있는 게 미래라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큰 문제다. 유달리 험거웠던 대문, 밀면 열릴 듯한 창문이 내 머릿속을 점령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꼭 쥐고 욕실 문으로 다가섰다. 찰박거리는 소리는 욕실 안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욕실 문 틈 사이로 눈을 가져다 뚫다.

‘다행이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미래였다. 흰 물체가 담긴 작은 대야에서 찰박대는 미래의 모습이 희끄무레한 불빛 사이로 어른거렸다. 미래가 흰 옷을 들어올렸다. 어제 입고 갔던 옷이었다. 연예인이 입어서 완판되었다는, B브랜드의 명품 옷. 그리고 내가 알기로, 그 옷은 물세탁을 할 수 없는 옷이었다.

“미래야, 이 시간에 뭐해?”

나는 일부러 눈을 비비며 화장실 문을 슬쩍 밀었다. 미래는 흥당무같이 새빨개진 얼굴로 옷을 몸 뒤로 감추었다. 바닥에 흥건한 물 사이로 거품이 울컥울컥 치솟고 있었다. 아무것도, 미래는 웅얼거렸다. 미래의 눈동자가 바닥에 얼룩진 타일에 떨어졌다.

“얼른 자.”

나는 고개를 주억거렸다. 미래에게 그 옷은 물세탁을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옷은 이미 물에 폭 절여져 미래의 등 뒤에서 축 늘어져 버렸다.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 방에 다시 돌아왔다.

새벽인데도, 나는 순식간에 잠에 빠져들었다.

얼굴에 햇빛이 비스듬히 스며 들었다. 나는 셋노래진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반지하의 창문에도 햇살은 공평하게 흘러들어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느긋함에 기지개를 켜다. 얼마나 잔 거지? 눈을 돌려 시계를 보았다. 열 두시. 오늘은 강의가 없는 날이라 이런 여유를 더 즐길 수 있다. 미래와 카페를 가도 좋을 것이다. 우리는 같이 살게 된 이후로 이렇다 할 외출을 함께 한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몸을 일으켜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이상하다. 이 시간이면 미래가 이미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을 시간이다. 밖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나는 치밀어오르는 의구심을 누르며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밖은 깨끗했다.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미래가 항상 쓰곤 했던 계획표와 일기장도, 애지중지하던 명품 옷을 걸어놓던 옷걸이도, 킁킁대며 끌고 오던 캐리어도. 어느 하나 남은 것은 없었다. 텅 비어버린 거실에서 나는 우두커니 섰다.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미래를 생각하자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비틀거리는 정신을 붙들고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오래된 씩크대 아래쪽으로 삐죽 튀어나온 갈색 종이에 내 시선이 닿았다. 나는 기다시피 다가가 종이를 집어들었다.

곱게 접힌 종이였다. 고급스럽다고 말 할 수 없는 크라프트지는 그곳에 오래 처박혀 있었던 것처럼 곰팡내를 풍겼다.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햇빛 사이로 희뿌연 먼지가 흩날렸다.

[가난은 거미처럼 벽을 타고 내려왔다.]

정갈한 미래의 글씨로 또박또박 쓰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미래의 메모다. 한 장만이 뜯긴 채 왜 이 구석에 들어있는지 몰라도, 미래가 여기에 있었다는 단 하나의 흔적이다.

[녹녹한 물기가 천정을 타고 내려올 때면, 나는 다짐하곤 했다. 여기서 벗어나겠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었다. 잘 사는 사람들의 사회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일.”

나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메모로 된 일기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목록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학식과 교양을 쌓기 위한 내용들과 중고 명품을 구하는 방법이 좌르륵 나열된 초반을 지나, 만날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담긴 후반부의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목표: 완벽하게 그들과 동화되기.]

나는 조용히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진정이 필요하다. 나는 달그락거리며 커피를 한 잔 땀다. 커피향에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자 생각이 어지러워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미래는 대체 누굴까. 미래와 같이 살면서 미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게 떠올랐다.

나는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사라진 미래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학과 사무실에서는 학과 동기들 200명 중 나미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했다. 혹시나 해서 연락했던 동기들은 미래를 수업 때 말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

커피잔은 식어 있었다. 나는 거뭇한 커피에 일렁이는 내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그 이후로 미래를 만날 수 없었다.

“너 괜찮아?”

“응. 미안. 잠깐 다른 생각을 좀 하느라.”

손 끝에 닿은 커피잔에서는 차가운 기운마저 느껴졌다. 크레마 자국이 희미하게 붙은 커피 위로 낮선 내 얼굴이 비쳤다. 이상한 표정이 커피 위로 흔들렸다.

“그럼 너도 가는 거지?”

B가 부드럽게 미소지었다.

“B사 차, 이번에 우리 전부 시승하러 가려고.”

괜찮으면 세컨카로 장만할 생각이야, C가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았다. P사의 신상 팔찌가 탁자에 부딪혀 쟁강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더라, 생각할 틈도 이유도 없다. 운전은 못 한다는 핑계를 대면 사지 않아도 되니까.

“당연하지.”

“그럴 줄 알았어.”

A와 B가 까르륵 웃는 소리가 천진하게 퍼졌다.

“아, 맞다.”

C가 생긋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주소 알려줄래? 이번에 R사에서 주문제작한 디저트 괜찮아서 보내주려고.”

“나는 괜찮아.”

주소를 메시지로 보내는 A와 B 사이에서 나는 멧쩍게 말했다. C는 내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먹음직스러운 디저트 아래에 몇십만원대의 금액이 딱하니 박혀있다. 다음에 그냥 같이 가

서 먹자, 내가 말하자 C가 아쉽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다음 주에 청담에서 봐.”

곱게 짜인 트위드 재킷을 걸치며 A가 일어났다. B와 C도 뒤이어 몸을 일으켰다. 나도 친구들과 함께 일어났다. 발끝에 전해져오는 아릿함에 구두를 벗어 던지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나는 입가에 열은 미소를 걸었다.

“그래.”

노을이 카페 안으로 예쁘게 스며든다. 미래를 만난 날처럼.

“그 때 보자.”

좌우로 흔들리는 C의 손 위에서 다이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눈을 슬며시 감았다. 참, 눈부신 빛이었다.

[신입생 특별상]

리반: 가면을 쓴 글

미래융합스쿨  
20206639 정충민

\* 이 소설은 허구적인 이야기로 등장하는 인물, 장소 등의 명칭은 가짜입니다.

1865년 3월,

영국 워털루 광장 어딘가의 문학 살롱은 열띤 대화로 시끌벅적했다.

평일 오후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모여 있는 건 매우 드물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는 점도 좀처럼 없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일정이 빈 문학인이라면 살롱에 찾아들었다. 수십 개의 좌석과 책상이 한두 개의 빈 자리를 제외하고 가득 찼다. 창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방 안이 열의로 폭발했을 지도 모른다.

가장 중요한 의자에 앉아있던 늙은 신사가 회중시계를 손에 쥐고 보았다. 시침이나 분침 중 하나가 잘 보이지 않아 눈을 가늘게 떴다가 시간이 됐음을 알아챘다.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서자 살롱 안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아무리 잘나봐야 그보다 잘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문학 살롱의 주인이자 도시 내에서 유명한 최고의 갑부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과 비례하여 재산이 쌓인다는 소문도 있다. 호기심에 못 이겨 그의 눈가주름을 일일이 세 보려고 시도하는 젊은이도 몇 있었다.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부드럽고 나긋한 인상을 지녔다. 작가와 대화하는 것, 독서, 사업을 좋아한다. 젊은 시절에는 왕립지리학회에서 활동할 정도로 모험심이 강하고 강인한 신체를 가졌다. 그의 기상은 곧 중요한 발표가 있음을 알린다. 나이가 많은 젊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태생은 스코틀랜드이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 불’<sup>1)</sup>을 닮았다고 한다.

“오늘도 저의 살롱에 오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잠시 시간을 주시길 청합니다. 아메리카대륙에선 한창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평화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주신 대왕폐하께 감사드리며 계속 말을 잇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의 관심은 한 명의 작가에게 몰려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태어났든 지금 영국에서 일주일을 지내 기만 하더라도 들었을 이름입니다.

문학의 거장들 속에서 자라는 그의 이름은 ‘리반(Riban)’! 누구도 과거를 알지 못하고 외모는 더더욱 베일에 가려있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심지어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모릅니다. 성별은 글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극도로 사실적 묘사와 다채로운 문체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저는 출판된 리반의 첫 작품을 읽고 깊게 감명 받았습시다.

작가라면 제 살롱에 오리라고 생각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저는 선언합니다. 그를 저에게 데려오는 자에게 2500파운드<sup>2)</sup>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남녀 가리지 않고 입을 벌렸다. 당연히 놀랄 만하다. 상당히 큰 금액이다. 들리는 말

1) 영국, 특히 잉글랜드를 의인화한 인물이다. 배불뚝이 중년 사내의 모습이며 풍자화에 자주 등장한다.

2) 영국의 화폐단위.

에 의하면 그는 마음만 먹어도 식민지를 살 수 있다. 즉, 신뢰해도 좋은 말이다. 몇몇 귀부인들은 프랭크의 말을 빨리 퍼트리고 싶은지 분주히 문밖으로 나갔다. 기자들도 좋은 기사거리라며 흥분해 밖으로 나갔다.

프랭크는 그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작품을 읽었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된다면 그를 사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황홀해했듯이 저 또한 리반의 글에 빠졌습니다. 그와 대화하며 밤을 지새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죽기 전까지 리반을 데려와 입을 열게 하는 자에게 큰돈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침묵이 일었다. 놀라서 갓난아이처럼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프랭크의 선포는 곧 웅성거림이 뒤덮었다. 거금을 받기 위해 전처럼 열띤 대화가 열렸다.

리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프랑스의 철가면처럼 그야말로 비밀스러운 작가였다. 맨 처음 글을 찍은 인쇄업자조차 리반이라는 이름만 알 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사실은 대중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다.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나날이 커졌다.

누구는 도망자라고 하고, 누구는 귀족이라 했으며 누구는 자신이라 말했다. 무엇이 진실이든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고 싶다. 영국인은 세계 각국의 미지를 모험하기 좋아하듯 그를 파헤치기를 원했던 것이다.

\*\*\*\*

다음 날은 잠잠하리라고 생각했다. 사업장을 감사하고 마차를 통해 살롱에 도착한 프랭크가 발길을 옮겼다. 하인이 문을 열고 그가 살롱으로 들어섰다. 안은 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아름다운 여자를 본 남자들처럼 말이다.

“무슨 일인가?”

상황파악이 되지 않은 프랭크가 물을 마시는 남자에게 물었다.

“리반의 대리인이라면서 저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상대는 정중히 인사하고 대답했다.

그의 말에 웃음이 났다. 어깨를 두 번 가볍게 때리고 재미있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진지하게 다시 말을 했다.

“정말입니다. 저는 농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리반의 친필사인이라며 편지도 가져왔으니 확인해보세요.”

“정말인가? 말도 안 돼. 저 청년은 누구인가!”

프랭크는 외치며 무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등장에 자리 하나를 비웠다. 리반의 대리인은 살롱의 주인임을 이미 아는지 의자에서 일어나 신사답게 인사했다. 대리인이라기에는 옷이 단출했다. 그 말을 진짜 한 사람도 있었다. 새 옷이 아니라 빈민가 사람 같이 입고 있어서였다. 프랭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여 안경을 벗었다 꺾다.

침을 삼키고 조심히 입을 열었다.

“정말 리반의 대리인인가? 소개를 부탁하네.”

신출귀몰한 작가가 대리인을 보내다니 재미있는 일이다. 중심에 앉은 대리인은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났다. 늘름한 자태가 용맹한 기사 같아서 이목을 끌었다. 기다란 손가락, 순수하게 반짝이는 눈동자, 180센티미터는 되어 보이는 키가 특징적인 청년이었다. 대략 나이는 스물쯤 되어 보인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깔끔해서 옷만 신사적으로 바꾼다면 멋진 신사이다.

“프랭크 씨의 제안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브라이언(Brian)이고, 리반 씨의 조수이자 대리인 자격으로 문학 살롱에 들렸습니다. 물론 이는 리반 씨의 지시임과 동시에 제 손에 들린 이 편지로 증명이 됩니다. 혹시 저를 의심하신다면 이 편지를 열어 읽고 사인을 확인하십시오. 출판된 책에 적힌 사인과 똑같은 필기일 것입니다. 리반 씨가 아침에 제게 이르기를, 「<<데일리 텔레그래프>>3) 지에서 저명하신 프랭크 씨께서 나의 신원에 관하여 꽤 큰돈을 걸었구나. 평소에 그의 문학 살롱에 관심이 있었으나 들어가 보질 못했으니 네가 가거라. 내 편지를 들고 가면 사람들이 흥미를 보일 것이니 조심스레 행동해라. 결코 내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프랭크에게 한 개인적인 인사와 똑같은 인사였다. 모두 박수를 보내고 (프랭크를 포함한)미심쩍어 하는 이들은 당장 편지를 가져가 읽었다. 어제의 선포 이후처럼 침묵이 깔렸다.

브라이언은 편지를 되돌려 받고 좋은 인상으로 앉아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리반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그때마다 그는 적절히 친절하게 답변했다.

“리반 씨는 혼자 사나?”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디서 사나?”

“런던인 것만 알려두라 하셨습니다.”

“이놈! 네가 리반 씨의 대리인이라면 책의 내용 정도는 모조리 암기해도 시원찮다. 그의 소설 중 하나인 『벽과 벽 사이의 도시』의 의미가 무엇이라 하더냐!” 살롱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이 지팡이로 브라이언을 겨누며 높은 언성을 냈다.

“어르신, 저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리반 씨는 그 소설에 대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사이에 벽이 있어서 유별나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인류이고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벽은 차별을 의미하며 차별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있지 않다. 나는 소설의 빈민가 소년과 귀족 소녀의 사랑을 노래하여 예술의 여신들인 ‘무사이’를 찬양하고, 둘이 결국 사랑으로 평등함을 증명하려고 노력했다. 비평하는 자들 중에 나를 죽이려드는 자도 있다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은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은둔하는 이유가 고작 그것을 두려워해서란 말인가. 자네는 리반 씨의 대리인이기 전에 무엇을 했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가 바랐다.

행동은 신사적이지만 걸은 아무리 봐도 상류층과 거리가 먼 청년이다.

“항해사였습니다. 고래잡이배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고, 몇 주 전에 돌아왔습니다. 바다야말로 낭만과 모험이지요.”

“그럼 항해사가 되기 전부터 알고 지냈나?”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제 신상은 묻지 마십시오.”

“리반 씨의 후원자는 누구인가?”

“후원자는 정숙하고 아름다우신 숙녀분입니다. 저는 그 분에게만 아름답다고 말하려 애씁니다. 이름은 그녀가 밝히기를 싫어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첻, 대답들이 마치 우릴 들먹이려 드는군.”

질투가 난 남자들은 콧방귀를 뀌며 브라이언에게서 물러났다. 브라이언이 하는 대답은 흥미롭지만 리반을 포착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셈이다.

---

3) 19세기에 창간된 신문.

“그럼 자네도 글을 쓰나?”

“네, 씁니다. 리반 씨에게 작문법을 배웠거든요.”

브라이언은 대답을 마치고 안주머니에서 접은 낡은 종이를 꺼냈다. 많이 접어서 선이 많고 손때가 묻어있었다. 그는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이 종이에 적힌 건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볼품없지만 한 번 읽어보시고 리반 씨와 비교해주세요. 리반 씨도 칭찬해줬습니다.”

“뭐라고? 진짜.”

리반의 대리인이 쓴 글은 금세 살롱의 화두가 되었다. 여전히 브라이언이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도 글에는 관심을 뒀다. 한 번 읽으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작가의 가르침을 받았다니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마차하나가 살롱건물 앞에 멈췄다.

네 마리의 말이 모는 마차이기에 시민의 이목을 끌기 충분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신사들은 어떤 사람이 내릴지 지켜보겠다며 멈춰서고, 젊고 늙은 여인들은 모여 웅성거렸다.

“메리, 살롱에 갔다가 금방 나올 테니 넌 근처 상점에 들어가서 고기를 사와라. 오늘 리반 씨를 위해 음식을 가져가야 한다.”

마차의 주인이 내릴 준비를 하며 맞은편에 앉은 하녀, 메리에게 일렀다. 마부가 문을 열자 화려한 치마가 모습을 드러낸다. 머리는 스누드<sup>4)</sup>에 리본으로 장식하여 전체적인 모습이 우아하고 매력적이다. 비너스<sup>5)</sup>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마부는 메리까지 내리자 다녀오라고 인사를 건넸다. 여인의 이름은 헬레나.

스코틀랜드의 명문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 런던의 저택에서 살고 있다. 헤브리디스 제도<sup>6)</sup>를 여행하다가 문득 런던의 소식을 듣고 떠나왔을 정도로 자유로운 영혼을 지녔다. 그녀는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 살롱의 문턱을 넘었다. 그녀의 등장에 남자들의 시선이 돌아갔다.

“리반의 글을 베끼는 것만도 못하는 것 같구나. 더 열심히 쓰는 게 좋겠어.”

“평론가로서 말하자면 이런 걸 소설이라고 내놓는다면 사람들이 종이 아깝다고 할 거야.”

“훌륭한 묘사지만 연결성이 부족해.”

비판 속에서 브라이언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보란 듯이 회중시계를 한 번 꺼내보고 입을 열었다.

“저는 이만 가보아야겠습니다. 프랭크 씨, 리반 씨가 시간이 된다면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알아두세요.”

“오, 정말인가? 나와 대면하고 싶다고 했어?”

“예, 때가 되면 정체를 밝히리라고 말했었습니다. 헬레나 양,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는 마음대로 섞이지 못하는 여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헬레나는 인사를 받아주었다. 브라이언은 그녀의 옆에 붙어 살롱을 유유히 나갔다. 사람들은 재미삼아 둘의 관계를 유추했다.

그 중 예리한 시선을 가진 한 남자가 확신했다.

“저 여자가 바로 리반의 후원자야! 분명히 그럴 테야. 그러지 않고서야 둘이 뭉칠 이유가 없어!”

4) 머리에 장식을 씌우는 망이다.

5) 로마신화에서 등장하는 미의 여신. 그리스신화의 아프로디테와 동일한 신이다.

6) 영국 스코틀랜드 북서해상에 있는 섬의 무리.

애드거 앨런 포<sup>7)</sup>가 둘을 본다면 단번에 관계를 맞출 수 있었을까?  
그건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법이다.

\*\*\*\*

프랑스어로 쓰여진 질 베른<sup>8)</sup>의 책(지금 그가 읽고 있는 건 『기구를 타고 5주간』이다)을 읽으며 폭신한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건 그의 행복 자체다.

고즈넉한 방 안에는 낡은 침대, 책장, 널판 따위가 뒤죽박죽 자리하고 의자가 가운데에 놓여 있다. 화로는 없고 주방은 있다. 방 한 칸에서 살아가는 그는 자신이 빈민임을 잘 알고 있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도박, 사치를 부리지 않고 펜만 붙잡는다. 그의 글이 정말 세상에 나가리라고는 스스로도 상상치 못했다. 심지어 그 글이 잘 팔릴 지도 몰랐다.

그는 책이 출간됨과 동시에 출판업소로 편지를 보내어 다음 작품을 계약할 테니 헬레나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을 줄 것을 요구했다. 작가이자 출판인인 피에르 질 에첼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자신을 찾아올 손님을 기다리며 책의 페이지를 넘긴다.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책을 덮었다. 육분의, 지도 등을 해집기 시작했다. 거의 바닥에 나무로 된 접시 하나가 나왔다. 그는 이미 식탁에 올려있는 그릇 하나 옆에 그 그릇을 닦아 올려놓고 나이프와 포크, 촛불을 챙겨 상을 놓았다. 천장이 낮아 가끔 허리를 숙이기도 해야 했다.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는 때에 기묘하게도 문이 두들겨졌다.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 촛불도 주위를 더욱 밝게 비추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단숨에 문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헬레나가 음식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덤덤하게 서있었다. 예를 갖춰 인사를 하고 그가 먼저 말했다.

“오늘만 인사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군요. 혹시 이것이 잘못된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혼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 좁은 집안에 누굴 더 데려와야 하나요?”

그녀의 새침한 응수에 그는 그녀를 집으로 들였다. 문이 닫히고 요리가 접시 위에 올라갔다. 서로 마주보고 앉은 남녀는 식사를 시작했다.

“리반 씨,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요?” 헬레나가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무엇이 말입니까? 어스퀴보<sup>9)</sup>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 능력 밖의 일이지요. 더불어 당신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풍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살롱에 당당히 들어서는 게 편하잖아요.”

동등한 신분이 아님에도 그녀는 격식을 갖추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가 리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 수 있다. 리반은 수건으로 입을 닦고 말했다.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은 돈에 쫓겨 글을 쓰곤 합니다. 당신이 주신 옷과 책으로 스스로를 교양 있게 꾸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그렇기에 저는 자신을 꾸미고 남들 앞에 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면 사람들의 환상이 깨지고 제 글은 누구도 읽지 않을

7) 미국의 작가. 미스터리, 추리 소설로 유명하다.

8) 프랑스의 작가. 작품엔 『해저2만리』, 『신비의 섬』 등이 있다.

9) 위스키의 옛 이름.

겁니다. 제가 유명이기에 그들은 제 글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로 증거가 됐지요.”

“오늘로 증거가 됐다니요?”

“살롱에서 이미 세상에 드러난 글을 살짝 바꾸어 보여줬습니다. 허투루 문장을 쓰지 않았고 저는 지금의 책보다 더 낫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살롱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이기가 아까울 지경이라더군요.”

살롱에서 직접 보여줬다. 자신이 쓴 글을. 살롱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리반의 대리인뿐이다.

그는 ‘직접’ 자신이 쓴 글을 살롱의 문학인들에게 보였다.

헬레나는 그가 주머니에서 꺼낸 접어진 종이를 건네받았다. 그것을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편안한 말투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이 글은 재미있지요. 물론 저도 남들처럼 당신이 리반임을 아니까 훌륭하다고 여기고 읽는 걸지도 모르지요. 편견은 몸에 자연스레 배어드는 냄새와 같으니깐요. 아, 맞다. 알려드릴 게 있어요. 출판업소와 상의하여 삽화가를 구하는 중이에요. 당신의 글은 적어도 저에게 있어선 흥미로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건가요, 브라이언 씨? 이제 단둘이니까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지요?”

‘리반’이라는 가면을 쓴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살롱에서의 비난을 연료 삼아 집필의지를 불태웠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도 서로 최고라 평가하는 작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입에 오른 사람만 수십은 되었다. 빅토르 위고, 뒤마, 대니얼 디포, 호손 등의 이름이 음식의 연기와 함께 창밖으로 새어나갔다.

\*\*\*\*

다음날, 살롱은 세 번째 놀라움에 빠져 시끄러웠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인데 이 난리야!”

프랭크가 외치며 빠른 걸음으로 젊은이들에게 다가갔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질문을 하지 않아도 답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동굴 속에서 뜻하지 않게 광명이라도 본 듯이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느새 그의 손에 쥐어진 건 한 장의 편지였다.

그 편지가 든 봉투에는 다음과 같이 리반의 필체로 적혀있었다.

「살롱의 주인, 프랭크 씨에게

작가, 리반 올림」

편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당연하다는 듯이 프랭크가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씨? 당신이 제 정체에 대해 현상금 비슷한 거금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더더욱 정체를 숨기고 살롱엔 열썬도 하지 못하겠군요. 그래도 살롱은 문학인들의 교류가 활발한 만큼 가보고 싶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프랭크 씨의 살롱은 더더욱 말입니다. 제 계획은 대리인을 만들어 보내는 것이었죠. 어제 살롱을 방문하고 와서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양 있고 격식 있게 차려 입었지만 말만큼은 그러지 못했다. 심지어 눈은 붙어 있으나 제 기능을 못하여 다빈치<sup>10)</sup>에게 분석을 의뢰하고 싶어진다. 하나둘 모여 글을 읽고는 신랄하게 깎아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글은 제가 출간한 책의 일부를 조금 바꾼 것일 뿐입니다. 살롱의 사람들 중에 글의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10)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 화가, 발명가, 해부학자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다.

단점을 부각하려는 자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같은 작가가 똑같이 공들였는데도 어떤 글은 대단하고, 어떤 글은 대단하지 않단 말입니까? 살롱의 사람들은 작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행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 밤이군요. 시간이 된다면 찾아가겠습니다. 즐거운 하루가 되십시오.”

편지가 끝나자마자 듣느라 차분하던 분위기가 들끓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리까지 쏟아져 나왔다. 길을 걷던 이들이 창문을 올려다볼 정도였다.

한 사람이 쓴 글을 읽고 무엇이 대단하고 평가할 지는 독자의 몫이다.

눈을 가리고 더 맛난 음식을 고르라고 하면 간혹 뜻하지 않은 음식을 고를 때가 있듯이 글 또한 그렇다. 작가가 누군지 모른 채 읽으라고 제시하면 누구는 의도치 않게 자신이 싫어하는 내용의 책을 고를 지도 모른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해서 자주 실수하고 잇는다.

골목에 서서 살롱의 건물을 바라보며 브라이언은 이런 생각을 했다.

셰익스피어 이후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나 시도는 해보고 싶다. 이미 사람들은 자신이 훌륭한 글을 쓰고 있을 거라 확신했으니 반은 성공한 셈이다.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가 그것을 증명하듯 말했다.

“리반이란 놈이 얼마나 대단한 글을 내놓을지 궁금하군!”

같은 것을 두고도 같음을 알지 못하니 그것은 맹인인가, 바보인가? -브라이언-

## 내가 걷는 길

인문학부  
20201082 이정빈

시간이 지나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을 길 위에 서 있는가? 이 말은 뻔한 말이기도 하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허무맹랑한 말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나와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힘이 되는 말이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감명 깊게 듣고 실천한 말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은 건 고등학교 3학년의 시작이었다. 봄 방학을 끝으로 3월의 새 학기로 학교는 활력이 넘쳤다. 새로운 시작에 설레 보이는 학생들과 활짝 핀 꽃들이 학생들을 반겨주었다. 그러나 나는 웬지 학교 쪽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고작 15분의 거리이지만 오늘만큼은 1시간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부담감 때문일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따로 있었다. 교문에 들어서 1, 2학년 때 사용한 왼쪽 본관 대신 3학년만 사용하는 별관이 있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다. 계단을 오르며 도서관, 교무실을 거쳐 3학년 4반 교실에 도착했다. 새 학기 어색한 공기 속 친한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곳에는 내가 중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나 역시 자연스럽게 친구들 옆에 앉았다.

“야 우리 이제 어떡하나? 소문이 장난 아니던데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친구가 말을 걸어왔다.

“아 몰라 이미 옆질러진 물인데 1년만 참으면 졸업이잖아 해봐야지” 다들 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1년만 버틴다는 생각뿐 이었다. 그렇게 의미 없는 대화들이 몇 차례 흘러가고 반의한 친구가 소리쳤다.

“오셨다. 오셨어 다들 자리에 앉아!!!” 우리는 재빠르게 자세를 고쳐 잡고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울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으로 틈 사이로 보일락말락한 작은 키로 창문을 지나치고 앞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셨다. 키에 비해 평퍼짐한 모습이며 느린 걸음걸이는 마치 펭귄을 연상케 했다. 남색 가디건을 입고 검은 구두를 신으셨으며 단발머리에 눈이 찢어졌지만 주름 때문인지 밑으로 처진 듯해 보였다. 첫 인상은 욕심 많고 괴팍한 느낌을 주었다. 담임선생님은 우리를 한 번 쪽 훑더니 알 수 없는 미소와 함께 입을 여셨다. “다들 알겠지만 선생님의 이름은 ‘박수경’이고 과목은 수학을 담당하고 있다. 아직 선생님이 너희들을 잘 모르니 알기 쉽게 자리 배치를 해야겠다. 성적순으로 부를 테니 앞줄부터 앉자.” 이걸 또 무슨 소리인가? 첫날부터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배치한다는 말인가? 다들 당황스러운 분위기였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 했다. 그 이유는 담임선생님의 집요하면서도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괴팍한 성격으로 학교 내에서 유명하신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주변 학교에도 소문으로 알려질 정도였다. 학교 근무만 35년이 넘어가며 퇴직을 2년 앞두고 매번 담임을 맡으셨다. 이 학교에서 최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시는 물론 교장 선생님도 대하기 어려우신 선생님이셨다. 학생이라면 4년제 대학은 꼭 가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며 학업을 굉장히 중요시하셨다. 무엇보다 학교 시스템이나 자신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학생을 매우 싫어하셨다.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학원을 가는 학생을 구박하며 ‘야간 자율 학습’을 하는 학생을 칭찬하실 정도였다. 그렇게 자리가 배정된 후 담임선생

님은 첫 번째 앉은 학생에게 말을 걸었다.

“너는 점수대가 어느 정도 되니? 우리 반 1등이니 기대를 좀 해도 되겠지?” 그리고 난 뒤의 말은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하는 도리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맨 뒤에 앉은 학생이.... 그래 은수야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인문계 학교에서 성적이 꼴등이니? 이럴 거면 기술을 배웠어야지 부모님이 열심히 돈 벌어서 너 교육시키는데 노력 좀 하렴.” 은수는 멧쩍은 웃음으로 넘겼지만 반 분위기는 싸늘한 느낌이 들었고 나는 그곳에서 이질감을 느꼈다. 친구들과 하교하면서 친구들 역시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야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보란 듯이 차별하고 눈치를 줄 수 있냐? 선생으로서 그게 할 소리냐?” 미술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 ‘이민호’가 말했다.

“내 말이 이건 뭐 소문보다 더 심한데 찍혀서 좋을 거 하나 없겠다. 조용히 살아야지.” 둥글둥글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만두’라는 별명을 가진 ‘유성수’가 말했다. 나도 할 말은 있었지만 머리가 복잡해져 이야기만 들으며 조용히 걸어갈 뿐이었다. 3월 학기 초 담임선생님과 개별 면담을 통해 진로, 성적 등을 상담하며 더불어 ‘야간 자율 학습’ 요일 정하는 날 이었다. 교무실에 모든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없는 관계로 몇몇 반은 교실 바로 옆 복도에서 진행되었다. 야자를 하는 동시 이름이 불리는 순서대로 상담을 시작했다. 바로 옆 복도이기 때문에 상담 내용은 거의 다 들리듯이 했다. 주로 들리는 것은 빈 복도에서 울리는 담임선생님의 큰 목소리뿐이었다.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야자는 3일 이상 해야지, 성적을 더 올려야겠다.’ 등 부드러운 목소리이지만 강요로 들렸다. 상담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담임선생님의 강요 속에 결국 ‘네’라고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상담을 다녀온 학생들은 한숨을 쉬며 얼굴이 어두웠다. 다음은 ‘한규식’ 학생의 상담 차례였다.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질문들이 오고 갔다. 그러나 규식이의 대답은 남들과 달랐다. 떨리거나 두려운 목소리 하나 없이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야간 자율 학습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담임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왜 야자를 안 하는 거니?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 할 환경을 제공해주는데 학원이니 과외니 그런 도움을 받으면 뭐하니? 스스로 혼자 해야 실력이 느는건데 선생님은 학원 같은 거 안 다니고 공부 했어 야자를 하는 건 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야.”

이에 규식이는 대답했다.

“야자를 하는 건 학생의 선택이고 선생님께서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야자 하는 시간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 하는게 시간낭비가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규식이는 다른 학생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랜 외국 생활 때문인지 외모도 이국적이었으며 서양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공부보다 책을 가까이 하며 평소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자신의 주장만큼은 이유를 들어 확고히 말하는 성격이었다. 꽤나 긴 대화가 오고가고 남들보다 약 15분가량 더 긴 상담시간이었다. 하지만 규식이는 굴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담임선생님은 규식이 앞에 서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다. 학생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대상을 가리키고 있었다.

“야자는 너희를 위한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니? 이렇게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 생활기록부에 써줄게 없어 너희들 대학 가는데 중요한 거잖아 다들 잘 생각해.” 이 말은 선택 할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협박에 가까웠다. 규식은 피식거리는 작은 웃음으로 넘겼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가슴 속에서는 화가 들끓었으나 뭐라 말 할 수 없었다. 이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선생님의 눈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나 역시 불의에 맞서지 못하는

힘없는 학생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1교시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다. 수업 종소리에 맞춰 ‘임현도’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남성에 비해 작은 키와 골격으로 왜소하시며 셔츠를 입으면 양쪽 어깨에 옷깃과 소매가 남았다. 주로 밝은 색 옷을 입으셨으며 혼자 사는 탓인지 셔츠는 늘 구겨져 있어 쓸쓸한 느낌을 보여주기도 했다. 짧은 스포츠머리에 살짝 앞으로 나온 입과 왜소한 체격 그리고 얼굴형 때문인지 동물에 비유하자면 침팬지를 닮았다. 임현도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우리에게 물었다.

“너희들도 어제 야자 신청했지?” 서울에 올라오신지 꽤 되셨으나 경사도 사투리의 억양이 남아있는 말투였다. 우리는 멧쩍은 웃음과 떨떠름한 반응으로 “네” 또는 “그렇죠 뭐”라는 대답을 했다. 그러시더니 칠판에 ‘야’와 ‘자’라는 큰 글씨를 적으시고 무슨 뜻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셨다. 우리는 ‘야간 자율 학습’이라고 답했다. 이에 선생님은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게 어떻게 야간 자율 학습이야? 야간 강제 학습이지. 자율이 뭐야? 스스로 활동한다는 뜻이잖아 학교에서 억압시켜 밤까지 학습하는데 어떻게 자율이야? 억지로 하는 강제 학습이지!!!! 우리가 단어의 뜻을 모릅니까? 제발 우리 선생들은 단어의 뜻에 맞게 살아야하는데 그게 좀처럼 안 됩니다. 다 배운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를 못 지켜서 우리나라나 학교가 다 이러니 학생들이 억압 받는 거야.” 이 말에 반 분위기는 한 순간 술렁였다. 처음 보는 선생님의 유형이란 말로 밖에 표현되지 않았다. 그동안의 선생님들은 야자를 시키려고만 했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 뒤로도 선생님의 말씀은 계속 되었다.

“너희들이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1년은 매우 짧습니다. 더 멀리 나아가 10년이고 20년이고 시간이 지나서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후회하지 않을 길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때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맞는 길을 찾으세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끝마치자 여기저기서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담임선생님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던 모습이였다. 아이들은 임현도 선생님의 모습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인다는 의미로 ‘빛현도’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정말 참된 선생님 같았다. 야자를 시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다. 이때 임현도 선생님에게 들은 말씀은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내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5월의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저마다의 실력대로 시험을 치루고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께서 성적표를 배부해주셨다. 그러던 중 ‘한규식’ 학생의 성적표를 주며 입을 여셨다.

“규식이 책을 많이 읽느라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구나 이래가지고 대학은 가겠니? 앞으로 고3 동안에는 독서를 금지 하는 것이 좋겠다.” 공부와 독서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보였으며 더군다나 규식이의 성적은 그리 나쁜 편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집요하게 끌어내리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에 규식이는 또 반박했다.

“제가 독서나 공부를 하는 건 자유인데 선생님께서 이런 억압을 주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은 자신의 말에 말대답을 하는 것에 불만족스러운 표정들 지었다. 규식이를 교무실로 데리고 한참 동안이나 면담을 했다. 면담 내용은 안 봐도 뻔했다.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반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규식이는 그런 것에 ‘예’라고 답하지 않고 일일이 대응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담임선생님은 규식이를 보는 눈이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와 내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이 한 사람을 노리면 집요하게 파고 든다고 하여 ‘킬러 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7월이 되었고 2학기 회장 선거 시간이 되었다. 회장은 반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며 친구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

는 통솔력 있는 학생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임선생님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복종하는 학생을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학생이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바로 한규식이었다. 나는 규식이가 회장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선생님의 밑에서 대변인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규식이와 짝궁이 되었을 때 종종 박수경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토로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남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주장이 항상 올바르며 학생들 그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폐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일들이 우리와 불화를 일으키고 억압하게 하는 거야 이걸 학교가 아니라 마치 군대 같아.” 나 역시 이 말에 동조했다. 그러나 학생 신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 이런 상황에서 규식은 불의에 맞서기라도 하듯 자신하여 선거에 출마한 것이다. 박수경 선생님의 표정은 의아하면서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른 후보들의 선거 용약 뒤 규식이가 선거 공약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저희 반이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암묵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학교는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 명령에 의해 돌아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비록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공약이 끝나고 반의 분위기는 냉랭하면서도 술렁였다. 반 친구들은 큰 감정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담임선생님의 눈 밖으로 벗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담임선생님은 ‘어디 니 까짓게 잘 되나 보자’라는 표정이었다. 다른 후보들을 바라볼 때와 표정의 차이는 너무 명확했다. 투표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개표 시간이 되었다. 회장은 우리 반 성적1 등이 압도적인 투표수로 당선되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신임도 있었으며 담임선생님이 아끼는 학생이기도 했다. 담임선생님은 굉장히 흐뭇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당선된 학생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은 부회장 투표를 진행하였다. 규식이와 다른 한 학생의 치열한 개표가 시작되었다. 한 표씩 공개될 때마다 반 친구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2표 차이를 끝으로 규식이가 부회장에 당선되었다. 담임선생님은 매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짜증으로 가득 차 보였다.

“야자도 안 하고 방과 후도 안 해서 학교생활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뽑은 부회장이니 알아서 잘 하겠지? 선생님은 어떻게 되도 모른다. 다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니까”

이 말만을 남긴 채 교실 밖을 나가버렸다. 이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반 아이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을까? 자신의 앞에서 복종하던 아이들이 이런 결과를 내놓았으니 충격이 클 법도 하였다. 7월의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침 조회 시간 여름 방학 방과 후에 관련된 설문지가 나왔다. 역시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여름 방학 방과 후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

“너희들 이런 방과 후는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거야. 너희들이 방학 때 이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뭐하겠니? 매일 늦잠자고 놀기나 하겠지. 고3 이니까 아침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 이랑 선생님 얼굴도 보면 얼마나 좋니? 너희들 그 비싼 학원 다니지 말고 방과 후로 부모님 돈 걱정 덜어드리면서 공부해.”

정말 말문이 턱 막히는 말이였다. 우리가 방과 후를 신청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고 권리이다. 그러나 선생님은 이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학업에 대해 선택과

존중보다는 방과 후를 강요했다. 방과 후 비용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방과 후 수업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규식이가 아니었다. “선생님 야자처럼 방과 후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방과 후를 시키게 되며 자신들이 할 일을 하지 못해 피해를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역시나라는 표정으로 늘 비슷한 대답을 하셨다.

“규식이 너는 어떻게 항상 모든 일에 흘러가는 법이 없니? 학교에 다니면 학교 시스템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래야 대학을 갈 거 아니니? 그렇게 할 거면 이 학교를 다니지 마렴. 그러라고 애들이 너 부반장으로 뽑아준 거 아니니까.” 그러고서는 우리들에게 협박하듯 소리치셨다.

“야자도 그렇고 이런 방과 후도 학교의 활동 중 하나니까 너희들이 참여해야 선생님이 너희 중요한 생기부에 한 줄 이라도 더 적지 않겠니? 다 좋은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참여해 해라.” 설문지 작성의 시간을 가지고 설문지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 학생을 찾아내어 참여하겠다는 표시를 나타낼 때 까지 강요하였다. 그 사이 반장과 부반장은 ‘리더십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회관으로 불러갔다. 규식이의 발걸음은 차마 떨어지지 않는 듯 했으나 결국 자리를 비웠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이 억지로 방과 후를 참여하겠다는 설문지를 가지고 교무실로 내려가셨다. 쉬는 시간이 지나고 1교시 국어 수업 종이 울렸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책을 펴고 임현도 선생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선생님은 오시지 않았다. 평소 수업 시간에 늦으신 적이 없던 선생님이시기에 의아했다. 다른 반도 시끄러운 상태를 보아 선생님들이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회장과 부회장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 그 날 주변이었던 내가 선생님을 모시러 갔다. 교무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데 교무실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벽 옆에 붙어 귀를 기울이며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임현도 선생님과 담임선생님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다. 방과 후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모양이었다. 다른 선생님들은 말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였다. “학생이 학교에 다니면 학교 시스템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거죠. 방학에 애들이 잠이나 자면서 시간을 허투루 보낼 텐데 아침에 나와서 공부하면 좋잖아요? 비싼 학원보다 우리가 가르치면 또 좋고.” 이를 듣고 임현도 선생님이 반박하셨다.

“학생들이 무슨 이유로 방과 후를 꼭 해야 합니까? 그건 학생들이 판단할 일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방과 후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첫째 방과 후를 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지 모릅니다. 방과 후에 시간을 뺏겨 자기 개발을 못한다면 그건 학생에게 더 큰 피해가 갑니다. 둘째 우리는 이 나라의 최고의 강사가 아닌데 학생들이 다른 곳에서 공부하는 것을 막고 학교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셋째 방과 후 비용은 무료가 아니므로 부담되는 학생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박수경 선생님은 말문이 막힌 듯 추임새만 넣을 뿐 선뜻 대답을 하지 못 했다. 정적이 흐르자 이때다 싶어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들은 놀랐지만 침착한 척 애를 쓰셨다. 임현도 선생님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바로 수업 준비를 마치고 올라오셨다. 다른 선생님들도 급히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임현도 선생님께서는 교실에 들어오시고 또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잠시 뒤 입을 여셨다.

“너희들 전에 선생님이 한 얘기들 기억하지?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찾으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살라고. 너희들 방과 후 하고 싶니?” 이번 대답도 우리는 웃음으로 넘겼다.

“선생이 왜 선생일까? 먼저 배우고 너희들의 길을 알려주는 바른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선생이라고 해서 너희들의 길을 모두 알고 자신의 길을 따라 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여기서부터 목소리는 격양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올바른 길을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 나도 내 인생 한 길로만 걸어왔는데 다른 길이 어떻게 있을지 누가 알아? 그렇다고 너희들이 내 길을 그대로 따라온다고 모두 잘 될까? 그것도 아니잖아. 사람마다 특기가 있고 성격이 있는데 다 제 길을 찾아 나서야지 무조건 따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찾고 지금 무엇을 해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길을 찾으세요. 수업도 늦었는데 딴 소리해서 미안합니다.” 말이 끝나자 다시 ‘빛현도’라는 별명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왔다. 저번에도 느꼈지만 이 선생님의 수업은 공부도 공부지만 그와 별개로 인생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얻어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름방학 방과 후 기간 나는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는 관계로 마주칠 일이 없었으며 임현도 선생님의 수업만 듣고 가는 일이 드물었다. 방학이 끝나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9월 수능이 다가오자 선생이건 학생이건 모두가 예민해진 듯 했다. 평소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하은수’라는 반 학생이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담임선생님은 은수를 깨우며 소리치셨다.

“너는 들어올 때도 꼴찌더니 지금도 그러니? 이래갖고 대학은 가겠니? 너희 부모님이 너 힘들게 학교 보내고 교복이라 급식비도 다 내주시는데 매일 잠만 자는 너를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나중에 자식들한테는 부끄러워서 뭐라 대답할 거야 얼른 공부해라”

“전 대학 안 갈 건데요. 아버지 밑에서 다른 일 배우고 있어요. 잠은 자지 않을 테니 공부 대신 다른 자기 개발을 할게요.” 그러면서 은수는 기계관련 책을 집어 들었다.

“이럴 거면 공업 고등학교를 갔어야지 왜 인문계를 왔니? 이게 더 시간 버리는 일 같다. 아무래도 너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넌 내가 안 보이게 책상을 복도로 빼라.”

은수는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자신도 차라리 그게 편하겠다는 듯 아무 말 없이 책상을 바깥으로 밀었다. 이에 규식이 나섰다.

“선생님 은수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수업시간에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공부가 어려우니 자신의 진로에 맞는 자기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은 규식의 대답대신 우리 모두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학교로 온 건 공부를 하기 위해서야. 대학을 나와야 어디서든 너희를 써 주고 사람취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딴 생각 하지 말고 공부를 하렴.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단다.” 마치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것이 아니면 삶의 가치가 없다는 말투였다. 며칠 뒤 은수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을 우연히 본 임현도 선생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두 분의 성격상 학생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갈등을 겪으셨을 것 같았다. 그 날 국어시간 임현도 선생님은 다시 입을 여셨다.

“공부에 뜻이 없으면 자기 할 일을 찾아나서는 것이 잘못 된 일인가? 오히려 그 학생을 믿어 주고 응원해줘야지 그걸 억압하면 그 학생은 뭘 하고 살까?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나는 사실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놓은 ‘정진반’도 마음에 안 들어 개네끼리 모여서 공부하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나? 잘난 놈들은 계속 위로 가고 나머지는 도움도 못 받고 서로 도우면서 하면 좋잖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경쟁 구도만 만드니 협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자신의 옛날 얘기를 꺼냈다.

“선생님 이 학교에 처음 부임 왔을 때 ‘정진반’을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교장선생님께 물었죠. 왜 ‘정진반’ 아이들만 챙기냐고 그랬더니 그 애들은 sky를 가서 학교를 빗내줄 애들이라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점점 커지는 목소리에 아이들은 이야기꾼이라도 보듯

선생님의 이야기에 심취해갔다.

“그러면 sky못 간 학생들은 이 학교에 필요가 없는 겁니까? 왜요 그러면 sky나온 선생들 교무실도 따로 만들어주지”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역시 빛현도 선생님이라며 칭찬이 끊이지 않았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을 쯤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보다 중요한 실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수업을 빼주고 실기 수업을 보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내 친구 민호도 미술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실기 수업을 가기 위해 담임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으려 갔다. 담임선생님은 내일 교장선생님에게 허락을 받은 뒤 실기 수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날 민호가 실기 수업을 가기 위해 담임선생님께 물었지만 예상외의 답변이 들려왔다. “미술 입시도 그림만 잘 그린다고 대학을 가는게 아니야. 백날 그림 잘 그려서 뭐하니 수능을 잘 봐야지. 그림은 수능 끝나고 그리고 지금은 수능 준비부터 해라. 보내 줄 수 없으니 자리로 돌아가라.” 민호는 몇 차례 더 따지고 들었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그 순간 민호는 화를 주체하지 못 했는지 뒷문에 있던 폐지함을 천장으로 던지며 큰 소리로 욕을 했다. 폐지함이 천장에 부딪히는 큰 소리와 함께 모든 아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아니 어제는 보내준다며 왜 오늘 와서 말이 바뀌는데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 가방을 싸고 그대로 뒷문으로 나가버렸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우리는 물론 담임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정적이 흘렀다. 미술 입시에서는 수능 성적보다 실기가 중요하다는 것은 나 역시 잘 알고 있다. 한순간에 말을 바꾼 담임선생님도 잘못이지만 이번만큼은 민호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그 때문인지 규식어도 나서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민호는 이틀 후 담임선생님과 함께 교실로 돌아왔다. 담임선생님은 민호에게 전에 약속한대로 사과하라고 했다. 민호는 담임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죄송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방향을 돌려 분위기를 망쳐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다. 이 모습은 꽤나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빠진 표정을 지으며 그 누구도 소리를 내지 못 했다. 반면 담임선생님은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기세등등한 표정과 몸짓으로 자신을 건드리며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퇴학 시킬 수도 있었던 일이지만 민호네 부모님이랑 상담하고 민호가 조용히 학교를 다니는 조건으로 사과를 한 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거고 그때는 더 엄중하게 처벌할거니까 알고들 있어라.” 그 후 11월의 수능이 끝나고 담임선생님도 수능 성적 외에는 학생들의 터치가 줄어들고 아무 일 없이 졸업을 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교장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 반에 들어오시더니 박수경 선생님이 대한 얘기를 시작하셨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교육청의 신고로 인해 문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반도 처음 듣는 얘기로 뭔가 일이 크게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규식이 손을 들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돌이켜보면 박수경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존중해주지 않을 뿐더러 권력을 이용하여 강요와 협박 등을 통해 학생들을 압박을 시켰습니다.” 그동안 규식은 학생회의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다른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에 의해 문제가 파기되어 이번에는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넣은 것이었다. 교장선생님과 규식의 대화가 오가고 교장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다. 그 후 담임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발령이 떨어졌다. 교육청의 개입으로 더 이상 손 쓸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긴 겨울방학을 보낸 뒤 졸업식 날 모두가 모였다. 그러나 규식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담임선생님은 꽤나 씩씩한 표정을 지었다. 늘 해오던 졸업식을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졸업식이 되기 때문일까? 나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속담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졸업을 한 후 나는 지금도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임현도 선생님의 말씀처럼 내가 훗날에

후회하지 않을 길을 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를 떠올리며 내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 평범한 선화씨

국어국문학전공  
20191078 이혜미

6월 10일

‘맑은 정신과 병원’ 29년 동안 동네에 살면서 그저 지나쳐온 곳이었지만 2주째 나는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흰색 천장과 흰색 벽지는 내가 지금 병원에 와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 평소와 같이 데스크로 가서 접수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내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다. 내과나 치과같이 병원이지만 이곳에서는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인지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양 선화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나를 부르는 소리에 일어났다. 환자라는 부름에 너무나 어색해 곱씹으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누가 봐도 살집이 있는 체형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꼬불꼬불 파마머리였다. 지저분하다 느낀 그 머리를 보고 순간 인상을 찌푸렸다. 나의 긴 생머리와는 비교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허리는 곳곳이 퍼져 있었고. 그녀는 책상 밑에 다리를 꼬며 손을 가지런히 하여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분홍색 니트 위에 흰 가운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흰 가운 가슴팍에는 남 옥순 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와 어울리는 촌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다. 여러 가지 관찰을 하다 뒤늦게 얼굴을 보았을 때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처진 눈 뭉툭한 코 그저 그런 입술 동그란 얼굴형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이었지만 환하게 그녀가 띤 미소는 나를 다 이해한다는 듯한 다소 이질적인 미소였다.

혼자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을 때쯤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는 마치 나의 대답을 기다리듯 옅은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녀가 나에게 질문을 했었나?’ 라고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2주째 그녀는 혼자 말을 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졌다. 그녀의 질문이 기억이 나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나에게 말을 건넸다.

“선화 씨를 처음 봤을 때 아주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긴 생머리의 작은 얼굴과 쌍꺼풀이 있는 눈 마른 체형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얼굴과 몸매이죠. 나 같은 아줌마가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이질감이 느껴질까요? 정신과 의사가 내면이 아닌 외면만 보고 판단한다고 느껴질까요? 하지만 선화 씨가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의 외면을 보고 진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외과나 내과같이 청진기를 대서 진료하거나 CT나 MRI를 찍어서 진료하지 않으니깐요.”

“.....”

“선화 씨 우리 집단치료 한번 받아볼래요? 선화 씨한테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

“선화 씨는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으니까 선화 씨와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럴게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6월 17일 집단 치료 1주 차

‘맑은 정신과 병원’ 오늘도 지나치지 않고 들어갔다. 흰색 벽지와 흰색 천장은 내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진료실로 향하지 않았다. 긴 복도를 지나 집단 치료실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보였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은 매우 조용하고 병원에서 가장 구석진 방이었다. 방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마주 볼 자신이 없었던 걸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반기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나무였다. 문 양옆으로 큰 화분 두 개가 놓여있었다. 나무를 지나 보인 것은 우드톤의 벽지와 따뜻한 주황색 조명이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닌듯한 착각이 들었다. 우드톤에 맞게 가구들도 따뜻한 갈색이 대부분이었다. 마치 조용한 독서실 같은 분위기였다. 그 방은 선생님의 진료실과 같이 큰 책장이 놓여있었다. 하지만 책들은 너무나 달랐다. 해님 달님, 백설 공주, 신데렐라 등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들이 빼곡히 꽂혀있었다. 방 구경을 마치고 한가운데 동그랗게 의자가 놓여있는 곳에 앉아 사람들이 오길 기다렸다. 사람들이 한둘씩 들어와 인사를 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으니, 마치 출근 첫날과 같이 동떨어진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남옥순 선생님이 들어오고 치료는 시작되었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새로운 친구에게 우리를 소개하자면 여기서는 모두 친구입니다. 이름 나이 성별을 알리지 않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칭찬을 해주거나 공감을 해주며 치료를 받죠. 새로 오신 분은 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할 가명을 생각하고 다음 치료 때 말해주세요.”

“오늘은 엄지공주 님이 이야기할 차례네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일어나 있었다.

“안녕하세요, 엄지공주입니다. 저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요. 조현병은 사고의 망상이나 장애, 환각, 현실과의 괴리감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 정신병이에요. 그중에 저는 환각 증상을 보여요.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입양아이고 총 3번의 파양을 당했어요. 저의 친부모님은 어렸을 때 저를 보육원에 버렸어요. 5살 때 첫 입양을 하게 됐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첫 번째 양부모님께서 제가 너무 어둡다며 파양을 시켰죠. 그리고 7살 때 두 번째 입양을 하었어요. 저는 파양되기 싫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매일 매일 웃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양부모님은 제가 슬플 때도 웃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웃기만 한다며 파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8살 때 세 번째 입양을 하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양부모님께 아이가 생겼고 자신의 아이와 비교하며 키울 것 같다고 또 파양을 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3번의 파양을 당했고 12살 때 지금 부모님을 만나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3번의 파양을 당했을 때 저한테는 친구가 생겼어요. 처음 만남은 2번째 파양을 당하고 보육원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을 때 다가와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렇게 처음 만났고 같이 보육원에 있으면서 친해지게 되었죠. 친구도 저와 같이 파양을 당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동질감이 느껴졌고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돈독해졌어요. 세 번째 입양이 있었을 때 저는 입양 가기 싫다며 떼를 썼어요, 친구와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파양을 당했을 때는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그렇게 6년을 친구와 보육원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의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셨죠. 저는 친구와 헤어지기 싫었지만 따뜻한 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는 비밀로 하고 부모님을 따라갔어요.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또다시 파양 당하기 싫었거

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저의 자리가 생겼을 때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보육원에 가서 제일 먼저 친구를 찾았는데 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육원 선생님께 친구가 어딘는지 여쭙보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보육원에 있었을 때 맨날 같이 다닌 친구를 기억하냐고 물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너는 매일 혼자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선생님께 "제가 두 번째 파양을 당했을 때 같이 파양 당해서 들어온 친구가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는 우리 보육원에는 파양 당한 아이가 저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6년 동안 같이 지낸 친구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과 이름도 모르는 친구는 아예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보육원에 있는 앨범을 찾아 단체 사진을 확인했어요. 분명 제 기억에는 제 옆자리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는 저의 옆자리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쓰러졌고, 일어나보니 응급실이었어요. 저의 양부모님께서서는 괜찮이라며 저를 달래주셨는데 양부모님 옆에는 친구가 서 있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어디 있었어?" 라고 물었고 친구는 "화장실에 숨어있었어! 너를 놀라게 해주려고" 라고 말했죠. 양부모님은 저의 행동에 놀라며 저에게 상황설명을 물었고, 저는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옆에 친구가 있다며 말을 했지만, 양부모님께서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저를 안아주기만 했어요. 그 후에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금은 이렇게 집단 치료를 받고 있네요."

"잘 들어요, 혹시 가명을 엄지공주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음.. 엄지공주 이야기 아시죠? 엄지공주는 개구리한테 버려지고 풍덩이한테 버려지고 마지막으로 쥐 엄마한테 버려져요. 그리고 제비의 도움으로 꽃의 나라 왕자님과 결혼을 하는 이야기에요. 마치 저와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도 3번의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지금 저의 부모님이 꽃의 나라 왕자님이길 바라면서 가명을 엄지공주라고 지었어요"

엄지 공주의 긴 이야기가 끝났다. 엄지공주는 담담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지만, 나에게서는 담담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엄지공주의 이야기가 끝나고 치료를 같이 받는 사람들이 공감하며 위로를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가 어찌면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끝으로 치료가 끝이 났다.

7월 1일 집단 치료 3주 차

"오늘은 해님 달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네요"

해님 달님은 집단치료 첫날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정신병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보였지만 50대라고 보이지 않는 다부진 몸과 진한 눈썹, 위로 올라간 눈 인상이 강해 보였다. 그는 단정한 남색 바지에 다이아몬드 모양의 체크 회색 니트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그런 그가 해님 달님의 이름표를 걸고 있으니 어울리지 않아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났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님 달님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저는 경찰관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저는 표창장을 받은 경찰입니다. 의욕과 정의감이 넘치는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가정에는 소홀한 가장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아들은 밝고 씩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고 아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한번 저에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긴급하게 출동을 하느라 바빠 아들의 대화를 무시했습니다. 그 후로는 아들이 저에게 먼저 대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있어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싸우고 들어왔다고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

들의 주먹에는 상처하나 없었는데 그저 상처만 있다는 이유로 싸우고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들과 저는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왔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사춘기라서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9월 1일 투신자살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였습니다. 투신자살 현장에 가서 신원을 확인해보려고 소지품을 보는데 아들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학생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했습니다. 아들의 지갑 안에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 너무 힘들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이가 없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는 동료의 전화를 받고 장례식장으로 왔고 아들의 시신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왜 버티지 못했을까’ 라는 원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던 중 아들을 괴롭힌 아이들이 찾아와 애도를 표하는데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왜 그랬냐며 따졌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조용해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들의 물건을 정리하던 도중 아버지에게 라고 쓰여 있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뚝뚝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는다며 아버지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이어서 미안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 보였던 아들은 부모님께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던 행동이었고, 도저히 버티기 힘들 때 도움을 청했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도움을 무시했고 아들의 상처를 그저 싸웠다고 판단해 아들을 궁지에 몰았습니다. 아들이 자살한 이유는 아들을 돌보지 못한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죽은 후 저는 웃을 수도 없었고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고, 지금 집단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혹시 가명을 해님 달님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해님 달님에서 해님 달님은 튼튼한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 죽습니다. 저희 아들이 해님 달님처럼 튼튼한 동아줄을 타고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 해님 달님으로 지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도 내가 죽으면 저런 후회를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후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후회는 그만하고 해님 달님의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해님 달님의 아내도 남편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해님 달님에게 아버지의 모습이 잠깐 보였던 탓인지 나도 모르게 나온 나의 첫 위로였다.

7월 15일 집단 치료 5주 차

오늘은 내가 이야기 할 차례였다. 과연 내가 이야기를 잘 말할 수 있을지 걱정돼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다소 무거웠다.

“오늘은 어린 왕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네요”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입니다.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3년 전에 저는 제가 가고 싶던 건설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가고 싶었던 회사라서 첫 출근 전날 한숨도 못 잘 만큼 설레고 긴장이 됐어요. 출근 첫날 같이 입사한 남자 동기인 명준 씨와 함께 일하게 될 인테리어 부서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건설회사다 보니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많았고, 그에 따른 차별도 있었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힘이 약하니까 프린트 복사를 해오라고 하거나, 전화 씨보다 명준 씨가 공간 능력이 더 좋으니까 인테리어 설계를 맡아보라던 가 라고요. 그때 저는 차별당하는

게 너무나 싫어서 선배한테 내가 설계를 맡으면 안 되겠냐고 명준 씨보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 않냐며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맨날 하던 복사기 심부름이나 커피 심부름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까 같이 입사한 명준 씨는 프로젝트도 맡고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계속 그 자리였어요. 그러다가 명준 씨가 저한테 "선화 씨 어울리려는 노력 좀 해봐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내가 왜 노력해야 하지? 먼저 나를 무시하고 차별을 한 건 다른 사람들인데 내가 왜 맞춰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사회생활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더라고요. 복사기 심부름이나 커피 심부름을 다른 사람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하게 되고 매번 따로 먹던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하고, 잘 참여하지 않았던 회식 자리도 매일매일 나갔어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어요. 저는 같은 부서는 물론 다른 부서 동기들이랑 잘 어울리게 되고 선배들도 저에게 하나둘 프로젝트를 맡기게 됐어요. 그렇게 상황이 변하니깐 '그래 이거면 됐어 내가 다가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변한 거야'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한 2달 전쯤인가 아무도 없는 우리 부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다가 포스트잇을 꺼내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제 서랍에는 포스트잇,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티백, 부장님이 자주 찾으시는 초콜릿, 두통약, 위염약 이렇게 있었어요. 저를 위한 거는 약밖에 없다는 게 어찌나 서러운지 거기서 30분을 평평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자려고 하는데 새벽 1시였어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수면제 없이는 너무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그리고 1주일 후에 친구랑 같이 맥줏집을 갔는데 안주로 닭발을 시키자고 했더니 친구가 "너 예전에는 절대 안 먹는다고 하더니 입맛이 바뀌었나 봐?"라고 하더라고요. 징그럽다고 닭발을 못 먹던 제가 회사 사람들이랑 밥을 먹거나 회식을 하면서 변한 거죠. 저는 그냥 "먹어 보니 맛있더라고"라며 웃어넘겼어요. 그렇게 맥주를 먹고 계산을 하고 나와서 담배를 피우려는데 친구가 "너 담배 피워?"라고 했고, 이번에도 "응 피게 됐어"라고 웃어넘기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설움이 터져 나왔는지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친구한테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고 지친다고 말을 했는데 친구가 아무 말 없이 토닥여주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여기 병원을 소개해줬어요. 자신도 겪었던 일이라며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렇게 친구 소개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부모님에게 먼저 갔어요, 그런데 저는 철문으로 된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문을 지나 집으로 들어가기 까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정원을 지나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호랑이굴에 스스로 들어가는 토끼가 된 기분이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도 아빠도 저를 너무나 반겨주었어요. 그리고는 평소와 같이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안부와 평범한 대화들이 오가면서 그렇게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가 끝났죠. 저는 밥을 먹는 동안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나를 반겨주며 웃던 얼굴이 흑역 슬픔으로 가득해지는 않을까.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먹을 때 그제야 말을 꺼냈어요.

"제가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알게 모르게 많이 차별을 당했어요. 제가 부당함을 말하자 사람들은 철저히 저를 무시했어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으니깐 그냥 수긍하면서 관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줄 거야 하고 생각했는데 점점 주위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변하고 있더라고요. 제 의견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에만 따르기

바쁘고 부당한 일이라도 못한다고 안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니까 동료들이랑도 친해져서 '이게 맞는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니까 승진도 하고 동료, 선배들이랑도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위염약이랑 두통약을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소개로 알려준 병원을 다녀왔는데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치료받기로 했어요” “아니, 우울증 아니야 아빠가 의사잖아.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사회생활에서 안 힘든 게 어디 있어. 치료 안 받아도 나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치료받지 말고 회사 조금만 쉬고 집에 있다 보면 다 괜찮아져 정신과 치료받는다는 거 알려지면 너한테 좋은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빠 말대로 해” “내 탓이야 너를 더 잘 돌봐야 하는데 너를 못 챙겨준 엄마 탓이야.” 병을 부정하는 아버지의 말은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었고, 자책하는 어머니의 울음 섞인 말은 저에게 너무나 슬픈 말이었어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집은 너무나도 평범하기에 평범하지 않은 저를 거부했어요. 우리 집의 커다란 대문은 저에게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장애물이었고 마당의 예쁜 정원은 나에게 너는 예쁜 이곳을 들어올 수 없다며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검은색과 흰색의 주방은 저와 부모님을 표현하는 것 같았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던 넓고 따뜻했던 거실은 저에게 너무나 넓고 차가웠죠. 아빠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저보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엄마의 말은 감옥으로 들어가라는 교도관의 말로 느껴졌어요. 힘들 때 휴식처가 되었던 집은 이제 저에게 커다랗고 텅 빈 곳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부모님께 찾아가지 않았어요. 저의 병이 다 나을 때 찾아가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

“잘 들었어요, 드디어 어린 왕자님의 이야기를 듣네요. 혹시 가명을 어린 왕자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린 왕자 이야기를 다들 아시나요?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 빨간 장미, 비행기 조종사, 여우가 나와요. 저는 어린 왕자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와 같다고 느꼈어요. 어린 왕자는 저고, 빨간 장미는 부모님과 회사고, 비행기 조종사는 남옥순 선생님이고, 여우는 같이 집단치료를 받는 사람들이예요. 어린 왕자는 빨간 장미의 오만함을 고치기 위해 별을 떠났고 여러 가지별을 여행하던 중 지구에서 여우를 만나 지구에 온 지 1년이 되던 해 빨간 장미에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마치 제가 회사와 부모님께 질려 도망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하고 남옥순 선생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의 가명을 어린 왕자로 했어요.”

나의 이야기가 끝나자 해님 달님이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부모님께 너무 늦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어린 왕자님의 부모님도 저처럼 후회를 하고 어린 왕자님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제 아들은 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오지 못해요. 어린 왕자님의 부모님도 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길 바라요.”

해님 달님의 말을 듣고 문득 부모님이 보고 싶어졌다. 여러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해주었고 남 옥순 선생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는 나에게 환한 미소를 띄어주었다. 어째서인지 그녀의 미소가 더는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10월 14일 집단치료 3달 후

출근하는 날은 항상 똑같았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잠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7시 30분 씻고 나와 화장을 했다. 너무 과하지도 수수하지도 않게 얼굴을 꾸민 뒤 8시 옷을 갈아 입었다. 흰색 검은색 회색 남색 여러 가지 정장 중에 회색 재킷과 회색 슬랙스를 집어 들었

다.. 옷을 갈아입은 뒤 항상 조여 매는 벨트를 골라 균형을 잡았다. 회사에 출근할 때는 꼭 조이는 벨트를 하는 것이 나의 징크스였다. 8시 30분 흰색 가방과 흰색 높은 구두를 신고 출근을 했다. 무난한 색깔과 함께하는 무난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퇴근 후 ‘맑은 정신과 병원’ 앞에 섰다. 이제 더는 이곳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집단치료는 끝이 났지만 남 옥순 선생님께서 개인 진료 대신 집단치료를 계속 받기를 부탁했고 그녀는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나의 이야기도 나누며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다. 나는 더는 움츠러들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어린 왕자님의 이야기를 들어올 차례네요”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입니다. 저는 현재 3개월째 집단치료를 받고 있어요. 너무 오래됐죠? 남 옥순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개인 진료 대신 집단치료를 받고 싶다고 다소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남 옥순 선생님께서 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어요. 서론이 길어졌네요. 오늘 저는 평범한 하루를 보냈고, 보낼 예정이에요. 복직하고 팀원들과 관계를 걱정했는데 모두 휴직하더니 밝아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병원을 소개해준 친구와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친구가 자기 덕분에 내가 밝아졌으니 맥주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부모님과 외식을하기로 했어요.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그 덕분인지 요즘 부모님과 대화가 많이 늘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루에 1시간씩 대화를 하는 규칙을 세워보자고 말을 할 정도예요. 예전에는 하루가 특별했으면 한 적도 있었고 평범함을 싫어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저는 평범하지 않다며 자책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평범한 하루가 기대되고 저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제가 평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잘 들었어요. 어린 왕자님은 빨간 장미에게 돌아간 모습이 제일 보기 좋네요. 바오밥 나무가 계속 자라 별을 망칠 수 있지만, 하루 쉬어도 별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단 치료가 끝난 후 부모님과 외식을 하기 위해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다.

부모님은 레스토랑에 먼저와계셨다. 부모님과 인사 후 저녁을 먹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니?”

아버지의 질문은 아직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천천히 적응해갔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너의 오늘은 어땠니?”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평범했어요. 언제나 똑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 출근 상사한테 치이면서 직원들과 상사 뒷담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랜만에 친구와 전화도 했어요”

“평범한 하루였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네 너무나도 평범했죠”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니?”

“몇몇 사람들은 평범한 저의 일상을 부러워 했어요. 그리고 남옥순 선생님께서 바오밥 나무가 계속 자라 별을 망칠 수 있지만, 하루 쉬어도 별은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주셨어요”

아버지는 나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평범한 너의 일상을 부러워 하는 사람들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찾아올거야 선화 너처럼”

아버지의 말은 아버지와 어울리지 않은 따뜻한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부모님과 외식 후 남옥순 선생님께서 문자가 와있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나요?”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네요”

그녀는 또다시 문자를 보내왔다.

“내일은 어떨거 같나요?”

이번에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을 하다 하늘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지는 해를 보며 그녀에게 답을 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평범한 하루일 것 같네요”

“다행이네요. 오늘과 내일이 같다고 실망하지 말아요. 그저 그런 일상이 어느 순간 소중한 거예요 어린왕자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니 선화씨의 결말도 해피엔딩일거라 생각해요”

그녀의 답장을 보며 그녀가 말하는 해피엔딩은 무엇일까 생각했다.

“어린왕자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내심 저도 해피엔딩을 원했어요. 어린왕자의 이야기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결말이 해피엔딩이길 원하지 않아요. 주인공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화씨의 결말은 어땠으면 좋겠나요?”

“평범한 선화씨는 자신의 미래가 행복할지 불운한지 모르는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엔딩은 무엇이였을까요? 라고 끝났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말이네요. 선화씨가 원하는 엔딩을 이루길 바랍니다.”

평범한 선화씨는 자신의 미래가 행복할지 불운한지 모르는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엔딩은 무엇이였을까요?

## 크레파스의 정답은?

인문학부

20201029 김지민

나는 복적복적한 버스에서 약속 장소 두 정거장 전에 내렸다. 어둠이 수평선에 앉아 있는 3월의 밤이 서늘한 바람으로 나의 블라우스 소매를 간질거리며 마중 나왔다. 간판의 화려한 조명과 가로등의 불빛이 길거리를 무도회장으로 만든다. 그 조명들이 거리에 조그마한 소품 가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사람들, 벽에 있는 조그마한 낙서에 비쳐 눈길을 저절로 끌었다. 저 멀리 익숙한 간판 하나가 보인다. 간판 하나만 보였을 뿐인데 마치 놀이터를 다섯 걸음밖에 남겨두지 않은 어린이처럼 마음이 두둥실 떠올랐다. 빨라진 발걸음으로 걸어가 문을 당겨 들어가니 단연 눈길을 끄는 얼굴들이 반기고 있다.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는 3명의 각기 다른 생김새를 가진 그들은 내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나는 약속 시간인 8시보다 10분 빠른 7시 50분에 도착해 문을 열었지만 도대체 다들 얼마나 빠르게 온 것인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난다. 제일 안쪽에 앉아 문을 열자마자 눈을 마주친 경찰관인 그녀의 이름은 서찬슬이다. 170cm가 될 듯 말 듯 한 키에 얼굴에는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변진 화장을 하고 가벼운 옷차림인 검은색 일자바지에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다. 쌍꺼풀이 없고, 동그랗고 작지만 깊은 눈매가 입꼬리에 닿을 만큼 미소를 띠며 조금은 방정스럽게 손을 흔들고 있다. 그녀는 사석에서 만날 때와 그녀의 직장인 경찰서에서 만날 때 마치 다른 사람을 만나는 듯하다. 내가 야간 당직을 선 찬슬이 부탁으로 경찰서에 옷을 가져다주러 갔을 때 찬슬이는 마치 도장으로 찍은 듯한 깔끔한 화장을 하고 형식적인 웃음을 띠고 있었다. 구겨진 주름 하나 없이 잘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경찰서 자신의 자리에는 연필조차 흐트러짐 없이 정리되어 있었다. 옷을 전해주기 위해 경찰서에 들어서자 경찰서에는 이미 길을 잃은 아이가 있었다. 찬슬이는 아직 나를 보지 못하였는지 아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요구르트 하나를 건네었지만, 자신의 컴퓨터로 돌아와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아이의 엄마를 찾고 있었다. 아이를 보는 눈빛과 자료를 찾는 눈빛, 이 두 가지는 마치 사막의 열기와 북극의 한기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일과가 끝난 지금, 우리를 만나는 지금은 마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얼굴을 띠고 나를 반겨주고 있다.

찬슬이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동글동글한 얼굴, 우리와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우리보다 적어도 5살은 어려 보이는 그녀는 주부 유다정이다. 달걀을 두고 그린 듯 동그란 얼굴, 눈매까지 동글동글한 그녀는 하얀 피부에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어색한 듯 잘 어울리는 네이비색의 꽃 자수가 콕콕 박혀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다. 일찍 퇴근한 신랑에게 아이를 잘 돌봐주고 있으라는 임무를 주고 저녁 모임에 나왔다고 당차게 말하는 그녀다. 다정이는 우리보다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보다 한 생을 더 산 듯하다. 다정이가 가끔 들려주는 하루 일과를 듣고 있으면 이름을 가리고 놔두어도 다정이의 이야기겠다는 생각을 한다. 아침 7시부터 작은 꽃이 흩뿌려진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자신이 요리학원을 다니며 직접 필기한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를 펴고 요리를 시작한다고 한다. 꽃무늬 앞치마라니 여기서부터 아기자기한 것을 좋아하는 다정이답다는 생각을 하며 다정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예정대로 7시 30분에 요리와 부엌 정리를 마치고 딸을 깨우러 가며 딸에게 학교 준비물을 잘 챙겼는지,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 눈빛을 주고받으며 아침을 먹는다고 한

다. 딸과 남편이 모두 자신의 일터로 나가자, 자신도 일터인 집에서 다 쓴 휴지와 샴푸, 비누 등을 제자리에 채워 넣고, 텔레비전 위에 먼지 한 톨 남지 않게 닦고, 보이지 않는 찬장 먼지까지 닦으니 어느덧 딸의 하교 시간이 되었고 딸에게 두부가 들어간 간식을 만들어 주고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 보고 두부만 남긴 딸에게 편식을 하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말했다고 마치 구연동화를 하듯 손을 현란하게 움직이며 설명한다. 무엇이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육아의 경로에서 이탈한 뻘뻘해진 길이 아닌 똑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누가 봐도 다정이의 생활 방식이다.

문을 등지고 앉아 있는 그녀는 김이정이다. 낮게 묶은 머리에 하얀색 리본이 달린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다. 내가 그 자리로 갈 건데 굳이 힘들게 뒤를 돌아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항상 다정한 그녀다. 그녀는 문과 그리 멀지 않은 자리에 앉아 어디 앉아 있는지 한눈에 보이는데도 “여기야, 고운아 여기”하며 세차게 손을 흔든다. 개구쟁이 같은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자마자 따뜻한 육조에 들어간 느낌이다. 이정이는 사회복지사이다. 이정이가 사회복지사를 한다고 하였을 때, ‘이만큼 직업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까’란 생각을 했다. ‘선하다’를 사람으로 표현해라.라는 시험이 있다면 나는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이정이의 얼굴을 그려낼 것이다. 적당히 내려간 눈꼬리, 입꼬리가 올라간 편은 아니지만 통통한 아랫입술 덕분인지 올라간 듯 보이는 입꼬리를 가지고 있는 그녀는 언제 봐도 기분 좋아진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슬픈 일에 같이 울어 주고, 기쁜 일의 나보다 더 방방 뛰며 좋아하는 그녀는 사회복지사를 하려고 태어난 사람 같았다.

이제 막 도착해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의자에는 내가 뭘 입고 나올지 알았던 사람들처럼 앞치마가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젓가락과 숟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앞치마를 하고 앉았다. 기분 좋은 친구들의 시끌벅적한 이야기 소리가 내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다. 찬슬이가 “지난달에 만났는데 왜 오랜만인 것 같냐”라고 한껏 상기된 목소리로 말한다. 이에 이정이가 “맞아. 나 정말 너네한테 할 얘기 엄청 많았는데 오면서 다 까먹었다.”라고 하며 나를 포함한 애들 모두 별 이야기 아닌 것에 목젓이 보일 듯, 고개가 뒤로 넘어갈 듯 웃어 짓힌다. 한참 이야기꽃이 만개할 때 우연히 틀어져 있는 가게 텔레비전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가 한 축제에 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걸 보자 친구들을 만나 있고 있었던 나의 일터의 이야기가 번개처럼 떠올랐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진 나를 보고 다정이가 물었다. “고운아! 갑자기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에 찬슬이와 이정이의 시선이 모두 나의 얼굴에 쏠렸다. 나는 억지로 한 층 밝게 표정을 바꾼 뒤 애들에게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내가 겪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도 바쁘게 흘러간다. 나는 1시간가량 걸리는 나의 직장, 학교로 향하기 위해 여유 있게 한 시간 전인 6시부터 준비를 시작한다.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시작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매일 한결같이 시간이 촉박하다. 후다닥 20분 만에 샤워를 끝낸 뒤 제멋대로 놓인 화장품이 있는 화장대 앞에 앉아 드라이기를 들어 부리나케 머리를 말리기 시작한다. 물론 내 급한 성격 탓에 완전히 말리진 않고, 촉촉함만 없어질 정도로 말린다. 서툰 화장 솜씨로 눈에는 반짝이는 새도를 조금 얹고, 공을 들여 가장 자신 있는 마스크라를 하고, 볼에는 연한 분홍색 볼 터치를 조심스럽게 퍼뜨려본다. 꽤 마음에 드는 화장을 하고 품이 낙낙한 분홍색 셔츠와 일자로 떨어지는 청바지를 입었다. 엿저녁에 미리 가방을 챙겨두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지갑이 들었는지, 립스틱이 들었는지, 카드는 지갑에 들어 있는지, 이어폰은 들어 있는지 정신없이 확인하고 나서 부엌으로 향한다. 통마다 종류별로 담겨 있는 시리얼 중 하나를 그릇에 담아 5분 만에 먹고 나서 가방을 메고 나갈 준비를 마친다. 현관 거울에서 마지막 점

검을 한 뒤 7시에 서둘러 집을 나선다.

항상 7시 10분쯤 도착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다행히 버스정류장에 도착해 숨을 고르기 시작한 뒤 불과 1분, 2분쯤 되었을까 버스가 도착했고, 아직 널찍한 버스에 겨우 네 정거장 후에 내릴 거지만 밖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는다. 매일 보지만 매 순간 다른 풍경을 보며 지하철역으로 달린다. 평소보다 더 막히는 도로 상황 탓에 지하철 시간에 맞추기 조금은 촉박한 시간이 되고 말았다. ‘다음 신호등에 걸리지 않아야 다음 지하철을 탈 텐데...’라고 생각하던 찰나 버스 기사님이 신호등 신호를 확인 후 재빠르게 움직이신 덕분에 신호등에 걸리지 않아 예상시간에 지하철역에 도착하였다. 모두가 한 장소로 가는 듯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모두 지하철역으로 들어간다. 지하철역에 카드를 찍고 들어가 지하철을 기다린다. 가방에서 이어폰을 찾고 있던 때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다는 방송이 지하철역을 울린다. 나는 이어폰을 찾고 영킨 줄을 풀며 지하철에 올라탔다.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탈 만큼 복잡복잡한 지하철에 오늘은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 후다닥 앉아 영킨 이어폰 줄을 마저 풀고 귀에 꼽은 뒤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다. 그제 서야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사람들은 제각각 다른 일을 하며 출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노래와 함께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려 보며 출근하였다. 바쁘게 화장을 하는 사람을 보며 ‘오늘은 바빠서 화장을 다 못 마치고 나오셨구나’, 의자에 앉아서 쪽잠을 청하는 사람을 보며 ‘어제 야근을 하신 분인가?’, 책 한 권에 눈을 떼지 못하고 읽고 있는 사람을 보며 ‘저 책이 굉장히 재밌나? 나도 한 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을 하며 달린 지 어느덧 40분이 되었을까 내가 내려야 하는 새동역에 도착하였다. 이 역에 아침에 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그마한 동네라 출근하러 가는 사람은 복잡하지만 이 역에 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 탁 트인 공간에 사람 두어 명만 걸어간다. 지하철에 내려 10분을 걸었을까 작은 동네에 유난히 알록달록한 학교가 눈에 들어온다. 학교에 들어서 반으로 가는 길, 8시 10분, 아직은 이른 등교 시간으로 썰렁한 운동장을 왼편에 두고 슴벅스툼벅 교실로 향한다.

아침 조회를 준비하며 아이들이 아직 오지 않은 교실에서 아직 새 학기라서 어색한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기 위해 쪽 아이들의 사진을 따라 출석부를 훑어본다. 나와 조금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아이의 이름, 김준서를 가장 먼저 외워졌다. 일부러 외운 건 아니지만 어느새 머릿속에 새겨졌다. 아이들이 오기 전 오늘의 1교시는 미술 시간에 쓸 하얀 도화지를 교무실에 가서 아이들의 수대로 세어 내 책상에 두고 아이들의 등교를 맞이하러 교실로 돌아왔다. 교실로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실 문을 열어 들어온다. 아이들이 하는 인사에 미리 출석부로 읽혔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한다. 아침조회 전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조잘조잘 이야기를 한다. 나는 아이들의 조잘거리는 목소리가 좋아 교실의 자리를 지킨다. 아이들이 다 온 후 친구들의 얼굴과 이름은 빨리 익혔으면 하는 바람에 출석을 불러본다. 아이들이 다 모인 후 이번 주 주번과 청소 당번을 정한다. 출석번호대로 돌아가는 주번과 출석번호 반대로 돌아가는 청소 당번에 자신의 순서가 온 아이들은 조그맣게 탄식을 한다. 그 모습이 마치 참새 같아 속으로 활짝 웃었다.

아침조회에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고 나는 1교시 준비를 하러 교무실로 향하였다. 아까 미리 세어 놓았던 도화지를 옆에 두고 자리를 정돈하던 중 종이 찼다. 도화지를 한 아름 안고 교실로 돌아갔다. 칠판에 ‘가족 그리기’라는 글씨를 큼지막하게 쓰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은 가족 얼굴 그리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그리면 됩니다. 모두 크레파스 가져왔지요? 모두 크레파스 꺼내 볼까요?” 이 말을 하자마자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둘씩 각자 가져온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를 꺼낸다. 몽당 크레파스, 서른여섯 색

깔의 찬란한 크레파스, 형제, 자매 이름이 매직으로 쓰여 있는 크레파스, 크레파스도 아이들의 특징만큼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를 꺼낸다. 모두 크레파스가 있는 걸 확인한 후 “준비물을 모두 잘 챙겨왔네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종이를 나눠줄게요. 종이를 받으면 뒷면에 이름을 먼저 쓰세요.”라고 말한 뒤 아이들 자리에 하얀 도화지를 놓아주었다. 미술 시간이 시작한 뒤 20분쯤 지났을까 난 아이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아이들의 그림을 둘러보며 교실을 사뿐사뿐 걸어 다녔다. 모두 그림의 열중하느라 조용할 새 없는 교실에 적막이 흘렀다. 사뭇 진지한 적막이 얼마나 갔을까 그 적막을 깨고 우리 반에서 종이 치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아이, 가장 큰소리를 웃는 아이, 가장 빠르게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 점심시간이 끝나면 항상 땀에 축축해진 머리를 하고 자리에 가장 늦게 앉는 아이 이세찬이 상아색 크레파스와 고동색 크레파스를 두 손 높이 들어 올리며 크게 외친다. “김준서 얼굴 어떤 색깔로 칠해야 정답일까요?” 순식간에 교실은 아이들의 웃음바다가 되었다.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자신의 그림에서 마치 빨간 크레파스로 칠한 듯 붉게 달아오른 준서의 얼굴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그 시선 때문에 준서가 더 이상 따갑지 않도록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낮고 새 학기를 맞이한 후 처음 내보는 차가운 음성으로 “모두 조용히 하고 눈 감으세요”라고 아이들에게 말하였다. 아이들은 처음 들어보는 싸늘한 나의 음성에 놀란 듯 한 명도 빠짐없이 눈을 감고 입을 닫았다. 아이들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고 나는 빠르게 생각하였다. ‘어떻게 하면 준서가 상처받지 않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세찬이에게 창피하지 않게 잘못된 행동을 고쳐줄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생각에 어지러웠다. 나는 아이들에게 “친구를 비웃고 놀리는 행동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자신이 장난으로 한 말에 친구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비웃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에요. 학교가 끝나기 전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도록 해요”라고 말함과 동시에 종이 쳤다. 나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반 전체에게 말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전했다. 종이 치고 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교무실로 갔다. 준서의 새빨간게 달궈진 얼굴에 고개조차 들지 못한 모습이 눈을 감아도 계속해서 보였다. 그 순간 왜 적절한 대처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는지 나 자신이 한없이 한심해졌다. 원래 이렇게 쉬는 시간이 짧았었는지 금세 2교시 시작종이 울렸고, 나는 수학 책을 옆구리에 끼고 무거운 발걸음을 교실로 옮겼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돌았다. 나는 무거운 공기를 제쳐놓고 수업을 이어갔다. 이 분위기에 다행인지 몰라도 3교시와 4교시는 체육과 음악으로 이동 수업을 진행해 내가 교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이동 수업이 있는 날에도 교실에 앉아 있지만 오늘은 교실에 무거운 공기가 남아있는 거 같아 그 무거운 공기 속에 있기 싫어 교무실로 이동하였다. 나는 그저 애꿎은 출석부만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고 그렇게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오전의 수업이 끝나버리고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시끄럽게 변해버린 교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교무실로 준서를 살짝 불러내었다. 준서는 아직도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 뜬금없이 “오늘 급식 맛있었니?”라고 물었다. 뜬금없는 질문에 내가 한 말에 내가 창피를 느끼고 있을 찰나 준서는 고개를 세차게 위아래로 흔들며 주었다. 나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준서를 바라보았다. 나는 준서의 마음이 궁금해 “준서야 괜찮지?”라는 말을 건네었다. 나는 그 말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은 내 기준, 내 생각이었다. 아직까지 나의 눈

을 맞추지도 못하고 흥당무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작은 아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은 마치 괜찮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는 느낌을 준 듯했다. 이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준서는 아까와 달리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천천히 끄덕이는 고개에 내 죄책감은 더 깊어졌다. 나는 그런 준서에게 “준서야,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아까 많이 당황했지? 그건 준서의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 고개 숙이고 있지 않아도 돼. ‘차이’라는 건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야. 준서의 티셔츠 색깔은 초록색이고 선생님 티셔츠 색깔은 분홍색이지? 준서의 실내화는 하얀색이고 선생님 실내화는 검은색이지? 이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피부색도 마찬가지지. 어떠한 것도 정답은 없어. 반에 있는 친구들 중 어느 한 명도 같은 피부색은 없을 거야. 어떤 친구는 조금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는 조금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고. 준서가 교실로 돌아가서 잘 한번 살펴봐 봐. 그리고 준서가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말해줄래?”라는 말을 하자 준서는 조금은 연해진 얼굴로 내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금은 밝아진 준서의 얼굴을 보고 준서를 교실로 돌려보냈다. 수요일인 오늘은 4교시여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종례를 하러 갔다. 방글방글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무거운 숨 같던 나의 마음이 조금 괜찮아졌다. 아이들에게 알림장을 쓰게 하고 청소 당번에게 청소를 하게 한 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난 뒤 교무실로 돌아가 하루 일지를 쓰고, 남은 업무를 정신없이 처리하자 어느덧 퇴근 시간인 4시가 되었다. 나는 책상에 풀어 놓았던 짐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지갑을 넣고, 책상에 던져놓았던 카드를 챙기고, 립스틱을 챙기고 이어폰 줄을 잘 접어 가방에 넣고 어깨에 메었다. 마지막으로 교실로 돌아가 창문이 잘 잠기었는지,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잘 꺼졌는지 확인 후 문을 꼭 잠그고 키를 교무실에 두고 학교를 걸어 나왔다. 해가 점점 길어져서 그런지 아직 하늘이 밝다. 나는 왔던 길을 돌아간다. 시끌벅적했던 운동장에는 누가 놓고 두고 간 축구공이 덩그러니 남아있고, 누가 금방 타고 간 듯 그네가 살살 흔들리고 있다.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곱씹으며 지하철역으로 향한다. 올 때는 10분쯤 걸린 듯했는데 도착해서 시간을 보니 15분이 넘었다. 주변을 볼 여유 따위 없었다. 머릿속 준서와 세찬이 생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직 이른 퇴근 시간에 지하철 자리가 넉넉하여 제일 끝쪽에 자리 잡았다. 출근길에는 다른 사람을 보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는데 이제는 책을 보는 사람을 보며 ‘저 책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나와있을까?’, ‘저 사람이 보는 핸드폰 속에는 해결책이 적혀있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며 40분을 달렸을까 내가 내려야 하는 온정역에 도착했다. 중고등학생들이 끝나는 시간이 되어 그런지 지하철 계단에는 교복 입은 아이들로 북적북적하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버스정류장으로 향하였다. 때마침 기다리지 않고 버스가 와 사람들 눈에 가장 띄지 않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오늘 있었던 일은 조금은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웬지 모를 죄책감에 휩싸였다. 준서의 별건 얼굴이 떠오르고 세찬이의 개구진 목소리가 맴돌고 그 목소리에 버스 안에서 목소리를 놓칠 뻔했다. 간신히 버스 정류장에 내려 집으로 걸어간다. 천천히. 잠시 잊고 있었던 오늘 친구들과의 약속 생각에 조금은 머릿속에 준서와 세찬이가 가려졌다. 나는 어서 집에 가서 무거운 기운에 휩싸였던 옷을 갈아입고 싶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던 내가 조금은 빠르게 집을 향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옷장 문부터 열었다. 제일 좋아하는 진한 청치마에 낙낙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노란색 카디건을 꺼내 침대에 올려두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물 한 잔으로 머리에 생각들을 쓸어보낸 뒤 꺼내놓은 옷을 하나하나 입었다. 아껴두었던 향수까지 뿌리고 조금 약속 시간은 8시, 지금 시간은 6시 30분을 넘어가고 있는 약속시간보다는 이른 시간이지만 일찍 문을 나섰다.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담담하게 풀어 이야기해 주었다. 다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 많은 일이 오늘 하루에 다 일어났다니 우리 오늘 만나길 잘했네”라며 웃으며 살며시 내 어깨에 손을 올려 두 번 두드렸다. 다정이가 “고운아, 우리 딸 라희 알지? 라희 학교에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 있거든. 나 학교 엄마들이랑 친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 아이들도 처음에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무척 잘 지내더라고. 근데 그게 학교 선생님 영향도 크더라. 이 수업 듣고 제일 놀랐는데 서로의 얼굴 그려주기로 했었는데 아이들이 눈치 못 채게 반에서 가장 활발하고 다정한 친구랑 다문화 가정 친구랑 짝해서 그려주게 했는데 서로 그림 그리면서 너는 눈이 예쁘다, 너는 코가 참 오뎅하다. 너의 피부색은 나랑 다른 다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친해졌대. 그래서 지금은 점심도 같이 먹고, 숙제도 같이하고 무척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 말고, 이런 식으로 수업 방식 세워보면 어때?” 정말 이 친구들 오늘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고마워 다정아. 나도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괜히 힘이 솟았다.

옆에서 찬슬이가 “우리 동네에도 다문화 가정이 내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 보다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 근데 그 아이들 부모님 영향도 크더라고. 집이 경찰서를 지나야 갈 수 있는 길이어서 가끔 마주치는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는데 정말 밝고 예의 바르더라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를 하시더라고. 나는 한국 예절을 잘 모르면 어쩌나 했는데 내 편견이었지. 비교하기 싫지만 웬만한 또래 아이들보다 똑 부러지고 예의도 바르더라고. 나는 내 생각에 아차했어. 이 모든 게 내 편견은 아닐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라고 어두울 거라는 근본 없는 생각과 한국 문화를 모를 거란 내 생각이 큰 착각이었지. 그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나랑도 다른 바 없는 한국 어린이인데.” 나는 찬슬이의 말에 머리가 멍 해졌다. 그렇다. 준서도 그냥 한국 어린이인데 나도 모르게 반 아이들과 차이를 둔 것은 아닌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머리가 어질어질할 때 옆에 이정이가 말을 했다.

“맞아. 정말 편견이 무서운 거더라. 우리 주민센터에서 5월, 10월, 12월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와. 근데 나는 잘 못 어울리면 어쩌지. 이 행사를 어려워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했거든. 근데 이게 웬걸. 그 다문화 가정 아이가 가장 친화력 있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만들기 행사할 때 어려워하는 친구들 먼저 도와주면서 참여하더라고. 그때 정말 내가 가진 생각들이 편견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지. 아이들 대할 때 이런 생각 먼저 버려야 해.” 나는 “맞네. 맞아. 나도 모르게 준서를 다르게 생각했던 거 같아. 너네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며 마음이 솜사탕처럼 동실동실해지며 오늘 하루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다. 오늘 하루 무거워진 마음에 친구들과 맥주 한잔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나간 약속 자리였는데, 집에 가서 내일 할 수업 계획을 짤 생각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 어찌 마음이 이리 들뜨는지 마치 내가 학교에 처음 발령받았을 때 기분과 비슷하였다. 친구들은 맥주 한 잔씩을 해서 조금 빨갛게 된 얼굴을 하고 다들 내일 출근을 위해 11시 전 막차를 타기 위해 가게에서 나왔다. 나는 표현을 잘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마워. 너네 아니었으면 혼자 끙끙 앓다가 해결도 못 했을 거야.”라고 방방 뛰며 말했다. 이 말을 3명에게 똑같이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다양했다. 찬슬이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해.”라며 무뚝뚝하지만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였고 다정이는 “어이구, 뭘 혼자 고민하냐 물어보면 되는걸. 이러려고 만나는 거야 우리!”라며 당차게 말하였고, 이정이는 “웃는 얼굴 보니까 좀 낫네.”라며 어깨를 툭툭 두드려줬다. 나는 아이들에게 허공을 저으며 손을 흔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볍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푸르고 가장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세수를 한 다음 머리를

질끈 묶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내일 ‘즐거운 생활’에서 할 수업은 자기소개서 ‘써주기’이다. 파트너의 자기소개를 써주는 것이다. 자기 파트너의 이름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지, 잘하는 운동은 무엇인지 등 짝꿍이 인터뷰하듯 물어보며 써주는 것이다. 나는 내일 쓸 자기소개서 형식을 컴퓨터에 만들어 놓고 솜사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다.

여느 아침과 다르지 않게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다. 오늘은 똑같이 6시에 일어나서 똑같은 화장을 하고 똑같이 가방을 챙기고, 똑같은 아침을 먹었는데 다른 때 보다 20분이나 준비가 빠르게 완성되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하기로 했다. 똑같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탔지만 마음만은 오늘만큼 가볍고, 하루 일과가 오늘만큼 기대된 적은 없었다. 학교에 짐을 풀고 곧장 인쇄실에 가서 어제 만든 자기소개서 써주기 형식을 뽑기 시작했다. 색깔은 다양하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주황색, 하늘색 등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색을 골라 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 뽑아서 색깔별로 준비한 뒤 교무실 책상에 놓고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이 건네는 인사에 이름을 부르며 반겨주었다. 여느 아침과 같이 아이들의 출석을 한 번씩 부르고 주변에게 칠판지우개를 빨아오라고 한 뒤 칠판 지우는 것까지 보고 교무실로 돌아가 자기소개서 종이를 가지고 왔다.

아이들이 아닌 내가 기대하던 1교시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에게 들뜬 마음을 숨기고 차분히 설명해나갔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생활에서는 ‘자기소개 써주기’를 할 거예요. 평소 친해지고 싶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팀을 하자고 한 뒤 종이에 쓰여있는 대로 이름을 물어보고, 좋아하는 운동을 물어보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여기 네모 칸에는 짝꿍의 얼굴을 그려주면 돼요. 모두 이해했으면 짝꿍 찾으러 출발하세요. 짝꿍 찾는 시간은 10분입니다.” ‘이미 친한 친구에게 가면 어찌나, 짝꿍을 못 찾은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걱정을 하며 교실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서로 어색했던 친구들에게 다가가 자리를 잡고 소개서를 쓰기 시작한 친구들이 보였다.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내 눈앞에 일어난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세찬이가 준서에게 다가갔다. “야, 김준서 나랑 할래?” 준서도 예상치 못했는지 눈이 주먹만큼 커진 얼굴로 “응. 할래”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아이들이 내가 듣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은 빠른 걸음으로 아이들을 둘러보며 교실을 걸어 다녔다. 걷다가 세찬이가 준서에게 하는 말이 귀에 꽂혔다. “어제 미안했어. 그냥 나랑 다른 피부색을 가진 네가 신기하고, 조금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세찬이는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말을 흐렸다. 그러자 준서는 어제와는 다른 밝은 미소를 띠며 “괜찮아.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라고 세찬이에게 말을 건넸다. 둘은 마주 보며 쿡쿡 웃으며 자기소개서 써주기를 이어갔다.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웃음이 새어 나오는 입술을 꼭 누르고 교실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녔다. 종이 치기 5분 전 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고 다 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라고 말하고 수업을 마무리했다. 나는 아이들이 제출한 종이를 모두 받아 클립으로 묶었다. 교무실 내 자리에 잘 두고 2, 3교시를 정신없이 아이들과 보냈다. 후다닥 흘러간 오전 수업에 아이들이 낸 ‘자기소개서 써주기’를 잠시 잊고 있었다.

나는 영어 수업으로 이동한 아이들 덕분에 이걸 읽어볼 시간이 생겼다. 아이들의 개성 넘치는 뽀뽀뽀 글씨를 보자마자 웃음이 새어 나왔다. 난생처음 보는 맞춤법도 보여 2학년 아이들의 순수함이 종이 가득 반짝였다. 넘기다 보니 세찬이가 쓴 준서의 자기소개서가 나왔다. 이름: 김준서 좋아하는 운동: 축구 좋아하는 음식: 김치 등 정성껏 눌러 쓴 글씨가 예뻐 보였다. 엉킨 실타래 같던 관계가 느슨하게 풀려있는 실타래로 변한 것 같아 아까는 웃음이 낫는데 이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아이들의 개성을 읽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돌아왔고 아이들의 배식을 돕기 위해 교실로 향하였다. 교실로 향해 아이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다 먹

은 아이들은 자신의 취향대로 놀이를 한다. 어떤 아이는 책을 읽고, 어떤 아이들은 조잘조잘 떠들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 신나게 공놀이를 한다. 급식 정리를 끝내고 운동장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준서와 세찬이가 함께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마음속에 뽕과리가 울리는 듯하였다.

나는 잊을 수 없는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매일 쓰는 일기장을 꺼내었다. ‘학교 선생님을 하며 아이들이 나에게 주는 기쁨과 교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사이지만 내가 아이들에게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항상 생각해. 오늘 같은 일을 겪은 후에는 더욱더. 내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아이들이 순수함이 돋보이는 생각으로 채워줄 때도 있지. 이번 일을 계기로 아이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 이번 일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가는 시간이 되었지.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아이니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겠지라고 생각한 나의 편견이 김치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쓴 준서의 자기소개서를 보며 사라졌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잘 못 어울리면 어쩌지 한껏 걱정하며 출석부를 들여다보던 나의 편견으로 덮여있는 모습이 준서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세찬이의 마음을 통해 완벽히 지워졌지. 나는 이 계기로 다짐했어. 아이들을 볼 때 흰 도화지로 보아야 된다는 것. 아이들이 자신의 도화지에 다양한 색깔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크레파스를 손에 쥐여주는 것이 아닌 모든 색깔이 담겨있는 크레파스 통을 건네는 것 말이야. 마치 도화지 위에 정답은 자신만이 맞출 수 있듯이. 자신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해서 ‘다른 대우’를 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지. 다른 특징을 가진 아이에게 그저 다름없이 대하는 것, ‘평범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 알게 되었지. 모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대우’를 받는 날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이, 피부색으로 아이들의 특성, 성격이 판단되지 않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해.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 교사인 내가 앞장서서 ‘다름없는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나가야지.’

7시 57분

인문학부  
20201019 김성준

“세준아, 아빠가 크게 다쳤나봐. 서울대 병원으로 오렴.”

다급하게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방금 일어난 세준이는 어안이 벙벙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 세 명이 함께 웃으며 예식장에 갔었다.

예식장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 하던 나와 다이어트 중이니 많이 먹지 말라는  
엄마의 편잔, 그리고 너무 뭐라하지 말라며 엄마를 말리던 아빠까지.

그 날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행복한 하루였을 터였다.

“에이~ 별일 아니겠지.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넘어진걸 거야. 엄마, 괜찮아.”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나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갈까요?”

택시 아저씨의 말씀에 나는 서둘러 입을 열었다.

“서울대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을까, 아니겠지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압박했다. 그러던 와중, 택시기사님께서 입을  
열었다.

“학생, 도착했어요.”

서둘러 계산하고 응급실을 향해 올라갔다. 올라가자 보인 것은 울고 있는 아빠 친구  
분들이었다.

나는 서둘러 아빠 친구분 중 한 분을 붙잡고 질문했다.

“아저씨, 어떻게 된거예요?”

아버씨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버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준아, 아버씨가 미안하다. 아버씨가.”

아버씨는 터져 나오는 울음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곧 평정을 찾으시곤 상황을 설명해주셨다.

“너희 아빠가, 우리랑 술을 마시고 당구장에 갔는데, 담배를 피러 비상 계단쪽으로 가셨다가 발을 헛딛으셨다.”

아버씨는 울먹임 때문에 말을 자꾸 더듬으셨다. 그러던 중 엄마가 오셨고 나와 엄마는 함께 응급실로 들어갔다.

거기서 1시간쯤 기다렸을까, 의사가 와서 아빠의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다.

“계단에 머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뇌출혈이 심한 상태예요. 힘드시겠지만, 현재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예?”

엄마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 앉으셨고, 하염없이 우셨다. 나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밖으로 뛰쳐나가니, 달이 보였다.

“...”

조금 밖에서 머리를 식히고 있자니, 병원에서 알 수 없는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는 그것이 ct 촬영 동의서라고 하셨다. 몇시간 지났을까, 고모와 고모부께서 오시고, 이후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오셨다.

“아빠가 지금 위독하신 상태예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내 말이 끝나자, 통곡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이렇게 갑자기 가는게 어딴어...”

고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옆에서는 고모부가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괜찮으실 거야. 강하신 분이잖아. 분명 깨어나실거야.”

그렇게 가족들과 엄마, 그리고 아빠 친구분들까지 우리는 함께 밤을 새며 아빠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렸다.

다음날이 되자, 병원에서는 아빠의 병실에 들어갈수 있도록 해주었다.

“아빠!”

나는 아빠를 부르며, 병실 문을 열었다.

“...”

병실로 들어가니, 안의 공기는 매우 무거웠다. 다들 침묵을 지킨 채 아버지의 침대 앞에 서 있었다.

아빠는 의식불명이었고, 곁에는 산소마스크와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놓여있었다.

“세준 아빠..”

“오빠..”

고모와 엄마께서 한마디씩 하셨지만,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병실 내부는 끝이 어 울음바다 되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자니, 코끝이 찡했다. 아니 어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가망이 없다는걸.

“잠시만 나갔다 올게요.”

나는 병원 문을 박차고, 눈물을 애써 훔치며 밖으로 나가 바람을 맞았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이제서야 찢끔 새어나온다.

“세준아, 아빠는 괜찮으시니?”

아빠 친구 분들이 걱정되는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 아빠가 많이 편찮으신거 같아요. 어제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고요.”

아빠 친구분들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들 무거운 표정으로 저마다의 침묵을 지켰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나는 그대로 병원 뒷편 담벼락으로 달렸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숨죽여 울었다.

혹여 누군가에게 들킬까, 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분위기에 안맞게 더럽게 날씨 좋은 하루였다.

-----  
“2020년 11월 2일 7시 57분경, 환자 안세형씨, 사망하셨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찬 손목을 내린다. 그대로 입을 다문 채, 병실에서 나간다.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의사로서 이런 광경을 얼마나 봤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끝내 회피하던 사망 선고를 받아, 참았던 눈물이 물 흐르듯 터져 나왔다.

“아빠...”

아빠의 손을 만져보았다. 너무 차가웠다. 마치 온기 빠진 손난로를 만지는 느낌이다.

그 느낌이 너무나도 생소해, 손 끝으로 한기가 밀려 올라왔다.

“아빠..”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흐른다. 나와 엄마는 서로 부둥켜 잡고 세상이 떠나가도록 울었다. 눈물이 매말라버릴때까지.

“세준아.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 청각이래. 아빠한테 못했던 말 지금 다 하렴.”

고모는 코를 훌쩍이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울음을 참으려 애쓰는 것이 눈에 보인다.

나는 목청이 떠나가라 울면서 말했다.

“아빠! 아빠아들로 태어나서 20년동안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행복했어!”

계속 말을 이어갔다.

“아빠 아들인게 자랑스러워. 다음 생애 태어나도 아빠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아빠’ 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눈 앞이 흐려진다.

“아빠! 진짜 진짜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말 못해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속에 있던 말들, 부끄러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토해냈다. 더 이상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나는 그 날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후 나와 엄마는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부터 아빠의 장례식을 치뤘다.

-----  
장례식은 회기동의 삼육병원에서 진행됐다. 회사에서 지급한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친구분들을 맞이했다.

가슴에는 ‘상주’ 라 적힌 이름표를 달았다. 그 직책의 무게만큼, 가슴은 더할 나위 없이 무거웠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문 오신 분들이 향을 태우고, 국화를 놓으셨다. 상주인 나는 그분들과 한 번씩 맞절을 했다.

조문이 끝나고, 나는 오신 분들의 손을 잡으며 입을 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뒤편까지 엄마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내 등을 토닥이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곤 떠나셨다. 상주라는 무거운 자리는 스무살인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자리였다.

이 자리를 집어 던지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다.

“힘들면 조금 쉬어.”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묵묵히 말했다

“아빠 조문 오신 분들한테 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

그리곤 계속 조문 오시는 분들을 맞이했다. 첫째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셨다.

아빠 직장 동료들과 친구분, 그리고 학창시절을 같이 지낸 내 친구들. 엄마 지인 분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오셨다.

“하아..”

나는 지친 기색으로 한숨을 쉬었다. 수십번 수백번 절을 하느라 무릎은 다 까져 미친 듯이 쓰라리고, 밥도 먹지 않아 다리가 후들거렸다.

“오셔서 밥좀 드세요. 세준아, 너도 밥 좀 먹어야지.”

고모가 오셔서 나와 엄마에게 식사를 권하셨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는 거절하셨다. 너무 우셔서 눈 밑 아래가 눈에 띄게 검다.

“엄마, 밥먹어야 힘이 나지. 나랑 가서 같이 밥먹자. 응?”

애써 엄마를 설득한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내 손을 잡고 힘겹게 일어났다. 붙잡은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기 밥 두 공기랑 반찬 좀 주세요~”

고모께서 말씀하시니, 회사쪽 직원분께서 밥과 반찬을 들고 오셨다.

반찬은 편육과 김치, 전과 떡이었다. 얼마 전이었다면 군침을 흘릴만한 음식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먹고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엄마, 먹자. 먹어야 힘이나.”

그래도 앞으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먹어야 한다.

옆에 있는 나무 젓가락을 꺼내어 밥을 한 덩이 집었다.

“우욱..”

나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온다. 왜일까. 아빠는 돌아가셨는데, 나는 살려고 밥을 먹는 것 때문일까.

평소에는 몰랐던 생체리듬이 그 날에는 짜증날 정도로 역겨웠다.

“괜찮니?”

고모께서 물어보신다. 나는 애써 괜찮은 척을 하며 밥을 우걱우걱 씹어먹었다.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구역질이 올라와도 억지로 삼키고, 씹었다.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먹었다.

“세준아, 또 오셨다.”

밥을 다 먹어갈 때 쯤 큰아빠께서 나를 찾았고, 나는 그렇게 다시 조문 오신 분들을 찾아 뵈었다.

“이젠 너가 가장이다. 허리띠 잘 졸라 매고, 정신 차리며 살아야한다.”

조문 오신 분 들은 모두 이런 말을 했다. 괴로웠다. 내 나이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견뎌 내야했다.

그렇게 오후 11시쯤 되자, 오시는 분이 없어 조금은 쉴 수 있었다.

“세준아,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야한대.”

큰아빠께서 말씀해주셨다. 나는 알겠다고 하며 엄마와 함께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에 적었다.

엄마와 이모께서는 곧바로 상주 휴게실에 들어가 잠을 청하셨다.

편지를 다 쓰고선,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  
둘째 날 아침이 되자, 장례식장 사람들은 모두 우리 가족을 불렀다.

“이제 입관을 할 겁니다. 그래도 가시는 길 편하게 가시라고, 저희가 얼굴 팩이랑 상복을 깔끔하게 입혀드렸습니다.”

직원 분께서 말씀하셨고, 입관 절차를 진행하셨다.

“아빠 사랑하다고 평소에 말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 다음은 가족이 쓴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이다. 편지를 읽는 가족들은 모두 목이 메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입관이요~”

직원 분의 목소리가 찌렁찌렁하게 울린다. 그 말을 끝으로, 관의 문이 닫혔다. 다시 한 번 가족들이 눈물을 쏟았다.

그리곤 나와 엄마는 다시 조문을 오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둘째날도 이제 슬슬 저물어간다. 엄마는 나의 손을 붙잡으며 말하셨다.

“너네 아빠, 정말 멋지게 살았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백번 맞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빠의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말이다. 모두들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다. 직원 분 들이던 친구 분 들이던 간에 말이다.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 아빠처럼 멋진 사람 말이야.”

나는 엄마의 손을 연신 어루 만지며 말했다.

“내가 아빠 뭇까지 열심히 살 거야. 꼭. 꼭 아빠같이 멋진 사람되서 세형이 아들 세준이, 멋지게 자랐구나. 이 소리 나오게 열심히 살 거야.”

그러자 엄마께서 말씀하셨다.

“꼭, 그렇게 되렴. 엄마 소원이다.”

가슴이 쇠 공을 얻어맞은것 같이 옥신거렸다. 무언가가 끊기는 느낌도 들었다. 이게 아버지와의 인연의 실이라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견뎌 내야했다. 적어도 엄마 앞에선, 눈물을 보이면 안됐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지막 날의 해가 떴다. 새벽 5시경, 우리는 아빠를 화장하기 위해 버스에 탔다.

오늘따라 새벽 공기가 매우 시리다. 마치 아빠의 손에서 느꼈던 감촉과 비슷했다.

“다 타셨나요?”

직원 분께서 물었다.

아빠 친구분들, 가족들, 그리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내 소중한 친구들, 총 17명이 버스에 탑승했고 화장터로 떠났다.

“세형아.. 세형아.. 아이고!”

화장터에서 화장을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아빠의 사진을 보며 많이 우셨다. 할머니는 장례식장에 둘째날 저녁부터 오셨다.

연세도 연세이신 만큼, 건강에 문제가 가실까 선불리 얘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나는 이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천년만년같은 시간이 흘렀다. 화장이 끝나고, 우리 가족들과 친구분들은 함께 8번 화장터에서 뼈만 남은 아빠를 보았다.

“세준 아빠...”

엄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자상하던 아빠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불타고 남은 아빠의 뼈만이 남아있었다.

“아빠...”

마치 가슴이 억지로 쥐어짜지는것처럼 아팠다. 무언가가 내 마음을 그렇게 조여오는 것 같았다.

그리곤 직원 분이 인사 하시더니, 분골기에 넣어 가루가 되었다.

모두가 묵념을 지킨다. 오롯이 유골함을 열어 뺏가루가 들어가는 소리만이 들려 온다.

이내 그 유골함은 우리 가족들에게 돌아왔다. 나는 그 유골함을 꼭 안고, 울며 버스 안으로 돌아왔다.

나는 계속 아빠의 유골함을 어루만졌다. 유골함은 따뜻했다. 그럴 리가 없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아빠...”

그대로 버스는 경기도 포천시의 도성사라는 절로 향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거기서 아빠에 대한 간단한 제사를 스님과 함께 지내고, 납골당으로 모셨다.

납골당에서 멍하니 있을 때 아빠 친구분들께서 나에게 다가 오셨다.

“세준아, 아저씨들이 미안하다. 아저씨들이 당구장에 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그중 한 아저씨가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말했다.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밖에 할수 없었다. 다른 말은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납골당에 아빠를 모시곤,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라 집으로 돌아왔다.

-----  
며칠이 지났을까, 11월 11일경 아빠의 직장인 소방서에서 전화가 왔다.

“세준아, 아빠 유품도 정리 해야하기도 해야하고 엄마랑 고모부랑 함께 할 이야기가 있으니 모시고 오렴.”

아빠 직장 동료분이셨다. 장례식장에서 아빠와 친하다고 하던 그 아저씨였다.

나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아빠 직장이었던 강북 소방서로 발걸음을 옮겼다.

“세준이는 잠시 기다리렴. 잠시 엄마랑 고모부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소방서장님의 말씀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엄마와 고모부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셨다.

“아빠가 일하시던 자리는 어디예요?”

나는 직장에 계시던 소방관 아저씨들에게 물었다. 소방관분들은 매우 친절히 안내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나지막이 내뿜곤 아빠의 자리를 살펴 보았다. 창밖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 쬐고, 아빠가 썼던 의자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여기가 아빠가 일했던 자리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아빠가 일하셨을 모습을 상상했다.

나와 엄마를 위해 밤낮 안가리며 일하셨을 아빠의 모습을. 힘든일이 있어도 우리를 생각하며 버텼을 아빠의 모습을.

“세준아, 저기 있는 박스들 안에 아빠가 쓰시던 물건들이 있다. 집에 가져가서 하나하나 살펴보렴.”

눈썹이 짙은 소방관 아저씨께서 말씀하셨다. 아빠와 친하게 지내셨다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곤 곧이어 서장님께서 나를 따로 부르셨다.

“세준아, 많이 힘들고 괴롭지?”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아저씨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너네 아빠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는지 알았다.”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진다. 나는 입술을 짓씹었다.

“너네 아빠랑 나랑 오래 알고 지냈는데, 너네 아빠만한 사람도 없더라.”

서장님께서 말을 이어가셨다.

“너무 빨리 가셨다고 원망하지 말고, 아빠가 정말 멋있는 분이셨구나, 알아줬으면 한다. 아저씨는.”

어느새 서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아저씨, 저희 아빠 정말 멋지신 분이셨죠?”

나는 되려 서장님에게 물었다.

“그럼~”

서장님이 망설임 없이 답한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는 아빠 같은 사람이 될거예요. 저희 아빠, 그 조그만한 시골마을에서부터 소방관이 된 사람이니까. 그만큼 대단한 분이시니까. 저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돼서,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거예요.”

나는 다짐했다. 더 이상 아빠 때문에 울지 않기로.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서장님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다. 서장님은 아무말도 하지 않으셨다.

“아빠 돌아가실 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냅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험은 더 이상 하기 싫어요. 살아있는 동안, 뭐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아저씨는 말없이 내 말을 듣고 계셨다.

“아저씨, 저희 아빠는 항상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하셨던거 같아요. 근데 저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넘어질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많이 실망 하셨을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아빠를 실망시켜드리기만 했어요. 근데 아빠는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젠, 넘어지고 넘어져도 아빠 생각하면서 포기하진 않으려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결국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울음 때문에 목이 메었다. 그런 나를 서장님께서서는 말없이 안아주셨다.

서장님의 품은 따뜻했다.

---

“세형이 아들, 무슨일 있으면 아저씨한테 전화하고. 아저씨는 너가 잘 헤쳐나갈 거라 믿는다.”

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반드시, 아빠한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아들이 될게요.”

그 말을 끝으로 나와 가족들은 강북 소방서를 나왔다. 엄마는 시선을 소방서에서 떼지 못했다.

“이제 소방관하고도 인연은 끝이네..”

그 한 마디에서 많은 감정이 느껴진다. 나는 말없이 엄마의 손을 잡고, 고모부의 차에 올라탔다.

차를 타고 가던 도중,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픈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지만 이 시련에 허무하게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더 단단히 제련될 것인가.

아빠는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무언가 해답을 찾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더욱 단단히 제련되어, 이 거친 세상을 당당히 맞서고, 엄마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그게 아빠가 원하시는 바램일테니 말이다.

## 선문답

국어국문학전공  
20161081 임무혁

0.

우리는 범람의 시대에 살고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시대. 이런 세상에서 우린 잃어버린 것들만 바라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린 항상 결핍되어 있다. 풍족함 속에서, 결여되어 있다.

1.

“야, 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거야?”

녀석은 갑자기 말을 걸었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당연히 돌아가지. 당장 어제로 돌아가고 싶다. 어제의 나는 너무 게을렀어. 과제가 너무 많아.”

“그치? 근데 그런 사소한 순간들 말고, 딱 한 번 돌아갈 수 있다면 너는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래?”

시선을 모니터에서 떼고 녀석에게 향했다. 녀석은 식어버린 커피잔을 매만지며 의미모를 미소를 띄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녀석의 행동을 따라하며 대답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는거야?”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 그건 너가 언제로 돌아가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범위를 더 좁혀서, 과거로 돌아가는게 아니라 네 삶의 어느 순간을 딱 한 번 바꿀 수 있다면 어느 순간을 바꾸길 바래?”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떠오르는 순간들이 너무 많네. 근데 이건 갑자기 왜 물어보는건데?”

“그냥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

“그럼 너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너가 원하는 순간으로.”

2.

‘감사합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빈자리에 몸을 문었다. 카페에서 나와 버스를 두 번 갈아탈 때까지 녀석의 질문은 나를 물어뜯은 채 떨어지지 않았다. 집요하게 녀석은 내게 질문을 종용하고 있었다. 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귀에 이어폰을 꼽은 뒤 노래를 가장 크게 틀었다.

*‘나는 한때 내가 이 세상에 사라지길 바랬어  
온 세상이 너무도 캄캄해 매일 밤을 울던 날.’*

노래를 들으며 멍하니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본다. 은행, 떡집, 옷가게, 편의점,

커피숍……. 목소리는 피할 수 있었지만 잡념은 떨쳐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하고 단단하게 내 몸을 죄어온다. 후회되는 순간, 바꾸고 싶은 순간들. 문득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 뒤 곧장 하차벨을 누른 뒤 버스에서 내렸다. 기분전환이라도 하고 싶다. 충동이 이끄는 대로 눈에 보이는 택시를 곧장 잡아탔다. 피곤함에 지쳐 곧장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쓰러지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다.

3.

택시에서 내린 뒤 상가로 들어섰다. 계단을 반 층 올라가니 창문앞의 재떨이와 세개의 바체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 중 한 의자는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는지 먼지가 하얗게 쌓여 있었다. 마저 한 층을 올라서니 가게의 간판이 보인다. 비밀기지. 핸드폰을 들어 시계를 확인한 나는 아직 이른 시간임에 걱정했지만 다행히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엇, 손님 아직 오픈시간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밤 여덟시 이후에 다시 오시겠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바텐더는 바 안쪽에서 부스럭거리며 말했다.

“재용아 오랜만이야.”

내 목소리를 듣고 난 뒤 그는 뒤를 돌아 나를 바라봤다.

“뭐야, 너였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이 시간에 어쩐일이야?”

“어쩐일은 술마시러 왔지. 나 한 잔 센걸로 주라. 도수 높여서.”

“아직 오픈 안했다는 말은 컷등으로도 안듣지?”

“암전히 마시고 있을게 한 잔 만 주라!”

재용이는 내 말에 황당하단 표정을 지으며 진열되어 있던 호세쿠엘보를 꺼냈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들어 먼지를 닦은 뒤 제빙기에서 얼음을 꺼내 잔에 담은 뒤 술을 따라 나에게 내밀었다.

“언더락이다. 안주는 못해주고 각테일은 귀찮으니까 일단 술이라도 좀 마시고 있어.”

“고마워. 오픈 준비 빨리 해봐 나 심심하단 말야.”

“거의 다 했어 조금만 있어봐.”

재용이는 그렇게 말하며 주문한 술이 맞게 왔는지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얼음이 녹아 조금 약해진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알싸한 알코올이 목을 지나 가슴으로 내려가는게 느껴진다. 들어간 술이 몸을 덥혀주자 열기를 느낀 나는 코트를 벗어 옆 의자에 걸쳐두었다.

잔을 들고 얼음을 녹이려 휘휘 돌리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평상시엔 깜깜했을 가게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지 조명이 밝게 켜져있다. 실내는 그리 넓지 않았다. 바 앞에는 여섯개의 바체어가 놓여있었고 바 뒤에는 술들이 진열되어 있는 찬장이 있다. 바의 오른쪽에는 방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곳은 잠을 자거나 안주를 요리하는 공간이다. 바의 왼쪽에는 내부를 볼 수 없는 냉장고와 제빙기가 붙어있었다.

“어느 순간을 바꿀건지 정했어?”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타는 듯한 갈증이 느껴졌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짐을 느끼며 남은 술을 한번에 들이켰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잔에 남아있는 얼음을 씹었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나는 잔을 노려봤다. 모자라다. 너무 모자라다.

“이거 한 병 주라.”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려 할 때 나의 목소리였음을 깨달았다. 무의식적으로 새어나온 말에 당황한 나는 고개를 들어 재용이를 바라보았다. 재용이는 나를 속 보더니 무덤덤하게 말했다.

“120,000원 입니다. 손님.”

“예예. 주세요 저 돈 많아요.”

재웅이는 찬장에서 호세쿠엘보 병을 꺼내 뚜껑을 연 뒤 포우러를 병 주둥이에 꽂아 내 앞에 두었다. 그 뒤 고무매트를 깔고 일반적인 샷 잔 보다 조금 더 긴 더블 샷 잔 두 개와 사이다를 올려뒀다.

“이거는 언더락보다 슬래머로 마시는게 더 좋아. 술 4 사이다 4 공기 2 비율로 따르고 나서.”

술과 사이다를 잔에 따른 뒤 입구를 휴지로 막고 매트위로 세계 내려쳤다. 쿵!

“이렇게 치면 기포가 생겨 그리고 바로 마시면 돼.”

재웅이가 내게 잔을 건네자마자 곧장 마셔버렸다. 그는 내 앞에 앉아 잔을 닦기 시작했다. 갈증이 조금 해소됨을 느끼며 나는 술을 따르는 방식을 흉내내어 잔을 채웠다. 그런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쿵! 잔을 내려치고 마시자 재웅이는 말을 걸었다.

“그래 이번엔 무슨 일이야?”

“정말 아무일도 아니라니까, 있잖아 가끔. 술이 땡기는 날. 그런 날인거지. 아 맛다. 야. 너는 네 삶의 한 순간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거야?”

재웅이는 나를 바라보다 잔을 닦는 걸 멈추고 턱을 만지기 시작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는 주머니를 뒤지더니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한 모금을 깊게 뺐 뒤 흠여지는 연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나는 안 바꿀 거 같아. 바꾸고 싶은 생각은 별로 들지 않네.”

“정말? 그럼 너는 후회되는 순간이 없었던거야?”

“후회되는 순간들……. 많지 근데 그 순간에 선택을 한 건 나잖아. 내가 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하는거고. 그리고 그게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된거고.”

담배를 반쯤 피운 그는 내 잔에 술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순간을 바꾼다고 치자, 바꾸게 되면 바꾸기 전보다 나아질 거라는 확증이 있을까? 나는 없다고 봐.”

쿵! 빈 잔을 채운 뒤 답했다.

“확증은 아닌데 몬티 홀 문제 있잖아. 세계의 문 중 하나를 고르는데 셋 중 하나의 문에만 상품이 있는 거. 선택을 하고 나면 상황을 알고 있는 사회자가 나머지 두 개의 문 중에 오답인 문을 열고, 열리지 않은 문을 두고 다시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거. 바꾸는게 유리하잖아. 그거랑 비슷한 상황같아서.”

쿵! 재웅이는 재떨이에 담배를 지저 끈 뒤 잔을 채워주었다.

“그러네 바꾸면 더 나아질 확률이 높긴 하겠다. 근데 그래도 난 안바꿀 것 같아. 난 지금 선택이 마음에 들거든. 지나간 건 지나간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노래가사도 있잖아. 배고프다 뭐 먹을래? 밥은 내가 살게.”

#### 4.

식사를 마치자 병에 있는 술은 거의 남지 않았다. 내가 술을 빨리 마신 탓도 있지만 밥을 먹으니 자기도 한 잔 하고 싶다며 재웅이도 같이 술을 마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알뜰알뜰한 상태로 먹은걸 정리했다. 8시가 다 되었다. 재웅이는 가게의 불을 끄고 구석구석에 있는 은은한 조명들과 다트기계를 켜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초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담배를 입에 문 채 고개를 기울여 불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 모습이 꽤 멋스러워 보였다.

“이거 향초야, 아로마 향인데 맘을 좀 편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나는 멍하니 일렁거리는 촛불을 쳐다봤다. 달뜬 숨을 내뿜을 때마다 일렁거리는 촛불이 위태로워서 더 크게 숨을 쉬었지만 꺼지지는 않았다. 초의 향기와 담배냄새가 섞이며 오묘한 냄새가 되었지만 그리 싫지는 않았다.

“너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진 알겠는데, 나는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시간도 많이 흘렀잖아.”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을 두드리던 재웅이는 조금 무뎠진 발음이었다.

“나도 그러고 싶다. 근데 잘 안돼. 아직도 너무 힘드네.”

“불이 난게 네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철이가 죽은 건 더더욱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운이 없었던거지…….”

황! 잔을 내리쳐 재웅이의 말을 끊은 뒤 마지막 잔을 마셨다.

“오늘 좀 받는 날이네, 한 병 더 마시자.”

재웅이는 말없이 새 병을 꺼내왔다.

“이건 내가 살 테니까 안주나 제일 비싼거로 하나 사. 같이 마시자.”

“그래, 나 담배 하나만 주라.”

재웅이는 품속에서 담배곽을 꺼냈다. 담배를 꺼내고 내게 넘겨준 뒤 방으로 들어가 달그락거리며 안주를 준비했다.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물끄러미 쳐다보다 재웅이의 행동을 따라서 촛불로 불을 붙였다. 한 모금 빨고 나니 머릿속이 멍해졌다. 들리지 않았던 가게의 노래가 들려왔다.

*‘난 너 대신 흉터를 가진 모든이들에게 존경을*

*이겨낸 이에겐 축복을’*

5.

나와 재웅이와 성철이는 유년시절부터 친구였다. 어떻게 친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동네친구. 언제나 함께 했었고 그것이 당연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서로 가는 길이 달라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그런 우리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다. 20살이 되는 1월 1일에 함께 여행을 가자는 약속.

12월 31일이 되었지만 우린 술집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잠에 들었다. 다음날 떠날 여행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또 다른 친구 세명을 포함해 총 여섯명에서 가평으로 출발했다.

너무나 행복한 하루였다. 게임을 준비해서 오후엔 게임을 하고 낮잠을 좀 잔 뒤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우며 술을 먹기 시작했다.

바비큐 장은 밀폐된 형태였다. 바닥은 나무바닥이었고 벽면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은 역새로 덮여져 있었다. 출입문은 별도의 비상구가 없이 하나였다.

삼겹살을 준비해 간 우리는 고기를 굽는데 꽤나 고생을 했다. 삼겹살은 기름이 많아 불길에 계속 치솟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도중 크게 불이 번졌고, 내가 불을 끄겠다고 물을 붓는 순간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그 불은 천장으로 옮겨붙었고 순식간에 실내는 불길과 연기로 가득찼다. 다들 허둥대며 나가려고 했고 나도 출구를 찾으려 애썼다. 그 와중 의자가 쓰러지며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애써 무시하고 밖으로 향했다. 모두 빠져나왔지만 건물이 무너질 때 까지 성철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6.

재웅이는 나초와 과일, 마른 오징어가 가득 담긴 접시와 술병을 들고왔다.

“왜 멍때리고 있냐, 지인찬스로 특별히 넉넉하게 담았다.”

“그래, 고맙다.”

나는 오징어 다리를 먹음직스럽게 잘라 간장과 마요네즈 그리고 청양고추가 섞인 소스에 찍어 한 입 베어물었다.

“잠깐 옛날 생각 했어. 담배 하나 더 줘봐.”

재웅이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넘겨주었다. 나는 담배를 물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오늘대로 오른 술기운에 나는 결심을 하고 촛불에 불을 붙인 뒤 말을 꺼냈다.

“재웅아 그때 나, 그때는 나 살자고 도망쳤었어. 당시엔 지금 살아야지. 살고싶다. 죽기 싫다. 이런 단편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성철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나봐.”

재웅이는 말없이 담배를 꺼내 피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런 재웅이를 보며 계속 얘기했다.

“사람이 참 이기적이야 그치? 내가 살고 나니까. 살았다는 안도감이 드니까 불 속에 있을 성철이 생각이 나는거야. 역겹더라. 내 이중성이, 내가 너무 밉더라. 한참을 집에만 있었어. 그러다 문득 성철이 부모님이 생각나더라. 아마 죄책감이었을거야. 그래서 찾아갔어.”

나는 깊게 담배를 빨 뒤 한숨 섞인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말을 이었다.

“제멋대로 자란 머리와 수업을 정리하고 깔끔한 옷을 챙겨 입고 나서 개네 집 앞으로 찾아갔어. 동네도 집도 하나도 변한게 없더라.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 변한게 없는게, 내 세상은 너무나 달라졌는데 변한게 하나도 없다니 내가 이상해진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거야.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였어. 막상 문 앞에 서니까 무슨 말을 해야할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머릿속이 하얘졌어. 무섭고 막막하더라.”

황! 담배를 빨고 술을 따르며 우는듯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러다가 초인종을 눌렀어. 무슨 용기였는지 몰라. 아마 뺨이라도 맞고 조금은 후련해질 거라고 생각했나봐.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셨는데 정말 야위셨더라. 나를 바라보시고 몸을 흠뻑 떠시는 어머니를 보고 한 대 맞을 생각에 나도 떨며 시선을 바닥으로 깔았어. 그런데 어머니가 날 안아주시더라. 나라도 살아서 다행이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마나 힘들었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시는거야.”

멈추고 싶었지만 터져버린 독처럼 나는 말을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차라리 같이 죽을걸 그랬어. 나 살자고 성철이를 버리는게 아니었는데.”

나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그런 내 어깨에 손을 올린 뒤 재웅이는 토닥거렸다.

“네 잘못이 아니야 친구야. 오늘은 많이 취했으니까 들어가는게 좋겠다.”

몸에 닿는 온기가 따뜻해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다.

7.

비틀대며 집으로 향했다. 술기운이 올라 바닥이 쿠션처럼 부드러웠다. 그때 잊고있었던 녀석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래서 돌아갈 순간은 정했고?”

## 발목 유령

인문학부  
20201025 김주영

집 안은 캄캄하고 바닥에서는 사람의 온기를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조금 춥다고 느끼면서 주방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반찬거리가, 그 위에는 비닐 랩이, 또 그 위에는 메모지가 붙여져 있었다.

### 챙겨 먹어

아빠의 글씨체였다. 아빠의 요리 솜씨가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와 나는 그의 요리를 꽤 좋아했다. 찬 거리 중 하나로 올라와 있었던 장조림은 아빠의 장기였다. 예전부터 아빠가 장조림을 해 놓으면 이틀을 채 못 갔다. 민우는 장조림의 메추리알을 좋아했고 나는 그 옆 얇은 고기를 좋아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음식을 놓고 으름장을 피워가며 싸운 적이 없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을 아낌없이 좋아하니 시간만 흘렀을 뿐이다. 밥을 꼼꼼히 먹고 그릇을 치우니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우는 종종 우리 집에 왔다. 올 때마다 덩치가 자라서 오는 것을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은 나름 적응되었다. 변성기가 온 민우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들고 있던 컵을 내던졌다가 엄마에게 혼난 적도 있었다. 그의 몸이 커져서 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목소리가 낮아져서 나를 보러 왔을 때는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게 이 말이구나 싶었다. 민우한테도 변성기가 오는 건 몰랐단 말이야. 귀신이 무슨 변성기야. 차마 이 말을 부모님 앞에서, 민우 앞에서 변명이랍시고 할 수가 없었다. 부모님 앞에서는 민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 왔고, 민우 앞에서 ‘귀신’이니 ‘유령’ 같은 말들은 일절 금하고 있었다. 나만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는데 민우도 아마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 민우의 부재를 그의 앞에서 꺼내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

민우는 그날 제시간에 하교하지 않았다. 당시 초등학생들은 ‘오 마이 슈즈(Oh! My shoes!)’라는 컴퓨터 게임에 미쳐 있었는데, 민우와 나도 그 초등학생 중 하나였다. 민우가 특히 그 게임에 집착했는데, 열게 떠오르는 기억을 더듬어보자면 민우는 그 게임 주인공의 스킬을 좋아했었다. 어느 때와 같이 게임에 미쳐 있던 민우는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나, 갈 거야.”

“윤민우. 빨리 짐 챙겨. 이제 과학이야.”

그다음에 과학 시간이었던 것도 기억이 난다. 과학실에 갈 준비를 마친 나와 달리 민우는 집에 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담임선생님께 피병을 부리고 집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하겠다는 원대한 희망을 끈 민우는 나에게 인사를 했다. 평소 부끄러움이 많던 애인데 그럴 때만큼은 쥐구멍에서 자신감이라도 사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 먼저 갈게. 이따가 봐.”

바빠 뛰어가는 민우를 뒤에서 불러 보았자 속수무책이었다. 그 순간이 영화였다면 내가 민우를 세 번 부르고, 민우와 내가 집에서 게임을 하는 장면으로 전환되었어야 했다. 하지

만 실상은 영화 같지 못했고 덕택에 나는 지루한 과학 시간을 쓸쓸하게 보내야 했다. 나를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과학 시간이 끝나고 반에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에 낙서해 놓았다. 윤민우 바보. 레벨 업 평생 하지 마. 하교할 때쯤에는 민우가 미운 것도 잊어버리곤 그의 책상에 괜한 낙서를 한 건가 따위를 걱정했다. 그 없이 혼자 집에 가자니 평소보다 배로 외로웠지만 실내화 주머니를 무릎으로 치면서 건자 어느새 집 앞이었다. 민우는 몇 레벨까지 갔을까 같은 것을 생각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은 내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도 조용했다. 민우가 게임을 할 때마다 부르는 게임 배경 음악도 크게 소리치는 민우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 안은 뭐 죽은 듯 조용했다. 이유 모를 섬찟함을 무시하면서 민우를 찾기 시작했다.

“민우야. 민우야. 어디 갔어.”

민우는 집에 없었다. 문구점에 갔나? 민우가 요즘 심심풀이로 문구점 앞 뽑기 기계를 자주 건드리고 있던 모습이 생각나 문구점에 가려 신발을 신었다. 신발을 신는데 현관문이 열렸고, 땀에 흠뻑 젖어 있는 엄마와 맞닥뜨렸다. 엄마가 땀에만 젖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눈가를 보고 알았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음주운전이었다. 내 예상대로 민우는 문구점 뽑기 기계를 하러 갔었다. 가는 길에 트럭에 밀려 3미터 가량 날아갔고 트럭 운전사는 사람을 치고도 그게 사람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다. 그게 사람이 아니어도 내려서 상황을 봐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아저씨였다. 경찰서에서 만난 아저씨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은 그때의 어린 나도 알 수 있었다. 아저씨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교도소에서 민우의 나이보다 적은 수의 해를 살다 나왔다. 술이 민우를 죽였나. 아저씨가 민우를 죽였나. 더 이상 분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엄마는 그때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술을 마실 때마다 나는 민우 생각이 꽤 고통스러웠던 모양이다. 나는 그때부터 집 안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갔다. 어떻게든 민우 이름을 꺼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노력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결국 그날 어기고 말았다. 그날은 민우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돌아’온 날이었다.

“민우야?”

3년 지나 변한 얼굴이었지만 그 대상이 동생인 윤민우라면, 그를 몰라볼 수는 없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 민우가 있었다. 민우는 거실 바닥에 구부정하게 앉아 소파에 누워 있는 엄마를 보고 있었다. 엄마는 내가 민우를 부르는 것에 놀라 몸을 일으켜 나를 쳐다보았다.

“민우라고?”

엄마는 종종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감정이 실 뭉텅이처럼 섞여 나뒹굴고 있었다. 내가 민우를 부른 것은, 고양이가 그 실 뭉텅이를 가지고 놀 듯 엄마의 눈동자 속 실을 이리저리 풀어 헤쳐 버렸다. 엄마는 내가 민우를 부른 것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울기만 했다. 그저 어찌다 들은 이름이 너무 오랜만이 라운 것처럼. 그렇게 울면서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그래서 나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이거 버리라고 해도 왜 안 버리시는 거야. 너 이번에도 말해 봤어?’

민우가 현관문을 나서는 날 배웅하다 신발장에 있는 그의 어릴 적 신발을 보면서 말했다. 그 신발은 민우의 ‘그저 어릴 적 신발’ 한 켤레에 그치는 것 따위가 아니었다. 민우가 차에 밀려 날아갈 때 그의 발에 신겨 있던 신이었다. 그리고 민우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신

발이었다.

“아니.”

‘왜? 내가 매번 말하잖아. 이것 좀 버리라고.’

“엄마랑 아빠는 그 신발로 널 기억하시는 거야.”

민우는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않냐고 말하고 싶었던 건지 입을 움짱달짝 움직였지만 차마 말을 이루진 못했다. 민우의 마지막 신발은 초록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작은 운동화였다. 신발은 고동색 신발장 위에서 12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 왔다. 나도 나갈 때마다 그 신발을 보곤 한다. 어제는 나가기 전에 민우의 신발과 내 손을 비교해보았다. 내 손의 반을 차지할까, 신발은 이미 너무 작아져 있었다. 내 손보다도 작은 걸 민우가 신고 다닌 적이 있었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신발을 계속 만져보았다.

사실 앞선 대화는 처음 오고 간 대화는 아니다. 민우는 3년의 간격을 두고 우리 집에 왔다. 한 번 집에 오면 일주일 동안은 나가질 않았다. 집에 있지 않을 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 지 알 수 없었다. 몇 번이고 물어봤지만, 딱히 하는 일은 없다고 얼버무렸다. 어느 날은 내가 나가는 그를 배웅해 주었더니 ‘호강스하고 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민우는 내가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배웅해주곤 했다. 민우가 오는 주는 있던 약속을 다 취소하는 편이지만 불가피한 상황들이 몇몇 있었다. 그리고 민우는 배웅해 줄 때마다 신발장 위 자신의 신발을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대화는 3년마다 하는 대화였다. 3년에 한 번꼴로 만나는 것이었지만 일 년에 2번 보는 친척들보다 더 말이 잘 통하고 친했다. 어느 날은 이 말을 하자 너랑 내가 쌍둥이인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민우가 길길이 화를 냈다.

귀신이 되어서 온 민우는 발이 없었다. 발목까지는 형태가 있었지만 발은 모래바람처럼 형체가 희미했다. 민우는 우리가 자신의 신발을 태우지 않아 그의 발이 몸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 발이 돌아오지 전까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어안이 병병한 나에게 말했다. 민우의 발을 돌려줄 수 있는 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었다. 엄마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그의 신발을 태울 수 있는 것도 나만이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에게 차마 그 신발을 태우자고 말하며, 그 이유를 ‘신발이 있어서 민우가 발 없는 귀신으로 다닌다.’라고 들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작아진 운동화는 쓸 일이 없어졌지만, 우리 집 사람 중 누구도 그 운동화를 함부로 치울 수 없었다. 민우의 운동화는 작아진 운동화인가, 작은 운동화인가.

\*

보편적인 존재가 더는 보편적이지 않은 세상이 되었기에 가정집은 모두 왓자지껄 화목하다는 생각도 예전 것이다. 우리 집은 앞집과 비교했을 때 조용한 편이었다. 102호에는 결혼 1년 차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혼부부 집은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데 앞집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집이었다. 욕과 고함이 떠다니고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잦았고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날도 적지 않았다. 그 앞집을 보면서 서로 생각한 것이 많았던 건지 그들이 이사 온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소리 높여 말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집에 얼마 전부터 한 고민거리가 생겼다.

“가족사진이 필요할 것 같아.”

엄마는 깍지 낀 자신의 손을 노려보며 말했다. 두 엄지손가락이 번갈아 가며 천장을 향해

폼지락대는 걸 엄마는 그저 보고만 있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엄마. 우리들의 가족사진은 엄연히 말하자면 ‘있는 것’이었다. 그 사진을 찍은 시기가 오래되긴 했지만, 다시 찍을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못나진 않다고 생각해왔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진 안에 민우가 있다는 것이었다. ‘민우가 찍힌 마지막 가족사진인데 이 사진보다 완벽한 가족사진은 더는 우리 집에서 나올 수 없다.’ 가족사진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공통되게 내리는 결론이었다. 그래서 가족사진을 찍었다는 지인들의 말을 들을 때도 조바심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는데, 내 팔을 잡고 굳건하게 말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조바심이 들었다.

“가족사진?”

“응. 우리 가족 사진이 없어.”

“9년인가, 전에 찍은 거 하나 있잖아.”

아빠도 옆에서 거들었다. 2대 1로 열세인 상황이었지만 엄마는 물려서지 않았다.

“우리 셋이 찍은 사진은 없잖아.”

문장 안에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아빠와 나는 엄마의 말에서 민우의 부재를 느꼈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다. 엄마는 민우의 존재를 잊고 싶은 걸까. 아니면 세 식구로서의 삶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 걸까. 둘 중 어느 쪽일까. 혹은 어느 쪽에도 들지 않는 걸까. 민우 생각에 술도 한 잔 못 걸치는 사람이 가족사진을 세 명이서 찍자고 하다니. 나도 감히 할 수 없던 생각이었다. 생각이 생각을 거칠수록 과한 해석만 늘어나 갔다. 이럴 땐 정명승부 해야 한다고, 언젠가 민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간 끝도 없을 거야. 엄마한테 무슨 뜻이냐고, 지금이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어.

\*

‘그래서, 못 물어봤다고?’

“그럼 어떡해. 그 상황에서 엄마가 들어가신걸.”

엄마는 내가 물어보려고 입을 떼는 순간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엄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아빠는 놀라 엄마를 따라 방에 들어갔다. 엄마도 힘든 가족사진 찍기를 왜 하는 걸까. 울면서까지 찍겠다는 엄마의 심리를 나는 그날 밤을 새서 생각해보았지만 짐작조차 해낼 수가 없었다.

“나 진짜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엄마는 왜 그러시는 거고?”

‘날 잊으려고 하시는 건가?’

“윤 씨 가문 여자들은 나한테 왜들 이러는 거야?”

민우는 웃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 어깨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안마인지, 토닥임인지. 무게가 전해지진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순수하게 잘 전달된 기분이 들어 웃음이 나왔다. 한껏 울상이었던 내 얼굴이 풀어지자 민우도 안심한 듯 본격적으로 나를 위로했다.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 잊으려고 찍는 건 아니실 거야.’

“그건 당연하지. 엄마 너 못 잊어.”

\*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책상 위를 더듬거리며 형광등을 찾았다. 불을 키고 자리에 앉자 눈부심이 심해 눈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반쯤 뜨고선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고 연필을 깎았다. 눈부심이 익숙해지고 나서야 나는 엄마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다.

… 그러니까 이제 엄마 우리 민우 신발 태우자. 민우가 3년마다 내 꿈에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신발 얘기를 해. 이제 그만 태우고 자기 보내 달래. 자기 몸은 다 태웠는데 신발은 왜 태우질 못하냐고, 신발을 태워야지 자기가 꿈에 안 나온다니 뭐라나... 그리고 자기 생일만 되면 자기 신발 꺼안고 우는 거 그만하래. 기껏 생일선물로 받은 거 눈물로 세탁하게 생겼다고 그만하라고. 민우가 엄마랑 아빠 정말 사랑한다고도 했어. 그리고 미안하대. 민우는 그날 자기가 피병 부리지 않고 학교에서 수업 잘 들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책하고 있어. 물론 개가 반성해야 할 부분은 맞지만, 어쨌든. 말 잘 안 들은 거 미안하다더라. 엄마가 자기 장례식 보게 한 것도 미안하고, 엄마 손으로 자기 사망 신고서 쓰게 한 것도 미안하대. 그 날 괜히 의미 있는 신발 신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울더라고. 꿈치고는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네. 민우가 3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하는 말이라 잊을 수가 없더라고 …

다 쓴 편지를 신발장 위 민우의 신발 밑에 두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가 깜빡 잠에 들었다. 잠에 든 지 한 시간쯤 되었을 때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깬다. 엄마가 전화를 하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신발을 벗다 편지를 보고서는 전화를 미뤘다. 그대로 현관에서 편지를 읽었는지 흐느낌이 현관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엄마는 내 방으로 걸어와 내가 쓴 편지를 방문 틈 밑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들어온 편지 위 눈물자국을 보다 나는 다시 잠을 잤다.

\*

신발장 서랍을 열자 박스테이프와 줄자 같은 것들이 보였다. 조금 헤집어 놓자 분홍색 라이터가 나왔다. 라이터를 마지막으로 챙기고 마을버스에 올랐다. 버스를 타고 40분 정도 가면 한 마을이 나온다. 그 마을 가장자리에는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장에는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기름통이 이곳저곳 있었다. 기름통 안에는 탄 종이들이 돌돌 말려 있었다. 신발에 불을 붙이면 잘 타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집에서 이면지를 몇 장 챙겨 왔는데 잘한 일인 듯싶었다. 민우의 신발은 그가 어릴 적 가지고 다니던 신발주머니 안에 있었다. 팔을 교차로 해서 신발주머니를 안고 있으니 그의 신발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다. 어제 민우에게 신발을 태우겠다고 한 후 그 이후의 일을 떠올렸다.

“민우야. 나 내일 신발 태우려고.”

‘드디어 태우는구나. 어지간히도 안 보내주더니.’

“너도 돌아갈 곳은 있어야지. 그동안 잡아둬서 미안해.”

‘미안해할 것까진 없고.’

이후 민우와 몇 마디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다시 잠들었다. 민우는 마지막 갈 길이 아쉬웠는

지 내 꿈에까지 나와 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보리야. 계속 나를 생각해. 항상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끔은 내 생각에 그리워 우는 건 괜찮은데 다른 슬픈 생각에 울 때 나를 얹어 울지는 마. 이해했어? 다른 슬픈 생각할 때 검사겸사 내 생각해서 울지 말라고. 그거 나에 대한 예의 아니야. 너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진짜 때려주고 싶어. 난 네가 울 때마다 널 지켜보고 있어. 네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도 알고, 우는 동안 무슨 생각 하는 지도 다 알아. 감출 생각 마. 신발을 태우면 이제는 정말로 내가 없겠지만, 내가 없더라도 그러지 마. 이것만 약속해줘.’

‘알겠어. 약속할게. 할 말은 그것 말고 없어?’

‘응. 이 정도면 됐어.’

‘더 해도 괜찮아, 민우야.’

‘진짜 괜찮아. 이제 태워.’

이면지에 불을 붙이고 기름통 안에 집어넣는다. 불길은 쉽게 올랐고 나는 그 안에 민우의 신발주머니를 넣었다. 불은 야금야금 신발주머니를 먹어대더니 어느새 그와 한 몸이 되었다. 신발주머니가 타자 신발이 보였다. 신발을 보고 있으니 불길에 나오는 연기 때문에 눈이 시려 눈물이 나왔다. 그대로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눈을 깜빡였다. 불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턱에 맺혀 기름통 안으로 떨어지고 나는 그 떨어지는 물방울들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가는 곳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자 어느새 신발은 다 타고 불길만이 남았다. 민우의 생각을 하려니, 그녀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었다. 민우가 보고 싶어졌다.

집에 돌아오자 엄마와 아빠가 거실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찍으면 역광이라서 … 몸을 반대로 틀어봐.”

둘이 자리를 바꿔가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아빠와 눈이 마주쳤다.

“보리야. 이리 와. 가족사진 찍게.”

“가족사진?”

가족사진은 사진관에서 찍는 줄 알았는데. 굳이 그럴 것까진 없다고 해서. 그냥 집에서 찍고 인화해서 앨범에 붙여 넣자고 하더라. 엄마가? 응.

엄마의 바람대로 사진은 거실에서 찍었다. 거실에 카메라 삼각대를 놓고 찍은 사진은 우리의 우려보다 잘 나왔다. 엄마와 아빠 모두 은은하게 웃고 있는데 나 혼자 그 중간에서 빨갛게 충혈된 눈을 숨기려 과장해서 웃었더니 행복에 겨워 웃는 가족사진이 탄생했다. 인화한 사진을 들고 엄마는 어디서 사 온 액자에 끼워 넣었다. 새로 사 온 액자라 그런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한 것이 사진과 어울렸다. 그 액자는 신발장 위, 그 전에 민우의 신발이 놓여 있던 자리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액자 옆엔 민우의 단독사진이 끼여 있는 액자가 새로 놓였다. 민우는 과장해서 웃은 나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액자가 사이좋게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제야 제대로 된 웃음이 나왔다. 내 휴대폰을 꺼내 들어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고 민우의

액자를 들었다. 유치원 체육대회 때 찍은 사진이었다. 그 당시 민우는 병아리 반 계주로 뽑혔고, 뽑힌 게 그렇게도 좋았는지 날마다 연습하더니 결국 1등 트로피까지 거머쥐게 되었다. 그때 찍은 민우의 단독 사진이었다. 트로피를 끌어안고 매우 좋아하던 민우를 보자 나까지 벅차 올라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난다.

엄마는 사진을 찍고 나서야 후련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신발을 태워 민우를 보내준 것처럼 엄마도 가족사진을 찍음으로써 민우를 보내준 것이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였다. 엄마는 더 이상 민우의 사진을 보고 울지 않았고 민우와 닮은 아이가 길을 지나가다 보이면 그 아이와 눈을 마주쳐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얼마 전 내 생일날엔 함께 밥을 먹다 술 한 잔 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나를 놀라게 했다. 가족사진을 찍은 날을 기준으로 우리 집에는 미지근한 기운이 돌았다. 기운이 옆집에도 옮겨 갔는지 현관문 너머로 더 이상 물건이 날아 오가거나 욕설이 들리는 일은 없어졌다. 나는 여전히 아빠가 해주는 장조림을 좋아했고 그 장조림을 볼 때마다 민우가 떠오르긴 했지만, 그 기억에 울지는 않게 되었다. 울지 않는 대신 그녀의 생각을 하는 때가 잦아지고 그녀의 생각에 웃음 짓는 날도 적지 않게 생겼다.

## 소녀와 신\_ 모든 것의 시작 - 프롤로그

미디어스쿨  
20202522 문시현

그 날은 다른 날들처럼 평범한 날이었다.  
아니, 그럴 줄 알았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다른 생물체들은 다른 모든 생명체와 인간과 전부 다 공생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데,  
왜 몬스터들은 인간과는 공생하지 않고 인간을 죽이기에 바쁜 걸까?  
마치... 그것만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지 않아?

- 모든 것을 계획한 하나인 리저루일 -

### [프롤로그 1]

리저루일은 8살치고는 탄탄한 체구를 가지고 있으며 귀여운 얼굴을 가진 어린아이였다.

리저루일의 부모님은 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 소도시 주변에 출몰하는 몬스터들을 토벌하고 몬스터를 해체해서 팔아넘기거나 해부해서 실험하는 사냥꾼이었다.

리저루일이 사는 1000명 정도가 사는 소도시에는 많아봤자 2명의 사냥꾼만이 있을 정도로 사냥꾼이라는 존재는 아무나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해 빠진 직업은 결코 아니었다.

물론, 사냥꾼이라는 이름은 리저루일만의 호칭일 뿐이었고, 공식적으로는 ‘불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리저루일의 부모님은 국가에서도 손에 꼽히는 불꾼으로 불가람이라고 불리면서 리저루일이 사는 변방의 끝자락에서 강력한 몬스터를 상대하시면서 소도시를 지키시는 분들이었다.

저택 입구에서 내 배웅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였다.

“또 다녀오시는 거예요?”

난 입을 쪽 내밀고 아빠를 째려봤다.

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럼~ 또 우리 성을 지키러 가야 하지 않겠니?”

아빠가 없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어머니가 한 손으로 내 양 볼을 잡아서 입이 모여서 튀어나오게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이틀이면 오니까~ 저번처럼 또 검술교관님께 가고 싶다고 칭얼대지 말고!”

나는 조용히 시선을 피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투덜거렸다.

“....”

“대답?”

“네...”

철거덕 철거덕

30살 정도의 금속 중 갑옷을 입은 짧은 검술교관이 가방과 무기들을 챙겨가지고 부모님에게  
다가가서 쳐다보더니 눈살을 찌푸리셨다.

“주인님... 또 가죽 갑옷입니까?”

최전방에 나가시는데 대련하는 것처럼 나가는 사람은 정말로 주인님밖에  
없으실 겁니다!”

가방과 무기들을 부모님에게 건네주면서 검술교관은 투덜거렸다.

검술교관은 자신의 가방에서 중 갑옷을 꺼내더니 비장한 얼굴로 아버지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오늘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마법도 입혀서 입기도 가볍고 탄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의 명작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이라도 제발... 입으세요”

아버지가 세상 단호한 표정으로 검술교관 루이스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항상 걱정해주는 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루이스.  
너무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네.”

아버지가 등 뒤의 대도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자네는 너무 걱정이 많아서 문제야...”

아버지가 멋지게 웃으면서 말씀하셨다.

“내게 금속으로 된 병장기는 이 칼만으로도 벅차~”

검술교관 루이스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마님 제발, 설득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눈길을 슬쩍 돌리면서 헛기침을 하셨다.  
“크흠...”

검술교관 루이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아...”

“그러다가 돌아가셔도 전 모릅니다”  
루이스가 작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하게 투덜거렸다.

부모님께서서는 하루 이틀 일도 아니라는 듯이 못 들은 척하셨다.

어디선가 본 장면 같았다.  
마치 대자뷰 같달까?

뭔가 오늘 따라 평소보다 더욱 불안한 느낌이 더욱 많이 들었다.

물론 내가 무슨 말은 한다고 해도 부모님은 가실 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은 정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울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난 불안한 눈빛으로 부모님에게 재차 질문했다.  
“정말로 이틀이면 오시는 거죠?”

“이번에는 늦지는 않으시는 거죠?”

“이번에도 살아서 오시는 거죠?”

엄마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불안하니?”

나는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다.

“네, 불안해요!”

“연락이 끊길 때마다 불안하고 혼자가 될 것 같고 루이스가 계속 말해줘도 불안하고...  
그리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앞에 뿌옇게 되고 당장이라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것처럼  
눈물이 맺혔고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울먹였다.

“그렇게나 불안하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 눈에서 눈물이 계속계속 떨어졌다.  
눈물이 나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네...”

뿌연 내 시야에 뭔가가 앞에 온 것이 보였다.

난 오른손등으로 눈을 비벼 눈물을 닦고, 코를 훌쩍이면서 말했다.

“뭐예요?”

오른쪽엔 온갖 상처로 뒤덮인 아버지의 두툼한 손이,  
왼쪽에는 딱딱한 굳은살이 가득한 어머니의 작은 손이 물건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소의 아버지답지 않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너한테 주는 선물이란다.”

아버지의 손에는 화려한 치장 하나 없는 여단을 수 있는 팬던트가  
어머니의 손에는 두툼한 책 한 권이 들려있었다.

나는 팬던트와 책을 받아들었다.

자그마한 팬던트 안에는 보통종이와는 다른 것 같은 맨질맨질한 가족사진이 있었고,  
휘청거릴 정도로 크고 무거운 책 안에는 많은 메모가 붙어있었다.

내가 넘어질까 봐 걱정되었는지 루이스가 달려왔지만,  
가까스로 책을 들 수 있었다.

내게서 책을 받아 들은 루이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부모님께 말했다.

“정말… 쥐도 갠찮은 겁니까? 아니… 정말 드리는 겁니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루이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결정하셨군요.”

루이스는 긴 시간 후에 무거운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다.

“무운(武運)을 빌겠습니다.”

“안전히 기다리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부모님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잊지 않는다… 무엇을 잊지 않는다는 것일까?’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어머니가 밝은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네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부모님께 큰 소리로 말했다.  
“잘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버지는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면서 손을 흔드셨다.

그렇게 집에는 하인들과 나 그리고 루이스만이 남게 되었다.

나는 부모님과 루이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난 부모님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제까지 잘 돌아오셨으니까  
이번에도 안전하게 돌아오실거라고 생각했다.

루이스와 나는 저택 입구에서 멀어지는 부모님을 한동안 쳐다보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나는 루이스에게 문득 고마움을 느꼈다.

부모님이 집에 잘 들어오시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루이스는 나를 부모님을 대신해서 돌봐주고 놀아주고 검술을 가르쳐 주었다.

루이스와 내 나이 차이가 무려 22살 차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루이스는 부모님만큼, 아니 부모님보다 내 인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루이스와 내가 남겨졌다.

“어서 가지죠, 도련님.”  
평소와 다른 루이스의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목소리였다.

“도련님?”

“어? 어... 어어 가야지... 어, 가자”

루이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까지 잘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적탐사나 알 수 없는 땅 조사도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루이스는 표정 숨기는 건 정말 못 한다.  
나를 너무 어린애로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난 아직 8살 이여도 몬스터와 싸워봤고, 이제 내 피 보는 건 무섭지 않은  
당당한 나이다.

“흥!”

나는 콧방귀를 끼면서 빠른 걸음으로 루이스를 앞 찌른 다음  
저택으로 달려갔다.

“도련님~”

루이스의 목소리가 멀어졌지만,  
난 쉬지 않고 달려서 저택에 먼저 들어가서 루이스를 기다렸다.

루이스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나를 쫓아왔다.

“헉… 헉… 도련님… 또… 왜 그러신답니까… 아…”

난 입을 삐죽 내밀면서 여전히 루이스를 앞질러서 홀의 중앙 계단을 올라가면서 말했다.

“루이스, 표정관리 너무 못해.

내가 아무리 둔해도 그 정도는 알아낼 수 있어

누구든 루이스가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으면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고.”

숨을 고른 루이스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야 항상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시는데, 그렇게 약한  
가족 갑옷만 입고 가시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죠~”

“흥, 아버지 정도의 실력자들은 가족 갑옷이든 중 갑옷이든  
별 차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다고.”

“오~ 도련님! 기억하시다니… 도련님을 향한 저의 가르침은 헛되지 않았군요~”

루이스가 상당히 감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부담스러운 눈빛이  
느껴졌다.

“마법 장비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당연한 일이지!”

루이스가 올라가는 내 입꼬리를 보고 꺾꺾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물론, 도련님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가람’들이 가지는 좋은 중 갑옷은 가볍고, 탄성력이 있어서  
가족 갑옷과 비슷하죠”

계단을 다 올라가서 방문이 보일 때쯤

루이스가 턱을 매만지면서 말했다.

“도련님의 재능이 이제 꽃피는 걸까요? 요즘 도련님의 실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내일은 새로운 장비를 가르쳐 드려야겠네요~”

나는 신나서 바로 돌아서서 루이스를 보며 말했다.

“정말? 정말!! 정말이지?  
이번에 새 장비를 볼 수 있는 거지!!”

“물론이죠!”

“아. 잠깐만…”

머릿속에 예전에 루이스가 훈련을 너무 싫어하는 나를 훈련 시키기 위해서 새 장비를 볼 수 있다고 말한 다음 포탈을 타고 머나먼 숲속 공터로 데려갔던 것이 기억났다.

“혹시… 또 포탈 같은 거 타려고 하면…”

내가 눈을 얇게 뜨면서 루이스를 올려다보았다.  
루이스가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를 저었다.

“아뇨아뇨 이번엔 진짜로 약속할게요!  
제 명예를 걸고~”

난 의심을 거두지 않고 루이스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걸 명예는 있고?”

“크윽…”

루이스는 고개를 돌리면서 신음했다.

“하아… 도련님을 가끔 보면 마치 8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으쓱이며 말했다.

“다~ 부모님이랑 루이스를 보고 배운거야.”

“제가 몹쓸 걸 가르쳤네요…”

루이스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오랜만에 루이스를 이겨서 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무척 좋아서 절로 콧노래가 나왔다.

“도련님 오늘은 어디서 씻으실 건가요?”

루이스가 피곤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내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말했다.

“글~쎄 오늘은 욕실에서 씻고 싶네?”

루이스의 얼굴이 한 층 더 피곤해진 게 보였다.

“네, 욕탕으로 오세요…”

[루이스 시점]

‘한숨 났다.’

나는 욕탕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도련님의 관심을 어떻게든 주인님들의 안부에서 돌리는데 성공하긴했다.  
아마 얼마 안 가서 다시 궁금해하시겠지…’

‘근데 책을 주셨다는 의미는…’

루이스의 얼굴이 한층 어두워졌다.

‘어쩌면 이 생활도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

‘아마 한동안은 포탈에 들어가서 수련이라도 하면서 숨어있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어쩌면 지금 오고 있을지도 몰라, 아마 그렇다면… 빨라도 새벽…  
정도에는 도착할 것 같은데…’

루이스가 한숨을 쉬면서 짧은 앞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머리띠를 썼다.

‘어쩌면… 마지막이 되려나…’

문득 리저루일 도련님이 한 말이 떠올랐다.

‘걸 명예는 있고?’

‘그래… 명예는… 원래부터 없었지…’

내 명예는 나를 거두어주신 주인님의 도련님을 지키는 게 내 유일한 명예지…’

‘마지막… 그럼 일단 이것부터 먹고…’

그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리저루일(도련님) 시점]

나는 오랜만에 욕탕에 가서 씻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려고 하려고 할 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도련님, 아직 일어나 계시죠?”

루이스였다.

난 장난기가 들어서 조용히 있었다.

루이스가 갑자기 평소답지 않은 굉장히 엄하고 진지한 목소리를 나를 불렀다.

“주무시기 전에 외출복 입고 위층 대련장으로 와주세요.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난 루이스가 새로운 장난을 치는 것인가 생각해봤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분위기가 무겁고 진지했다.

당최 무슨 말을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대련장이라니…

이 밤에 대련이나 하자고 부른 건 아닐 텐데…

옷을 입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해봤을 때,

아마 부모님이 어디에 가시는지 부모님의 행보와 이번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는지 말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련장은 3층으로 되어있는 커다란 저택의 3층의 전부를 대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크기가 무도회장만큼이나 거대하고 웅장했다.

대련장의 벽에는 루이스의 머리에 두 발로 올라서도 손끝도 닿지 않을 만큼 높은 위치에 창문이 있었고, 돌로 되어있는 벽은 딱딱해 보이지만 유연했다.

(루이스와 대련 중에 루이스의 장난으로 잘못해서 전력으로 돌벽에 머리를 부딪쳤지만, 10분 동안 기절해 있을 뿐 머리에 이상이나 후유증은 없었다.)

대련장의 벽에는 다양한 형태와 색을 가진 병장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중 몇 가지는 나도 아는 것들이었다.

가운데에는 루이스가 바닥에 쭈그려 앉아서 마력으로 다양한 룬 문자를 여기저기 적고 있었다.

‘루이스~’

나는 루이스를 부르려고 했지만, 이내 말을 목구멍으로 삼켜버렸다.

룬 마법진은 내가 이제까지 저택에서 봤던 그 어떤 마법진 보다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짜여있는 푸른색 장관에 나는 세삼 놀랐다.

‘루이스가 이렇게까지 마법진을 잘 만들 줄 알았나?’

오늘따라 루이스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았다.

바닥에 쭈구려 앉아 있었던 루이스가 일어나 양손을 허리에 짚으며, 허리를 뒤로 넘기면서 기지개를 피다가 날 발견했다.

“으어어...? 킁킁”

우당탕!

루이스가 요란하게 기지개를 피다가 나를 보고 뒤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난 한숨을 내쉬면서 생각했다.

'아냐... 대단하다는 말 취소... 완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냥 평소의 루이스와 다를 거 없는걸...'

“도련님 오셨어요?”

넘어진 루이스가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나를 돌아봤다.

'대단은 무슨...'

“어...”

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루이스가 나에게 다가오면서 말했다.

“도련님, 갑작스럽지만 당분간 저희 저택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난 가웃거리면서 루이스에게 다시 물어봤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네, 주인님들도 안 계시고 몬스터들의 대규모 공습도 걱정됩니다.”

나는 한 번 더 가웃거리면서 물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대규모 공습이라면 저번에 부모님이 없을 때도 잘 막아냈고...  
그러면 저택에 남은 사람들은?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

루이스가 간절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이미 저택의 하인들은 오늘 아침에 다 나갔습니다. 도련님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지금 누가 올...자...”

키칫... 키키킵... 끼이끼기기...

포탈 주변에서 섬뜩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포탈 주변의 룬 문자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붉은 빛으로 일그러지면서 다른 문자로 변하고, 루이스의 표정도 같이 일그러졌다.

“까득…”

루이스가 이를 갈고 허리를 숙여서 내 어깨를 잡더니 내 손에 내 손바닥만 한 한 장의 종이를 쥐어주며 굉장히 급한 표정으로 서둘러 말했다.

“도련님, 지금부터 침착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에 다시 오지 말고 종이에 적힌 물건을 가지고 최대한 빨리 정문으로 뛰으라…”

갑자기 포탈이 어떤 손이 나옴과 동시에 루이스가 오른팔로 나를 감싸 안고 포탈 반대 방향으로 굴렀다.

푸슉!

굴러서 시야가 정신없이 반전되는 와중에 무언가 내 얼굴에 튀었다.

축-!

정신 차리기 무섭게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렸다.

강!

나는 얼른 정신을 차리고 눈을 비벼서 시야를 확보하려는 순간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루이스의 거친 외침이 들려왔다.

“가세요!!”

나는 자세히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루이스가 부탁한 일을 하려고 비틀거리고 덜덜거리는 몸을 이끌고 서둘러서 대련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루이스 시점]

젠장… 젠장…할… 하필’이 녀석’이라니…  
제길… 제길… 제기랄!!

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쪽은 기습적으로 날라온 단검에 왼쪽 귀는 떨어져 나가서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단검을 예측하지 못해 왼쪽 눈이 세로로 관통당해 튀어나오지 않은 것이 다행인 상황이었다.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몸에 상처들이 늘어나고 사방에서 날라오는 다양한 검들의 공격을 막고 피하는 건 둘째치고 예측하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다.

대검, 장검, 단검, 레이피어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칼은 톱날대검이었다.

크고 두꺼운 모양이 대검이지만, 큰 칼날 옆에 조그마하고 둥근 칼날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 가장 끝 날은 갈라져 있어서 쳐내거나 피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날을 잘못 막으면 무기가 상하거나, 끌려가서 자세가 무너지기 일쑤였다.

멈춘다고 하더라도 찰나의 시간에 레이피어, 단검, 장검이 날카롭게 들어오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다 싶으면 저 녀석이 격투술로 한 박자씩 툭툭 끊으면서 들어온다.

다행인 것은 아직 룬 마법진의 약화 효과가 상대에게 먹히는 것 같았고, 대련장의 벽에는 아주 다양한 종류들의 무기가 준비되어서 무기가 부서지는 건 걱정 할 필요가 없었다.

물론 무기가 부서져서 날카로운 파편이 내 주변에 튀어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광경이었지만, 그 또한 계산된 것이었으며 내게 조금씩 튀기는 파편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 녀석이 아직까지 도련님을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더 시간을 잡아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대체 어떻게 포탈 이동에 간섭해서 경로를 조절했는지는 모르지만,

저 포탈에서 1명이라도 더 나오는 순간 이 상황도 역전되고 도련님도 몸 성히 도망치지는 못할 것이다.

도련님이라면, 죽을 때까지 1분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실력자라면 적어도 한 행성의 총 군단장급은 못 되도 군단장급 정도 되는 실력자다  
분명히 숨겨둔 한 수가 있을 것이고,

여차해서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바로 숨겨진 수를 쓸 것이 뻔했다.

이제부터는 앞뒤 가릴 게 없다.  
여기서 더 시간 끌면 진다.

나는 내 양손에 들린 내 팔뚝만 한 단검의 칼날이 팔 바깥쪽으로 나가게 잡으면서  
내 몸에 바짝 붙이면서 난 자세를 낮추었다.

정면 오른팔 방향에서 날아오는 레이피어를 오른손의 단검으로 강하게 쳐내서  
통제를 잃어버리게 만든 다음

오른팔 아래에서 비어있는 옆구리를 향해 매섭게 날라오는  
대검의 앞부분을 팔꿈치로 찍어서 바닥에 박아버리고

왼손의 단검을 몸 안쪽으로 오게 빠르게 돌려 잡으면서 뒤돌며 뒤의 위쪽 8시 방향에서 오는  
단검을 왼손에 쥐고 있는 단검으로 쳐냈다.

이제 여기서 도박이었다.  
이쯤에서 ‘그 녀석’이 끊으려 들어올 것이다.

난 바로 뒤로 굴렀다.

반쯤 정답이었다.  
툽날대검의 한쪽 날이 내 등을 긁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어쨌든 공격은 피하고,  
완벽히 착지했고, 잠깐의 시간은 벌었다.

나는 바로 지체하지 않고 장검을 피하면서 뒤로 뛰었다.

내가 붕 떠서 움직이지 못하는 순간 ‘그 녀석’이 순식간에 바닥의 대검을 뽑아서  
양손으로 잡고 오른쪽 옆구리에 붙여서 정확히 내 심장을 찔러왔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대검의 끝은 사각형의 한 면처럼 정면에 꼭짓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찌르기 자세로 날 찢러온다?

순간 고민했다.

대검의 둔탁한 부분으로 나를 때리려고?

대검은 눈속임이고 다른 곳에서 뭔가가 날아오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이 순간의 고민을 의도한 건가?

모르겠다.

어쨌든 공중에 뜬 이상 이판사판이다.

바꿀 수 있는 것 따윈 없다.

난 부서진 병장기의 파편을 마력을 일으켜서 녀석을 향해서 쏘도했다.

파편 하나하나는 굉장히 날카롭고 독속성 마력을 담고 있기에

맞으면 공멸하고,

피하면 마법진이 부서진다. 어떻게 할 테냐

그 순간 전투 내내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던 녀석이

‘씨익’웃었다.

난 순간 당황했다.

웃었다고?

이 상황에?

아니, 그것보다 웃을 수 있어?

너무 당황해서 순간 컨트롤이 흔들렸다.

황! 뽀드드드득

내 몸은 대검에 관통당해서 그대로 대련장 벽에 박혔고

푹푹푹푹푹푹푹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거의 모든 파편을 맞았다.

‘이 녀석’의 안색도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내 팔은 내가 날린 파편에 있는 독 기운 때문에 조금씩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에 초점은 잡히지 않았다.

아마 그 정도나 박혔으면,  
‘그 녀석’도 결코 무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파편이 쏟아졌으니 포탈은 당연히 끊겼을 것이다.  
불행 중에 참으로 다행이었다.

“쿨럭쿨럭”

내 입에서 나온 피가 몸에 박혀있는 대검에 쏟아졌다.  
대검을 적신 피가 눈물처럼 툭툭 떨어졌다.

“하아… 제기랄  
너무나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고…  
젠장… 약속했는데… 되돌려준다고… 약속했는데…”

난 녀이 나간 상태로 내 말을 되풀이했다.

눈물을 흘리고 싶은 기분이 강하게 들었으나,  
눈물 대신 입에서 걸죽한 핏물만이 계속해서 툭툭 흘러나왔다.

그녀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녀가 씩 웃더니 굼고 울리는 목소리가 말했다.

“쯧. 날 버리고 가서 마지막에 하는 후회가 고작  
여자에 타령이냐?”

그 순간 정신이 퍼뜩들었다.

“너… 너…! 너 이 자식…!! 너 이 자식!!!”

나는 울컥이는 핏물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결덕거리는 목소리로  
난 미친 듯이 소리질렀다.



난 머리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머리에서 피가 한 줄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기 시작했다.

루이스가 꼭 하라고 급하게 말하면서 종이를 건내주던 루이스가 떠올랐다.  
괜찮을까?

도망치면서 얼핏 본 광경은 루이스는 왼쪽 귀가 뭉개져 있었고,  
눈은 세로로 관통당해서 끔찍한 꼴이었던 것이 기억났다.

나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체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지?

나... 가면 도움이 될 수 있나?

그 순간 루이스가 한 말이 다시 기억났다.  
다시 오른손에 있는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다.

종이를 어찌나 강하게 잡고 있었는지 종이는 다 꾸겨지고 땀과 피로 얼룩져있었다.  
오른손을 피는데 왼손을 써야 할 정도로 힘들었고, 오른손이 덜덜 떨렸다.

루이스가 준 종이에

-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아공간 가방 - 검술교관 루이스의 방

> 하급, 중급, 고급, 최고급 마법서

> 루이스의 일기

> 여행여비

> 간단한 건조식품과 다량의 물

> 리저루일의 옷가지

> 여벌의 무기

> 도련님의 능력에 관해 분석한 책

- 리저루일이 쓰던 무기 - 도련님의 방

- 필요한 것은 아공간 가방에

뭔가 내 호기심을 자극하는 종류의 목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볼 여유가 전혀 없었다.

아직까지는 위층에서 루이스가 싸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모르는 일이다.

난 이제 어느 정도 떨림이 멈춘 다리를 이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계단에서 내려온 복도는 오른쪽 왼쪽으로 복도가 넓게 펼쳐져 있고,  
바로 오른쪽을 돌아보면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오른쪽 복도나 왼쪽 복도의 끝에는 잠겨있는 문으로 막혀 있어서  
가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먼저 내 방은 왼쪽 복도의 7번째에 있었다.

난 종이를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 방을 향해서 힘껏 달렸다.

아직 다리가 열열하지만 달리는 것에는 문제는 없었다.

방문을 열고 방안을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폭신한 카펫이 깔려있었고,  
평소와 같이 창문의 왼쪽 구석에는 큰 침대가 정면에는 커튼이 매달려있는  
큰 창문이 나 있었다.

오른쪽 창문의 한구석에는 책장이 가득 있었고,

왼쪽 출입문 한구석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오른쪽 출입문 한구석 모퉁이에는 내가 쓰는 철제무기들과 가죽 갑옷, 가끔 쓰는  
철제 갑옷들이 걸려있었다.

나는 방으로 재빨리 들어가서 가죽 갑옷을 입고 철제무기들을 챙겼다.

철제 갑옷들은 아공간 가방을 가져온 다음에 넣기로 하고 책꽂이에서 내가 평소에 읽고  
소중히 하던 책 몇 권을 챙기고 빠르게 방을 빠져나왔다.

나는 오른쪽 복도 오른쪽 끝에 있는 루이스의 방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

난 사실 루이스의 방에 몇 번 가본 적이 없다.  
보통 루이스가 먼저 찾아오기도 하고, 몇 번 들어가 본 루이스의 방은 나에게는  
신기한 거라고는 1도 없는 밋밋하고도 지루한 방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나서 다시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신기한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루이스의 방도 내 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약간 다른 점이라고 하면 왼쪽 출입문 한구석 모퉁이에 철제장비, 무기, 가죽 장비가 아닌  
완전히 처음 보는 화려한 병장기들이 진열되어있었다.

나는 창가에 있는 아공간 가방을 들고,  
왼쪽 출입문 한구석 모퉁이에 있는 화려한 병장기 신기한 병장기 큰 병장기들을 모조리  
쓸어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른쪽 창가에 있는 책장에서 몇 권의 책을 빠르게 쓸어 담았다.

난 아공간 가방을 메고 루이스의 방을 나서서 내 방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아주 많은 것을 넣었지만, 좌우로 흔들리지도 않고 몸에 착 달라붙고 무게도 별로 많이  
나가지 않는 신기한 가방이었다.

계단쯤 왔을 때 내가 갑자기 멈춰섰다.

뭔가... 뭔가 여기서 더 가지 않고 바로 정문으로 달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난 내 직감을 무시했다.

지금은 직감 따위로 일을 결정하고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찻집했지만, 불안하면 빨리 가서 갑옷을 가져오고 정문으로 나가면 되는 일이다

황! 뿌드드드득

달려나가려는 내 몸이 그대로 굳었다.

머릿속에서 그리고 온몸의 신호가 최고의 위험을 알리는 경종을 울렸다. 지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이 저택에서 나가야 한다고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던 와중에 고함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폭음소리가 여러 번 들렸다.

나는 있는 힘껏 뛰었다.

정말로 '내가 이런 힘이 어떻게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뛰었다.

.....

얼마나 뛰었을까...

나도 모르겠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입에서 피 맛이 느껴지며, 다리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즈음에 난 멈췄다.

입에서 침이 흘러내리고, 눈에 눈물이 머리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아직 더 도망가야 한다고 더 멀리 더더욱 멀리 도망가야 한다고  
느낌이 말하고 있었지만, 내 다리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머리에 경종이 울렸다.  
하지만 머리보다 몸이 훨씬 빨리 반응했다.

난 잽싸게 오른쪽으로 구른 다음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뛰고  
왼쪽으로 구르고 오른쪽으로 재빨리 달려가서 커다란 돌 뒤에 숨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방금 뭘 생각으로 이 짓을 한 건지도 모르겠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기척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살짝 바깥을 바라본 나는  
대검, 단검, 장검, 레이피어, 이상한 모양의 대검이 대가 튀었던 자리와  
돌에 박혀있는 것을 보고 기겁했다.

하늘에서 어떤 사람…  
아니… 이건… 사람이 아니다…

아니… 사람이 맞지만, 사람의 외형을 띄고 있지만…  
그래, 이건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한 붉은 용이라는 말이 더욱 맞는 말이였다.

‘그것’은 나를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내 몸도 머리로 알고 있지만,  
동시에 도망가면 바로 죽는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이곳이 바라보았다.

다리가 덜덜 떨렸다.  
일어나 서 있는 게 고작이였다.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았다.

오직 그것만 보였고 오직 '그것'만 생각났다.

“오~ 그렇구나... 너가 그 불가람 부부의 아들이구나...”

'그것'은 씩곳 미소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내... 부모님을... 알아?”

불 끈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불가람 중에서 리저루일이 아는 한에서는 부부가 불가람인 사람은 자신의 부모님밖에 없었다.

'그것'이 나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오면서 말했다.

“물론~ 아주 잘~ 알지

오늘 부모님이 떠났다는 것도, 그리고 부모님이 아주 강하다는 것도, 부모님이 너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것도...”

나는 기겁했다.

내가 부모님에게 서운하게 했다는 내용은 루이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에 나오는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지”

'그것'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나는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고,  
정신이 멍해졌다.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거짓말일 것이 분명한 말이었지만,  
뭔가 무한한 신뢰가 갔고 진짜일 것만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것이 내 눈앞에 레이피어를 치켜들었지만,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단지, 지금 여기서 죽어서 부모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뿐 이었다.

그 순간

저택에서 하늘로 푸른 섬광이 발사되고,  
두 날개를 핀 '그것'과 비슷한 형체의 인간 형태의 푸른 용이 리저루일에게 날라오더니

어마어마한 속도와 소리를 내면서 착지하고,  
오른팔을 내질러서 일격에 레이피어와 함께 그것의 왼팔을 뜯어버렸다.

## 고슴도치 아이

국어국문학전공  
20171029 문지원

1.

햇볕이 내려 쪼이는 어느 화창한 봄날입니다. 요 며칠 동안 한참을 내리던 비가 드디어 가라앉고 따뜻한 해가 제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비에 젖은 모래가 완전히 마르자 아이들은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운동장을 뛰놀니다. 한 쪽 구석에 홀로 서있는 은수는 가만히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은수의 손에 가시가 박혀있습니다. 크고 작은 가시가 은수의 작은 손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가만히 서있는 은수를 본 다른 아이들은 도망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은수의 가시를 보고 도망갔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망가! 재는 우리를 찌를 거야. 고슴도치처럼!”

은수는 은수라는 예쁜 이름이 있음에도 고슴도치 아이라고 불렸습니다. 아이들을 향해 쫓아 가려고 해도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곧 멈춰섭니다. 쫓아가봤자 자신은 고슴도치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테니까요. 햇볕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 은수는 그늘이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은수가 처음부터 가시가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은수를 보면 놀리거나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 같이 즐겁게 놀았지요.

날카로운 가시가 있음에도 아이들은 은수를 좋아했고 은수 또한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싫다는 사람 없이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2.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은수와 같이 놀다가 우연히 은수의 몸에 돋은 가시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찌른 건 아니었어요. 그저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은수 손에 박혀있던 생선 가시처럼 아주 작은 가시가 친구의 손바닥을 톡 찔렀던 것뿐이었죠. 은수의 잘못이 아니었고, 찔린 아이는 살짝 눈을 찌푸리더니 곧바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나 은수가 걱정할까봐 손을 펼쳐 멀쩡한 손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니야, 자 봐봐. 멀쩡하잖아! 애들이 빨리 오래. 가자!”

은수는 불안한 마음에 양손을 비볐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져 호호 불었습니다. 친구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다치기 위해 가시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늘에 맹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실수였을 뿐이지만 가시가 은수의 마음을 아프게 찌릅니다. 아무리 실수였어도 친구를 찌른 건 사실이니까

요.

3.

은수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하지만 은수의 가시에 찢린 아이들은 한두 명씩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가시에 찢려 아파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지요. 양손을 꼭 쥐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상처는 생기지 않았습니니다. 새빨간 피도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인상을 쓰며 찢린 곳을 문질렀습니다. 상처도 없고 피도 나지 않는데 말이죠. 피병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아파했거든요. 은수는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미안, 정말 미안해…”

괜찮다는 말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4.

찌르고 사과하고 찌르고 사과하고를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은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은수에게 다가가면 가시에 찢릴 것 같아 가지 못하는 거겠지요. 은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은수가 일부로 찌른 건 아니잖아?”

은수의 편을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은수를 좋아해준 친구와의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또 누군가를 찢어버렸거든요. 미안하다며 도망가는 친구를, 은수는 차마 붙잡을 수 없었어요. 결국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5.

“넌 우리와 달라. 너는 가시가 있잖아.”

아이들은 가만히 있던 은수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수의 가시에 찢려 다친 아이들도, 은수의 가시에 찢리지 않은 아이들도 전부 은수를 놀렸지요. 찢리지도 않았는데 은수를 무서워하고 놀리네요.

“같이 있으면 우리를 찌를 거지?”

아니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은수는 다시 꿀꺽 삼켰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놀림이 계속되자 은수의 몸에서 더 많은 가시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빨갱게 달아오른 얼굴로 은수는 몸에서 자라고 있는 가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빨

리 숨기려했지만 가시는 결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크게 뜬 눈으로 신기하면서 우습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전혀 웃기지도 않은 데도요. 은수의 얼굴은 새빨간 사과로 변했습니다.

실컷 웃고 놀리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은수의 가시는 무섭기만 했을까요?

혼자 남게 된 은수는 스스로 가시를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찌를 땐 단단하고 날카롭던 가시는 은수가 손을 대려 하면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지요. 왜일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문질러보아도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만지려고 하면 안개가 되어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면 기다렸다는 듯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가시마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비누칠을 꼼꼼히 해봤고, 살이 빨개질 때까지 수건으로 문질렀습니다.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놀림을 들으면 들을수록 작았던 가시는 쑥쑥 자랐고, 가시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다시 한 번 조심하자 마음을 가다듬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을 걸면 아이들은 도망가기만 할 뿐 도통 은수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혼자 남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따금 은수에게 다가오려고 한 아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나쁜 시선을 받게 되면 다가가던 아이는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했지요. 은수에게 다가가면 똑같이 놀림을 받을 것 같아 다가가지 않은 걸까요?

이제 은수 주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요.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도 아이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모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은수는 점점 진짜 고슴도치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슴도치가 아닌데도, 은수는 고슴도치가 되었지요. 고슴도치 아이라는 별명은 듣기 싫었지만 은수는 고슴도치 아이로 변해버렸습니다.

## 6.

은수는 고슴도치 아이입니다. 고슴도치 아이가 되었을 때 은수에게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시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시는 은수만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은수는 믿기지 않아 두 눈을 비볐습니다. 그건 틀림없이 가시였습니다. 눈에 들어간 티끌도 속눈썹도 아닌 가시였습니다. 가시는 나한테만 있었는데?

은수는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어째서 가시가 생긴 걸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고슴도치인 은수만이 볼 수 있었던 가시입니다. 아이들 마음속 자라나는 작고 뾰족한 가시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가시를 품고 있는 은수를 놀리면 놀릴수록 아이들의 가시도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은수는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작은 가시에 불과하지만 곧 있으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보일만큼 가시가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마음 속 가시가 깔깔 웃습니다.

은수는 마음이 착한 아이입니다. 친구들이 걱정되어 손톱을 꺾고 깨물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몸에서 가시가 자라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마!”

그러나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수를 지나쳐버렸습니다.

“은수는 거짓말쟁이야.”

지나친 아이들의 등에서 작은 가시가 솟아났습니다.

은수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돋아난 가시는 방긋방긋 웃습니다. 바보래요~. 가시가 자라고 있는 것도 모르는 바보래요~.

7.

하늘이 파랗고 햇빛이 반짝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가 왔습니다. 햇빛보다 더 반짝이는 아이였습니다. 가시가 울면서 도망칠 만큼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봄날 같은 아이. 은수가 지켜보던 아이들 중 그 누구보다 빛나 보입니다. 짐작한대로 빛나는 아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빛나니까요. 가시 하나 없는 아이일 테니까요.

아이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빛나는 아이는 더욱 반짝이고 태양처럼 따뜻해보였습니다. 은수는 굳이 나가가지 않았습다. 어차피 자신의 모습을 보면 피할 텐데 가까이 다가가 봤자 무얼 하나요. 멀리서 작게 말소리가 들립니다.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수 이야기입니다. 빛나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재는 왜 혼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자 모든 아이들은 입을 모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은수에게 다가가면 가시에 찢리니까. 다가가면 우리를 찌르고 말거야.”

빛나는 아이는 아이들의 경고를 듣고도 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지만 빛나는 아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은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켜보던 아이들은 말합니다.

“다가가면 너도 찢을 거야. 그러니까 다가가면 안 돼.”

빛나는 아이는 아이들의 말을 뒤로한 채 다가가 은수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은수도 자연스럽게 빛나는 아이를 쳐다보았지요. 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빛나는 아이는 가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작은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가시의 자국입니다. 이 아이도 자신처럼 고슴도치가 된 아이였다는 것을, 은수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가시조차 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시를 없앤 거지? 가시는 단단하지만 잡을 수도 뺄 수도 없는데 말이야.

‘이 아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참을 생각에 잠겨있던 은수는 다시 빛나는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먼저 눈을 피했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은수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은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은수를 향해 해맑게 웃어줍니다. 가시에 찔려 잠깐 아파했었지만, 미안해하는 은수의 얼굴을 본 빛나는 아이는 손에 힘을 힘껏 쥐고 미소를 지어보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한 미소입니다. 가시에 찔린 손은 반짝반짝 빛을 냈습니다.

그 미소에 힘입어 은수도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자 가시 몇 개가 스르르 빠져나왔습니다. 자랄 때마다 깔깔 웃었던 가시는 말도 없이 조용히 떨어집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은수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습니다. 빛나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계속 포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아이들도 깜짝 놀라 빛나는 아이와 고슴도치 아이인 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치를 보던 아이들은 은수의 손을 조심하 잡아주었습니다. 가시가 몇 개 더 빠져나옵니다. 떨어진 가시는 바닥에 닿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자신의 몸에 있던 가시가 빠져나가는 것도 놀라웠지만, 은수를 놀리던 아이들의 보이지 않던 가시가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녹녹하고 끈적였던 가시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집니다. 이렇게 쉽게 없앨 수 있었다고? 은수는 입을 우물거렸습니다. 은수도 아이들도 마음 속 가시들이 녹아 사라지고, 남은 빈 구멍을 따뜻한 무언가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까?

항상 차가웠던 은수의 손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빛나는 아이와 다른 친구들이 꼭 잡아주던 은수의 작은 손에는 작지만 봄날처럼 따뜻하고 붉은 무언가가 들려있었습니다.

‘빠져나간 구멍을 채우던 거다.’

빈 구멍을 봄날의 햇살이 채워나갑니다. 거무죽죽한 구멍이 신비롭고 따뜻한 무언가로 인해 빛을 되찾았습니다. 따뜻한 빛을 잠깐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드럽게 만질수록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듯 활기찬 빛을 내뿜습니다. 이 빛은 빛나는 아이의 몸에서 나온 빛과 똑같았습니다.

잔잔히 타오르던 빛으로 인해 그동안 은수를 멀리해왔던 아이들의 마음조차도 따스하게 변해갔습니다. 가시가 전부 떨어진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은수의 몸에 있던 가시들이 쪼그라들며 빠져나갔습니다. 이윽고 은수의 몸에서는 빛나는 아이처럼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8.

아이들은 모두 찔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은수 눈에만 보였던 아이들의 몸에 돋친 가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겠지요.

은수를 놀렸던 아이들은 은수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가시가 모두 빠지고 보니 얼마나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토마토처럼 변해버린 얼굴로 은수에게 사과를 하고, 가시를 빼내준 일에 대해 감사하다며 은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가시가 있었을 땐 포옹을 하면 서로가 서로를 찔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은수는 살짝 웃습니다. 열은 흔적만이 남은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시가 있던 자리입니다.

“가시가 생겨도 놀리고 따돌리지 않을게.”

가시가 사라진 아이들은 혹시 누군가의 몸에 가시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놀리지 않고 따스하게 대해주겠노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시를 빼주자.”

빛나는 아이와 은수가 그랬던 것처럼 가시를 빼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이들을 지켜보던 빛나는 아이는 눈을 감으며 웃었습니다.

고슴도치 아이였던 은수는 이제 고슴도치 아이가 아닙니다.

9.

“나도 사실 고슴도치 아이였어.”

빛나는 아이가 말했습니다. 은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렇게 빛이 나는데? 가시가 있었다는 것만 알지, 빛나는 아이가 고슴도치 아이였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울고 있을 때, 친구들이 다가와 내 가시를 빼주었어.”

빛나는 아이는 손을 짹 펼쳤습니다. 은수도 따라 손을 펼쳤습니다.

“만약 또 다른 고슴도치 아이가 생긴다면, 피하지 않고 손을 잡아 따뜻하게 해줄래.”

은수는 또 다른 고슴도치 아이를 빛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비평 부문

[최우수상]

폭력이라는 글자의 무게  
<시계태엽 오렌지> 비평문

국어국문학전공  
20191093 정원화

I. 서론

<시계태엽 오렌지>(1971)는 영화계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최고의 작품이자, 동시에 최고의 문제작이란 평가를 받는다. 근미래 런던을 배경으로 하며 10대 소년 알렉스가 범행을 저지르고 교화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당시 휴고상의 최우수 드라마틱 부문과 성운상의 영화연극/미디어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르며 인정받는 동시에 역대 가장 논쟁을 부른 영화 2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화에서 폭력은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보인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 것을 보여주며, 폭력의 고리는 끊어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제된 선의는 결국 지켜지지 못한다. 작품은 지나치게 폭력적, 선정적이어서 영화를 보며 역겨움을 느끼게 될 정도이다. 주인공 알렉스는 목적과 동기 따윈 없는 폭력을 행한다.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이유 없는 폭행을 가하기도 하며 동료이자 친구를 무참히 짓밟기도 한다. 그러나 알렉스가 친구의 배신으로 교도소로 가게 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행해지던 폭력이 더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교도소 내에서 루드비코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루드비코 요법’이란 일종의 조건반사 강화로, 대상에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담은 필름을 보여주며 구토감을 일으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루드비코 요법으로 석방된 알렉스는 ‘만들어진 선’을 행하며 살게 되었다. 알렉스와 친구들이 이유 없이 폭행했던 노숙자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고, 알렉스는 노숙자들에게 폭행당하지만, 폭력에 거부감을 가진 알렉스는 저항하지 못한다. 게다가, 함께 악행을 저지르던 친구들이 경찰이 되어 알렉스 앞에 나타나 폭행을 가한다. 석방된 이후에 노숙자, 경찰이 된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알렉스는 빛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 집은 자신이 2년 전 악행을 저질렀던 작가 알렉산더의 집이었다. 알렉산더는 알렉스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의 노래를 통해 그가 알렉스라는 것을 알아보고 복수를 기획한다. 알렉산더는 알렉스가 루드비코 요법의 대상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역겨움을 느끼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틀어 복수를 시도했다. 역시나 알렉스는 노래를 듣다 공포와 역겨움을 느끼며 결국 건물 창문으로 자살 시도를 하고, 그는 크게 다치게 된다.

결말로 다가가기 전까지의 내용만을 본다면 권선징악의 우화적인 내용으로만 보인다. 악행을 저지르며 법의 범주에서 벗어나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던 청년은 국가의 치료로 악행을 멈추게 되었다. 또한, 자신이 악행을 저질렀던 대상들인 노숙자, 친구, 작가 알렉산더가 차례로 등장하며 각자 복수를 가한다.

하지만 이 작품은 권선징악의 뻘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았다. 폭력이라는 것은 절대 교화될 수 없으며, 절대적인 선의 존재는 없다는 것을 뚜렷하게 밝혔다. 작품에서 감독은 ‘폭력’의 굴레는 끊어질 수 없고 교화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관객에게 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감독은 몇 가지 요소들을 통해 주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

## II. 본론

### 1. 영상과 맞지 않는 분위기의 음악 사용

영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음악’은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 그리고 특정 장면과 효과적으로 어우러지며 영화를 돋보이게 한다. 슬픈 장면에서는 서정적이고 느린 음악을 사용해 장면 속의 감정을 고조시킨다. 전쟁영화의 매우 급한 상황에서는 빠르고 강한 음악을 사용해 관객들이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시계태엽 오렌지’의 감독 스탠리 큐브릭은 영화에서 음악을 매우 흥미로운 요소로 작동시킨다. 대표작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는 현대음악의 적절성과 클래식 음악의 조화가 가장 잘 어우러진 영화라 평가받는다. 영화의 시작 부분 배경에 우주가 나타나고 유인원들이 등장하며 나오는 클래식 음악은 우주의 광활함과 웅장함을 잘 드러낸다. 소개할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에서 음악이라는 요소는 역시나 감독의 의도에 맞추어 적재적소에 다채롭게 사용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음악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밝다는 점이다. 영화의 소재, 내용, 장면 모두 어둡고 무서움에도 배경음악은 밝은 분위기의 노래가 사용되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음악을 사용할 때 영화의 배경과 음악의 분위기를 비틀어 사용했던 것일까, 본인은 그 이유를 음악을 주제의식 전달을 위한 요소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라 추측했다.

먼저 음악 ‘Singing in the Rain’ 등장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Singing in the Rain’은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의 메인 OST로, 영화 속에서 주인공 진 켈리가 비를 맞으면서 부르는 노래로 유명해졌다. 영화 속에서 노래는 밝은 분위기와 사랑, 행복을 표현했다. 하지만 ‘시계태엽 오렌지’에서 알렉스는 한 작가의 집에서 작가를 폭행하고, 작가의 아내를 성폭행하며 ‘Singing in the Rain’을 신나게 부른다. 말 그대로 끔찍한 행위를 하는 와중에 밝은 분위기의 노래 ‘Singing in the Rain’이 사용되면서 관객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타 다른 범죄영화들은 범죄장면에서 어둡고 빠른 음악이 사용되어 관객들에게 두려움과 긴장을 제공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밝은 음악을 사용했다.

D.C. Muecke는 이런 상황을 ‘영화에서의 아이러니’라고 정의했고 “영상에서 이미지와 사운드가 미 일치되는 상황은 관객이 작품의 등장인물들과 본인과의 거리 두기를 발견하게 하며, 서로 다른 감정의 처지에서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치”<sup>11)</sup>라 말했다. 큐브릭은 어떤 감독보다 영화적 아이러니를 잘 활용했다. 범죄를 저지르는 어두운 이미지의 상황에서 밝은 음악의 사용은 알렉스가 저지르는 범죄의 끔찍함을 역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다. 분명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알렉스는 죄책감이나 일말의 반성 따윈 없는 표정과 모습으로 춤을 추며 밝은 음악의 대표 격인 ‘Singing in the Rain’을 열창했다. 이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알렉스’라는 등장인물이 얼마나 잔인하고,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그가 악독한 범죄자임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의 사용에서도 큐브릭만의 영화적 아이러니를 찾아볼 수 있다. 큐브릭은 음악의 절묘하고 남다른 사용으로 주목받았는데, 그중 클래식 음악의 사용은 큐브릭 영화에서 절묘하고 획기적으로 등장한다.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조아키노 로시니가 작곡한 희극 오페라이다.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은 희극으로서 경쾌한 분위기를 연상시키고 밝고

11) D.C.Muecke, Irony p32, 1980

활기찬 리듬으로 전개된다. 이는 ‘Singing in the Rain’과 마찬가지로 밝은 분위기를 연상시키지만, 이 음악이 사용된 장면의 분위기는 노래와 사뭇 다르다. 영화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은 알렉스 일당이 죄 없는 노숙자를 폭행할 당시에 등장한다. 영화를 보며 마치 게임과 같이 폭력을 가볍게 묘사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폭력을 행사할 당시 밝은 분위기의 음악 사용은 폭력을 가볍게 묘사하고, 알렉스의 잔혹함을 강조하는 기능을 했다. 또, 영화 처음부터 밝은 음악을 사용해 ‘알렉스’의 폭력의 굴레는 결국 끊이지 못할 것을 암시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알렉스에게 폭력은 하나의 장난과 놀이에 지나지 않았다. 알렉스는 폭력을 행사하며 노래를 부르고 큐브릭은 배경음악으로 밝고 경쾌한 클래식 음악을 덧붙인다. 또한, 관객에게 아이러니를 주며 알렉스를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인물로 묘사한다. 영화 말미 알렉스는 수감생활과 루드비코 요법으로 교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관객들은 앞선 폭력 장면들을 생각하면 교화의 과정을 쉽게 믿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2. 주제를 전달하는 마지막 장면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은 결말을 제시하기도 하고, 뚜렷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화를 마쳐 관객들에게 영화의 결말에 대해 추측을 하게 하는 예도 있다. 영화 ‘인셉션’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집으로 들어오고 돌고 있는 팽이를 보여주며 마친다. 마지막 장면을 보며 감독은 주인공이 목표에 성공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알려주었다. ‘시계태엽 오렌지’에서는 결말을 통해 알렉스의 교화 여부에 대해 관객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며 주제의식을 부각한다.

주인공 알렉스는 루드비코 요법 치료를 받고 사회로 돌아가지만, 자신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작가를 만나게 된다. 작가는 복수를 위해 알렉스를 방에 가두고 알렉스가 두려워하는 베토벤 9번 교향곡 노래를 틀어 고통을 준다. 알렉스는 노래를 듣고 공포와 역겨움을 느끼게 되고, 버티지 못해 결국 창문을 통해 건물에서 자살을 시도한다. 자살을 시도했던 알렉스는 루드비코 요법이 주는 공포보다 더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기에 더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다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당시 정부는 알렉스의 루드비코 실험의 성공을 통해 정부의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아야 했다. 정부의 장관은 알렉스를 찾아와 음식을 먹여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것을 약속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알렉스는 기자들 앞에서 “나는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성적인 행위 묘사를 하는 생각을 하며 영화가 끝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작품의 의도를 완전히 전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마지막 단 하나의 장면을 통해 알렉스의 교화는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알렉스는 듣기만 해도 구토를 하던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스피커로 듣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또한, 본인이 스스로 “치료되었다”라고 말한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죽음의 위기를 겪기 이전까지 알렉스는 이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며 억제당했다. 자신이 가벼운 장난처럼 여기던 노숙자와 경찰이 된 친구들이 자신을 폭행함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다. 폭력에 대해 역겨움을 넘어 두려움을 가진 알렉스가 능청맞은 표정으로 자신은 루드비코 요법을 통해 치료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하는 점은 주인공 알렉스의 뻔뻔하고 죄의식 없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다.

스탠리 큐브릭은 이 마지막 장면의 촬영에 대단히 공을 들였다고 한다. '나는 치료되었다.'라는 한 대사와 함께 끝나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무려 74번의 테이크를 촬영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목에서 큐브릭이 '마지막 장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시계태엽 오렌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앤서니 버지스가 출간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버지스의 소설 속 결말은 알렉스가 자신의 지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의 '권선징악'의 형태로 작품을 마친다.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의 결말과는 아주 다른 형태이다. 앞서 영화에서 감독은 영화의 결말을 통해 폭력은 교화될 수 없다는 주제의식을 완전히 드러내었다고 말했다. 소설을 원작을 둔 영화들은 대부분 소설의 결말을 따르지만, 큐브릭은 자신만의 결말을 설정하면서 본인만의 주제를 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 3. 인물들의 변화를 통한 주제의식 강화

'시계태엽 오렌지' 속 인물들의 행동, 태도 변화는 작품의 주제의식을 강조하며, 감독의 의도대로 변화한다. 영화 초반 무자비한 알렉스 일당에게 무고한 폭행을 당한 노숙자 노인은 알렉스 일당을 향해 법도 질서도 없는 더러운 세상이라 말하고 폭력을 당하며 한탄을 한다. 대사와 태도를 통해 분명 폭력에 대해 분명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차피 난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도 않으니 죽여라, 죽여. 법도 질서도 없는 더러운 세상이야! 세상은 더 이상 늙은이를 위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세상이래? (중략) 그치만, 땅 위의 질서나 법도에 대해선 더 이상 신경을 쓰진 않아."*

하지만 노숙자 노인은 루드비코 실험을 통해 교화된 알렉스를 알아보고 역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내 옆에 아주 나쁘고 잔인한 놈이 있어! 이놈과 녀석의 친구들이 나를 때리고 차고 밟았어. 놈을 붙잡어. 잡으라구. 그 때 내 피와 신음소리를 비웃었잖다?"*

노숙자 노인의 본성이 원래 악했을진 모르지만, 알렉스의 폭력 때문에 노숙자는 복수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 노숙자가 알렉스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면 노숙자는 길을 가는 무고한 청년을 폭행했을까? 영화 속 알렉스의 복역 이후 노숙자의 등장 장면이 감독의 의도한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라는 주제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 생각한다.

노숙자 노인의 폭행 장면 이후 경찰 친구들의 등장 역시 주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낸다. 노숙자에게 폭력을 가하던 도중 경찰관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과거 알렉스와 함께 폭력과 범행을 저질렀던 일당 중 두 명이었다. 이들은 알렉스를 알아보았고, 알렉스가 강제로 교화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은 알렉스를 돕는 척 끌고 가 물고문하고 곤봉으로 구타를 가한다. 폭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경찰이 된 친구 또한 교화되지 못했다. 경찰은 국민을 지키고 도와야 하는 직업임에도 그들은 서슴지 않게 폭행을 저지른다. 중요한 점은 주인공의 교화 실패뿐만 아니라 알렉스 일당의 친구 역시 교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독과 원작 소설의 작가는 친구들이 교화될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을 보였었다. 2년 전 친

구들은 알렉스를 배신하고 경찰에 신고한 장본인이다. 이 점은 단순히 알렉스가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한 복수의 행위로 추측할 수 있지만, 영화를 보며 친구들은 비행을 그만두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경찰이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이 되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복수를 했음에도 또 폭력을 가한다. 영화를 보며 알렉스의 친구 역시 매우 잔혹한 등장인물이라 생각이 드는 대목이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을 종종 무시하고 깔보던 알렉스를 배신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복수를 했음에도 또 한 번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알렉스에게 당한 폭력은 다른 폭력을 불러왔다. 이들은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다른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하고 있을지 모른다.

복수의 정점을 찍은 인물은 작가 알렉산더이다. 알렉스 일당에게 성폭행을 당한 알렉산더의 아내는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알렉산더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알렉스의 폭행으로 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다. 알렉스는 경찰이 된 친구들에게 도망쳐 불빛을 쫓다가 한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 집은 알렉산더의 집이었다. 알렉산더는 처음엔 알렉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렉스를 불쌍히 여겨 잘 대해준다. 후에 우연히 그가 알렉스임을 알아보았고, 그는 알렉스에게 복수를 가한다. 알렉산더는 루드비코 실험에 관심이 많아 알렉스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고, 2년 전 자신의 집에 침입했던 자가 알렉스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그는 알렉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주기 위해 알렉스가 두려워하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틀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이로 인해 알렉스는 도저히 참지 못해 창문을 통해 자살을 결심했고, 죽지는 않았지만 큰 부상을 당하게 된다. 앞서 등장한 노숙자와 경찰이 된 친구들은 자신이 당한 폭력에 대한 복수를 신체적 폭력으로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알렉스에게 음악을 틀어주며 육체적 폭력이 아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그 장면을 행복함과 희열을 느끼는 표정으로 지켜본다. 정신적 고통을 줄 때 알렉산더의 광기 어린 표정은 관객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잘 묘사했다. 알렉산더는 평생을 폭력과 무관하게 살아왔고, 높은 지위와 명망을 지녔다. 하지만 알렉스의 그런 폭력은 작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그의 복수가 다른 인물들과 다른 점은 육체적 폭력을 넘어 정신적 폭력을 가했고, 이를 즐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알렉스가 행한 폭력은 영화 속 여러 인물의 인생을 바꾸어놓았고, 폭력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인다.

인물의 변화에서 내무부 장관을 빼놓을 수 없다. 내무부 장관은 루드비코 실험을 주도했으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음 내무부 장관이 알렉스를 대할 때와 마지막 장면에서 태도가 정반대인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감옥에서의 내무부 장관과 알렉스의 만남은 내무부 장관이 갑, 알렉스가 을의 태도로 비친다. 알렉스는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자 했기에 내무부 장관 앞에서 열정적으로 자신이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요청한다. 영화 마지막 알렉스의 실험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정치적으로 지지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내무부 장관은 알렉스의 병실에 직접 찾아오기까지 한다. 이때는 내무부 장관이 을, 알렉스가 갑으로 비추어진다. 범죄자 알렉스를 마치 복수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양상으로 영화를 전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가 전개되며 관객들은 알렉스를 동정하게 한다. 알렉스는 출소 후에 구타를 당했으며,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하며 큰 부상을 당한다. 알렉스가 안타까워 보이게 만든 뒤 정점을 찍은 것이 내무부 장관의 등장이다. 알렉스 앞에서 당당하던 내무부 장관은 알렉스에게 찢찢매며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루어주겠다 약속한다.

#### 4. 주인공의 나레이션과 시점에서 진행되는 영화

앞선 내용에서는 감독 스탠리 큐브릭이 영화의 주제의식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굵직한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다음은 주제의식을 돋보이게 만든 두 가지 영화적 기법과 디테일을 통한 강조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첫째로, 주인공 알렉스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영화의 몇 장면이다. 영화 속 알렉스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광각렌즈가 사용되면서 주변부가 왜곡되며 중심부는 튀어나와 강조되어 보인다. 알렉스의 시점이 아닌 알렉스를 비추는 장면들에서는 일반 렌즈를 사용해 왜곡 없이 장면을 보여준다. 알렉스의 시점을 왜곡된 채로 보여주는 것은 알렉스가 세상을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유도한다. 광각렌즈는 초점거리가 표준렌즈보다 짧은 렌즈로서 카메라로부터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왜곡시킨다. 카메라와 가까운 피사체는 크고 둥그렇게, 멀리 있는 피사체는 작아 보이게 한다. 광각렌즈를 사용해 알렉스가 세상을 왜곡된 상태로 바라본다는 디테일은 매우 기술적이며, 효과적으로 구현해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알렉스가 세상을 비뚤게 바라보고 있다고 유도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 알렉스의 시선과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장면을 통해 관객들의 감정이입을 유도한다. 알렉스가 경찰에게 잡힌 후 광각렌즈를 사용해 알렉스 시점에서 경찰들을 바라본다. 화면 중심에 있는 경찰은 웃으며 알렉스를 바라보고 렌즈와 시선을 맞춘다. 이 장면은 마치 관객들이 경찰들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느끼게 하며, 광각렌즈 효과로 중심의 경찰이 튀어나와 보여 어지러움 내지 공포를 느끼게 한다. 이런 작은 디테일로 관객들은 알렉스에게 동화되고 공감한다.

둘째, 알렉스의 나레이션을 통해 영화를 전개해간다. 주요 장면들에서 알렉스는 자신의 지난 사건들에 대해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사건을 설명한다. 알렉스의 나레이션은 지나치게 침착하다고 느껴진다. 애초에 영화는 알렉스의 나레이션을 따라가며 알렉스 시점에서 진행되어간다. 앞서 언급한 알렉스 시점에서의 광각렌즈 사용보다 더 디테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사용된 것이다. 영화에서 나레이션은 영화의 해설이나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주인공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속마음으로 말하며 상대 인물이 아닌 관객에게만 전할 때 사용된다. 나레이션이 잘 활용된 영화 '올드보이'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갇힌 오대수의 주관적인 나레이션은 자신의 담담하고 억울한 복수의 감정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반면, 오대수를 감옥에 가둔 이우진의 나레이션은 자신의 계획과 원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영화에서 나레이션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데 '시계태엽 오렌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다. 먼저 알렉스의 나레이션은 관객들에게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한다. 루드비코 실험의 결과발표 자리에서 박사는 알렉스가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알렉스에게 구두를 내밀며 훑아보게 한다. 알렉스는 저항하지 못하며 구두를 훑는데 그때 나온 나레이션이다.

*"나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두를 훑었다."*

다음은 알렉스가 출소 후에 노숙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장면의 나레이션이다.

"난 차마 어떤 반항도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일부 장면의 나레이션 뿐일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 대부분 자기방어적인 나레이션이라는 것이다. 담담하게 경험을 말하는 듯 보이거나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 따윈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나레이션의 다른 효과도 나타나는데, 알렉스의 나레이션을 통해 관객들에게 자신의 고통에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루드비코 요법을 통해 교화되는 장면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다. 구두를 저항하지 못하고 앓는 모습에서 관객들은 잠시나마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때 나레이션을 사용해 "나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두를 앓았다."라고 말하며 동정을 호소하는 듯 보인다.

### III. 결론

'폭력'은 잔인하고 끔찍하다. '폭력'은 복수라는 감정을 통해 '폭력'을 불러온다. 무심코 던진 작은 돌은 개구리를 맞췄고, 돌에 맞은 개구리는 평생 돌을 던진 사람을 찾아 복수를 계획하며 '폭력'의 주체로 변한다.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는 그 어떤 영화보다 폭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잔인하게 묘사한다. 누군가는 논란투성이의 자극적인 영화로, 누군가는 주제의식을 잘 그려낸 명작으로 평가한다. 본인은 영화를 감상하며 불편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극적이라 생각했지만, 작품 속에 있는 감독의 메시지를 다양한 요소들로 곱씹어보며 '영화'라는 장르로 잘 전달했다고 느낄 수 있었다. 영화는 겉으로 보이는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장면 아래 폭력의 잔인함, 폭력의 굴레는 끊어질 수 없다는 주제의식을 명확히 잘 드러낸다.

이 영화에서는 영상과 맞지 않는 분위기의 음악을 사용해 영화적 아이러니를 불러오며 관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또한, 관객들에게 알렉스라는 인물이 잔인하고 교화될 수 없다는 인물임을 전달하고 암시한다. 강렬한 마지막 장면은 영화의 결론을 짓는 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알렉스의 "나는 치료되었다"라는 대사,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베토벤 9번 교향곡, 알렉스의 성적인 상상의 장면까지 알렉스의 교화는 완전한 실패임을 말해주다 못해 강조하는 것처럼 느꼈다. 알렉스의 변화보다 주변 인물들의 변화는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라는 한 줄의 주제의식을 명확히 전달해준다. 알렉스에게 폭행당한 노숙자, 친구들, 작가 알렉산더 모두 알렉스에게 각자마다 다른 형태의 폭력을 가해 알렉스를 괴롭힌다. 영화의 기술적 측면을 분석해보자면 나레이션과 광각렌즈의 사용이 독특하다. 주인공 알렉스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일들을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당시의 기분과 사건을 설명한다. 이는 관객들이 알렉스라는 인물에 동화되게 한다. 광각렌즈의 사용 역시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광각렌즈는 알렉스의 시점으로 사용되며, 알렉스의 시점을 왜곡되고 어지럽게 보여 당시 알렉스의 감정에 이입하게 한다.

큐브릭은 다양한 영화적 요소들을 사용해 폭력에 대한 주제의식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영화를 보며, 관객들은 알렉스를 잔인한 인물로 경멸하다가도 어느샌가 그에 이입하며 알렉스를 동정하게 된다. 폭력을 행한 것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우화적인 요소로 끝맺지 않고 교화의 실패로 결말을 지은 것은 관객들에게 폭력은 이런 끔찍한 것임을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영화를 보며 알렉스와 폭력을 저질렀고 이는 다른 폭력을 불러와 우리에게 그대

로 돌아왔다. 그런데도 우리와 알렉스는 또다시 폭력을 행한다. '시계태엽 오렌지'는 폭력이란 짧고 가벼운 두 글자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참고문헌>

이현우. (2015).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 사운드의 비극적 아이러니.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학술대회지, (), 48-49.

윤보협. (2013).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와 <올드보이>의 내레이션. 영화연구, (58), 283-312.

[우수상]

<특별한 불편함 속 숨겨진 의미> - 영화 '시티 오브 갓' 비평

광고홍보학과  
20162626 유창선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연스럽다 못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살해 장면이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 죽음 하나하나가 불편하다. 조금 무뎠어지는가 싶을 때쯤 또 한 번의 울리는 총성에 다시 마음이 불편해진다. '신의 도시'라 불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촌을 그린 영화 '시티 오브 갓'에 대한 가장 일차원적인 감상이다. 하지만 이 영화를 단순히 '죽고 죽임의 연속'의 영화로 압축하기는 곤란하다. 나는 이 영화가 가지는 몇몇 차별적인 요소가 다른 영화들과는 충격적으로 다르다고 감히 평하고 싶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점을 가진 이 영화가 다른 영화들이 넘볼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 것일까? 사실 '무자비한 살인'이라는 키워드는 느와르, 범죄, 스릴러 장르의 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 중 하나다. 하지만 내가 느꼈던 '특별한' 불편함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이 영화가 흔히 말하는 할리우드 스타일의 영화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단순히 지역 배경만이 아니다. 얼핏 보면 크게 느낄 수 없었던 차이. 하지만 영화를 보고 느낀 가슴 저릿한 불편함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영화를 천천히 돌려보며 탐구하게 만들었다.

영화에서 살인은 무엇을 의미할까? 현실에서 가장 죄악시되는 행동 중 하나인 살인은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꽤나 자주 등장한다. 살인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만큼, 살인이라는 행위가 우리에게 전하는 감정의 파동은 크다.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인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함 혹은 혐오감을 느끼거나, 피해자에 대한 슬픔과 연민의 감정이 마음속을 지배한다. 하지만 때로는 놀랍게도, 영화에서 묘사하는 살인은 관람객들의 복수심을 해소해주거나, 마음속 응어리가 사라지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은 살인자의 살인에 그럴듯한 명분을 부여한다. 사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명분이 있는 살인 행위자를 우리는 굳이 살인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때로는 영웅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의구현의 인물, 혹은 드디어 복수에 성공한 '사이다' 같은 인물로 우리는 그들을 부른다. 결국은 다 같은 살인이지만, 영화에서 일련의 스토리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명분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 결국, 영화 속 살인은 영화적 장치 중 하나이다.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고, 극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 중 하나이다. 하지만 무자비하고 연속적인 살인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끊임없는 살인은 등장인물의 '광기'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그로 인해 관람객들이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것일 것이다. '광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속 인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등장하는 안톤 쉬거는 아주 적절한 예시이다. 한 손에 공기총을 들고 무표정으로 무자비하게 상대를 죽이는 그의 모습은 차라리 어떤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관람 중에 가지게 한다. 느와르물의 대명사 중 하나인 '스카

페이스'에 등장하는 토니 몬타나의 살인 또한 비슷한 맥락이다.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지독한 야망. 그리고 그 야망에 스스로 눈이 먼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십명, 몇백 명을 죽이는 것쯤은 꺼리지 않는다. 그렇다. 이 영화에서는 토니 몬타나가 가진 야망과 열망이 무자비한 살인을 통해 표현됐다. 이처럼 보통 영화에서 등장하는 클라이맥스의 살인이 드라마틱한 장치라면, 느와르, 스릴러 물에서 등장하는 무자비한 살인은 주인공의 광기를 표현하기 위한 장치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티 오브 갓'에서 등장하는 무자비한 살인 역시 이와 같은 결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타고난 범죄 DNA를 갖고 태어난 이 영화의 등장인물 제 빼게뇨는 자신이 나고 자란 '시티 오브 갓'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야망 하나로 살아왔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범죄와 살인에 눈을 뜬 그의 사고방식은 남다르다. 대화보다는 주먹도 아닌 총이 먼저 나가는 그의 무자비함은 많은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야망도 토니 몬타나가 가진 야망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토니 몬타나는 자신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비상식적인 반란을 끊임없이 일으킨 인물이라면 제 빼게뇨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은 '시티 오브 갓'에서 상식으로, 강력한 힘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그저 그가 보고 자란 것을 잘 행해낸 인물이고, 그 도시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적절한 자질을 갖춘 인물일 뿐이다. 그가 시티 오브 갓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그의 대담함, 일을 진행하는 추진력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 빼게뇨의 잔인함과 무자비함이 이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광기는 이 영화에서 크게 주목할 부분은 아니다. 그의 광기가 형성되고, 용인되고, 동경 받는 시티 오브 갓이라는 사회 공동체의 광기를 주목해야 한다. 제 빼게뇨가 어렸을 때부터 따르던 형들은 마을에서 유명한 범죄자들이었다. 훗날 제 빼게뇨가 일으키는 범죄 수위에 비하면 약과이지만, 그들은 강도질로 돈을 모았고 어린 그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도와주며 커왔다. 그가 본격적으로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도, 그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시티 오브 갓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들은 무능력했으며, 돈 앞에서 쉽게 굴복했다. 마을 사람들은 무자비한 그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경찰이 해야 하는 치안 유지를 그의 조직이 수행하면서부터 신뢰하고 존경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꼬마들은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자신도 그와 같은 깡패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 그의 조직에 들어가서 심부름을 하거나 약을 파는 일을 시작했다. 범죄는 대물림 되었으며, 공권력은 부패하고 힘이 없었다. 시티 오브 갓이라는 빈민촌은 악순환의 연속이었고, 그 순환 속 만 들어낸 괴물이 제 빼게뇨였다. 영화의 말미에서 제 빼게뇨는 자신이 가진 돈을 경찰에게 뇌물로 바친 후, 그의 꼬마 부하들에게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재촉한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그를 총으로 쏘 죽이는 반란을 일으킨다. 그리고 기뻐하며, 자신들이 세울 조직을 상상하면서 즐거워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마무리된다. 제 빼게뇨는 죽었지만, 시티 오브 갓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 빼게뇨에 대한 동경심은 결국 사라졌지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고 시티 오브 갓은 그 인물을 다시 동경하기 시작할 것이다. 제 빼게뇨는 도시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그에게는 힘이 없었다. 진정 힘을 가진 것은 '시티 오브 갓'이라는 악순환 그 자체다. 제 빼게뇨가 죽어도 그와 같은 범죄자는 등장할 것이며, 그가 이끈 조직과 사업은 다시 누군가에 의해 생겨날 것이다. 흔히들 우리가 보는 많은 영화에서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죽는 것은 해피엔딩이다. '시티 오브 갓'의 엔딩 장면은 씁쓸하다. 범죄 조직에 연관된 굶직한 인물들은 죽었지만, 꼬마들이 신난 목소리로 꿈꾸는 미래는, 결국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영화는 우리가 지금껏 쉽게 접할 수는 없었던 낯선 사회의 광기를 표현한 작품이다. 하지만 단순히 '표현했다'라는 사실로는 이 영화를 높게 평가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영화는 정말 '잘' 표현했다. 확실한 명분이 있는 살인에 익숙한 우리가 명분 없는 연속적인 살인에 불편함을 느낀 것처럼, 우리는 영화 속 장면이 실제로도 존재하고 있을 것만 같은 현실성을 느낄 때 더 불편함을 느낀다. 히어로 영화에서 빌런과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전투로 몇 개의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빈민촌이라는 생소한 배경을 다룬 이 영화를 처음 보고 내 머릿속을 스친 감상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건 진짜다'였다. 빈민촌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배경지식도 전혀 없던 내가 어떻게 이 영화에서 현실성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검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장도 최소화한, 꾸밈없는 영화이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한 불편함의 숨겨진 원천이다. 충격적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지구 반대편에는 실재하는 상황'일 것 같아서 더 불편했다. 당연히 영화라는 작품의 특성상 어떤 대상을 100% 정확하게 담을 수는 없다. 그것은 애초에 영화의 목적이 아님과 더불어, 설사 목적이 현실 반영 그 자체가 맞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실존하는 어떤 대상을 배경으로 삼고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제작자가 보여주고 싶은 측면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 영화에서 연출된 장면들만 보면, 기본적으로 굳이 더하지도, 굳이 덜하지도 않은 느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제작진이 철저히 의도한 것으로, 배우 캐스팅 과정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 영화에 출연 배우 중 대부분은 아마추어 배우로 이루어져 있다. 당시에 흑인 전문 배우가 없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 영화의 감독은 빈민촌에서의 삶을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원했다. 그러한 연유로 실제 빈민촌 시티 오브 갓 출신의 아마추어 배우들을 대상으로 오디션과 캐스팅을 진행했다. 그렇게 캐스팅된 배우들의 연기는 무언가 남달랐다. 보통 느와르 영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목소리를 내리깔고 위엄있게 대사를 내뱉지도 않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내지르는 웃음은 사악하거나 멋있기보다는 오히려 천박하고 천연덕스럽게 느껴졌다. 이러한 연기는 내가 지금껏 봐온 '깡패' 연기와 달라 어색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인 제 빼게뇨의 '모텔 학살 사건'에서 이러한 부분이 잘 드러난다. 제 빼게뇨가 어린 시절에 형들의 모텔 강도를 보조하기 위해 망을 보고 있던 그는 자신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경찰이 온다는 거짓 신호를 보내 형들을 도망치게 한다. 그 후 모텔에 들어간 제 빼게뇨는 모텔 직원부터 투숙객까지 모조리 죽이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면서 즐거워하는 꼬마의 모습은 마치 절대 악을 묘사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만약 그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지 않았더라면, 그 웃음은 그저 새로운 즐거움을 찾은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행복한 웃음으로 사람들은 느꼈을 것이다. 이 행복하고 순수한 웃음은 제 빼게뇨 뿐만 아니라 영화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 어린 인물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범죄 행위와 천진난만한 웃음의 연합은 엄청난 괴리감을 형성한다. 그 웃음은 '범죄자의 웃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어린 소년들의 웃음'이라서 더욱 불편하다. 우리와는 아예 다른 문화, 다른 환경 속에서 익숙함을 발견했을 때 느껴지는 동질감은 무섭다. 범죄자가 '범죄자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범죄자의 형상에 부합하는 행위를 누군가가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범죄자와 우리의 차이라고 설명하며 엄격하게 구분 짓는다. 하지만 범죄자의 모습에서 우리와의 동질성이 느껴지는 순간,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범죄자에 대한 형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때부터 우리는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보다 그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 심리학적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보통 범죄를 비롯한 타인의 행위를 외부적인 요소(사회적 규범, 외부 압력 등)보

다는 내부적인 요소(개인의 기질, 성격 특성, 성향 등)에 귀인 하는 심리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추론 편향’이라 부르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오류를 억제하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영화 속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이 같이 범죄를 큰 죄책감 없이 저지른다. 이는 높은 합치성 정보를 보여주는 요소인데, 관객들로 하여금 등장인물 개인 개인의 내부적인 특질에 집중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제 빼게뇨를 중심으로 그의 조직의 일원들이 웃음이나 유치한 농담, 장난 등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청년들의 천진난만함이나 미숙함을 보여주면서 개인의 특이성이 아닌 그들이 처한 환경에 특이성을 더 부각한다. 높은 합치성/특이성 정보를 영화에서 제공한 결과로 관객들은 영화에서 나오는 상황 및 배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장치들로 인하여 진짜 문제는 시티 오브 갓이라는 도시의 악순환 자체에 있다는 것을 관객들은 비교적 쉽게 인지하게 된다. 현실에서 일어날법한 것과 현실적인 것은 다르다. 우리가 이 영화에서 본 장면 대부분은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날법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이 영화가 현실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조직의 일원으로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그저 ‘범죄자’라는 프레임 안에서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죄자를 미화하지도 않았지만, 대다수의 청년, 소년이 보이는 어리숙하고 순진한 모습을 담으면서 인간의 보편성을 굳이 제거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보편성은 문화나, 지역을 초월하는 무언가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영화에서 개인의 광기가 아닌 시티 오브 갓이라는 사회의 광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단지 범죄자를 다른 영화와 다르게 묘사했다는 점이 이 영화가 높은 현실성을 가지는 근거의 전부는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이 영화의 구성적인 특징은 ‘부스까페’라는 주인공이 화자로서 영화를 이끈다는 점이다. 부스까페 역시 범죄에 가담한 범죄 조직의 일원인가? 아니다. 부스까페는 시티 오브 갓에서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비교적 평범하게 사는 소년이다. 부스까페의 형은 제 빼게뇨가 따르던 범죄자 형들 중 한 명이었다. 그의 형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의도치 않게 여러 범죄와 문제에 연루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쉽게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던 그는 마트에서 쥐꼬리만 한 시급을 받으면서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 하지만, 억울하게 마트 주인에게 해고를 당한 이후, 그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다. 간접적으로 여러 범죄와 함께한 그는 그동안 보고 배운 것을 기반으로 버스, 택시, 카페에서의 강도질을 계획하지만, 시작도 전에 인간적인 정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버스에서 강도를 실패하고 오히려 계산원과 덕담만 주고받은 후 버스에서 내린 부스까페가 친구에게 한 말이 압권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무 착하잖아”. 길을 헤매고 있는 타지역에서 온 택시 기사가 도움을 청하는, (범죄를 저지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결국엔 그와도 친해져 버린 부스까페는 택시 기사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 “상파울루 출신치고는 좋은 사람 같네요”. 부스까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극히 평범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어린아이까지 악을 팔고 총을 겨누는 도시에서 그는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 가장 정상적인 인물이다. 시티 오브 갓이라는 지옥과도 같은 도시에서도 부스까페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 영화에서 부스까페와 같은 인물은 범죄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으로만 그려진다. 그 이상의 모습이 부각되는 경우는 드문데,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장르가 범죄인 영화의 메인은 어디까지나 ‘범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티 오브 갓은 부스까페라는 인물의 삶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아예 그에게 이야기를 진행하는 목소리를 준다. 그는 무겁다면 한없이 무거운 시티 오브 갓의 이야기를 가벼운 분위기로 풀어낸다. 극악무도한 살인, 범죄가 테마인 영화에 비교적 평범한 부스까페라는 인

물을 화자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첫 번째로 시티 오브 갓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묘사한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미화하며, 범죄를 멋있는 것처럼 꾸미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티 오브 갓의 범죄 조직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척결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다. 그의 형도 제 빼게뇨에 의해 살인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는 범죄에 대해 크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영화 중후반부터 진행되는 제 빼게뇨 조직과 세노라 조직의 전쟁을 묘사할 때는 오히려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풀어낸다.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에 의해 자신의 억울함을 억누른다가나, 화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영화적인 설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스까페는 시티 오브 갓에서 범죄가 사라진다는 기대나 희망조차 품고 있지 않다. 범죄에 직접적으로 빠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부스까페는 시티 오브 갓의 악순환과 함께해온 인물로 매일 일어나는 범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적응하고 자신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현실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사진 기자가 꿈인 그는 시티 오브 갓에 산다는 이점을 활용해 두 조직 간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일종의 종전 기자로 활동해서 신문사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그는 마지막에 제 빼게뇨에게 뇌물을 건네는 경찰의 모습을 사진으로 포착하며 부패한 공권력에 변화를 촉구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자신의 신상을 걱정하여 해당 사진을 기사에 실지 않았다. 부스까페는 범죄자도 아니었지만, 영웅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시티 오브 갓에 사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그런 그가 영화의 스토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훨씬 현실적인 시각으로 관객들은 시티 오브 갓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효과는 범죄자의 삶뿐만 아니라 시티 오브 갓에 존재하는 평범한 삶도 부스까페가 보여준다는 점이다. 비록 범죄 조직의 이야기에 비하면 적은 분량이지만, 적어도 시티 오브 갓에 사는 평범한 삶의 모습이 영화에서 아예 배제되지 않았다. 부스까페는 두 조직의 전쟁에서는 제3자였지만, 시티 오브 갓이라는 도시 자체를 제3자의 입장으로 풀어낸 것은 아니다. 부스까페도 엄연한 시티 오브 갓의 구성원 중 한 명이고, 그러므로 그곳에서 사는 자신을 비롯한 평범한 삶도 보여준다. 영화 초반에 부스까페가 친구들과 바다에서 여유를 즐기는 장면이 나온다. 순간적으로 장르가 변경된 것과 같은 착각을 줄 정도로 그 장면은 여유롭고, 하이틴 영화와 같은 설렘을 주기도 한다. 약을 팔고,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 조직의 모습과 청춘을 즐기는 부스까페와 친구들의 평범한 삶은 매우 대조적이다. 하지만 부스까페가 보여준 것은 평범한 삶과 범죄의 삶이 어떻게든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아니다. 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평범함은 조금씩 사라진다. 부스까페가 한 때 좋아했던 안젤리카는 제 빼게뇨의 측근이자 조직의 2인자인 베네와 사랑에 빠진다. 그 둘의 사랑은 깊어지고 나중에는 시티 오브 갓을 떠나 진정 평범한 삶을 꾸리고자 한다. 하지만 도시를 떠나기 하루 전날, 베네는 제 빼게뇨에게 원한을 품은 자에 의해 파티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다. 이 에피소드는 시티 오브 갓 출생의 사람들에게 평범한 삶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꿈과 같은 일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베네의 형도 범죄의 세계로부터 손을 털고 사랑하는 평범한 여자와 떠나려 하지만, 떠나기 직전 경찰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하고 만다. ‘시티 오브 갓’에 등장하는 범죄자 중 일부는 평범함을 갈망했지만, 그것을 이뤄낼 수 없었다. 반면, 애초에 평범하게 살았던 부스까페의 친구인 치아구는 조직이 파는 마약에 중독돼 결국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부스까페에게 버스에서 덕담을 건네준 계산원 마네 갈리나는 군인이었던 과거의 명성에 비해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만, 자기 일을 꾸준하고 성실히 해나가던 인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네의 여자친구는 제 빼게뇨에게 강간당하고, 거기에 더불어 가족들까지 그와 그의 조직에 살인을 당한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그의 신념은 복수심과 충돌한다. 제 빼게뇨 조직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

하고 있던 조직의 우두머리인 세노라는 그에게 조직에 들어오기를 권유한다. 고민 끝에 그는 민간인을 해치지 않는다는 규칙을 만드는 조건으로 그의 조직에 들어간다. 복수심에 그는 자신의 신념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한 것이다. 하지만 타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조직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결국 그 규칙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 과정에서 부스까페의 나레이션은 영화 최고의 명대사이다.

*“1. 규칙이 있다. 2. 규칙에도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3. 예외가 규칙이 된다.”*

결국 기존의 신념은 사라지고 마네 갈리냐는 완벽한 범죄자가 되었다. 그 역시 평범함을 잃고 말았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변화는 부스까페라는 화자에 의해 더욱 극적으로 표현된다. 영화 초반에 부스까페와 친구들이 바다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 버스에서 마네 갈리냐가 건네준 덕담. 영화 초반에 잠시나마 존재했던 평범함은 영화 후반에 남아나질 않는다. 베네와 베네의 형이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삶이 건넨 사랑은 범죄자의 마음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끝내 평범한 삶을 이루는 것은 실패로 돌아갔다. 반면, 범죄자가 평범한 삶에 증오를 심어서 그 삶을 범죄자의 삶으로 바꾸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시티 오브 갓’에서 평범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까페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영화 초반에 잠시나마 보여줬던 평범함은 더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내내 강조한 키워드는 ‘불편함’이다. 하지만 불편함의 정도가 영화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혐오스러운 장면이 많아서 이 영화가 불편한 것이라면, 불편함을 잘 전달했다는 이유로 높은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불편함이라는 감정의 깊숙한 곳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숨어있다면 적극적으로 파헤쳐본 후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 결과, 이 영화가 특별히 불편하게 느껴진 이유는 개인의 광기보다는 사회의 광기가 더 강조되어서 여러 범죄가 묘사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묘사를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장치, 색다른 구성을 이용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글을 쓰는 내내, 범죄자의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사회 시스템 재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러한 내 생각은 절대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영화를 본 후 내 머릿속에는 몇몇 불편하고 위험한 질문들이 떠올랐다. 제 빼게뇨가 그렇게 자신의 조직이 신문에 나는 것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시티 오브 갓의 실태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자신과 자신의 조직에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왜 그는 자신이 이룬 ‘범죄 업적’에 대한 인정을 갈구했을까? 자신이 시티 오브 갓에 꼭대기에서 충분한 돈을 벌고, 동경을 받고 있음에도 왜 세노라가 차지한 구역을 뺏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 그가 한 행동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가 가진 인정욕구, 질투심, 승부욕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들일까? 이 영화를 관람한 내가 불편했던 이유는 제 빼게뇨를 비롯한 인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묘하게 이해되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들의 심리적 상태 때문이었을까? 그들의 빼놓여진 자기실현은 내가 사는 세계에서는 아예 볼 수 없는 것일까? 이 영화는 끝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 [장려상]

### 흔한 지령이들의 용기 있는 반란

####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국어국문학전공  
20161078 이해원

얼마 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한동안 가지 못했던 영화관에 방문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촌스럽고 투박한 포스터와 더불어 무슨 내용일까, 의문을 갖게 하는 영화의 제목에 눈길이 갔다. 포스터의 여성 주인공들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오는 듯한 모습이였다. 이는 마치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를 연상케 했다. 원래 보고자 했던 영화는 다른 것이었지만, 그녀들의 당당함에 이끌려 이 영화를 선택해 관람하게 되었다. 영화 관람을 마친 후 작은 지령이들의 꿈틀거림에 내 마음 역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며 잔잔한 감동으로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영화는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진급이 막힌 여성들이 대기업의 엄청난 비밀을 목격하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렸다. 회사는 그녀들과 같이 고졸 출신의 사원들에게 토익반을 제공하고, 토익 600점을 넘기는 사원에게는 대리로의 진급을 해주겠노라 약속한다. 같은 목표를 지닌 동료들은 한 마음 한뜻으로 중심인물의 행보에 힘을 보태며 자신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는 회사를 지켜내기 위한 뜨거운 반란을 일으킨다.

#### 1. 1995년도의 아름다움

영화의 배경은 1995년도이다. 필자는 1998년생으로, 당시를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이 영화를 보며 그때로 들어가는 듯 했다. 스프레이를 잔뜩 써 하늘 높이 올라가있는 헤어스타일은 고정돼있다 못해 딱딱해 보이기까지 한다. 출근하자마자 커피, 프림, 설탕을 탁탁탁, 황금비율을 맞춰 만드는 손놀림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필자가 어렸을 적 학교에서 보았던 배불뚝이 컴퓨터와 디스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들이라 꽤나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전혀 촌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도는 필터를 사용했다. 이는 과거를 추억하는 듯 어딘가 빛이 바랜 느낌과, 인간미 넘치는 인물들을 만나 따스한 느낌을 주었다. 위에서 사용된 당시 사무용품들의 고증은 부드러운 필터를 만나 더욱 정감 있는 것으로 연출되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연출은 관객을 자연스럽게 당시의 현장으로 인도한다. 또한 스타일리시하게 표현된 그녀들의 사복 역시 1995년도의 촌스러움 대신 그때만의 멋스러움으로 나타나 멋진 영상미를 이루었다.

#### 2. 섬세한 전개, 놀라운 반전

영화는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이라는 기본 플롯에 충실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가 빠른 유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영화들은 다소 어두운 느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경우 이러한 영화들은 쉽게 접근하기에

겁이 나기도 한다. 무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극을 가볍게 즐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화에선 ‘을’들이 ‘갑’에게 억압당하는 그들의 생활이 유쾌하게 그려졌고 그녀들의 복수극이 손에 진땀을 쥐기보다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

또한 촘촘하게 짜여진 극의 서술은 결말로 갈수록 확실한 명분과 자연스러움을 부여한다. 그녀들의 성격과 그들의 애사심, 간절함은 그녀들이 회사를 옹호하는 길로 이끌게끔 하는 힘을 준다. 극의 중심인물인 자영, 유나, 보람이 고난을 겪을 때 그들의 뒤에는 든든한 영어 토익반 동료들이 있었다. 모두 그녀들과 같은, 잡일 중심의 업무를 하며 먼 훗날 대리를 꿈꾸는 고졸 출신 여성들. 각종 어려움 앞에서도 회사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려는 이유는 그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라는 굳은 믿음과 자신이 하는 업무가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전개 과정을 바라보며 가장 큰 빌런은 폐논 방류에 가담했던 전 공장장이자 현 본사 상무인 오태영 상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가 폐논 방류량을 거짓 작성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끔 한 인물인가? 첫 번째 반전은 이곳에서 나타난다. 그녀들이 찾던, 강의 폐논 검출 수치를 조작한 인물은 놀랍게도 보람에게 가장 멋지고 인간미 있는 상사로 기억되던 봉현철 부장이었다. 폐논 방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회사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진다. 이때, 외국인인 사장이 외국계 회사와의 회사 통합을 추진한다. 그는 지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를 지녀 홍보부로 하여금 회사의 홍보모델로 언급되었다. 또한 폭력을 휘두르려는 상무를 리더십으로 제압하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었다. 두 번째 반전은 수려한 외모로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인 그가 사실 회사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추락시켜 헐값에 회사를 흡수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 그러나 그 반전 사이의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는 관객의 뒤통수를 때리는 반전이지만, 막상 반전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납득하게 된다. 이전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스쳐 보냈던 장면들이 사실 이 반전을 위한 단계였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에서 을들이 갑에게 시원한 ‘사이다’를 날릴 때,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 토익반의 여성들이 모여 영어 보고서들을 밤새 해석하고, 전국에 퍼져 있는 주주들에게 모두 찾아가 명부를 받는 일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일반 직장인들이 하기에 시간상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또한 그녀들은 사원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나중에 퇴근하며 각종 잡일을 도맡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은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저지르는 그녀들의 앙큼한 반란은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에 대해 눈을 감은 채 응원의 눈길을 던지게끔 한다.

### 3. 개성 넘치는 캐릭터

극을 이끄는 중심인물들은 고아성(이자영 역), 이솜(정유나 역), 박혜수(심보람 역)이 세 명이다. 이들은 각각 확실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먼저 생산관리부에서 일하는 이자영은 맡은 일을 척척 해내는 인물이다. 황금비율의 커피를 사무실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제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서류들의 위치 역시 그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도 찾지 못한다. 그녀가 사무실을 비우면 ‘사무실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뼈빠가 울릴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다. 정유나는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대졸 출신 대리에게 아이디어를 뺏기기

일쑤이다. 세상에 대해 날카롭게 고찰하며 부당함 앞에선 시원하게 욱도 할 줄 아는, ‘멋진 언니’의 표본이다. 심보람은 수학 올림피아드 출신으로 암산과 각종 계산에 능하다. 소심하고 이상한 것에 집착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이 많고 마음 따뜻한 여성이다. 이 능력 있고 개성 있는 세 인물이 한데 뭉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서로 이끌어주며 대기업과 뜨거운 한판을 벌인다.

영화는 회사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정말 우리의 주변에 있을 법한 사람들밖에 없다. 깐깐하지만 일하는 확실하게 처리하는 상사, 알뜰게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상사, 그럼에도 미워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 극 속에서 악역으로 생각되는 인물들 역시 그렇다.

사람을 이분법화 해 악인과 선인으로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세상에 무조건적인 악당과 히어로는 없는 법이다. 누군가에게 못된 사람이 누군가에게 착한 사람으로 평가되듯이 말이다. 잘생기고 지적인 이미지를 뽐어 회사를 대표하는 홍보모델 감으로 언급되는 외국인 사장은 알고 보니 회사를 팔아넘기려는 검은 속내를 감춘 사람이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전 공장장이자 현 본사의 상무는 후임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붙이며 사람에게 기댈 줄 아는, 조금은 어린아이처럼 징징대는 면도 있는, 사람에게 정이 많은 인물이다.

필자가 영화에서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인물은 심보람이 근무하는 총무부의 부장인 봉현철 부장이다. 그는 말 수가 없고 어딘가 멍해 보이는 심보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조언을 건넨다. ‘하고 싶은 일을 해, 하기 싫은 일은 하지마’ 누구나 하기 쉬운 말이고 누군가에게는 흔히 말하는 끈대의 너무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말은 보람에게 흔쾌히 사무실에서 금봉어를 키울 수 있게 해준 부장의 따사로움과 만나 ‘끈대’가 아닌 ‘진짜 어른’의 조언으로 들리게 했다.

그가 암 말기로 퇴사를 하고 보람은 그의 병문안을 간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폐놀 유출 사건, 특히 피해 지역 강의 폐놀 검출 결과 보고서를 누가 조작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었다. 보람은 이러한 상황과 고민을 자신이 가장 믿고 따르던 현철에게 털어놓는다. 그러나 그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녀들이 애타게 찾던 서류 조작범이 바로 현철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가 누군가의 지시로 일을 행했건, 그의 행동은 분명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어딘가 서글픈 눈으로 그렇게 못나게 살아서 암에 걸린 것 같다는 그의 읊조림은 그의 기본 성품을 되돌아보게 하며 안쓰러운 감정을 일게 했다.

결국 보람은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한다. 현철은 수학 영재 출신의 그녀가 총무부에서 접대비용 등 부당하게 사용한 영수증의 구멍을 메우는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 부하직원이라고 해도 그녀를 존중할 줄 아는 성품을 지녔고, 그 누구보다 그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기업에 취직하면 뭐해, 회사 사람 중에 아무도 조문 오는 사람이 없는 걸’이라는 친척들의 조롱에 보람 듯이 홀로 찾아와준 것 역시 현철이었다.

그녀는 그런 그를 차마 고발할 수 없었다.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쏟아지던 날,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수사에 열중인 그녀의 친구들을 뒤로하고 그녀는 현철의 병실을 찾는다. 현철과 보람은 병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비가 쏟아지는 창문을 바라본다. 그의 병실에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는다. 그에게 지난날의 울분을 다 쏟아낸 보람에게 현철은 나의 과거를 후회하고 있으니, 너는 늦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말을 해준다.

그녀가 하고 싶은 일, 멋진 회사에 다니며 대리리를 달아 커리어우먼으로 성장하는 일. 창밖의 비처럼 하염없이 울던 보람이 그의 말에 눈물을 그치고 고개를 든다. 둘이 함께 바라보는

창에는 비가 어느새 그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 길로 돌아 친구들에게 달려간다. 비와 함께 고민을 떠나려 보내고, 햇살을 맞이한 그녀가 그 순간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지난 행동은 비도덕적인 행동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지금 걸어야 하는 길을 안내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든든한 받침목이 되어 그녀를 끝없이 보듬어 준 봉헌철 부장은 악인일까, 선인일까.

#### 4. 영화의 모티프

영화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대기업의 권력에 맞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들의 반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사를 이끌며 영화에서는 중심이 되는 키워드들이 존재한다.

우선 영화의 제목에도 등장하는 ‘영어 토익반’이 그러하다. 회사는 고졸 출신의 직원들에게 토익 공부의 장을 제공하며 토익 점수 600점이 넘을시 대리 승진이라는 엄청난 제안을 한다. 이에 대해 ‘초 치는’ 성격의 유나는 말한다. ‘토익 600점이 말이나 돼? 이거 다 정리하고 하려고 각 잡는 거야’ 이에 대해 친구들은 모두 그녀의 말을 가볍게 무시한 채 정해진 토익 점수를 넘겨 대리가 될 생각에 들떠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사실 유나의 말은 옳다. 1995년도 당시는 사교육조차 흔치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토익 600점은 대학 출신들 역시 넘기 힘든 점수였다. 영어의 기본도 탄탄하지 않은 그녀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수기도 했다. 또한 회사가 정말로 그녀들에게 대학 출신의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공고문을 내건 것일까? 유나의 극 중 대사를 빌리자면 저학력, 저부가가치의 여성들이 사회로 나오게 된 배경은 ‘싸고, 말 잘 듣기’ 때문이다. 저비용으로 쉽게 부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배움의 장을 열어 준 것은 해당 회사가 훌륭한 덕목을 지닌 곳이기 때문일까?

토익반의 형성이 지니는 의의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활용이 순전히 저학력 직원들을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화의 영어 토익반은 ‘자기계발’이라는 명칭과 상통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서점의 많은 베스트셀러는 자기계발서로 이루어져 있고, 일반 시민들은 끝없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는 굉장히 발전적인 태도로 평가되지만 사실 자기계발의 논리는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이다.

자기계발이라는 말은 사실 대기업에서 만들어낸 단어이다. 영화의 내용과 동일하게, 회사는 복지차원으로 당사의 직장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를 다질 수 있는 경험을 시켜준다. 의의는 굉장히 긍정적이거나, 곧 이의 활용은 폭력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진급에 좌절하거나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무기로써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당사가 당신에게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당신이 우리가 애써 지원한 자기계발 무대에서 실패했고, 당신은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그들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사원들에게 제공해 박수갈채를 받은 행위는 대기업이 피지배자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것이었다.

영화는 자기계발의 이데올로기를 대표로 드러내며 은연중에 대기업의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폐논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피해 지역의 강물에서 폐논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에 대한 보고서에서 폐논 검출 수치를 대폭 감소하며 조작한 것이다.

생산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폐논 방류를 처음으로 목격했던 이자영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최동수 대리와 함께 마을 주민들을 만나며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다. 이는 그녀가 회사에서 제공한 폐논 방출 수치가 진실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기업에서 이익을 위해 주민이 겪는 신체적 고통을 외면하며 적은 액수로 그들을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서명을 받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던 자영은 사과나무 밭의 한 음악가가 자신의 몸을 피가 나도록 긁는 것을 마주하며 의문을 가진다.

두 번째 모티프는 바로 앞에 언급한 '사과'이다. 영화는 생각보다 첫 장면에서 많은 정보를 남기곤 한다. 자영, 유나, 보람이 영어 토익반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다. 유나와 보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영은 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소개한다. 'I like a apple'. 자영은 사과를 좋아한다는 소개로 영화는 시작한다. 이것만으로도 영화는 후에 사과가 중요한 모티프로 사용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후 영화의 전개부분까지 사과의 존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다 자영이 폐논의 검출량이 매우 극소량이니, 합의서에 서명해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마을을 돌아다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 보이는 주민을 만난 곳은 다름 아닌 사과밭이었다. 후에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찝찝함을 느낀다.

후에 그녀와 친구들의 열띤 조사를 통해 보고서가 조작되었으며 실제 폐논 검출 수치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양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녀가 지난날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합의서를 받았던 것에 발목을 잡혀 주민들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녀는 최동수 대리와 함께 다시 공장이 있는 지역을 방문한다.

그렇게 마을을 정처 없이 떠돌다 한 소녀를 마주하게 된다. 하필 그곳은 지난날 자신이 의문을 품었던 그 사과밭이었다. 그녀는 자영에게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며, 현재 수술비가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눈물을 흘린다. 자영은 그때 몸을 심하게 긁던 남자가 지금 울고 있는 소녀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괴로워한다. 가까스로 눈물을 삼킨 소녀가 자영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선물을 준다고 들고 온 것은 '사과'였다.

자기소개에서 사과를 좋아한다고 밝혔을 만큼 사과를 애정하는 그녀이지만, 험사리 사과를 베어 물지 못한다. 폐논이 식수와 농업수로까지 뻗쳐 소녀가 건넨 사과가 폐논 덩어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녀가 해맑게 '보기엔 이래도 맛있다고 말하는 그 사과는 얼핏 봐도 건강해보이지 않았다. 자영은 소녀를 뻥히 바라보다 이내 웃으며 사과를 한입 가득 베어 문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외국인 사장은 회사를 팔고자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그녀들은 그를 이길 최후의 수단인 '다이너마이트'를 등에 업고 그의 사무실에 잠복해 그를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온 사장에게 그의 비서가 건넨 것은 '사과'였다. 사과밭의 소녀가 자영에게 집에 가져가 가족과 함께 먹이라며 싸준 그 사과를 악인인 사장에게 건넨 것이다.

자영에게 사과는 처음엔 단순히 좋아하는 과일이었다.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사과는 더욱 복잡한 의미를 지닌다. 빨강고 동그란 모양을 지닌 사과는 우리의 심장과도 비슷한 모양을 지녔다. 그녀에게 있어 사과는 그녀의 죄책감, 양심이었다. 소녀가 건넨 폐논 사과를 베어 물며 소녀의 가족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에 자신의 탓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미안함을 느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일념에 눈을 반짝였다. 사장에게 준 사과의 의미 역시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며 그에게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되돌려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독성에 바짝 말라비틀어진 사과를 사장에게 주면서 이는 그의 인간성이기도 하니, 그가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길 바랐을 것이다.

마지막 주요 모티프는 '지렁이'다. 영화에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속담이 총 두 번 등장한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토익반에 모여 선생님께 한국 속담을 영어로 배울 때, 다음에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영어 토익반의 말단 여성들이 한데 모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라는 영어 문장을 다함께 크게 소리친다. 필자 역시 사회 속에서 한낱 지렁이일 뿐이기에, 해당 장면에서 온몸에 전율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일반 서민들 역시 파워가 존재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세 인물들이 회사의 비리를 목격하고, 이에 대해 묵인하지 않으며 자신의 소신을 펼치겠다는 다짐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작은 지렁이에 불과했지만, 자신이 회사를 들어와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무너져 내리며 이에 대한 회의감에 함께 묻쳐 한번 대차게 꿈틀거려보자 다짐한 것이다.

페놀 검출 수치의 진실을 알게 된 자영이 죄책감을 안고 마을로 들어서고, 소녀의 사과를 받아들여 그녀는 진실을 파헤쳐 이를 알리겠노라 다짐했다. 후에 최동수 대리와 마을을 빠져 나오며 그에게 진실을 캐묻는다. 최동수 대리는 직급은 대리이지만 자영보다 후배로, 그녀에게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던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가 그녀의 소신발언 후 갑자기 차를 멈춰 세우게 하더니 직급을 운운하며 호통을 친다. 그녀는 여기서 또 한번 꿈틀한다. 후배였다곤 하더라도 상사인 대리의 등짝을 내리치며 아픈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다. 이 기적이라며 크게 화를 낸 것이다. 이내 최동수 대리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는 사실을 모조리 고하며 최고의 조력자가 된다.

세 여성이 열심히 모은 증거들을 들고 신문사를 찾아가지만 다음날 돌아온 기사는 사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그녀들을 향한 징계조치. 보람을 지키기 위해 현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며 그녀들은 가까스로 회사에 남게 되었다. 생각보다도 더욱 거대한 대기업의 권력 앞에서 그녀들은 포기할 법 했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토익반 동료들 통해 폐기처분되었다던 사장의 비리 자료를 가까스로 얻어냈다. 또한 비어있는 토익반의 강의실에서 영어로 된 보고서 더미들을 해석하기 위해 밤새 애썼다. 잠깐 졸다 눈을 뜬 그녀들의 앞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녀들의 토익반 동료들이었다. '같은 처지에 너네만 멋있는 일 할거냐'는 장난스런 투정과 함께 지렁이들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그들의 반란은 성공을 이루었다. 그들은 회사의 주식을 조금이라도 지닌 사람들을 모두 찾아다녔다. 회사가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주식은 상승세를 보이다 곧 하락하게 될 것임을 설명해 그들의 마음을 얻어냈다. 결국 대주주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티끌과 같은 주주가 모여 태산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는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그녀들이 부패한 권력자를 위해 준비한 '다이너마이트'였다. 결국 그들이 너무나 아껴 지키고자 했던 회사는 지킬 수 있었고, 대규모 구조 조정 역시 막을 수 있었다. 지렁이들이 한데 모여 꿈틀거리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대한 힘을 지니게 된 것이다.

영화 속에서 많은 모티프와 상징들이 존재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위 세 가지이다. 대기업의 횡포와 권력,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영어 토익반', 인간의 양심과 죄책감을 되새기는 도구인 '사과', 작은 소시민의 힘과 그 힘의 유대가 보여주는 '지렁이'들의 반란. 영화는 이 세 가지의 모티프를 중심으로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용기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 5. 결론

이 영화에서 소시민은 '여성'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실제로 당시 여성의 권력은 미비했고, 알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이에 대한 부당함 역시 대사를 통해 다수 드러났다. 그러나 필자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여성의 인권 상승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에 대항하고자 한 것은 회사의 일반 사원들 모두였기 때문이다. 토익반 여성들을 도와 주주 명단을 처리하고 주주들의 서명이 담긴 서류들을 들고 사장실로 들고 온 것은 그녀들 보다 직급이 높은 회사 '동료'들 이었다. 결국 그들 역시 직급을 떠나 토익반 여성들과 같은 소시민이고, 같은 마음이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영화에서 유나가 일하는 부서의 부장은 '어제의 너보다 오늘 더 성장했어!' 라는 말을 한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돈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택한 그들은 어제보다 더욱 강해졌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도 성장의 나날을 이루리라 믿는다. 또한 필자 역시 사회에서 작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나만의 소신을 지키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 꿈을 붙여넣는 BFG

국어국문학전공  
20161014 김예지

### 1. 마이 리틀 자이언트 (The BFG)

어드벤처 부류의 영화가 나오면 꼭 아이가 나온다. ‘나니아 연대기’나 ‘오즈의 마법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떠오르는 이야기는 많다. 나니아 연대기의 경우는 일정 수준의 나이가 되면 나니아 연대기란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제한도 있다. 아이만이 가지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순수함과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없다. 세상이 만든 틀에 얽혀있지 않고 당당하게 나선다.

영화 초반부터 여자아이 ‘소피’는 고아원에 있으면서도 밖에서 어른들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것이라면서 겁을 준다. 당돌하고 당찬 ‘소피’이지만 침실로 되돌아가던 중에 작은 인형의 집을 쳐다본다. 예쁘게 꾸며진 침실의 침대를 쳐다보고 지나간다. 찰나의 순간이지만 극 초반부의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소피가 실제 인형의 집과 비슷한 공간에서 자고 일어난다는 유사한 점이 있다. 소피는 ‘소피의 꿈’을 이룬 것이다. 소피는 꿈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 소피가 바라보는 것, 소피가 읽는 책 그리고 BFG(Big Friendly Giant)인 거인 아저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알려준다.

소피는 거인 아저씨를 BFG라고 부른다. 이는 원작과 관련이 있다. 앞서 아이가 나온다고 한 영화들의 공통점 또한 원작이 있다는 점이다. 로알드 달의 <내 친구 꼬마거인>(The BFG, 1982년)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Charlie and the Chocolate Factory, 1964)을 지은 작가이기도 하다.

감독은 스티븐 스피버그이며, ET, 라이언 일병 구하기, 워 호스, 리얼 스틸 등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히트작을 낸 거장이다. ‘마이 리틀 자이언트(2016)’는 스티븐 스피버그와 디즈니의 합작으로 탄생한 영화이다. 스티븐 스피버그 특유의 긴장감, 긴박함 속에 잔잔한 감동이 물신 묻어나는 감상과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몽환적이고 스크린에 빠져드는 듯한 CGI(computer graphic image)가 잘 어우러져서 영화에 푹 빠져들게 된다. 유명하고 많이 접해 봤을 거라고 생각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느낌과 겨울왕국의 이미지, 색채를 생각해 보면 이 영화가 얼마나 매혹적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이처럼 각자의 특색이 보이는 것 또한 이 영화의 재미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실존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인 컴퓨터로 만든 이미지를 통해 실제 사람이 나오며, 7m나 되는 거대한 자이언트 역시 컴퓨터로 조작된 이미지로써 그와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계속해서 만난다. 자칫하면 영화의 몰입을 깰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선 조금의 어색함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자연스러움에 ‘영화니까 그냥 보자’라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다. 이는 영화에게 있어서 큰 메리트라고 본다.

## 2. 자이언트와 아이의 만남

소피는 앞에서 당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피가 말하는 마법의 시간인 새벽 3시에 혼자 돌아다닐 때의 일이지, 아이들이 모여서 자는 방에 들어오면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 창가에선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을 등지고 손전등을 켜고 책을 읽는다. 그마저도 누군가가 와서 방을 들여다보면 자는 척을 해야 한다. 이것만 봐도 소피는 고아원에 대해 불만이 있고, 억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소피에게 밖에서 소리가 나자 소피는 침대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침대 밖을 나서고, 창문을 열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창문을 연다. 그리고 이 둘은 만나고 소피가 자이언트 나라에 가게 된다.

이는 단순히 봤을 때 우연이지만, 훗날 자이언트는 엄청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나무가 말하는 소리나 개미가 흙에서 말하는 소리, 하늘의 별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풍뎅가리가 나뭇잎을 기어가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며 자신의 비밀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피에서 들은 외로움을 듣고 나타난 것이다. 일부러 인기척을 내고, 소피가 나타나면 소피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이다. 원래는 자이언트와 인간이 만나면 안 된다. 하지만 자이언트는 소피의 소리를 듣고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기척을 내고, 소피가 내다보면 그때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그렇게 소피를 데려온 자이언트는 고아원에서 데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거기서 행복했는가?”라고 묻는다. 납치하고서 납치범이 행복에 관해서 묻는다. 여기서 단순하게 소피를 데려왔다고 생각이 되진 않는다. 소피가 되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미 너는 나를 봤고, 거인이 있다고 온 세상에 말을 하고, 구경거리로 만들다가 결국엔 사냥할 거라면서 안 된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형식상의 이유일 뿐이지 나는 네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데리고 온 것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BFG를 제외하고도 다른 자이언트들이 있다. 총 아홉 명이고, BFG는 7m지만 그들은 수십 미터에 달한다. BFG를 장난감처럼 대하는 듯이 가지고 놀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소피를 데리고 꿈을 채집하러 갈 때, 자이언트들에게 잡혀서 괴롭힘을 당한다. 소피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다. 다행히 비를 싫어하는 자이언트들에게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야 벗어난다.

자이언트 아홉 명 모두가 비를 싫어하는데 BFG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BFG가 자이언트들에게 “우리도 한때는 다 착했었다.”라고 한다. 하지만 자이언트는 “그건 옛날얘기다.”라고 매정하게 말한다. 총 10명의 자이언트 중에 BFG만이 선으로 남아있다면, 나머지 식인을 하는 아홉 명은 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물이라는 매체로 분별할 수 있다. 소피도 역시 자이언트들을 피해 ‘콩콩 오이’라는 거대 과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온몸이 콩콩 오이로 뒤 덮힌다. 그때, 물로 샤워를 하는 장면이 있다. 밖에서 우산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비를 맞는 것과 온몸이 진흙이 묻어서 씻을 때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후자는 보기만 해도 개운하다. 이는 소피도 BFG와 같은 선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소피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거대 자이언트들 사이에서 BFG는 힘이 없어서 식인하는 자이언트를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잠자코 볼 수만도 없다. 조금이

라도 무언가를 하고자, 보탬이 되고자 인간 세상에 와서 꿈을 불어넣는 중에, 소피를 발견하고 데려온 것이다. 가뜰이나 식인하는 자이언트 나라에 소피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소피가 자이언트에게 먹히는 꿈을 꾸게 해서 겁도 주고, 나중에 의도치 않게 들켰을 때는 다시 고아원에 소피를 둔다. 하지만 그때 이미 BFG에게 매료된 상태이고 일부러 BFG가 도와줄 수밖에 없을 만한 행동을 해서 다시 자이언트 나라에 가게 된다.

### 3. 꿈과 꿈

BFG는 꿈을 채집하고 그 꿈을 인간 세상에 가서 사람들이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준다. 자이언트 나라 한구석에 무성한 나무와 연못으로 둘러싼 그곳에 가면 꿈을 채집할 수 있다. 꿈에는 나쁜 꿈도 있고 좋은 꿈도 있다. 그렇다고 좋은 꿈만 채집하는 것이 아닌, 나쁜 꿈도 채집해서 소피한테 겁을 줄 때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금빛 날개를 가진 ‘소피의 꿈’이 나온다. 이로 비추어보면, 사람들이 잘 때 생기는 꿈이 아닌, 사람들이 소망하는 꿈이 이 공간에서 금빛 날개, 초록색 날개 등 여러 가지 색깔로 발현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소망을 갖고서 꿈에서라도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BFG는 이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그에게 어울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소피가 고아원에서 책을 읽다가 자이언트 나라에 오게 됐는데, 그때 가져온 책이 있다. ‘니콜라스 니클비’이다. 이 책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작되는 니콜라스 니클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에는 좋은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결말로 끝이 난다. 바로 이 책이 바로, 소피도 모르던 소피의 삶 혹은 소피의 꿈이다. 자이언트 나라를 떠날 때, BFG가 본 소피의 꿈에 대해서 말해준다. 소피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즐겁게 산다고 말해준다. 가끔은 절망할 때도 있지만 힘든 일, 행복한 일 다 겪는다고 말한다. 누군가에겐 평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평범함이 누군가에겐 꿈이자 소망이다. 그리고 이것은 자이언트 나라가 아닌 곳에서만 이를 수 있고, 소피도 이를 이해한다. 이를 통해 마지막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었다.

여기서 꿈은 직업, 진로가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꿈이라고 지칭한 점이다. 평범하지 않은 소피는 그런 평범한 삶을 원했다. 그리고 고아원이라는 공간에선 이를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던 꿈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이를 수 없는 다른 나라에 와서야 가능성이 보였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아원에서부터 소피는 당찬 모습이지만 새벽 3시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자이언트 나라에서는 고아원 원장이 만든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었다. 새벽 3시의 소피가 자이언트 나라에서는 24시간인 것이다. 고아원에선 소피라는 자아 자체가 억눌렸지만, 자이언트 나라에 갔을 때 비로소 자신의 기개를 펼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이는 소피가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가능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다. 소피의 꿈인 금빛 날개 꿈을 잡아서 병에 넣었을 때, 그 꿈은 소피를 마주하고 소피 얼굴을 그려주었다. 이를 볼 땐, 소피의 꿈은 소피라는 사람이 중심이다. 고아원에서 자이언트 나라에서도, 소피는 취객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라는 그런 당찬 힘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어디서나 자신을 잃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소피는 이질적인 공간에서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하게도, 이는 BFG의 역할도 컸다. BFG는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서 잘 때 꿈을 불어넣어 주지만, 사실 BFG는 아

이들이 실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러질 못하니 꿈에서라도 도운 것이다. 우선은 꿈을 채집하고 밤에 인간에게 꿈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 소피 안의 외로움 소리를 듣고 소피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준 점. 그리고 거인은 지구가 생길 때부터 존재했으니 인간과의 조력자 정도, 혹은 ‘나의 리틀 자이언트’라는 영화 세계관 안에서만큼은 하나의 생태계로써도 존재했을 것이다. 이것은 BFG가 했던 말 중의 하나인 “우리도 한때는 다 착했다.”라고 한 점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 4. 미장센

소피를 보면 의상이 계속 바뀌고, 안경을 쓰고 빼고를 반복한다. 소피가 착용한 안경, 빨간 재킷, 잠옷, 마린룩을 통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분석해보았다.

처음 소피는 침대에 숨어서 책을 볼 당시였다. 잠옷을 입고 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로 자이언트 나라에 온다. 겁에 질려서 BFG와 대화를 한다. “여긴 어디죠? 날 잡아먹지 말아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BFG는 웃으면서 “나 같은 거인은 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같으냐? 난 그런 짓 안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소피는 “그럼 당신은 어떤 종류의 괴물이죠?” 하자 “넌 날 모른다.”라며 음식을 하려고 ‘콩콩 오이’를 칼로 썰자 소피가 날아가면서 안경이 벗겨진다. 그리고 다시는 인간 세상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에선 어느 순간 소피는 안경을 끼고 있다. 반면에 BFG가 ‘니콜라스 니클비’를 읽어줄 때는 안경을 벗으면서 잠이 든다. 또한, BFG가 소피에게 자이언트에 의해 잡아먹히는 꿈을 꾸게 할 때는 안경을 쓰고 있다가, 잠에서 깨서 소피가 BFG와 대화를 할 때는 벗고 있다.

두려움의 상태일 땐 안경을 쓰고 있고, 편안한 상태일 때는 안경을 벗고 있다. 대화를 하며 소피가 점점 긴장이 풀리고 안전하다는 것을 안경이라는 매개체로 알려준 것이다. 벗었다가 썼다가를 반복하는 것은 미지의 공간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표현했다고 본다.

자이언트를 피해 콩콩 오이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소피는 더러워진 잠옷을 벗고 BFG가 준 옷 중에 빨간 재킷을 입는다. 그 재킷을 본 BFG는 그 옷이 어디에 났냐고 묻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내 BFG는 꿈을 채집하러 간다고 하고 소피를 작업실(꿈 모아두는 공간) 중앙의 나무 구멍에 넣어준다.

그 공간에도 채집한 꿈들이 모여 있었는데, 보통의 다른 꿈들이 담겨있는 병보다 작았다. 그리고 들려오는 아이 웃음소리와 함께 병에 담긴 꿈들을 둘러보고, 빨간 재킷을 유심히 보더니 뒤집어 입는다. BFG가 빨간 재킷에 대해 말해주진 않았지만, 재킷의 주인이 있었고 바로 이 공간은 그 재킷 주인의 꿈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혹은 빨간 재킷의 주인이 채집한 꿈을 모아둔 공간 정도일 것이다.

물론 이 당시 소피는 빨간 재킷의 의미를 구체적으로는 몰랐다. 한참 뒤에 자이언트들이 소피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소피를 잡아먹기 위해 작업실에 찾아온다. BFG에게 한 자이언트가 이렇게 얘기한다. “저번에는 다른 애가 찾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찾는다.”라고 말한다. 아마도 빨간 재킷의 주인은 자이언트들에게 잡혀서 생을 마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난리 통에 꿈이 담긴 병들이 깨지면서 꿈들이 다 나오게 된다. 이때 BFG가 한 꿈을 잡았다가 놓아주는데 소피도 자이언트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숨겨진 작은 방 하나를 발견한다. BFG가 잡았다가 놓아준

그 꿈이 방 안에 있는 소피 주변을 맴돈다.

이 공간은 빨간 재킷을 입었던 아이의 방이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BFG와 빨간 재킷을 입은 아이가 그려진 그림이 있고, 앞서 말한 빨간 재킷을 입은 아이의 꿈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서 ‘나비들’이라고 적힌 꿈이 담긴 병이 있었다. 그리고 이 방의 침대에 나비표본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보아 이 두 개의 방은 일맥상통한다.

이제 빨간 재킷을 입은 아이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알게 된 소피는 뒤집어 입던 재킷을 벗어서 이제는 뒤집지 않은 재킷의 상태로 그 방에 두고 나온다. 소피가 나오자 소피 주변을 맴돌던 꿈은 어디론가 날아가 사라진다. 마치 이 꿈은 빨간 재킷을 입은 아이의 영혼처럼 느껴지고, 소피가 추모하자 안심한 듯 떠난 것으로 비친다. 자신이 없어도 BFG 곁에는 소피라는 아이가 있으니까 말이다.

BFG는 소피에게 빨간 재킷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소피에게 그 방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다. BFG는 빨간 재킷이 유품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고, 이는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과오를 잊으려 했던 것이고, 굳이 소피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피는 왜 재킷을 뒤집어 입었을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재킷을 입었을 때 BFG의 반응을 미루어보아 심상치 않은 옷임을 알아챘다. 소피는 이미 BFG가 소피 이전에 소피와도 같은 아이를 자이언트 나라에 데려간 것을 안다. 내가 입을 수 없는 옷이고 다른 이의 옷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재킷을 벗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빨간 재킷을 벗지 않고 뒤집어 입는다는 것은 지금의 소피가 그 빨간 재킷의 아이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아이와 나는 똑같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앞서 말한 소피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이언트들이 작업실에 들이닥치기 전부터, 먼저 소피와 BFG는 자이언트들을 물리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자이언트들이 가고 방을 나오면서 소피는 여왕의 사진 혹은 그림을 보고 여왕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왜 그 방에 여왕의 사진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엄마일 수도 있고, 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이언트들의 상황은 같으니 소피처럼 타도 자이언트를 하고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여왕을 만나기를 성공한 소피는 잠옷에서 왕실에서 입혀준 마린룩을 입게 된다. 즉, 소피의 옷을 서사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잠옷에서 빨간 재킷, 다시 잠옷에서 마린룩이다. 잠옷은 소피가 고아원에서 입었던 옷이고, 빨간 재킷은 빨간 재킷의 주인이 BFG와 함께했던 것을 소피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마린룩은 ‘빨간 재킷’처럼 소피만의 특정한 ‘옷’이 되는 것이다. 소피의 계획대로 여왕은 응해주었고, 자이언트들은 식인할 수 없도록 아무도 모르는 섬 어딘가에 가게 되었다. BFG와의 만남은 빨간 재킷을 입은 아이와 같았지만, 끝은 소피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옷은 소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잠옷은 총 두 번에 걸쳐 입고 있는데, 고아원에서 자이언트 나라로 넘어올 때 입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킷을 벗은 직후 여왕에게 도움을 청할 계획을 세울 때 아직 그 계획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기에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서로를 돕는다는 것

이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긋하고 지긋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만남 같은 그런 순수한 정과 사랑이 느껴진다. 비록 괴롭힘당하고 말도 배우지 못해서 미숙하고 어눌하게 하지만 지구가 생겼을 때부터 자이언트는 존재했다고 말한다. 그런 연륜으로 소피에게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준다.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임에도 계획을 짜고 BFG와 협력해서 여왕을 설득하기에 성공한다. 더 나아가 거인을 멀리 보냄으로써 식인으로부터 사람들도 안전해지고, 괴롭힘을 당하던 BFG도 안전해진다. 항상 남모르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던 BFG는 소피가 BFG의 노고를 알아주게 된다. 또한, 자이언트들에게 힘없이 당하고만 있다가 소피를 통해 여왕의 지시에 따라, 근위대가 와서 자이언트들을 헬기에 묶어 외딴섬에 보내버린다. 이제는 BFG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자이언트 나라에서 BFG는 약자이고, 인간 세상에선 부모가 없는 여자인 소피도 약자이다. 그런 약자 둘이 모여서 큰일을 해냈다. 약자가 약자를 돕는 것이다. 고아원에 있는 소피를 BFG가 구해줬듯이 나중에 그 거인들에게서 소피가 BFG를 구해준다. 서로서로 도와주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 만약 둘 중 한 명이 강자이고 한 명이 약자라면 일 방향으로 약자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서로가 약자이기에 양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보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울리게 한다.

소피가 처음 자이언트 나라에 잡혀갔을 때나, BFG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소피가 위험한 일을 벌일 때 등 조마조마하고 심장 졸이면서도 그들의 서사에 감동하고 미소 짓게 된다. 마지막에는 소피가 왕실에서 일어난 후 ‘굿모닝 BFG’라고 속삭이면서 끝이 난다. BFG는 자이언트 나라에서, 소피는 인간 세상에서 자신의 본분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뤄준 것이다.

## 청년세대의 욕망실현, 영화 <버닝>

국어국문학전공  
20161045, 박진경

### 1. 서론

현재 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창동 감독은 이전에 소설가로 활동했었다. 영화 <버닝>의 감독 이창동은 <버닝>의 시나리오를 직접 썼으며, 이창동 감독이자 작가는 자신의 자의식을 영화 <버닝>에 반영했다. 이창동 감독은 등장인물 종수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어떤 불을 태울 것인가?”를 청년세대에게 묻고 있다. 이창동 감독에게 ‘청년’에 관한 주제는 이번 작품이 처음이 아니다. 1997년, 영화 <초록 물고기>에 청년과 삶 그리고 농촌에 대한 시대적 모습을 리얼리즘 요소를 사용하여 그려낸 이력이 있다. 영화 <버닝>에서도 사실주의적인 연출과 대사를 장면 안에 녹아내어 의미를 전달하고자했다.

영화 <버닝>에 정신학적 분석을 더하여 보면, 감독이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중점적으로 라캉의 팔루스 개념을 대입하여 살펴볼 수 있다. 팔루스는 남근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이는 아버지의 이름의 질서로, 허상적인 것이다. 팔루스의 근원은 남성의 성기인 페니스이다. 팔루스는 생물학적인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것이 아닌 페니스의 상징적, 상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화 <버닝>에서는 장면 안에 팔루스 개념을 대입하여 연출하였다. 직·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등장인물이 지니고 있는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 등장인물이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이창동 감독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종수, 해미, 벤, 종수 아버지)을 중심으로 장면을 분석하여 감독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찾아보고자한다.

### 2. 본론

#### - 욕망 실현과 공간의 연관성, ‘빈집의 모티브’-

크기와 상관없이 자신의 첫 번째 욕망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태어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 교육 기관에 들어가 사회에 발을 내딛는다. 우리는 나를 제외한 타인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비교하고 기대하며 크고 작은 욕망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러한 욕망의 근원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시작 됐을까.

이창동 감독은 초록물고기, 버닝 등과 같은 영화에 청년 세대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담아냈다. 특히 <버닝>에서는 현실 앞에 가로막힌 꿈 즉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욕망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다.

영화에서 첫 번째 욕망을 엿 볼 수 있는 장면은 종수와 해미가 건물 뒤 좁은 골목에서 담배를 태우는 모습이다.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았던 둘은 근황을 묻는다. 이후 종수가 종이컵에 침을 뱉고 같은 종이컵에 해미가 침을 뱉는다. 이 장면은 타액이 종이컵에서 섞이는 장면으로, 해미가 종수를 욕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 버닝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헛간을 태우다'라는 소설을 무대로 하고 있다. 헛간은 빈 집을 얘기하며, 버닝에서는 비닐하우스로 표현하고 있다. 버닝에 등장하는 벤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들 즉 적자를 뜻한다. 종수의 삶과 비교했을 때 벤은 팔루스에 더 가까운 인물이다. 벤은 팔루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지만, 팔루스의 존재이다.

앞서 말한 종수와 해미가 타액을 섞는 장면 그리고 종수와 해미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통해 해미가 종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미와 벤은 아프리카 여행에서 만난 관계로, 함께 테러 상황을 극복한 후 같이 귀국한 사이이다. 해미는 소설가를 꿈꾼다는 종수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여행 이후 슬쩍 벤에게 관심을 옮긴다.

이는 해미가 자신의 욕망 실현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이 혼자 사회적 시스템의 계층 사다리를 넘지 못하니, 이러한 관계로 욕망을 실현하고 싶어 함을 엿볼 수 있다. 즉 해미는 거짓욕망을 향하고 있다. 자신이 제시한 방향성을 향하는 것이 아닌 타인에 의해 제시된 곳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해미가 거짓욕망을 향하고 있음은 해미의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해미와 종수가 술을 먹는 장면에서 해미는 굴을 까는 판토마임을 선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여기 굴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굴이 없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돼.”

팔루스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놓고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한다. 즉 해미는 있지도 않은 것을 파헤치려고 하지마.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며 살아가면 거짓 욕망이라도 성공, 곧 대타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다.

성형을 통해 자신의 본 얼굴을 지워버리고, 사회적 아름다움에 맞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스스로의 힘이 아닌 권력자와의 관계를 통해 기득권에 도달하려는 것. 이러한 해미의 모습은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구조이다. 정해진 미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사회에서 소외 된다. 또한 팔루스에 가까운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 물질적, 정신적 안정을 찾으려는 현상 또한 한국 사회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벤은 팔루스 그 자체라고 할 순 없지만, 등장인물 중 팔루스에 가장 가깝다. 벤의 입장에서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상상계의 존재들이 많아질수록 벤은 팔루스에서 멀어진다. 소타자의 공간들이 상징계에 너무 많으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벤은 비닐하우스를 태워 자신이 팔루스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한다.

벤의 집에서는 늘 파티가 열리고, 사람들이 가득 차있다. 그리고 벤이 자주 있는 장소는 카페이다. 벤이 존재하는 공간에는 누군가가 필히 있다. 벤의 공간은 상징계로, 타인의 시선에 의해 인정받는 공간이다. 벤이 사회적인 인물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벤이 사회적으로 성숙한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벤이 공항에서 종수의 차를 타고 인천을 빠져나오는 장면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한다. 통화의 내용과 말투로 미루어보아 언뜻 애인 같기도 하지만 통화의 상대는 어머니이다. 이 장면을 통해 벤은 아직 1차 나르시시즘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벤은 팔루스의 존재

로 영화에서 어떠한 욕망을 취득하려기보다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작은 세계들을 없애 버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해미와 종수는 작은 세계의 일원으로, 자신이 벤에 의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벤을 제거해야한다.

영화의 중반쯤 해미는 벤에 의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수는 벤의 뒤를 쫓아 벤에 대해 파헤친다. 이후 벤을 칼로 찔러 제거해버린다. 하지만 종수가 소설을 쓰는 장면을 노출시키면서 실제로 종수가 벤을 살해했는가, 아니면 소설 속의 내용인가와 같은 2가지 해석을 추측해 볼 수 있게 된다. 대타자의 세계에 이르기 위해 종수가 벤을 살해한 것은 종수가 욕망하는 대타자의 세계에 진입 할 수 없고, 감옥과 같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다른 의미의 대타자의 세계로 들어 갈 수밖에 없다.

이창동 감독은 현실 세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불을 저질러 범죄자가 되고, 감옥이라는 더 큰 대타자에 종속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창작의 주체로써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며 자기중심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창동 감독은 종수에게 자신을 투영하여 어떤 불을 태울 것인가를 청년세대에게 묻고 있다.

영화에서의 빈 집들은 단순 장소성이 아닌 의미를 함축한 ‘공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먼저, 해미의 집은 독특한 모양으로 작은 페니스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해미와 종수는 성관계를 맺는다. 관계를 맺는 도중 종수는 해미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행거 밑에 비춰진 빛을 응시한다. 이 빛은 팔루스를 상징하는 남산타워의 빛이 창을 통해 다시 비춰진 것이다. 팔루스도 가짜이며, 빛도 다른 사물에 의한 가짜 빛이다. 이 빛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은 종수가 남근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타자에 머물러있지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파주에 위치한 아버지의 집에서도 팔루스의 요소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공간 또한 아버지가 부재한 빈집으로 설정되어있다. 파주라는 공간은 대한민국에서 접경지대에 위치해있다. 그 접경지대는 대한민국의 팔루스라고 제시 된 곳(서울)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다. 집 안 티비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무언가를 사주면 여자가~”의 말을 하는 예능프로그램과 청년 실업률 그리고 트럼프가 대단한 것을 설명하는 마냥 이야기하는 뉴스가 흘러나온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을 나가면 대남방송이 들린다.

하지만 종수에게 대남방송은 전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집 안 속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자본주의 체제와 더 관련이 있음을 전화벨을 통해 보여준다. 수차례 종수의 집 전화벨이 울리는데, 매번 수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엔 어머니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확실 할 수는 없다. 어머니는 16년 만에 나타나 종수에게 자신의 빛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한다. 영화 속 전화벨은 단지 어머니와의 연결이 아닌, 종수에게 사회의 시스템에 나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름이다. 종수가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해야한다는 의미한다.

그러나 공장 아르바이트 장면에서 볼 수 있듯 종수는 명령적인 고용자의 말투에 기분 나빠하며 뛰쳐나간다. 고용자의 말투는 군대의 모습을 보이는데, 군대의 시스템은 곧 팔루스이다. 하나의 중심이 명령체제로 형성된 것을 설정하고 있다. 종수는 자기중심의 에고이스트로, 이러한 체제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수가 있는 집에서 울리는 벨은 종수에게 일을 하여 능력을 갖추라며 바깥으로 불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버지의 창고에는 아버지의 칼이 숨겨져 있다. 종수의 아버지는 상상계에 머물러있는 인물이다. 집에 걸린 여러 사진들은 상징계에서 배제 되어 소타자에 있는 종수의 아버지를 나타낸다. 종수는 파주 집 창고 구석에서 아버지의 칼들이 보관 된 곳을 열어본다. 칼로 형상화

된 아버지의 팔루스가 위폐 돼 있는 모습은, 자아가 있지만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의미한다.

상징계에 발현된 상상계의 틈. 이 틈은 종수 뿐 아니라 종수아버지에게도 대입가능 하다. 종수 아버지의 친구인 변호사는 종수에게 이런 말을 한다. 아버지는 그깟 자존심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면서, 두바이에서 돈을 벌어들였을 때 강남에 건물을 구입하라했던 자신의 조언을 들었으면 지금은 성공했을 것이다. 굳이 시골에 내려가 축산업을 하겠다는 이유를 들어보니, 자존심 때문이라던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학창시절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자존심 때문에 모든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며 종수 아버지의 삶을 단정 짓는다.

영화 속 종수 아버지는 청년세대를 지나온 인물이다. 종수 아버지는 영화 속에서 욕망 실현 중 하나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종수의 아버지는 '자존심' 하나로 자신의 청춘과 삶을 지내왔다. 물론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것 까지 포장 할 수 없지만, 종수 아버지의 자존심이 한 개인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강남에 건물을 구입하는 것처럼 보장된 성공의 삶에 뛰어들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변방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개인의 자아실현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자주 그리고 쉽게 잘못됐다고 판단한다.

결국 영화에서 종수의 아버지는 더 큰 대타자의 세계인 감옥으로 들어간다. 종수 아버지의 존재는 상징계 속에서 상상계를 발현하고자 했을 때, 어떤 위험부담이 따르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했던 것이다. 종수를 불러내는 전화들, 해미의 가짜 욕망. 이것들을 같이 종합해 본다면, 우리는 상상계에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종수가 뿌리가 되어 팔루스에 가까워 지고자하는 변화를 보인다.

이런 설정은 하나의 우주가 욕망을 가지고 실현하다보면 그것이 거대해져 또 다른 사람에게 지향점이 되고, 또 다른 우주가 욕망을 가지고 실현하면 새로운 지향점이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중심을 가지고 노력했을 때, 누구든 욕망을 실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감독의 메시지로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영역에서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본능을 어느 누가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는 개인의 욕망과 자아실현의 모습에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소타자 그리고 하나의 우주를 파괴하는 길이다. 우리는 종수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쉬이 무시하고 제재하려든다. 하지만 종수의 아버지의 자존심, 욕심, 고집 또한 한 개인과 우주의 삶이며, 꼭 대타자 세계의 틀에 자신을 구겨 넣을 필요는 없다. 나쁜 욕망은 없다. 개개인의 욕망은 존재 자체로 실현할 가치가 있다.

이창동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것이다. 어떠한 불을 태울 것인가? 이 물음에는 정답이 없다.

영화 '컨테이션'  
-과거에서 온 경고-

국어국문학전공  
20181115 한지인

<목차>

1. 서론
2. 본론
  - 2-1. 줄거리
  - 2-2. '컨테이션'의 흥행 요소
  - 2-3. 영화 속 감독의 의도
  - 2-4. 영화와 현실의 접점
  - 2-5. '컨테이션', 과거에서 온 경고
3. 결론

1. 서론

2020년은 우리에게 통째로 사라진 한 해였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COVID-19'라는 바이러스 하나로 전 세계가 고통 받았고, 지금 현재도 고통 받는 중이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생기기 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일상은 그 전과 많이 달라졌다.

이 시기에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산 영화가 있다. 바로 '컨테이션'이다. '컨테이션'은 2011년에 나온 영화로 벌써 9년 전 영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래된 영화가 왜 갑자기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

'컨테이션'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션'은 미국에 퍼진 MEV-1이라는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영화이다. 영화의 스토리 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전개되는 방식도 비슷하다. 이 영화는 과학적 고증과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의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평가되는 작품인 만큼, 더욱 코로나로 인해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과 비슷한 면이 많다.

어쩌면 이 영화는 과거에서 현재의 우리에게 온 경고일지도 모른다. '컨테이션' 속에서는 현 상황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장면들이 등장한다. 질병관리본부와 비슷한 조직이 국민들을 겁에 질리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염성이 있을 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장면도 그러한 장면 중 하나이다.

또한 도시가 폐쇄되기 전, 직책상 기밀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었던 치버 박사가 자신의 약혼녀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알려준 장면도 충분히 현실과 연결될 수 있는 부조리들이었다. 이것은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상황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외에도 바이러스로 인해 질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요소들이 영화와 현재 우리의 상황을 연결 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스토리를 9년 전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

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롭다. 과거의 영화가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경고 같았다.

과거에 이 영화를 경고로 본 사람이라면, 질병에 대해서 더욱 위협감을 느끼고 조심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영화를 그저 영화로 볼 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입해서 보지 않는다. 이 영화를 경고로 보았다면 어땠을까.

필자는 영화 속에서 현재와 비슷한 요소나 장면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러한 점점들을 통해서 왜 이 영화를 ‘과거에서 온 경고’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본문에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 2. 본문

### 2-1. 줄거리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은 한 슈퍼 감염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슈퍼 감염자는 여성이다. 그 여성은 ‘베스’인데 그녀는 홍콩에 출장을 다녀온다. 출장에서 카지노도 가고,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고 돌아온 그녀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앓는다. 그녀의 아들도 같은 증상을 보이고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결국 사망한다.

베스는 슈퍼전파자가 되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같은 증상으로 사망한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접촉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이다. 감염자의 수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미국 질병 통제 센터의 치버 박사는 감염 현장에 미어스 박사를 보내고 세계 보건 기구의 오란테스 박사는 최초 발병 경로를 조사한다. 그렇게 감염을 막아보고자 애쓰는 것이다.

이 와중에 블로그를 쓰는 프리랜서가 등장한다. 그는 진실이 은폐되었다고 주장하며 개나리액을 먹으면 질병이 나올 수 있다, 백신의 부작용은 아직 알 수 없다와 같은 음모론을 조장한다. 개나리액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나리액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 전에 현장에 나섰던 미어스 박사는 감염되어 죽고, 오란테스 박사마저 백신의 인질로 홍콩에서 납치된다. 결국 여러 연구를 통해 백신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초 감염 경로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영화가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베스의 남편이 우연히 베스의 카메라를 보는데 그 카메라 속에는 베스가 어떤 요리사와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후 영화는 감염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보여준다. 박쥐가 인근 농가의 돼지 축사로 날아간 것에서 바이러스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 비위생적인 곳에서 자란 돼지를 손질하던 요리사가 베스와 손을 잡고 인사하며 사진을 찍는다. 사진 위에 빨간 글씨로 DAY 1이라고 쓰여 있는 자막을 내보이고 영화는 끝이 난다.

### 2-2. ‘컨테이션’의 흥행 요소

‘컨테이션’은 2011년에 개봉한 영화로 스티븐 소더버그가 감독을 맡았다. 이 영화는 매트 데이먼, 기네스 팰트로와 같이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하여 주목을 받았지만 특정 캐릭터가 영웅과 같은 태도나 행동을 보여주며 부각되지 않는다. 물론, 미어스 박사의 경우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자신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덮을 것을 주는 등 봉사정신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것을 영웅적 성격이라고 보긴 어렵다. 상업 영화에서 영웅적 성격을 지닌 주인공들은 죽지 않고 그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모든 것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다른 상업 영화와의 차이가 이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준다.

감독은 2003년에 있었던 사스와 2009년 신종플루에 영향을 받아 대감염, 즉 팬데믹 영화를 기획하였다고 한다. 시나리오를 쓴 작가도 또한 WHO(세계보건기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신종플루에 대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대응을 살피고 조사하여 썼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과 영웅적 성격을 지니지 않은 주인공들은 영화의 흥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컨테이션’의 내용은 현실과 너무 유사해 보이며 영웅과 같은 캐릭터도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해피엔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결말까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흥행에 실패한 이유가 되었다.<sup>12)</sup>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9년 후 2020년, 결국은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 현실에서 정말 팬데믹이 일어났고, 그러한 상황을 예측한 것 같은 영화 내용이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션’의 흥행 요소는 영웅적 존재가 없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재난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된다.

### 2-3. 영화 속 감독의 의도

‘컨테이션’에서 감독의 의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다. 이 영화는 도입부보다 더 앞선 베스의 과거를 보여주는 끝 부분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 전까지는 바이러스 MEV-1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찾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 마지막에 아무런 대사 없이 화면만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들은 베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베스가 처음 바이러스를 얻게 된 배경과 사건에 대해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면 바이러스의 시작이 슈퍼 전파자였던 베스의 직장인 다국적 기업 ‘에임 엘더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임 엘더슨’의 무자비한 개발로 인해 숲이 망가지게 된 것이다. 이후 그곳에서 서식하던 박쥐가 인근 농가로 날아가서 농가에 있던 돼지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된 것이다. 베스는 첫 부분에서 그러한 개발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다. 결국 그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그녀의 서명 때문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것은 넓게 보면, 바이러스의 시작이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박쥐와 돼지로 인해 일어난 결과이더라도, 깊은 숲속에 있던 박쥐의 서식지를 없애 인근 농가의 돼지와 접촉하게 만든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감독은 영화를 시청하는 관객들에게 바이러스를 만들게 된 것도,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것도 인간이라는 것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닐까하고 예측해볼 수 있었다.

감독이 바이러스의 발생 장면을 마지막에 넣은 이유도 바이러스의 시작을 찾아 관객들도 같이 집중을 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렇게 뒷부분에 넣어서 영화에서 큰 반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반전을 통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았다.

### 2-4. 영화와 현실의 접점

---

12) 김연상, 원도연. (2020). <컨테이션>과 코로나19의 위험사회론 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1(1), 157-189.

영화 속에서 현재 상황과 비슷한 부분에 대해 찾아보고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영화는 현실에서의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그 중 필자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두 부분이었다.

우선 첫 번째로, 영화 속에서 MEV-1이라는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세계 보건 기구나 미국 질병 통제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전염병에 대처하는 행동 강령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하고,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영화 속에서 시민들은 개나리 액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설 때나, 마트에 갈 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 속 대부분의 질병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필자는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망사마스크를 썼던 사건이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턱에 마스크를 쓴 국회의원들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이 그러한 모범이 되는 행동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일반 시민들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다.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로 통조림과 같은 종류의 음식을 미리 저장해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나중에는 돈이 소용없어지고 사람들이 식료품점에 가서 돈을 안내고 제품을 가져오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조금 안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택배와 배달 서비스가 잘되어있어서 사재기 현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셋다운’이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했다. 또한 휴지를 더 사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영화와 현실이 맞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

## 2-5. ‘컨테이션’, 과거에서 온 경고

앞에서는 영화와 현실의 맞닿아있는 부분,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하지만 ‘컨테이션’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션’에서는 현실보다 좀 더 과장되어 있지만,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문제들도 담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과거에서 온 경고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경고에 대해 ‘재난 속 불평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여 장면을 찾아보고자 한다.<sup>13)</sup>

‘컨테이션’에서는 수많은 불평등이 등장한다. 우선적으로 미어스 박사의 죽음부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바이러스 연구를 위해 감염지역으로 가게 된 미어스 박사는 그곳에서 감염이 된다. 그래서 치버 박사는 그녀를 격리실이 설치된 비행기로 데려오려고 한다. 하지만 시카고에서 높은 직에 있는 의원의 감염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 결국 미어스 박사는 자신이 격리시설로 직접 지정한 체육관에서 사망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재난 속에서 같이 피해를 본 상황인데도 사회적 계급으로 인해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충분히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가 심해져

13) 김연상, 원도연. (2020). <컨테이션>과 코로나19의 위험사회론 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1(1), 157-189.

서 병상이 아예 없다면, 코로나에 걸린 노숙자보다 코로나에 걸린 국회의원을 더 병상에 눕히고자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WHO 홍콩지부 사람들이 오란테스 박사를 백신 때문에 납치한 이유도 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오란테스 박사를 납치하여 자신들의 고향으로 데려가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한다.

*“서양인들이 약 먹고 낫는 동안 우린 다 죽어가요”*

이 대사를 통해 의료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백신 개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홍콩의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홍콩이 의료 기술이 잘 발달되어있는 미국에게서 백신을 받아내려고 하는 발버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나중에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미국은 홍콩에게 가짜 백신을 주며 오란테스 박사를 데려오게 된다. 홍콩의 그러한 발버둥이 실패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우리의 현실의 부정적 미래와 맞닿아있다. 의료 기술이 좋지 않은 나라에 코로나 환자가 나올 경우, 사망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백신이 생긴 이후에도 영화 속에서는 불평등이 나타난다. 백신을 누가 먼저 받느냐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먼저 받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훑치려는 태도도 영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영화 속에서 백신 우선 수혜 대상자가 아닌데도 지위가 높다는 이유, 혹은 질병 관련 직장 근무자와의 친분을 이유로 미리 받는 경우가 생긴다. 현실에서 백신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누가 먼저 접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과 관련된 장면들은 영화가 주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들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면, 영화와 같이 격렬한 상황이 아니어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다.

### 3. 결론

영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긴다. 어떤 영화는 교훈을 주고, 어떤 영화는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를 통해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관객의 몫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컨테이션’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이 ‘경고’라고 생각했다. 무려 9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도, 지금의 상황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또한 현실적인 묘사로 영화의 서사가 이어지고, 영웅의 성격을 지닌 주인공도 없었다. 상업 영화에서 영웅이 없는 영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컨테이션’은 다른 영화에서 배제하는 과학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실제와 가까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 왜 굳이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자 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영화가 감독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닐까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컨테이션’을 경고로 볼 수 있는 ‘영화와 현실의 접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말 두 곳은 어디가 현실인지 모를 정도로 닮아있었고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 좀 더 심해진다면, 혹은 우리나라보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나라라면, 영화와 다른 점이 없을 지도 모른다. 그만큼 '컨테이션'은 현실적으로 재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그러한 재난 속 비극적인 장면들이 우리의 미래 상황이 될 지도 모른다. 그 장면들이 현재의 미래가 되지 않게 '컨테이션'을 경고로 바라보며 이 영화를 감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언상, 원도연. (2020). <컨테이션>과 코로나19의 위험사회론 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21(),



## 공모전 심사평

### <시 부문>

문예창작공모전의 여러 분야에서 가장 응모작이 많은 분야는 단연 시다. 173편의 작품을 읽으면서 디지털매체의 발전과 영상 우위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시는 여전히 마음의 거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달이 뜨는 이유」는 언니에 대한 그리움과 달의 이미지가 조화롭게, 그러면서도 낯설게 결합되어 있는 수작이다. 함께 투고한 「검은 길」과 「소음」 역시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어, 전체적으로 시적 역량이 안정되어 있는 점을 높이 샀다. 우수상 수상작으로 결정한 「밥 핀다」는 ‘밥 핀다’는 평범한 말에 주목하여 밥 먹고 먹는 일의 수고로움을 시로 만들어낸 점이 좋았다. 이렇듯 시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말에서 탄생한다. 「마음에도 휴식이 필요해」는 좌절과 절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아주 발랄한 운동성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는 우리도 이와 같이 데굴데굴 굴러가보자. 「너」에서 ‘너’는 나의 세계이자, 여행지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일이라는 통찰이 빛나는 작품이다. 「꿈들이 옮겨가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사는 인간적 세계에 대한 휴머니즘적 통찰을 보여준다. 다소 투박하지만 진솔한 언어가 마음을 울린다. 「지나간 자리」는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감정을 매달린 사과에 농축시켜 보여준다. 두 번째 연은 다소 사족처럼 보이지만, 간결하고도 함축적인 언어가 전달하는 감정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봄꽃」의 언어는 봄꽃처럼, 봄빛처럼 곧 사라질 것처럼 반짝거린다. 너무 짧아서 아쉬운 봄날의 순간이 이 시의 언어 속에서 빛난다.

심사위원 박슬기

### <소설 부문>

고려 때 문인 이규보는 그의 한시 <시벽(詩癖)>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이 이미 칠십을 넘었고/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이제는 시 짓는 일 그만둘 만하건만/ 어찌해서 그만두지 못하는가.  
아침엔 귀뚜라미처럼 읊조리고/ 저녁엔 올빼미인 양 노래하네.  
어찌할 수 없는 시마란 놈/ 아침저녁으로 몰래 따라다니며  
한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날이면 날마다 심간(心肝)을 깎아내/ 몇 편의 시를 쥐어짜내니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지고/ 살도 또한 남아있지 않다오.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 이 모양 참으로 우습건만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 천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  
손바닥 부비며 혼자 크게 웃다가/ 웃음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이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려워라.

이규보는 자신에게 달라붙은 시마(詩魔) 때문에 시 쓰기를 멈출 수 없다고 하였다. 후대에 남길 만한 훌륭한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살이 내릴 정도로 괴로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평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설을 쓰는 것도 비슷할 것이다.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스스로 돌아보아 뿌듯한 일도 아니건만 우리는 쓴다.

올해 문예창작공모전 소설부문에 제출된 작품은 총 16편이었다.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회 제 분야에서 침체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창작열은 식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작품 전개의 개연성, 문장 표현력 등도 예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향상된 기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작품들이 주제적으로 '나'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침잠하고 있을 뿐,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전체적으로 초반부의 패기와 흥미로움을 결말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발목유령>, <7시 57분>, <선문답>은 각각 가족, 친구를 잃은 아픔과 극복, 혹은 극복 불가능을 다룬 작품이다. <발목유령>은 죽은 동생이 3년마다 되돌아온다는 착상의 기발함이, <7시 57분>은 장례 과정의 먹먹함을 전달하는 기법이, <선문답>은 그 바의 한구석에 독자를 앉혀 놓고 대화를 엿듣게 하는 듯한 생생함이 좋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경험 서술이라는 느낌만이 드는 점이 아쉬웠으며, 이는 <내가 걷는 길>도 마찬가지였다.

<고슴도치 아이>, <크레파스의 정답>은 어린이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고슴도치 아이>는 '가시'라는 은유를 사용하면서도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냈으나 결말이 지나치게 교훈적으로 맺어진 점이 아쉬웠다. 이는 <크레파스의 정답>에도 해당된다.

기법이 독특한 작품도 있었다. <평범한 선화씨>는 집단 상담이라는 장치를 통해 여러 인물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배치한 점이 돋보였으며, <소녀와 신>은 다듬어 웹소설의 프롤로그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듯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 당선작에서 제외했다.

장려로 선정한 <낭만주의>는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었다. 과거와의 엄밀함과 결별을 울진, 할머니, H라는 공간과 인물을 통해 그려냈으나 문장이나 표현의 측면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이 강했다. 역시 장려로 선정한 <눈동자>는 재개발 지역의 이권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짜퉁>은 상층에 대한 속물적 동경을 지닌 인물들을 등장시켜 흥미를 끌었으나 두 작품 모두 인물들이 너무 전형적이라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사가 진행되어 익숙한 느낌을 준 것이 아쉬운 점이였다.

우수작으로 선정한 <세컨드 이방인>은 주전공, 복수전공 간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자아정체성 탐색이라는 진부한 주제에 달아있지만 유려한 문장으로 뻥함을 덜어냈다. <운명과 장난>과 <야누스>는 최우수상과 자리를 다툰 작품이다. 둘 다 서두는 강렬한 흡입력을 보여주었지만 뒷심이 부족했다는 평을 남긴다. <운명과 장난>의 결말은 작위적이라는 인상을, <야누스>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호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최종작으로 선정한 <긴머리양>은 계속해서 독자의 뒤통수를 치는 초반부의 구성을 높이 사고 싶다. 등장인물에 대한 상이 머릿속에서 완성될 무렵, 작가는 이것이 그저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다만 결말은 역시 아쉬운데, 그 아쉬움이 재미있는 소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독자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주면 좋겠다.

신입생 특별상 <리반: 가면을 쓴 글>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다. 완벽하게 허구적인 시공간과 인물을 직조하여 한편의 풍자극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이야기꾼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한다.

어쩌면 소설마(?)가 붙었는지 모르는 16인의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의 고통과 별개로 즐겁고 행복했음을 고백한다. 내년에는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심사평을 마친다.

심사위원 이승은

#### <비평 부문>

이번에 출품된 비평은 모두 영화 비평이다. 고전 영화에서부터 현재 상영 중인 영화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한림대 학생들의 비평적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평은 자신이 이끌었던 지점을 정확히 포착할 때 매력을 지닌다. 그러한 점에서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선정한 「폭력이라는 글자의 무게-시계태엽 오렌지」는 아주 불편한 ‘폭력’이 어떻게 변주되면서 곱씹을 만한 주제로 표출되는지를 잘 분석한 비평이다. 수상작으로 선정한 두 개의 비평 역시 분명한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불편함 속 숨겨진 의미」는 영화에 나타난 개인의 광기와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 광기를 잘 포착했다. 「흔한 지렁이들의 용기 있는 반란」은 인물들의 갈등에 주목하여 인물을 분석하였는데, 평범한 사람들에게 숨겨진 영웅적 면모를 잘 드러내었다고 보았다. 이 외에 수상작으로 선정할 만한 응모작이 없지는 않았지만, 비평 이론에 과도하게 기대거나 영화에 대한 잡다한 인상을 서술하는 등 ‘이끌림의 지점’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자신의 ‘안목’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심사위원 박슬기